

국립국어원 2023-01-39

발 간 등 록 번 호

11-1371028-000972-01

국민의 문해력 진단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연구 책임자
허 준

2023. 12. 01.

제 출 문

국립국어원장 귀하

국립국어원과 체결한 연구용역 계약에 따라 ‘국민의 문해력 진단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기초 연구’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사업 기간: 2023년 4월 25일 ~ 2023년 12월 1일

2023년 12월 1일

연구책임자: 허 준(영남대학교)

연구 기관: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허 준

공동연구원: 이지혜, 김혜정, 길혜지, 김지현

보조연구원: 이예지

<국문 요약>

국민의 문해력 진단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기초 연구

본 연구는 문해교육의 수준별, 세대별 확장의 필요성에 근거하여, “읽기 중심의 국민 문해력 향상”을 위한 진단 도구와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를 목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제2장 ‘문해 개념과 의미’에서는 문해 개념과 최신 이론 동향을 분석하였다. 이는 국민 문해력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진단 도구 개발을 위한 이론적 좌표를 설정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의 저학력, 저문해 중심의 문해 개념의 틀을 넘어선, ‘확장형’ 문해 개념의 정초를 위한 기초 이론을 분석하는 작업으로 이루어졌다. 즉, 문해를 둘러싼 주요 쟁점과 기본 문해 개념을 검토함으로써 문해 의미의 다양성을 고찰하였고 삶의 기본 소양으로서 문해의 ‘확장 영역’인 미디어문해, 정치문해, 건강문해 등을 분석하였다. 또한 문해교육이 실현되는 영역인 ‘정책 영역’의 문해 담론들을 검토하여, 기본권이자 성인기초교육으로서 문해, 국어능력으로서 문해, 직업기초능력으로서 문해 의미를 분석하였다. 이 장에서는 또한 행동주의에서부터 사회 구성 이론까지 문해 관련 주요 이론을 검토하고 읽기 이론 분석을 바탕으로 문해교육의 주요 구성 요소들을 도출하였다.

제3장 ‘문해교육 및 진단 체제 운영 현황’에서는 문해교육과 문해력 진단과 관련한 국내외 현황을 분석하였다. 국내 문해교육 프로그램 현황으로 국립국어원의 ‘국어문화학교’와 국어문화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국가문해교육센터를 중심으로 한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 국가 평생학습 포털 ‘늘배움’,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인 K-MOOC, 한국직무능력표준원의 NCS, EBS의 ‘EBS 당신의 문해력+’ 프로그램 등을 분석하였다. 국내의 문해 진단 및 조사 도구로는 국가승인통계로 3년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실시하는 성인 문해능력 조사와 국립국어원이 실시한 국민의 기초 문해력 조사와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조사 등을 분석하였다. 해외 사례로는 아일랜드, 호주, 미국, 유럽연합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아일랜드의 ‘삶을 위한 성인 문해’ 정책과 국가 역량체계(NFQ)와 연계한 문해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사례, 호주의 성인 영어활용능력과 문해력 지원 정책을 적용한 성인 이민자 영어 프로그램(AMEP), 교육 및 고용을 위한 역량 훈련 프로그램(SEE), 미국 연방정부의 성인교육 정책과 성인영어활용능력표준 등 영어활용능력 진단 체계, 유럽연합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유럽 공통 언어평가 기준(CEFR)의 개발과 활용 사례 등을 분석하였다.

제4장 ‘전문가 수요 조사 분석’에서는 국어교육, 성인 문해, 평생교육, 직업교육, 미디어교육 등 전문가 24명을 대상으로 한 개별 면담과 초점 집단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 내용은 문해교육 현황, 향후 문해교육 방향, 생애 주기별 문해교육 요구, 문해교육 핵심 내용 영역, 문해교육 지원 정책 요구 등 네 가지 범주로 분석할 수 있었다. 첫째, 문해교육 현황을 보면 국어문화원은 언어 순화, 공공언어 개선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고, 교육부 중심의 성인 문해교육은 기초문해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직업교육 영역의 경우 직업기초능력 차원에서 문해교육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었다. 둘째, 향후 문해교육의 방향은 행복한 삶, 주체적 삶, 소통을 위한 문해교육, 사회적 실천으로서 문해교육, 기초문해를 넘어 ‘문해 자체’에 집중하는 문해교육으로 제시되고 있었다. 셋째, 생애 주기별 접근에서는 세대별 확장과 다양화를 위한 노력과 세대별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넷째, 문해교육 프로그램 개발 요구를 보면, 기존 성인 문해교육에서는 문해 목표 수준의 상향이 필요하고, 직업교육에서는 기초능력과 사회적 언어생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디어문해, 디지털문해, 금융문해, 건강문해, 시민문해 등 문해 확장 영역과 연계한 문해교육 지원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5장 ‘국민 문해교육 체제 개념 구성(안)’ 장에서는 문해 개념 분석, 문해교육 및 진단 현황 분석, 전문가 수요 조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문해에 대한 정의, 문해교육의 목표, 문해 맥락, 문해 기능, 텍스트 양식, 학습자 등 문해교육 체제 구성 요소를 제시하였으며, 읽기교육, 성인 문해, 직업교육, 미디어교육, 평생교육 분야 전문가 29명이 참여하는 설문조사를 통해 요소들의 전문가 타당화를 실시했으며, 초기 구성안에 대한 수정 작업을 거쳐 최종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국립국어원에서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는 문해교육 프로그램 주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아이디어를 범주화하여 제시하였다.

제6장 ‘국민 문해교육 프로그램 및 진단 체제 정책 방안’ 장에서는 2장~5장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방안으로서 3개 영역 10대 핵심 과제를 제시하였다. 3대 영역은 1) 문해교육 프로그램 개발 2)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지원, 3) 문해력 진단 체제 구축과 운영으로 제안하였으며 10대 핵심 과제를 ① 주제형, 패키지형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② 문해교육 도서 개발, ③ 문해교육 온라인 콘텐츠 개발, ④ 문해교육 전문가 양성 과정 개발, ⑤ 국민 문해교육 플랫폼 구축과 운영, ⑥ 국어문화원 연계 국민 문해교육 활성화 사업, ⑦ 대외 연계형 프로그램 운영 지원, ⑧ 문해교육 전문성 강화 사업, ⑨ 문해력 진단 도구의 개발, ⑩ 문해력 진단 체제의 구축과 운영 등으로 제안하였다. 또한, 핵심 과제의 연도별 추진 일정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문해교육, 문해, 성인 문해, 문해교육 프로그램, 문해력 진단, 읽기교육

<Abstract>

Foundational Research for Diagnosing and Developing Literacy Programs for the Public

This study, aimed at addressing the imperative of broadening literacy education across different proficiency levels and generations, serves as foundational research for the development of diagnostic tools and educational programs under the framework of "reading-centered national literacy improvement." The research outcomes are delineated as follows:

In Chapter 2, titled "Literacy Concepts and Meanings," researchers conducted an analysis of literacy concepts and contemporary theoretical trends. The study aimed to establish theoretical coordinates for the development of educational programs and diagnostic tools by scrutinizing underlying theories that transcend the existing concept of literacy, traditionally oriented towards low education and low literacy. This chapter delves into the diverse meanings of literacy, exploring expanded areas such as media literacy, political literacy, and health literacy as essential life skills. Additionally, it investigates literacy discourses in policy areas, emphasizing literacy as a basic right, adult education, Korean language proficiency, and basic vocational competency.

Chapter 3, "Operation Status of Literacy Education and Diagnostic System," offers an analysis of the current state of literacy education and diagnosis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The study reviews various domestic literacy education programs and diagnostic tools, including those offered by the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the National Center for Literacy Education, the National Lifelong Learning Portal, K-MOOC, and EBS's "EBS Your Literacy+" program. Internationally, cases from Ireland, Australia, the United States, and the European Union are explored, emphasizing policies, programs, and diagnostic systems.

In Chapter 4, titled "Analysis of Expert Demand Survey," the researchers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and focus group interviews with 24 experts

in language education, adult literacy, continuing education, vocational education, and media education. Findings are categorized into areas such as the current state and future direction of literacy education, needs by life cycle, core content areas, and policy requirements for literacy education support.

Chapter 5, "Conceptual Framework of the National Literacy Education System," presents components of the literacy education system, including definitions, goals, contexts, functions, text types, and learner categorizations. Expert validation is conducted through a survey involving 29 specialists, leading to the proposal of a final draft.

In Chapter 6, "Policy Proposals for National Literacy Education Programs and Diagnostic System," ten key tasks are outlined in three areas: development of literacy education programs, operation and support of programs, and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a literacy diagnostic system. These tasks encompass the creation of thematic programs, online contents, professional training courses, and a national literacy education platform, in addition to enhancing expertise and implementing a comprehensive diagnostic system.

This report concludes with a year-by-year implementation schedule for the proposed tasks, contributing to the advancement of national literacy education and diagnostic systems.

Key words: literacy education, literacy, adult literacy, literacy education program, literacy diagnosis tools, reading education

차 례

제1 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 내용	6
3. 연구 방법과 절차	11
4. 기대 효과	14

제2 장 문해 개념과 의미

1. 문해 개념의 이해	17
2. 읽기 이론	34
3. 시사점	49

제3 장 문해교육 프로그램 및 진단 체제 운영 현황

1. 국내 문해교육 및 진단 체제 현황	53
2. 해외 문해교육 및 진단 체제 현황	94
3. 시사점	124

제4 장 전문가 수요 조사 분석

1. 개요	129
2. 분석 결과	130
3. 시사점	186

제5 장 국민 문해교육 체제 개념 구성(안)

1. 국민을 위한 문해교육 프로그램 체제(안)	191
2. 개념 구성안 전문가 타당화	196
3. 수정 사항	213
4. 문해교육 체제 개념 최종안	219
5. 문해교육 프로그램 구성안	221

제6 장 문해교육 프로그램 및 진단 체제 정책 방안

1. 개요	233
2. 영역별 추진 과제	233
3. 단계별 추진 과제	252

참고 문헌	255
--------------------	------------

부록

[붙임] 국민 문해교육 체제 개념도 구성을 위한 전문가 의견 조사	265
--	-----

표 차례

<표 I -1> 연구내용1: 문해력 개념 검토 영역	7
<표 I -2> 연구내용2: 문해 프로그램과 진단 및 조사 도구 현황 분석 내용	8
<표 I -3> 연구내용3: 문해교육 수요 조사 내용	9
<표 I -4> 연구내용4: 문해교육 체제 개념 구성	10
<표 I -5> 연구내용5 : 정책 방안	10
<표 II -1> 2차 성인 역량 조사 내용	28
<표 II -2> 주요 문해 이론과 교육과정 모형	32
<표 II -3> 2022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	36
<표 II -4> 국어과 교육에서 중점 문해력의 등장과 배열	41
<표 II -5>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읽기교육 내용의 계열성 ..	42
<표 II -6> 한국과 미국의 CCSS 비교	43
<표 II -7> PIAAC의 성인 능력 조사 측정 영역 요약	44
<표 II -8> NAEP의 읽기 평가 틀과 개선안	45
<표 II -9> 읽기 능력의 구성요소 : 해독 + 어휘 + 독해	46
<표 II -10> PIAAC(2018)과 PISA(2018)의 인지 전략	48
<표 II -11> PIAAC(2018) 3가지 평가의 평가 틀 비교	48
<표 II -12> PIAAC, PISA, NAEP의 Framework 비교	49

<표 III-1> 국어문화원별 프로그램 개요	55
<표 III-2> 국어문화원 프로그램 교육과정 개요	57
<표 III-3> 국가문해교육센터 발간 생활문해 교재	60
<표 III-4> 생활문해교육 방송 학교 가기 좋은 날(시즌6) 주요 목차 ...	61
<표 III-5> 2019년 문해교육 특성화 프로그램	62
<표 III-6> 늘배움 검색 결과 요약: 평생교육 기관 운영 프로그램	63
<표 III-7> K-MOOC 문해 관련 강의 목록	65
<표 III-8> KOCW 문해 관련 강의 목록	67
<표 III-9> 직업기초능력 정의, 10대 영역 및 34개 하위영역	70
<표 III-10> KSAEDU 문해력 관련 프로그램 예시	72
<표 III-11> 언어(국어) 세부 영역별 문항 구성	75
<표 III-12> 2023 국어 기초 학습 강의 계획안	76
<표 III-13> EBS 당신의 문해력+ 프로그램 개요	77
<표 III-14> 한국인의 문해 실태조사 연구에서의 단계별 문해 개념 ...	79
<표 III-15> 「한국 성인의 문해 실태에 관한 OECD 국제 비교 조사」 문해 영역별 정의 및 결과	80
<표 III-16> 「한국 성인의 비문해 실태조사」 영역 정의 및 하위 영역 구성 ·	81
<표 III-17> 「한국 성인의 비문해 실태조사」 수준과 판정 기준	82
<표 III-18> 성인 문해능력 조사 영역 구성 및 결과	86

<표 III-19> 국민의 기초문해력 조사 문항 개발 틀	87
<표 III-20> 국민의 기초문해력 조사에서의 수준 구분 및 판정 결과	88
<표 III-21>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조사」의 조사 도구 및 조사 결과	89
<표 III-22> 국내 주요 성인 문해능력 조사 개요 종합	92
<표 III-23> ACSF 읽기 영역 5개 등급별 평가지표	104
<표 III-24> ISLPR 척도 12개 등급별 주요 특징 및 활용 예시	105
<표 III-25> AIR의 성인교육을 위한 영어활용능력 표준과 표준별 달성 수준 진단 기준	110
<표 III-26> CEFR의 6개 등급별 진단 기준: 영어	120
<표 IV-1> 전문가 수요 조사 참여자 명단(24명)	129
<표 IV-2> 문해교육 운영 현황	130
<표 IV-3> 문해교육 방향	135
<표 IV-4> 생애 주기별 접근	141
<표 IV-5> 문해교육 프로그램 개발 요구	152
<표 IV-6> 문해교육 지원 요구	168
<표 V-1> 문해교육 체제 개념 구성 요소 - 맥락	192
<표 V-2> 문해교육 체제 개념 구성 요소 - 문해교육 목표	193
<표 V-3> 문해교육 체제 개념 구성 요소 - 문해 기능	193
<표 V-4> 문해교육 체제 개념 구성 요소 - 문해 텍스트 양식	194
<표 V-5> 문해교육 체제 개념 구성 요소 - 문해 학습자	194

<표 V-6> 전문가 타당화 설문조사 참여자 (29명)	197
<표 V-7> 국민 문해교육 체제의 개념적 구성요소의 타당도(방향)	198
<표 V-8> 국민 문해교육 체제의 개념적 구성요소-방향에 대한 전문가 주요 의견	199
<표 V-9> 국민 문해교육 체제의 개념적 구성요소의 타당도(맥락)	200
<표 V-10> 국민 문해교육 체제의 개념적 구성요소-맥락에 대한 전문가 주요 의견	201
<표 V-11> 국민 문해교육 체제의 개념적 구성요소의 타당도(목표)	202
<표 V-12> 국민 문해교육 체제의 개념적 구성요소-목표에 대한 전문가 주요 의견	203
<표 V-13> 국민 문해교육 체제의 개념적 구성요소의 타당도(문해 기능) ..	204
<표 V-14> 국민 문해교육 체제의 개념적 구성요소-문해 기능에 대한 전문가 주요 의견	204
<표 V-15> 국민 문해교육 체제의 개념적 구성요소의 타당도(문해 텍스트 양식)	206
<표 V-16> 국민 문해교육 체제의 개념적 구성요소-문해 텍스트 양식에 대한 전문가 주요 의견	206
<표 V-17> 국민 문해교육 체제의 개념적 구성요소의 타당도(문해 학습자 유형)	207

<표 VI-8> 대외 연계형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 내용 ..	245
<표 VI-9> 문해교육 전문성 강화 지원 사업	248
<표 VI-10> 문해력 진단 도구의 설계	250
<표 VI-11> 문해력 진단 체제 구축과 활용	252
<표 VI-12> 단계별 추진 과제	253

그림 차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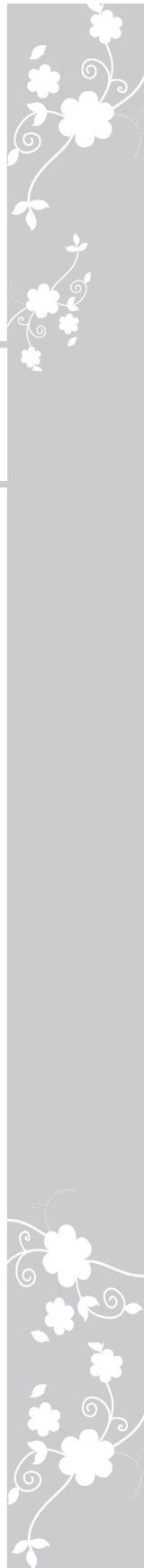
[그림 I -1] 읽기 영역 수준 등급의 연령대별 분포	4
[그림 I -2] 추진 절차	13
[그림 II -1] 문해 의미의 다양성	18
[그림 II -2] 문해 관련 여러 의미들	21
[그림 II -3] 21세기 학생들이 요구하는 16가지 기술(skill)	29
[그림 II -4] 읽기 능력의 내용 요소(구인)	38
[그림 III -1] 늘배움 문해교육 프로그램 검색 결과 화면	63
[그림 III -2] 직업기초능력 가이드북: 학습 내용 확인하기 (의사소통능력 편)	70
[그림 III -3] NCS [01.의사소통능력] 2. 문서이해 능력 강좌 중 일부	71
[그림 III -4] HRD-Net 프로그램 예시	73
[그림 III -5] 전문대학기초학습지원센터 기초 학습 강의	75
[그림 III -6] 2020년 성인 문해능력 조사 판정 논리	85
[그림 III -7] 런 위드 날라(Learn with NALA)의 수업 검색창	96
[그림 III -8] 아일랜드의 국가 역량 체계(NFQ)	97

[그림 Ⅲ-9] 런 워드 날라의 수업 검색창: 수준 1 수업 검색 결과 ...	99
[그림 Ⅲ-10] 런 워드 날라의 수업 검색창: 수준 3 수업 검색 결과	100
[그림 Ⅲ-11] CEFR의 6개 등급	119
[그림 Ⅲ-12] 언어 프로필 예시 1: 언어별 활용 능력 프로필	122
[그림 Ⅲ-13] 언어 프로필 예시 2: 학습자별 다언어활용능력 프로필	122
[그림 Ⅲ-14] CEFR과 캠프리지 영어 평가 척도	123
[그림 V-1] 문해교육 프로그램 체제 개념 구성 단계	191
[그림 VI-1] 문해교육용 도서	236
[그림 VI-2] 온라인 문해교육 콘텐츠 사례	239
[그림 VI-3] 국립국어원 문해교육 플랫폼 개념도	242
[그림 VI-4] 대외 연계형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245
[그림 VI-5] 문해교육 전문성 강화 사업 영역	246
[그림 VI-6] 다면적 문해 진단 결과 예시	249
[그림 VI-7] 국민 문해력 진단 체제의 활용	251



제1 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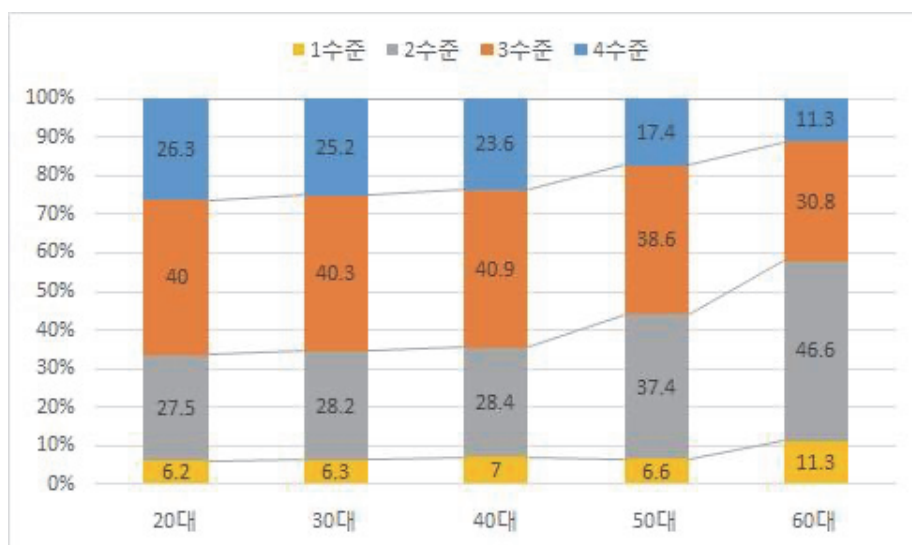
오늘날 문해력이 큰 화두가 되고 있다. ‘심심한 사과’, ‘무운을 빈다’ 등의 어휘에 익숙하지 않은 세대가 등장하면서 젊은 세대의 문해력이 문제라는 보도도 이어졌다(한국일보, 2022. 8. 27). 문해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하듯, 한국교육방송에서는 ‘여러분의 문해력’이라는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큰 호응을 얻기도 하였다. 시중에는 문해력 개발을 돕는 서적들이 등장하였다. 최근, 디지털 기기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문해력에 관한 관심은 디지털문해의 문제까지 확산하고 있다(Handsfileds, 2020; Mills, 2016).

전통적으로 문해교육은 글을 모르거나 문자 활용 능력이 낮은 사람들을 위한 교육을 의미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문해교육은 저학력 성인을 위한 기초교육의 성격을 갖고 있었다. 「평생교육법」에서는 문해교육을 문자해득을 포함한 기초교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이나 문해교육 학력인정제도 등 관련 사업과 정책도 저학력 성인에 맞춰 있다(이지혜, 채재은, 2023; 허준, 2008, 2023). UNESCO나 주요국들의 성인 문해교육 정책도 비문해 상황에 있는 성인이나 일상생활이나 경제생활에 필요한 충분한 문해력을 갖추지 못한 성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이희수, 2023). 그렇기에 최근 문해교육의 관심은 전통적인 문해교육의 틀을 넘어선 것이다.

문해 또는 문해교육에 대한 확장적 이해와 관심이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다. 실천과 이론 영역에서 기초문해를 넘어선 문해교육에 관한 이해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UNESCO는 문해의 의미를 비문해, 반문해, 문해로 구분하여 읽기, 쓰기, 셈하기 등 3Rs(reading, writing, arithmetic) 중심의 기초문해 개념을 갖고 있었지만, 최근에는 세계화로 다언어적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늘면서 읽기와 쓰기뿐만 아니라 말하기를 포함한 전반적인 언어 능력으로 보고 있다(UNESCO, 2013). 정보문해, 미디어문해, 시각문해 등 새로운 미디어 환경의 특성을 반영한 문해 영역이 등장하기도 한다(손준종, 2000). 현대인들에게 요구되는 기본 소양 수준이 높아지고 비문해자들이 처한 복합적 삶의 문제가 고려되면서 정치문해, 경제(금융)문해, 건강문해, 문화문해 등의 개념이 쓰이기도 한다(Edwards, Ranson & Strain, 2002). 주요 문해 이론에서도 문해는 읽기와 쓰기를 중심으로 하는 인지적인 과정이면서도 시대적 상황과 문화적 배경을 반영한 사회문화적 실천으로 이해되고 있다. 또한, 매체 환경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면서 문자 중심의 문해는 기호, 상징, 영상 등 다양한 텍스트 양식을 포함한 다중문해(multi literacy) 등으로 외연을 확장하고 있다(Handsfileds, 2020; Mills, 2015).

문해교육 정책 영역에서도 문해는 다양한 의미를 갖는다. 국제적으로 기초문해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UNESCO도 문해교육에 대한 합의된 개념은 없다고 밝히고 있다(UNESCO, 2013). 「평생교육법」에 따라 교육부가 주도하고 있는 성인 문해교육 사업에서 문해는 18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초등학교, 중학교 수준의 생활문해의 성격을 갖는다. 실제로, 2006년도부터 교육부가 실시하고 있는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에서는 노인 학습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허준, 노일경, 2011). 교육부는 의무교육의 관점에서 저학력 성인의 학력 보완과 기초교육의 관점에서 문해교육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국립국어원은 「국어기본법」에 따라 표준어와 문법 등, 어문 규정과 국어능력의 관점에서 문해교육에 접근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직업기초능력의 관점에서 문해 관련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외 과학기술부에서는 디지털 환경에서 디지털 역량에 초점을 둔 디지털문해, 금융감독원에서는 경제와 금융에 관한 기본 소양을 의미하는 금융문해 관련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급속한 사회 변화와 매체의 발전으로 노년 층, 저학력 중심의 문해교육은 도전받고 있다. 한국 성인 및 학생(만 16세 이상)의 문해력이 전 연령대에서 국제 수준에 미흡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OECD, 2013). 2018년 국립국어원에서 발표한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읽기 영역에서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 국어 과목을 이수한 국민에게 기대되는 능력을 부분적으로 획득하였거나(20%~50%) 미흡하게 획득한 수준(20% 미만)인 1수준과 2수준에 해당하는 경우가 40.4%에 달한다. 세대별로 보아도 1수준과 2수준이 33.7%에서 57.9%에 걸쳐 분포하고 있다. 전 세대별로 상당한 비율의 인구가 읽기 중심의 문해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4수준을 기준으로 본다면 문해교육 필요 인구는 80%에 가깝다(국립국어원, 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 2018).



[그림 I -1] 읽기 영역 수준 등급의 연령대별 분포

*출처: 국립국어원, 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2018). 2018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조사. p.339

이 점에서 문해교육은 다양한 수준에서, 그리고 전 생애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심리학적 관점에서 문해력의 발달은 인지 능력의 쇠퇴에도 불구하고 경험의 도움, 또는 경험의 지평 위에서 평생에 걸쳐 일어나는 인지적 과정이다. 문해가 현대사회의 상징 체계에 진입하는 아동 청소년기의 우선적인 생애 과업이기도 하지만 문해력은 전 생애에 걸친 계발을 필요로 하는 생애 기본 능력이기도 하다(Lesgold & Welch-Ross, 2012). UNESCO는 「성인 학습과 교육에 관한 국제 보고서: 문해교육 다시 생각하기, *Global Report on Adult Learning and Education: Rethinking Literacy*」에서 문해교육에 대한 평생학습 구조 틀을 제시하는데, 문해교육은 인간의 학습 경로에 따른 학습과 교육 양식의 통합을 추구하는 핵심적인 실천 원칙으로 제시된다. 여기에서 문해는 저학력 상태, 또는 비문해 상태에서 탈출함으로써 종결되는 상태가 아니라 학습자의 생애 속에서 지속해서 이루어지는 평생학습의 과정이다. 즉, 문해는 청소년 및 성인이 전 생애적 학습 기회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필수불가결한 기반이며, 나이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계속 활동이다. 또한 일정 시기에 습득한 문해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실될 수 있기에 문해력의 개발은 전 생애에 필요한 평생학습의 과정이다(UNESCO, 2013).

우리나라 문해교육의 생애 제약성과 기초문해 중심의 한계 때문에 생애 단계별 접근을 위한 체제와 그에 따른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김명숙, 어재영, 이성엽, 2017). 현재 문해교육은 비문해 또는 준문해 수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장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초등 문해교육 과정에서도 초등학교 1~2학년에 해당하는 1단계의 비중이 높다(허준, 양은아, 2015). 국립국어원의 국어문화학교와 EBS의 문해교육 콘텐츠에서 높은 수준의 문해교육을 제공하고 있지만,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문해교육 관련 사업들은 중학 미만의 저학력 인구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요구하는 문해 수준이 지속해서 높아지고 있어 기초문해뿐만 아니라 고급문해(advanced literacy)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고등교육이 보편화되면서 고등교육 수준의 문해력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Lesgold & Welch-Ross, 2012). 따라서 문해능력에 대한 전 생애적 요구를 고려한다면, 문해교육에서 목표로 하는 문해력 수준을 문자해득을 중심으로 하는 기초문해에서 현대사회에서 요구되는 확장된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한 고급문해까지 포괄할 필요가 있다. 최근 어휘력 부족, 디지털 매체 소통력 부족 등으로 세대별 문해력 저하 논란 발생에 대한 국민의 소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문해교육의 영역을 수준별, 세대별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문해교육의 수준별 세대별 확장의 필요성에 근거하여, ‘읽기 중심의 국민 문해력 향상’을 위한 진단 도구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로서 국립국어원을 중심으로 시행할 수 있는 영역별, 세대별, 수준별 교육 프로그램과 문해력 평가와 진

단 도구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수행을 목적으로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의 성인 문해교육 정책이 포괄하지 못한 중등 학력 이상의 높은 수준의 문해력 향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로서 국가 기관마다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문해교육 정책들을 연계하고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 내용

‘읽기 중심의 국민 문해력 향상’을 위한 진단 도구와 프로그램 개발 기초 연구를 목적으로 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를 수행하였다.

2.1. 최신 문해 이론과 개념 분석

최신 문해 이론과 개념 분석은 국민 문해력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진단 도구 개발을 위한 이론적 좌표를 설정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의 저학력, 저문해 중심의 문해 개념의 틀을 넘어선, ‘확장형’ 문해 개념의 정초를 위한 기초 이론을 분석하는 작업으로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1) 문해를 둘러싼 주요 쟁점과 기본 문해 개념을 검토함으로써 문해 의미의 다양성을 고찰하였다. 2) 또한, ‘확장 영역’으로서 문해의 의미를 분석하였다. 다양한 미디어의 등장으로 여러 형식의 문해 양식을 강조하는 다중문해(multi-literacy)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삶의 양식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영역에서 요구되는 기초 소양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문해의 유형별 확장 영역으로서 디지털문해, 경제(금융)문해, 미디어문해, 건강문해 등은 이런 사회적 배경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하고 있다. 3) 본 연구에서는 문해교육이 실현되는 영역인 ‘정책 영역’의 문해 개념을 분석하였다. 핵심 정책 영역으로 교육 정책, 국어 정책, 고용 정책 등에서 문해와 문해교육의 정책적 의미를 분석하였다. 4) 마지막으로 문해 관련한 최신 문해 이론을 검토하였으며 특히, 국어능력 중 ‘읽기’ 능력의 관점에서 문해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문해력 진단을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 문해 개념의 전반적 동향을 다루되 ‘읽기’ 문해에 집중하였다.

<표 I -1> 연구내용1: 문해력 개념 검토 영역

문해력 개념 분석 영역	검토 자료
문해 의미의 다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쟁점과 기본 문해 개념
기본 소양으로서 문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문해, 금융문해, 건강문해, 정치문해 등
‘정책 영역’에서의 문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권 · 성인기초교육으로서 문해 • 국어능력으로서 문해 • 직업기초능력으로서 문해
최신 문해 이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지 이론, 사회문화 이론, 신문해 연구 등 • 읽기 이론에서 문해

2.2. 문해교육과 문해력 진단 현황 분석

문해교육과 문해력 진단과 관련한 국내외 현황을 분석하였다.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만 16세 이상 청소년과 성인 대상 문해교육 프로그램 현황으로는 첫째, 국립국어원의 ‘국어문화학교’와 국어문화원에서 운영 중인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분석하였다. 둘째, 교육부가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함께 국가문해교육센터를 중심으로 시행하고 있는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을 분석하였다. 국가문해교육센터의 문해교육 지원 체제와 교재 개발 등을 중심으로 살펴본 후, 셋째, 온라인 평생교육 플랫폼으로 국가 평생학습 포털 ‘늘배움’,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인 K-MOOC¹⁾, 그리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에서 제공하며 고등교육 교수학습 자료 공동 활용 체제인 KOCW(대학공개강의)²⁾에서 검색되는 성인 대상 문해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조사하였다. 넷째, 성인 직업교육 혹은 직무교육 맥락에서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분석하였다. 직업기초능력과 평가 체제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HRD-Net(직업훈련 포털)³⁾과 한국표준협회의 원격 평생교육시설인 KSAEDU(한국표준협회 공개교육)⁴⁾, 입직기 청년들을 위해 온라인 진로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이버진로교육센터⁵⁾를 살펴보았다 다섯째, 전문대학협의회에서 제공하는 기초 국어능력 진단 프로그램과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살펴보았으며, 마지막으로 EBS의 ‘EBS 당신의 문해력+’⁶⁾ 프로그램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문해력 진단 및 조사 도구 현황을 우리나라의 문해력 조사에 활용된 도구

1) K-MOOC(한국형 MOOC) <https://www.kmooc.kr>

2) KOCW(대학공개강의) www.kocw.net

3) HRD-Net(직업훈련 포털) www.hrd.go.kr

4) KSAEDU(한국표준협회 공개교육) www.oksa.or.kr

5) 사이버진로교육센터 www.work.go.kr

6) EBS 당신의 문해력+ <https://literacy.ebs.co.kr>

와 지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2000년대 들어 한국교육개발원의 ‘한국 성인의 문해 실태조사’(2002), 국립국어원의 ‘국민 기초문해력 조사’(2008) 등 다양한 기관에서 성인 문해능력 조사를 실시하였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2014년 4,057명 대상의 제1차 조사를 시작으로 2017년 2차(4,004명), 2020년 3차 조사(10,429명)까지 ‘성인 문해능력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4, 2017, 2021).

해외의 문해교육과 진단체제는 아일랜드, 호주, 미국, 유럽연합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각각의 분석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아일랜드가 2021년부터 실시한 ‘삶을 위한 성인 문해’ 정책을 살펴보고, 아일랜드 국가성인 문해지원기구가 국가역량체계(NFQ)와 연계하여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한 사례를 분석하였다. 둘째, 호주의 성인 문해력 지원정책의 배경과 이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살펴보고, 핵심역량 체계에 따른 읽기영역분류와 호주영어활용능력 시험을 조사하였다. 셋째, 미국 연방정부의 성인교육 정책을 검토하고 성인영어활용능력표준 등 영어활용능력을 진단하는 주요 체제들을 분석하였다. 넷째, 유럽연합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유럽 공통 언어 평가 기준(CEFR)의 개발과 활용 사례를 분석하였다.

<표 1-2> 연구내용2: 문해 프로그램과 진단 및 조사 도구 현황 분석 내용

구분	분석 내용
국내 문해교육 현황	<p><문해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립국어원의 ‘국어문화학교’ 프로그램 분석 전국 국어문화원의 교육 프로그램 분석 국가문해교육센터 기초문해교육 사업 및 지원 체제 분석 평생교육 온라인 플랫폼으로 국가 평생학습 포털 늘배움, K-MOOC, KOCW의 문해교육 프로그램 분석 국가직무능력표준원의 직업능력 기초교육, 관련 교육 콘텐츠, 평가 체제 분석 직무교육을 위한 플랫폼으로 한국표준협회의 원격 평생교육시설인 KSAEDU, 한국고용정보원의 직업훈련 포털 HRD-Net, 그리고 사이버진로교육센터의 문해교육 프로그램 분석 한국전문대학교육협회의 전문대학기초학습지원센터 기초학습능력 지원 체제, 교육 프로그램, 평가 분석 EBS ‘여러분의 문해력’ 방송 콘텐츠 분석 <p><진단체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교부와 교육부 중심의 문해력 조사 도구 국립국어원의 문해력 조사 도구 EBS 등의 문해력 조사 도구 등
해외 문해교육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일랜드의 성인 문해 지원 정책 및 교육 프로그램 호주의 성인 영어활용능력 및 문해력 지원 정책과 진단 도구 사례 미국 연방정부의 성인교육 정책 개요 및 영어활용능력 진단 도구 개발 사례 유럽 공통 언어 평가 기준(CEFR)의 개발 및 활용 사례

2.3. 전문가 수요 조사

국민 문해력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및 진단 도구의 요구 분석을 위하여 전문가 수요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다음의 사항들을 전제조건으로 한다. 1) 전문가 수요는 기초문해력 수준 성취 이후, 만 16세 이상 중등 학력 이수자를 대상으로 한 문해교육에 한정하였다. 본 과업은 전통적인 저학력, 저문해 성인이 아닌 전 국민 대상의 ‘전 생애’ 문해(lifelong literacy)라는 확장형 문해교육을 지향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2) 1수준과 2수준(PIAAC⁷⁾ 조사 기준) 이상의 문해력 성취를 위한 교육 내용 개발을 위한 수요 조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조사는 PIAAC 기준 2수준 이상의 문해력을 갖춘 16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며, 그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은 3수준에서 5수준의 난이도를 갖는다. 따라서, 본 연구의 전문가 수요 조사는 PIAAC 기준 2수준~5수준 전체 성인의 요구를 포함하였다. 생애 단계별이나 직종별로 적정 문해 수준을 정하고 이에 따른 문해교육의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문해교육의 내용과 범위, 그리고 수준이 생애 단계별, 직종별, 수준별로 다양하기 때문에 본 조사에서는 관련 전문 집단에 대한 심층 면담을 통해 ‘확장형’ 문해교육의 수요를 분석하였다. 수요 조사는 문해교육, 읽기교육, 평생교육, 세대교육, 직업교육, 미디어교육 영역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표 I -3> 연구내용3: 문해교육 수요 조사 내용

대상	수요 조사 내용 (안)
문해교육, 읽기교육, 평생교육, 세대교육, 직업교육, 미디어교육 등	영역별, 세대별, 수준별 문해교육의 목적 영역별, 세대별, 수준별 문해교육의 내용 영역별, 세대별, 수준별 문해교육의 방법 국립국어원의 우선 추진 문해교육 정책 과제 등

2.4. 국민 문해교육 체제 개념 구성

본 연구에서는 문해교육 체제 개념 구성안을 제시함으로써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그리고 진단 도구 개발 방향을 설정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진은 문해 개념 분석, 문해교육 및 진단 현황 분석, 전문가 수요 조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문해교육 체제의 개념의 구성요소를 제시하였으며 이런 요소들의 전문가 타당화를 거쳐 최종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전문가 타당화에 참여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향후

7) 국제 성인 역량 평가 프로그램(Programme for the International Assessment of Adult Competencies, 이하 PIAAC)

국립국어원에서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는 문해교육 프로그램 주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조사하였다.

<표 I -4> 연구내용4: 문해교육 체제 개념 구성

개념 구성 영역	수요 조사 내용 (안)
문해교육 체제 개념안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해교육 체제 개념 구성 요소 추출 구성 요소별 내용 도출 문해교육 체제 정의 도출
전문가 타당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29명의 전문가 참여(국어학, 국어교육, 읽기교육, 문해교육, 직업교육 등) 문해교육 개념 구성요소와 정의 타당화 문해교육 프로그램 주제 제안
최종안 확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가 타당화를 통한 문해교육 체제 개념안 확정

2.5. 정책 방안 제시

본 연구에서는 국민 문해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그리고 문해력 진단과 평가에 대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문해 이론과 개념 분석, 문해교육과 문해 진단 도구 현황 분석, 전문가 수요 분석과 문해교육 체제 개념 구성안을 바탕으로 연구진들은 3개 영역 10대 핵심 과제를 제시하였다. 국민 문해력 향상을 위한 주요 방안으로서 3대 영역은 1) 문해교육 프로그램 개발 2)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지원, 3) 문해력 진단 체제 구축과 운영으로 제안하였다. 또한 10대 정책 실행 과제를 ① 주제형, 패키지형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② 문해교육 도서 개발, ③ 문해교육 온라인 콘텐츠 개발, ④ 문해교육 전문가 양성 과정 개발, ⑤ 국민 문해교육 플랫폼 구축과 운영, ⑥ 국어문화원 연계 국민 문해교육 활성화 사업, ⑦ 대외 연계형 프로그램 운영 지원, ⑧ 문해교육 전문성 강화 사업, ⑨ 문해력 진단 도구의 개발, ⑩ 문해력 진단 체제의 구축과 운영 등으로 제안하였다. 또한, 각 핵심 과제의 단계별 추진 일정을 제시하였다.

<표 I -5> 연구내용5 : 정책 방안

구분	정책 방안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진단 체제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해교육 프로그램 개발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지원 문해력 진단 체제 구축과 운영

3. 연구 방법과 절차

본 연구는 문헌 분석, 전문가 개별 면담 및 초점 집단 면담(Focus Group Interview), 전문가 타당화를 위한 설문조사, 연구진 협의회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3.1. 연구 방법

3.1.1. 문헌 분석

본 연구에서는 문해 개념, 기초문해 이후의 확장형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 문해력 진단 국내외 사례에 대한 검토를 위해 문헌 분석을 실시하였다. 문헌 분석은 국내 문헌과 해외 문헌으로 구분하여 이루어진다. 국내 문헌으로는 문해교육과 관련한 학술 자료, 성인 문해교육 정책 및 사업 자료, 문해력 조사 관련 최신 자료, 각 직군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문해력 조사 도구, 성인 대상 읽기 능력 조사 도구 등을 분석하였다. 해외 자료는 국가 정책 보고서, 홈페이지, 관련 논문 등을 통해 확보하여 분석하였다.

3.1.2. 전문가 수요 조사 : 개별 면담 & 초점 집단 면담

본 연구에서는 국어교육, 문해교육, 평생교육, 세대 전문가, 직업교육, 미디어교육 등 문해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은 개별 면담과 초점 집단 면담(Focus Group Interview)을 병행하였다. 면담은 2023년 6월 15일부터 2023년 9월 21일까지 24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총 10회 실시하였다. 면담은 다수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집단 면담 8회, 일대일 개인 면담은 2회 실시하였으며, 면대면 면담 6회, 비대면 면담 4회 실시하였다. 회차당 1시간~2시간을 소요하였다. 면담 참여자로는 국어교육, 문해교육, 평생교육, 직업교육 등 관련 전문가를 고르게 선정하였다. 특히, 본 연구의 결과가 국어문화원 등을 통해 실행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국어문화원 전문가 6명을 포함하였다. 면담 내용은 질적 연구 방법을 토대로 분석하였다. 즉, 면담 내용은 모두 음성 형태로 녹음하였으며, 상용 서비스인 네이버 클로바노트⁸⁾를 활용하여 텍스트 형태로 전사하였고 전사한 내용을 음성 파일과 비교하며 수정하는 등 정확도를 높였다. 전사한 텍스트에 대한 주제 분석(thematic analysis)을 통해 핵심 주제를 도출하고 주제군을 범주화하여 상위 주제를 구성하였다.

8) 네이버 클로바노트(CLOVA) <https://clovanote.naver.com>

3.1.3. 전문가 타당화 설문조사

본 연구에서는 국민을 위한 문해교육 체제 개념 및 구성요소(안)의 타당화를 검증하고 국민 문해력 교육 프로그램 주제 발굴을 위하여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였다. 문해교육 체제 개념안 타당화를 위한 전문가 설문조사에는 총 29명의 전문가가 참여하였다. 조사 참여자는 국어학, 국어교육, 독서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교육, 평생교육, 미디어교육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하였다. 온라인 설문조사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3.1.4. 연구진 협의회

본 연구의 연구진은 문해교육 전문가, 국어교육 전문가, 평생교육 전문가, 교육측정평가 전문가, 교육 프로그램 개발 전문가로 구성하였다. 연구진은 국민의 문해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진단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연구의 기획과 실행, 분석과 방안 검토의 과정에 대해 상호 토론과 협력적인 작업을 바탕으로 진행하였다. 또한 사회 연결망 서비스, 공동 협업 툴(예: 구글독스), 클라우드 서비스 등을 활용한 일상적인 협업과 협의 과정을 거쳤다.

3.2. 연구 절차

본 연구는 다음의 단계를 거쳐 진행하였다. 첫 번째 단계로 문해 개념의 최신 동향을 검토하였다. 이 단계에서는 문해 관련 연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즉, 개념 확장의 차원에서 기초문해, 생활기능문해, 비판문해 등 읽기의 수준과 활용, 그리고 실천 관점의 문해력 관련 이론을 검토하고, 디지털문해, 경제(금융)문해, 건강문해, 미디어문해 등 유형별 문해 이론을 검토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읽기 중심의 문해 이론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첫 번째 단계와 병행하여, 국내외 문해교육 프로그램 현황과 문해교육 진단 도구 현황을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가 확장형 문해교육 사업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초문해교육 또는 문자해득 교육 프로그램에서 확대된 문해교육 프로그램 현황을 파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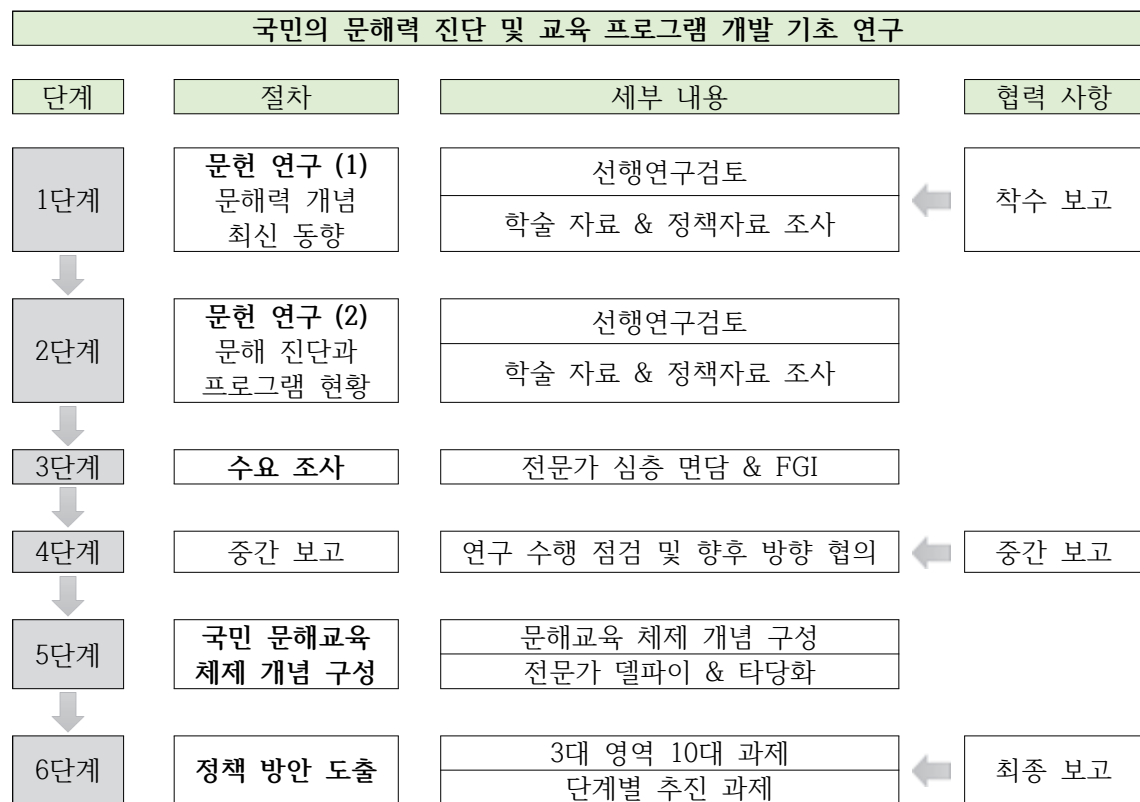
세 번째 단계는 1단계와 2단계 문헌 연구를 바탕으로 수요 조사를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24명의 문해교육 전문가 면담을 실시하였다. 문해교육의 수요 조사는 수준 1~2(PIAAC 조사 기준) 이상의 문해력 성취를 위한 교육 내용 개발 수요 조사를 목표로 하였으며, 국어학 전문가, 국어교육 전문가, 성인 문해 전문가, 세대 전문가,

직업교육 전문가 등 2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면담 내용은 주제 분석의 방법으로 분석하고 핵심 주제를 범주화하였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중간 보고를 실시하였다. 중간 보고회는 2023년 8월 18일 열렸다. 연구진은 문헌 연구와 전문가 수요 조사 일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 진행 현황과 향후 연구 방향을 보고하였다. 중간 보고 내용에 대한 국립국어원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구 방향과 일정 등을 조정하였다.

다섯 번째 단계에서는 국민 문해교육 체제 개념안을 구성하고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통한 타당화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제안하였다. 국민 문해교육 체제 개념안은 문헌 분석과 전문가 수요 분석을 바탕으로 연구진이 구성하였으며, 전문가 29명을 대상으로 문해교육 체제 구성요소에 관한 타당화를 거쳐서 문해교육 체제 정의를 포함한 개념 구성의 최종안을 제안하였다.

마지막 단계인 여섯 번째 단계에서는 문헌 분석과 전문가 수요 조사, 그리고 문해교육 체제 개념안을 바탕으로 향후 국립국어원의 국민 문해력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진단 도구 개발을 위한 정책 방안을 세 가지 영역, 10가지 핵심 실행 과제로 제안하였다. 또한 각 실행 과제의 단계별 추진 일정을 제시하였다.



[그림 I-2] 추진 절차

4. 기대 효과

본 연구는 기존의 중학 미만의 기초문해 수준에서 이루어졌었던 성인 문해교육의 패러다임을 넘어 전 국민 대상의 전 생애 문해(Lifelong Literacy)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향후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확장과 다양화를 위한 정책과 사업에 다음과 같이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본 연구는 세대별 확장형 문해교육 체제 개념을 제시한다. 따라서 향후 문해교육 프로그램 구성과 교재 등의 개발을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문해 영역과 수준을 연결한 진단 방향을 제시한다. 따라서 문해교육 진입자들의 문해 진단 도구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셋째, 본 연구는 확장형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방안과 연계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따라서 국립국어원의 국어문화학교를 통한 대국민 문해교육 사업의 비전을 수립하고 평생교육 및 직업교육 등의 영역과 연계한 통합적 문해교육 사업 전개에 필요한 정책 청사진을 확보할 수 있다.



제2 장

문해 개념과 의미



1. 문해 개념의 이해

1.1. 문해 의미의 확장성

문해에 대한 이해는 다양하다.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문해(文解)는 ‘글자를 읽고 이해함’⁹⁾의 뜻을 갖는다. 문해는 글자를 읽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영어 어원도 유사한 의미를 갖는다. 문해는 영어로 ‘literacy (리터러시)’인데 글자를 의미하는 라틴어인 ‘liter(letter)’에서 파생되어 ‘글자를 잘 아는 상태’를 뜻한다. 문해는 기본적으로 문자 언어의 습득과 이해와 관련된 개념이다.

문해가 갖는 의미의 다양성 또는 복잡성을 이해하기 위해 「평생교육법」의 문해교육 정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평생교육법」 제2조제3항에는 “문해교육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 능력을 포함한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 능력 등을 갖추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서 문해교육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 능력을 의미한다. 또한 「평생교육법」에서 문해교육은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 능력” 향상을 목표로 한다. 이런 규정은 문해에 관한 두 가지 논의를 요청한다. 첫째, “일상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 능력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오늘날 우리가 기본적으로 익혀야 하는 ‘문자’는 한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우리는 빈번하게 영어를 쓴다. 한자의 활용도는 상대적으로 낮아졌다. 외래어 사용 빈도도 높다. 불편 없는 일상생활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영어나 외래어 이해가 필요하다. 우리는 ‘문자’ 이외의 다양한 형태의 기호 이해 능력도 갖추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사회 연결망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를 통한 의사소통이 일상화되면서 동영상, 이미지, 이모티콘 등의 이해와 활용도 중요해지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비문해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을 문해라고 한 다음의 정의는 현대사회의 맥락에 맞지 않는다. 일상생활을 불편 없이 영위하기 위해서는 “간단한 문장의 이해” 이상의 문해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호의 이해와 활용 또한 중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일상생활에 관한 짧은 간단한 문장을 이해하며 읽고 쓸 수 있는 상태를 문해라고 하며, 일상생활에 관한 짧은 간단한 문장을 이해하며 읽을 수는 있으나 쓸 수 없는 상태를 반문해(semiliteracy)¹⁰⁾라고 정의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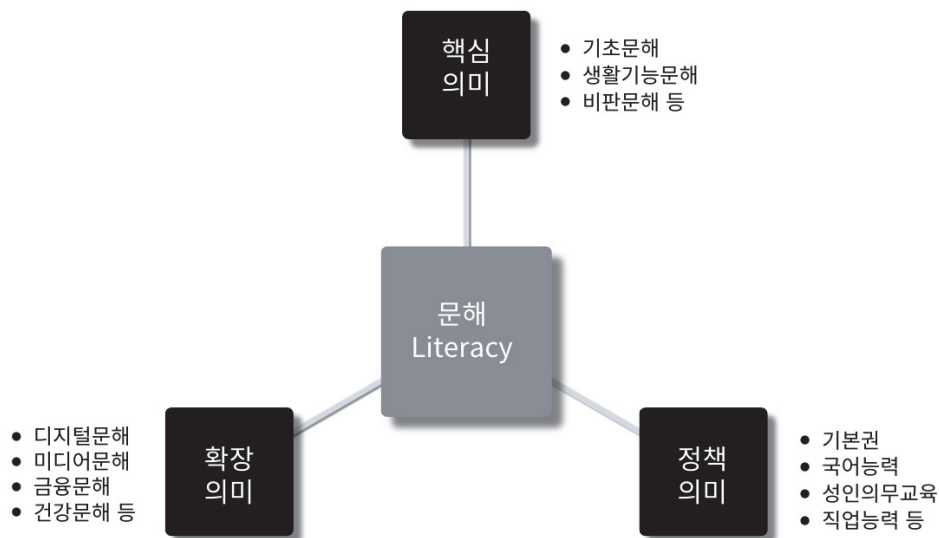
9) 표준국어대사전 (<https://ko.dict.naver.com/#/entry/koko/6d0f26408b2a441f965410e03b17f187>)

10) 1951년 UNESCO에서 한 문해에 대한 정의. 다음에서 인용함.

교육학용어사전(<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10656&cid=42126&categoryId=42126>)

둘째,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 능력”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평생교육법」의 문해교육은 문자해득뿐만 아니라 기초생활 능력 향상을 목표로 한다.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 능력”은 좁은 의미에서의 문자 중심의 문해력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요청되는 역량들, 예를 들어 직업 역량, 미디어 역량, 디지털 역량 등을 포함한다. 「평생교육법」의 문해 의미가 문자 영역을 넘어선 기본적인 삶의 소양 영역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제도적인 관점에서도 문해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의미를 갖는다. 문해를 좁게 정의할 때는 문자해득 중심의 전통적인 이해에 머물 것이다. 그럴 경우 현대사회 문해력에 대한 확장된 요구를 포괄하기 어려울 것이다. 문해를 넓게 정의할 때는 문자해득 뿐만 아니라 높은 수준의 읽고 쓰는 능력까지, 문자 활용 능력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생애 역량까지 포괄할 것이다. 그럴 경우 문해교육의 정책 영역을 확정하기 쉽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문해에 대한 복합적인 이해는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문해력의 범위와 수준을 수용하면서도 문해교육의 고유성과 전문성을 구체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문해 의미의 다양성을 주요 핵심 의미, 삶의 소양으로서 확장 의미, 그리고 정책적 의미의 세 가지 관점에서 구체화해 보도록 한다.



[그림 II -1] 문해 의미의 다양성

1.2. 핵심 개념 : 기초문해, 기능문해, 비판문해

문해, 특히 성인 문해 영역에서는 기초문해, 기능문해, 비판문해 개념이 널리 쓰인다. 이 절에서는 각각의 개념을 살펴보았다.

기초문해(basic literacy)는 가장 초보적인 문해 수준이 성취된 상태로서 가장 기본적인 읽기(reading), 쓰기(writing), 셈하기(arithmetic)를 의미하며 3Rs라고 칭하기도 한다. 「평생교육법」에 규정되어 있는 “문자해독”, 그리고 앞서 살펴보았던, UNESCO가 1951년, 문해, 비문해, 반문해로 정의하였던 문해의 의미가 여기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1953년부터 1958년도까지 5년간 정부가 시행하였던 ‘전국민맹퇴치운동’이 기초문해 수준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1949년 제정된 교육법에 따라 초등학교 2학년 수준에서 시행되었던 이 캠페인은 12세 이상 45세 미만의 성인의 ‘문맹 퇴치’를 목표로 하는 것이었다. 1945년 당시 78%에 달했던 비문해율의 상황을 고려할 때, 전국문맹퇴치운동은 국가 재건기 경제활동인구를 대상으로 국가 차원에서 시급하게 이루어졌었던 기초문해 캠페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오혁진, 허준, 2011). 오늘날 지자체, 야학 등 성인 문해 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문해교육도 기초문해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평생교육법」상 문해교육은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중학교 교육 수준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한 학력인정제도도 초등 과정과 중학교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문해 교육기관이 운영하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비중을 보면 초등 과정, 그중에서도 가장 기초적인 수준으로 초등 1~2학년에 해당하는 문해 1단계 프로그램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허준, 김지현, 이정은, 2022). 기초문해의 수준은 우리나라에서 매년 실시되었던 문해 조사를 기준으로 가늠할 수 있는데, 1970년대까지 시행되었던 인구총조사 내의 문해 조사에서는 단순히 읽기 쓰기 정도를 문해 수준이라고 보았던 반면, 1989년과 2001년도에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실시한 문해 조사 연구에서는 기초문해 수준을 초등학교 수준으로 한 문해 조사를 실시하였다(허준 외, 2023). 최근, UNESCO에서는 다문화 상황의 세계화에 맞춰 기초문해에 말하기를 포함하고 있다. 기초문해의 범주와 수준이 시대적 상황과 사회적 발전 수준에 따라 유동적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읽기, 쓰기, 셈하기 등 기초문해능력을 갖추었다고 해서 일상생활에 불편 없이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문자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고 저마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기능문해(functional literacy)는 기초문해를 넘어서 일상생활이나 직장생활의 맥락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문해를 의미한다. Jarvis는 기능문해를 “집단과 공동체의 효과적인 기능과 개인과 공동체의 발전 등 문해능력이 요구되는 활동에 개인이 참여하는 데 필요한 읽기, 쓰기, 셈하기 능력”으로 정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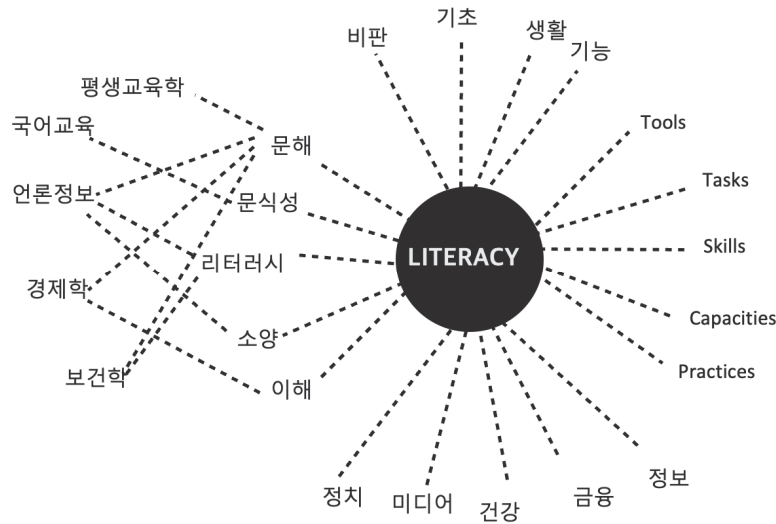
(Jarvis, 2009: 84). 즉, 기능문해는 개인의 삶의 문제 해결과 사회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역할 수행하면서 필요한 문해 정도를 의미하는 개념이다. 이런 관점에서 성인 문해교육은 기능문해로서의 목적을 갖는다. 2019년 서울시 문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교육 참여 동기 중 ‘못 배운 한풀이’ 항목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생활의 불편 해소’ 항목 응답률이 두 번째로 높았다. 또한, 디지털문해교육에 대한 교육 요구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허준, 이지혜, 길혜지, 2019). 이런 결과는 우리나라 성인 문해교육이 단순한 문자해득을 넘어서서, 비문해, 저문해 학습자들의 생애 문제 해결이라는 삶의 요구에 부응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비판문해(critical literacy)는 브라질의 교육학자이자 실천가인 Freire의 문해교육 이론과 실천으로 잘 알려진 개념이다. Freire는 브라질과 칠레 등에서 농민들을 위한 문해교육 활동과 아프리카 등에서 문해 캠페인 참여 경험을 바탕으로 『억압받는 이들을 위한 교육학』(*Pedagogy of the oppressed*)(Freire, 2005), 『자유를 위한 문화 행동』(*Cultural action for freedom*)(Freire, 2022), 『문해교육: 파울로 프레이리의 글 읽기와 세계 읽기』(*Literacy: reading the word and the world*)(Freire & Macedo, 2014) 등의 책을 저술하였다. Freire의 문해교육에서는 문해와 비문해의 이분법적 접근뿐만 아니라 세계 적응을 위한 문해의 기능보다는 사회구조적인 이유로 비문해 상태에 있는 사회적 약자로서 문해 학습자의 주체적인 삶의 문제에 집중한다. 즉, 비판문해에서 글을 읽고 쓰는 일은 단순히 문해력의 기능적 향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문해 학습자들이 자신이 처한 현실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사회 현실을 변화시키기 위한 사회적인 주체로 성장하는 과정이다(Freire & Macedo, 2014). 따라서 비판문해에서 교수자는 지식 전달자가 아니라 학습자가 지식 생산과 문화 생산에 참여하는 삶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돕는 문화 활동가이다(Freire, 2022).

1.3. 문해의 확장적 이해 : 삶의 기본 소양

오늘날 문해는 다양한 의미로 쓰이고 있다. 허준, 이경민, 이진희(2016)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인 문해 연구는 복잡한 담론 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2005년도 이전에는 교육학과 국어학에 한정되었던 성인 문해 관련 연구는 2006년 이후 미디어, 문헌 정보, 문화, 컴퓨터, 영화, 보건, 금융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되었다. 이때 문해 관련 개념은 다양한 용어로 쓰인다. 연구 주제어를 분석한 이 연구에 따르면 영어 주제어 ‘literacy’는 노인교육이나 평생교육에서는 ‘문해’, 미디어, 디지털, 정보 등의 영역에서는 ‘리터러시’, 다문화, 국어교육 등에서는 ‘문식성’, 정보화교육에서는 ‘활용 능력’, 과학과 환경 분야에서는 ‘소양’, 금융 분야에서는 ‘이해력’ 등으로 쓰이고 있다.

우리나라 문해 관련 학술 연구에서도 볼 수 있듯이 문해는 전통적인 영역을 넘어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필요한 기본 소양의 의미로 이해되고 있는 것이다(Edwards, Ranson & Strain, 2001; Perin, 2020).



[그림 II-2] 문해 관련 여러 의미들

*출처: 허준(2023). 성인 문해와 문해능력 조사. p.14

기본 소양으로서 문해 의미를 주요 영역별로 살펴보면, 먼저 미디어문해는 최근 매체 환경 변화 속에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 발전으로 조성된 디지털 환경은 전통적인 읽기와 쓰기에 대한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다. 김상환에 따르면 오늘날 디지털 혁명은 ‘기술’, ‘언어’, ‘가상’의 세 가지 변화를 촉발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 삶의 존재론적 변화의 조건이 되고 있다(김상환, 1999). 특히 ‘언어’의 관점에서 전자적 읽기와 쓰기의 일상화는 문해에 대한 전통적 이해에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으며 텍스트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매체에 대한 이해와 활용 능력이 중요해지고 있다. 그렇다면 미디어문해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김아미(2021: 121)에 따르면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등 일명 올드 미디어 시대에는 미디어문해를 ‘다양한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읽고, 창의적으로 만드는 능력’이라고 명확히 설명할 수 있었지만, 미디어 환경이 개별화, 다양화, 디지털화되면서 미디어문해에 대한 이해는 복잡해졌다. 김아미는 미디어문해를 ‘미디어교육전국연합회’(NAMLE)의 정의, 즉, “모든 종류의 의사소통 수단을 기반으로 접근, 분류, 평가, 창조 그리고 행동하는 능력”에 따라 설명한다. 우리가 원하는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읽기, 쓰기 등 기본적인 문해력뿐만 아니라 매체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과 그 매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날과 같은 네트워크 환경 속에서는 정보를 찾고, 자신의

목적에 따라 분류하고, 정보의 진위를 평가할 수 있는 능력 등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자기 자신도 매체에서 유통될 수 있는 정보를 생산하고 타인과 공유하는 능력도 필요할 것이다(김아미, 2021: 122 참조). 이런 관점에서 미디어문해는 새로운 매체 환경에 필요한 기본 소양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전통적인 문해능력, 즉 읽기와 쓰기 활동을 구성하는 정보의 이해와 비평, 창조 등의 능력을 기반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의료나 보건 영역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개념인 건강문해(health literacy)도 현대사회에서 필요한 건강과 보건에 관한 소양을 갖추는 개념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인 의료 정보에 관한 읽기와 쓰기 등의 문해 활동을 포함한 개념이다. Nutbeam(2000)은 건강문해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모형으로 설명한다. 이 정의에 따르면 기본적인 읽기, 쓰기를 포함하여 앞서 살펴보았던 문해의 핵심 개념, 즉 기능문해와 비판문해의 요소를 갖는다.

- 기능적 건강문해(건강 정보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읽기 및 쓰기 기술)
- 의사소통적 또는 상호작용적 건강문해(의료 제공자와 상호 작용할 수 있는 고급 인지 및 문해능력과 변화하는 상황에 대한 정보 해석 및 적용 능력)
- 비판적 건강문해(자기 삶을 더 잘 통제하기 위해 정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고급 인지 기술)

최근 주민 자치가 활성화되고 공공기관과 민간 사이의 협치가 중요해지면서, 시민 문해 또는 정치문해에 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영국의 시민교육 과정 개발을 위해 제안된 크릭 보고서(Crick Report, 1998: 13)에 따르면 정치문해는 “지식, 기술, 가치관을 통해 공공생활에서 자기 자신을 효과적으로 만드는 일과 그 방법에 대해 배우는 일”로 정의된다. 그리고 여기에서 공공생활이란 다층적이다. 즉, 국제적 차원, 국가 차원, 지역 차원 등 인간 삶의 모든 층위를 포함하며, 공공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정치 행위뿐만 아니라 지역이나 공동체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상호 갈등과 해결의 문제도 포함한다. 따라서 정치문해는 특정 정치 행위나 정치의식을 고양하는 일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보다 넓은 의미로 민주 사회에서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개인과 공동체가 갖춰야 하는 기본 소양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의 정치문해는 전통적인 문해 영역에서도 중요하였다. 앞서 살펴보았던 비판문해의 관점에서 문해교육은 글을 읽고 쓰는 일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들의 주체적인 삶의 회복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미국의 노동자 학교인 하이랜더 학교(Highlander school)는 인권

과 시민권 회복을 문해교육의 핵심 목표로 삼았다(Freire & Horton, 1990). 개발도상국의 문해교육을 지원하는 UNESCO도 정치적 민주화와 여성이나 난민들의 인권 보장을 문해교육의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다(UNESCO, 2015). 1950년대 전국적으로 이루어졌던 우리나라의 ‘전국 문맹 퇴치 운동’의 핵심 과제 중의 하나는 민주시민교육과 반공교육이었다(오혁진, 허준, 2011). 일선 학교에서도 독서 활동을 통해 사회 문제와 시민으로서 책무성 학습이 이루어지기도 한다(서현숙, 2021). 문해교육 실천이 실제로 정치문해의 목표를 갖고 전개되기도 하는 것이다.

이상의 확장된 의미에서 문해는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각 영역에서 요구하는 기본 소양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읽기, 쓰기 등을 기본으로 하는 기존의 문해와는 독립된 영역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확장 영역들은 기존 문해교육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첫째, 미디어문해, 건강문해, 정치문해 등 삶의 기본 소양으로서 확장된 문해교육들은 문해 학습의 기본 활동으로서 읽기와 쓰기 행위를 기반으로 한다. 정보의 이해, 분석, 생산과 공유 등은 다양한 문해 영역을 관통하는 핵심 문해 기능들이다. 둘째, 전통적 문해교육의 영역은 현대사회의 요구와 매체 환경에 맞게 전문화되고 확장될 필요가 있다. 이런 요구로 문해교육은 인간이 마주하게 되는 다양한 삶의 문제인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등의 문제와 자연스럽게 결합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읽기 쓰기 등 전통적인 문해력이 부족한 비문해, 저문해, 저학력 계층들은 사회적 소양으로서 확장된 문해 영역도 높은 벽이다. 예를 들어 성인 문해 학습자들의 정보문해능력을 조사한 길혜지 등(2019)의 연구에 따르면, 문해교육에 참여하는 학습자들의 정보문해능력 또한 낮다. 성인 문해 학습자 중 ‘일상생활의 문제 상황 해결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문해력을 갖춘 수준’인 수준 4는 25%에 불과하다. UNESCO가 개발도상국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건강문해나 환경문해, 또는 디지털문해 프로그램과 연결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교육부가 기초문해교육에 참여하는 학습자들을 위해 건강문해, 금융문해, 디지털문해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이유이기도 할 것이다(허준, 2023).

1.4. 정책 담론으로서 문해

이 장에서는 정책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문해교육의 특성을 기본권과 성인기초교육으로서 문해, 국어능력으로서 문해, 직업기초능력으로서의 문해 등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본다.

1.4.1. 기본권과 성인기초교육으로서 문해

우리나라 헌법에서 보장하는 교육권의 관점에서 본다면 문해교육은 온 국민이 가진 가장 기본적인 교육권이자 학령기의 국한되지 않고 성인기 이후, 즉 평생에 걸쳐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이다. 「대한민국헌법」 제31조제1항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대한민국헌법」 제31조제1항에는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기본법」에서는 이런 권리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하고 있는데 제3조는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하고 있고, 「대한민국헌법」 제8조에서는 의무교육을 “①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헌법」과 「교육기본법」의 조항을 종합해 보면, 국가는 국민의 평생학습을 균등하게 보장해야 하며, 특히 모든 국민은 최소 3년의 중등교육(중학교)까지의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대한민국헌법」의 교육권과 「교육기본법」의 의무교육 조항은 「평생교육법」의 ‘문해교육’ 관련 조항으로 구체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앞서도 살펴보았지만, 「평생교육법」 제2조제3항에서는 문해교육을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 능력을 포함한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 능력 등을 갖추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 프로그램”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기초문해뿐만 아니라 기능문해적인 의미를 담은 성인 기초교육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평생교육법」에서 문해교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평생교육 책무로 하고 있고 제39조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39조(문해교육의 실시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해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초·중학교에 성인을 위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법인 등이 운영하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인’의 문해능력을 포함한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문해교육에 대한 지원은 독립적인 지원 체제 구축을 통해 이루어진다. 「평생교육법」 제39조제2항에서는 국가문해교

육센터와 시도문해교육센터 설치, 지정,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40조제2항은 문해교육 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39조의2(문해교육센터 설치 등) ① 국가는 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진흥원에 국가문해교육센터를 둔다.

② 시·도 교육감 및 시·도지사는 시·도문해교육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문해교육센터 및 시·도문해교육센터의 구성, 기능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의2(문해교육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① 교육부장관은 문해교육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문해교육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문해교육종합정보시스템 운영업무를 국가문해교육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문해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과 제2항에 따른 문해교육정보시스템 운영업무를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또한 교육감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수준에서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여기에서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거나 지정한 문해교육 프로그램은 「평생교육법」 제40조에 따라 학력 인정을 해줄 수 있어서 실제 「교육기본법」에 따라 모든 국민의 권리인 의무교육 보장이 문해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제40조(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교육과정 등) 제39조에 따라 설치 또는 지정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하되, 교육과정 편성 및 학력인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요컨대, 우리나라 「대한민국헌법」과 「교육기본법」 그리고 「평생교육법」에서는 문해교육을 인간의 기본권이자 교육권 차원에서 보장하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문해교육에 대한 재정 지원과 학력인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1.4.2. 국어능력으로서 문해

「국어기본법」에서는 문해를 국어능력 차원에서 규정하고 있다. 국어능력 차원에서 문해 정책의 이해는 국립국어원의 문해교육 정책 추진의 법률적 근거가 되고 있다. 「국어기본법」의 주요 내용 중 먼저 ‘국어능력’ 관련 조항을 보면, 전통적인 문해 요소

인 읽기와 쓰기 외에 듣기, 말하기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국어’에 국한하고 있다. 따라서 국어능력 차원에서의 문해는 국어에 한정한다는 점에서는 국어를 포함한 다양한 언어와 기호의 이해와 활용, 그리고 기본적인 수리 능력의 의미를 담고 있는 문해 개념보다는 제한적이지만, 듣기와 말하기 등 전반적인 언어생활 능력을 포함한다는 점에서는 읽기와 쓰기에 집중하는 문해 개념보다는 포괄적이다.

제3조(정의) 4. “국어능력”이란 국어를 통하여 생각이나 느낌 등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이해하는 데에 필요한 듣기·말하기·읽기·쓰기 등의 능력을 말한다.

「국어기본법」에서도 국어능력 향상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책무로 두고 있다. 예컨대 제9조제1항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어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국민의 국어능력, 국어 의식, 국어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를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제10조제1항에는 공공기관의 장은 국어책임관을 지정하여 국어의 발전과 보존을 위한 업무를 총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제23조(국어능력 검정)와 제24조(국어문화원의 지정 등)에서도 국어능력 향상 관련 조항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국어문화원은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시설로서 법적인 지위를 갖고 있다.

제23조(국어능력의 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창조적인 언어생활의 정착을 위하여 국어능력을 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어능력의 검정 방법·절차·내용 및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국어문화원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국민들의 국어능력을 높이고 국어와 관련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국어 관련 전문기관·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부설기관 등을 국어문화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어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정된 국어문화원이 전문인력과 시설을 유지하지 못하여 국어문화원으로서의 기능을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국어문화원의 지정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어기본법 시행령」에는 국어문화원 지정에 관한 조항을 담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제19조제1항제1호에 국어문화원 전문 인력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보면, 국어문화원은 국어국문학·국어교육학 또는 언어학 등의 분야의 전문가를 상근 책임자 1명 이상과 상담 전문가 2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 기관으로서 국어문화원은 높은 수준의 국어 관련 전문성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

제19조(국어문화원의 지정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국어문화원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상담 전문인력을 갖추는 것

가. 상근 책임자 1명: 국어국문학·국어교육학 또는 언어학 등의 분야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거나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대학의 국어 관련 학과와 그 부설 연구소·상담소, 국어 관련 단체나 학회에서 8년 이상 강의하거나 연구하거나 상담하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일 것

나. 상근 상담원 2명 이상: 국어국문학·국어교육학 또는 언어학 등의 분야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하거나, 대학의 국어 관련 학과와 그 부설 연구소·상담소, 국어 관련 단체나 학회에서 6년 이상 강의하거나 연구하거나 상담하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일 것

1.4.3. 직업기초능력으로서 문해

직업훈련과 교육, 고용 정책의 영역에서도 문해는 중요한 정책 요소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오넷(O*NET)¹¹⁾에서는 미국 직업 사전(The Dictionary of Occupational Titles; DOT)을 대체하는 직업 정보 분류체계를 제시하고 있는데, 1,100개 직업 역량(skills) 중에서 독해력, 쓰기, 비판적 사고, 수학 등이 직장에서 과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본 역량(basic skills)으로 구성되어 있다(박철우, 정동렬, 오춘식, 2019). 실제로 문해능력은 개인 소득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Reder, 2010),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많은 개발도상 국가들이 경쟁 성장을 위한 성인교육 정책으로 문해교육 캠페인을 펼쳤다. 1950년대 우리나라 대표적인 문해교육 캠페인인 ‘전국 문맹 퇴치 운동’의 대상도 12세 이상 45세 미만의 경제활동인구였다(오혁진, 허준, 2011).

직업기초능력의 관점에서 문해교육에 접근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제기구가 경제협력 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이하 OECD)이다. OECD는 역량의 관점에서 문해의 문제에 접근한다. OECD는 미래 사회

11) 미국 노동부 직업 정보 누리집 <https://www.onetonline.org>

의 핵심역량을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기초능력과 디지털문해력’에 읽기, 쓰기, 산술 그리고 디지털 기술 활용과 정보에 접근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 등 문해능력이 포함되어 있다. OECD는 성인 역량을 측정하기 위한 조사를 회원국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PIAAC이 그것이다. PIAAC은 2012년 1차 조사, 2023년 2차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2차 조사 내용을 보면, 기초 능력 조사와 인지 능력 조사로 이루어진다. 기초 능력 조사는 기초 읽기 능력과 기초 수리 능력, 인지 능력 조사는 언어 능력(문해력), 수리력, 적응적 문제해결력으로 구성된다. 기초문해의 기본 요소로 쓰기를 제외한 읽기와 수리 능력을 기초 수준과 중급 및 고급 수준에서 측정하는 조사이다(허준,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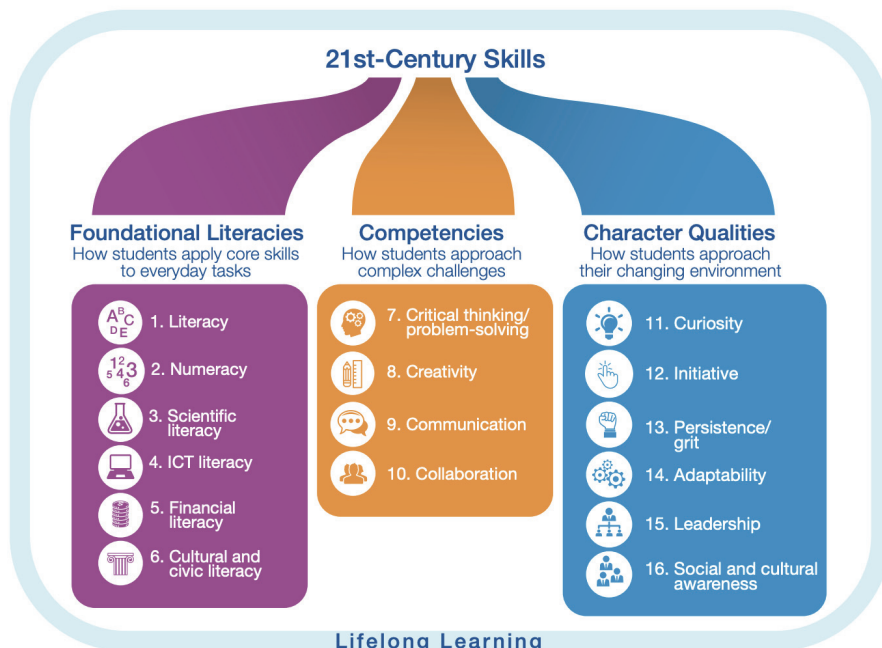
<표 II -1> 2차 성인 역량 조사 내용

구분			설명	평균소요 시간
배경 설문			인적 특성, 교육·훈련, 현재 고용 상태 및 고용 이력, 현재 혹은 이전 직장 및 임금, 직장 및 일상생활에서의 언어 능력·수리력·ICT 활용 빈도, 업무 환경(재직자 혹은 최근 12월간 유급 근로 경험자 대상), 비경제적 결과, 가정 배경, 사회적·감성역량	50분
자기 기입 조사	기초 능력 조사	기초 읽기 능력	문장과 어울리는 단어 고르기, 올바른 문장 고르기	10분
		기초 수리력	물건의 개수 세기, 가장 큰 수 고르기	10분
	인지 능력 조사	언어 능력 (문해력) (30~32문항)	사회에 참여하고,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며, 지식과 잠재성을 발전시키기 위해 문서화된 글에 접근하고, 이해하고, 평가하고, 숙고하는 능력	50분
		수리력 (30~32문항)	일상생활에서의 다양한 수학적 요구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해 수학적 정보 및 아이디어에 접근하고 이를 활용·해석하며 전달할 수 있는 능력	50분
		적응적 문제 해결력 (22~24문항)	즉각적인 해결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 역동적인 상황 속에서 자신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능력	50분

*출처: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홈페이지(<https://www.krivet.re.kr/ku/ca/kuADALs.jsp>)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y Forum, 이하 WEF) 또한 경제적 관점에서 미래 핵심 기술에 ‘문해’를 포함하고 있다(World Economic Forum, 2015). WEF는 미래 교육 목표로서 사회 감성 학습(Social and Emotional Learning)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기술을 3가지 영역, 16가지 기술로 제시하고 있다. 각 영역과 핵심 기술을 보면

첫 번째는 기초문해(foundational literacy)이다. 이 영역에는 여섯 가지 기술이 포함되어 있는데 문해, 수리, 과학문해, ICT문해, 금융문해, 문화 및 시민문해가 그것이다. 두 번째는 역량(competencies) 영역이다. 여기에는 비판적 사고/문제 해결, 창의성, 의사소통, 협력 등 네 가지 기술이 포함된다. 세 번째는 인성 자질(charter qualities) 영역으로 여기에는 호기심, 주도성, 인내심/도덕성, 적응력, 리더십, 사회문화적 인식 수준 등이 포함된다. 이처럼 WEF는 기초문해 영역을 3대 핵심 기술 영역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으며, 기초문해의 하위 요소로서 전통적인 읽기와 쓰기의 문해뿐만 아니라 과학문해, 금융문해 등 확장적인 문해 영역을 포함하는 등 문해를 미래 기술의 핵심 키워드로 설정하고 있다.



[그림 II-3] 21세기 학생들이 요구하는 16가지 기술(skill)

*출처: World Economic Forum(2015). *New vision for education: Unlocking the potential of technology*. World Economic Forum. p.3.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NCS)에서 문해를 직업기초능력 차원에서 고려하고 있다. 국가직무능력표준이란 “산업현장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지식, 기술, 태도)을 국가적 차원에서 표준화한 것으로 능력 단위 또는 능력 단위의 집합을 의미”¹²⁾한다. 국가직무능력표준은 자격기본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고시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2013년 240개, 2014년 557개의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을 시작으로 2022년 현재 1,083개의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고시

12) 국가직무능력표준 홈페이지(2023. 6. 30. 인출).
<https://www.ncs.go.kr/th01/TH-102-001-01.scdo>

하였다. 「자격기본법」 제2조제2항에서는 국가직무능력표준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제2조(정의) 2. "국가직무능력표준"이란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지식·기술·태도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 부문별·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을 말한다.

문해와 관련한 요소들은 ‘직업기초능력’ 영역에 포함되어 있다. 직업기초 영역은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계발능력, 자원관리능력, 대인관계능력, 정보기술능력, 기술능력, 조직이해능력, 직업윤리 등 10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 의사소통 영역의 문서이해능력, 문서작성능력은 문해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하위 능력이다. 문해의 영역을 수리력과 미디어문해, 과학문해 등으로 넓힌다면, 수리능력 영역의 기초연산능력, 기초통계능력, 도표분석능력, 도표작성능력, 정보능력 영역의 컴퓨터활용능력, 정보처리능력, 기술능력 영역의 기술이해능력, 기술선택능력, 기술적용능력 등도 문해 관련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1.5. 문해교육의 유형화와 주요 이론들

교육 연구에서 문해 개념은 최근 몇 년간 다양한 사회, 문화적 패러다임 속에서 이루어졌다. 사회문화 이론, 사회 공간 이론, 신유물론, 비판 이론, 멀티모달 이론, 사회 기호학 등 다양한 분야의 학술적 전통 속에서 문해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전통적인 문해 연구도 이루어지면서 문해 실천이 이루어지는 현대사회의 정치, 역사, 기술 맥락의 새로운 변화를 반영한 연구들이 새롭게 시도되고 있다(Mills, 2016). 이 절에 사서는 문해교육 실천을 유형화하고 있는 논의들을 살펴보고, 교육과정 모델과 관련한 문해교육 관련 최신 이론들을 살펴봄으로써 문해와 관련한 주요 쟁점들을 검토하였다.

1.5.1. 문해교육의 유형들

문해 이론의 다양성은 다양한 목적과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문해교육 실천의 특성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Beder, Lipnevich & Robinson-Geller(2007)는 문해교육을 성인교육철학적 관점에서, 직업 준비에 초점을 맞춘 접근(vocational approach), 인문주의 문해교육(liberal literacy education), 인간주의 문해교육(humanist literacy education), 해방문해교육(libertory literacy education)으로,

역사적 전통에 따라 기초교육(basic education), 해방문해(emancipatory literacy), 기능문해(functional literacy)로, 마지막으로 수업 형태에 따라 유형화로, 개별 기능 중심 접근'(discrete skills approach)과 '의미 구성 중심 접근'(meaning making approach)으로 구분하였다.

Freire는 비판문해 또는 해방문해에 관점에서 문해교육을 유형화한다. 첫 번째 유형은 읽기에 대한 고전적 접근이다. 이런 문해교육에서는 고전 학습을 중요시하며 주어진 지식의 습득과 라틴어나 그리스어 학습을 통한 고전의 통달을 강조한다. 그러나 해방문해의 관점에서 이런 접근은 엘리트 문화와 이익을 재생산하며 대부분 사회 구성원의 일상 경험과 역사는 무시한다. 두 번째 유형은 공리주의적 접근이다. 공리주의적 접근의 목표는 사회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기초문해력을 키우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기능문해나 정책 담론들은 대부분 이런 공리주의적 접근을 취한다. 이런 접근은 일차적으로 경제 발전과 고용 안정, 기술 문명사회의 요구 충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해방문해의 관점에서 공리주의적 접근은 비판적 사고나 문화 생산의 측면을 간과한다. 세 번째는 인지발달론적 접근이다. 이 접근에서는 읽기의 지적 인 과정과 인지 구조의 발달을 강조한다. 복잡한 문장을 분석하고 비판하는 과정을 중요시한다. 그러나 이런 접근도 개인의 문해력 발달에 집중함으로써 학습자들의 문화자본, 즉 학습자의 삶의 경험, 역사, 언어 등의 문제는 도외시 된다. 네 번째는 읽기에 관한 낭만주의적 접근이다. 이 접근은 읽기 학습자 스스로가 의미를 생성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 접근은 감성을 중요시하며 글 읽기를 통해 독자가 느끼는 즐거움과 기쁨에 주목한다. 이 접근은 학습자를 대상화하는 권위주의적 방식은 거부하지만, 계층 갈등, 성 불평등, 인종 불평등 등 사회 문제를 소홀히 한다. 마지막으로 Freire는 이런 한계들을 극복하고 민주 사회의 건설을 위한 대안적 문해 담론으로서 해방문해 개념을 제시한다(Freire & Macedo, 2014: 145-158). 이런 맥락에서 '해방'이란 일차적으로 식민지적인 억압에서 벗어난다는 정치적 해방을 의미한다. 그러나 Freire에게 해방의 의미는 보다 포괄적이다. Freire는 아프리카 국가의 문해 캠페인에 참여하면서 포르투갈의 식민 통치에서 벗어난 이후에도 여전히 포르투갈 언어와 문화의 지배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을 목격하고 문화적 탈식민지화를 위한 문해 캠페인을 주장한다(Freire & Macedo, 2014: 162-172). 이런 의미에서 Freire에게 해방문해는 제3 세계 국가에만 해당하지 않는다. 언어 정책을 통한 문화적 지배와 이로 인한 억압적 상황은 미국과 같은 제1 세계에도 나타나기 때문이다. Freire는 미국에 6천만 명의 비문해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상기시키며, 이는 미국영어운동(US English movement)처럼 지배 언어로서 영어 중심의 언어 정책에 대한 자발적인 비문해의 선택, 즉 문화적 저항의 결과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Freire & Mecedo, 2014:

115). 이렇듯 해방문해는 식민지적 지배를 경험한 제3 세계 국가들의 탈식민지화를 위한 정치적 문화적 해방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인간 세상의 다양한 장면에서 이루어지는 사회구조적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한다.

1.5.2. 문해 이론과 교육과정 모델

문해교육의 다양한 유형화는 문해교육이 사회문화적 환경과 이념 등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에서는 문해 이론과 교육과정 모델을 체계화한 Handsfield의 연구를 토대로 문해 이론의 주요 동향을 살펴보도록 한다. Handsfield는 그의 저서 ‘*Literacy theory as practice*’(Handsfield, 2020)에서 주요 문해 이론을 대응 이론, 정합 이론으로서 인지적 구성주의와 사회적 구성주의, 비정합 이론으로서 사회 구성 이론으로 범주화하여 제시한다. 그리고 각각의 문해 이론을 교육과정 모델과 핵심 이론과 연결하여 설명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II-2> 주요 문해 이론과 교육과정 모형

주요 문해 이론	토대가 되는 교육과정 모형	포함된 이론, 핵심 참고 문헌
대응 이론 (correspondence theories)	Heggerty의 음소인식 교육과정 (www.literacyresource.com/what/abou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동주의 (Watson, 1913; Skinner, 1954) . 정보처리 이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처리 모형과 단순 관점 (Gough, 1972; Hoover & Gough, 1990) - 자동 정보처리 (LaBerge & Samuels, 1974) - 상호작용 모형(Rumelhart, 1994) - 구성소 이론 (Ziegler & Goswami, 2005) - 이중 경로 층계형 모형 (Coltheart, 2005) - 병렬 분산 처리 (Rumelhart & McClelland, 1986) . 읽기와 쓰기 단계 이론 (Ehri & McCormick, 2013; Gentry, 2000)
정합 이론1: 인지적 구성주의 (Cognitive Constructivism)	교류적 전략 수업(Brown, Pressley, Van Meter & Schuder, 1996; Pressley 등, 199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키마 이론 (Anderson & Pearson, 1984) . 심리언어 이론 (Y.M. Goodman, 2013; Smith, 1971) . 구성 통합 모형 (Kintsch, 1988, 1998) . 교류적/독자 반응 모형 (Iser, 1978; Rosenblatt, 2004)
정합 이론2: 사회적 구성주의 (Social Constructivism)	초급 글쓰기 공부 단원 (Calkins, 2003), 의견, 정보, 내러티브 글쓰기 공부 단원(Calkins, 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문화 역사적 이론 (Rogoff, 2003; Wertsch, 1991) . 사회 언어적 이론 (Gumperz, 1982; Heath, 1983) . 발생적 문해 이론 (Clay, 1972; Teale & Sulzby, 1986)

주요 문해 이론	도대가 되는 교육과정 모형	포함된 이론, 핵심 참고 문헌
정합에서 비정합으로: 사회 구성 이론 (Social Constructionist theories)	청년 참여 행동 연구(Y-PAR; Bautista, Bertrand, Morrell, Scorza, & Matthew, 2013; Kinloch, 2009; Morrell, 2008)	. 비판적 문해 이론(Freire, 1970) . 신문해 연구 (Street, 1984) . 다중문해/신문해(Lankshear & Knobel, 2003; New London Group, 1996) . 비판적 사회문화 이론 (Lewis, Encisco, & Moje, 2007) . 비판적 인종 이론 (Ladson-Billings & Tate, 1995)

*출처: Hansfield, L.(2020). **문해, 믿음과 편견, 그리고 실전**(정옥년, 허준 역). p.15.

각각의 이론들을 살펴보면 첫째, 대응 이론은 “주관적 지식과 객관적 실재 간의 직접적 대응이나 상응을 가정한다.”(Hansfield, 2020: 19). 대응 이론의 관점에서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글을 정확하게 읽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행동주의와 정보처리 이론이 여기에 해당한다. 행동주의에서는 긍정적 행동 변화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문해교육에 적용한다면, 적절한 보상을 통해 주어진 학습 과제를 정확하게 수행하는 것이 성공적인 문해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받아쓰기 등의 평가와 평가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학습자가 단어나 글을 정확히 알도록 돕는 경우, 행동주의적 교수활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보처리 이론은 초보 학습자가 유창한 학습자가 되는 일련의 과정을 정신 작용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이론이다. 즉, 우리의 인지는 모종의 기능(function)을 갖고 있고, 이런 기능들이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문해가 이루어진다고 본다. 예를 들어 우리의 머릿속에서는 글을 읽으며, 단어 인식하기, 기억하기, 저장하기, 기억 불러오기, 추론하기, 이해하기, 해석하기 등의 정신 작용을 하게 되며, 이런 작용을 활성화 정도에 따라 초보 학습자와 유창한 학습자가 구별된다. 행동주의와 정보처리 이론으로 대표되는 대응 이론은 정확한 어휘와 글의 이해를 목표로 하는 교육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고, 학습자의 인지 수준과 학습 수준에 따라 수준별, 단계별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는 인간의 정신 작용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최근의 신경과학 연구는 정보처리 이론에 가깝다(Lesgold & Welch-Ross, 2018).

둘째, 정합 이론으로서 인지적 구성주의(cognitive constructivism) 이론은 개인의 인지 발달과 정신 과정에 초점을 둔다. 행동주의나 정보처리 이론처럼 외부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글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보다, 글을 읽고 쓰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의미 구성 활동이 중요하다. 따라서 인지적 구성주의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에서는 교사의 지시적인 수업보다는 교류적 전략 수업 모델처럼 상호 협력과 교류를 통한 수업 모델이 적용된다. 스키마 이론, 심리언어 이론, 구성 통합 모형, 교류적/독자 반

응 모형 등이 인지적 구성주의 이론에 해당하는 이론 또는 모형들이다. 사회적 구성주의(social constructivism) 이론은 개인의 인지적 수준에서의 의미 구성보다는 문해가 이루어지는 사회적 관계에 초점을 맞춘다. 이 이론에서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문해 과정을 강조하며, 유능한 교사와 동료의 역할이 중요하다. 사회적 구성주의 이론으로는 “개인의 정보 흡수의 의미 구성을 스키마 이론과 달리 텍스트 의미 생성을 위한 비계 또는 매개자로서 사회적 상호작용을 강조”(Handsfield, 2020: 93)하는 사회문화 역사적 이론과 사회적 맥락 내에서 일어나는 언어 학습에 관해 설명하는 사회언어 이론, 문해 발달이 언어 학습도 개인이 속한 사회에 참여하면서 형성된다고 주장하는 발생적 문해 이론 등이 있다(Handsfield, 2020: 92-104).

세 번째, 비정합 이론으로서 사회 구성 이론(social constructionist theories)이 있다. 비정합 이론들은 의미의 응집성을 강조하는 정합 이론과는 달리 사회 역사적 맥락과 의미 구성 주체적 과정을 긍정하면서도 사회적 차별과 불평등의 문제에 관심을 갖는다. 사회 구성 이론으로는 지배 사회에 내재한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은폐하거나 재생산하는 것이 아닌, 학습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학습자를 자신의 언어와 세계의 주인으로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해방문해 이론(Freire & Macedo, 2014) 외에도 신문해 연구(New Literacy Studies), 다중문해(multiliteracies)/신문해 이론(new literacies) 등이 있다. 신문해 연구는 문해교육이 이루어지는 사회적, 문화적 상황을 강조하여 문해교육을 구체적인 사회적 실천으로 본다. 따라서 문해교육의 보편성보다는 사회적 실천으로서 각각의 문해 실천들(literacy practices)이 갖고 있는 고유한 지향성과 이데올로기성이 중요하다(Street, 2003).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문해는 사회적 실천을 통해 구성되는 복잡한 의미 구성체(Handsfield, 2020)이다. 한편, 다중문해/신문해 이론은 1996년 뉴런던 그룹(New London Group) 학자들이 개발한 “다중문해 교수법”(a pedagogy of multiliteracies)이 시초가 되어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변화와 세계화라는 변화된 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문해 교수법의 문제에 집중한다. 특히, 능력 기반의 표준화된 수업보다는 다중 기호 양상(예: 몸짓, 영상, 시각 기호 등)의 적극적인 고려를 주장한다(Handsfield, 2020).

2. 읽기 이론

본 연구는 ‘국민’의 ‘문해력’, 특히 16세 이상의 청소년과 성인의 문해력에 대한 기초 조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문해력(literacy)의 본래 개념은 문자를 뜻하는 letter의 라틴어 어원인 “liter-”가 어근이므로 문자 해독 능력, 즉 글자를 읽고 쓸 줄 아는, 읽기 쓰기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었으나, 현재는 언어(language) 외에 다양한

의사소통 기호 양식(code-modes)의 메시지를 해석하고 생산하는 능력으로 쓰이며, 사회적, 역사적, 문화적 맥락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문해 실천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포괄적 개념으로의 확장형 문해력(broad literacy)을 의미들을 전술하였다.

이렇게 확장된 개념을 얻고 나니, 문해력이라는 용어는 더욱더 특정 능력을 의미하는 독자적 어휘 용법으로 쓰이기보다 ‘소양’ 또는 ‘능력’의 의미로 사용되며, 어떤 내용(contents)과 형태(forms)의 메시지를 보내는가에 따라 의사소통능력을 세분화 시키는 서술적 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김혜정, 2015). 예컨대 ‘성(gender)’이나 ‘행복(welling)’이 ‘-문해력’ 앞에 붙은 것은 메시지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따른 구분이고, ‘디지털’이나 ‘복합 양식’이 붙은 것은 메시지의 형식에 따른 구분이라고 할 수 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OECD의 자료에서도 문해력은 ‘소양’이나 ‘능력(skill)’의 의미에 가까운 포괄적 의미로 사용되며, 본래 문해력을 뜻하던, 읽거나 쓰기마저도 Reading Literacy, Writing Literacy와 같이, 앞에 수식어구를 붙여 일종의 의미 중복을 시도함으로써 다른 개념들과 구분 짓고 있다(OECD, 2013).

그런데도 대부분의 성인 문해력 진단이나 평가는 ‘읽기’ 능력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읽기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은 선다형으로 쉽게 구현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평가의 용이성, 평가 도구의 타당성 및 신뢰성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읽기’만으로도 그 밖의 문해력 전반을 예측하는 데 있어 신뢰할 만한 척도가 될 수 있다는 가정이 성립된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문해력에 대한 국가 간 설문조사 중심이었던 OECD의 성인 문해와 생활능력조사(Adult Literacy and Lifeskill, 이하 ALL), 국제 성인 문해조사(International Adult Literacy Survey, 이하 IALS)를 중지하고, 2011년부터 PIAAC으로 전환하였는데, 이는 ‘읽기’ 문항 평가를 통해 성인 문해력을 직접 측정하고 있다. OECD의 PIAAC에서도 “문해력은 글을 읽고 쓰는 능력은 사회에 참여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지식과 잠재력을 개발하기 위해, 쓰인 글을 이해하고, 평가하고, 사용하고, 참여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된다. 또한 문해력은 글과 문장의 해독에서부터 시작하여, 복잡한 텍스트의 이해, 해석, 평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능들을 포함한다. 그러나 PIAAC의 문해력에서는 텍스트의 생성(쓰기)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명시하고 있다(OECD, 2016: 18).

본 연구도 향후 이루어질, 성인의 문해력에 대한 진단 도구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의 성격이 있으므로 ‘읽기’를 중심으로 문해력의 내용 구성을 시도하고자 한다. 후술하겠지만, 교육 영역에서는 읽기를 분절적 기능으로 보고 읽기만 따로 가르치거나 단순히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쓰기와 연계하여 ‘읽고 쓰게’ 하는 방식의 통합적 접근(whole language approaches)으로 교육하고 있다. 이는 교육 성과 측면

에서 시너지 효과를 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미 개념적으로 읽기와 쓰기는 구분이 어려울 만큼 머릿속 인지적 영역(cognitive domain)에서 긴밀한 상호작용 하에 의미가 협력적으로 구성됨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읽기’ 능력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상 ‘쓰기를 포함한 읽기’ 능력으로 통용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은 이러한 논의에 대해 ‘학교에서의 읽기교육’과 ‘학교 밖 읽기교육’으로 구분하여 설명을 이어 나가고자 한다.

2.1. 학교에서의 ‘읽기교육’(reading of in-school) : 개념과 교육 내용

읽기와 읽기교육의 개념은 제도권 안과 밖의 개념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읽기교육’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국어교육’의 하나로 간주한다. 이때 읽기나 읽기교육의 개념은 교육과정의 개념에 기반하며, 각종 읽기 능력 평가에서도 제도권 내의 공교육의 성과로서 읽기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한다. 따라서 이는 철저히 계획된 문서에 따라 체계적인 학년 구분과 교육 내용 제공의 순서에 따라 이루어지며 그 결과는 교육적 책무성이 따른다.

학교교육은 교과 구분에 따른 교육이 이루어지므로, 읽기교육도 교과교육으로서 이루어진다. 교과교육으로서의 ‘국어교육’의 내용(contents)은 ‘말하기·듣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이라는 5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읽기교육’은 이들 중 한 영역을 지칭한다. 학교교육 안에서 ‘읽기교육’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일반 선택 과목인 ‘독서’ 교육까지 아우르는 포괄적 의미로 널리 사용되며, 문맥에 따라 ‘독서’라는 말과 혼용되어 사용되지만, 고등학교급인 경우에는 ‘독서’라는 말이 더 자주 사용된다. 그러나 개념은 한 가지이다.

다시 말해, 학교교육 내에서 읽기교육이란 초등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국어 과목 안에서 5가지 영역 중 하나인 ‘읽기’라는 기능을 주로 교육함을 뜻하며, 고등학교 2학년부터는 선택 과목으로서 학생의 과목 선택으로 임의적으로 교육되는 ‘독서’ 과목의 교육을 가리키는데, 보통 읽기교육이라고 할 때는 이 둘을 합친 개념이다. 아래 보는 바와 같이, 2022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경우, ‘독서’ 단독 과목은 없다.

<표 II -3> 2022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

학년	읽기 과목	비고
1~10학년	공동과목 ‘국어’	선택 없음, 국어 과목 안의 ‘읽기’ 영역
11~12학년	선택 과목 ‘독서’ 관련 과목	‘독서와 작문’, ‘독서토론 글쓰기’, ‘주제 탐구 독서’ 등 선택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읽기는 읽기 과정에서의 문제를 해결하며 의미를 구성하고 사회적으로 소통하는 행위이다.’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읽기의 본질을 ‘의미 구성 과정, 문제 해결 과정, 사회적 상호작용 행위’라는 3가지로 규정하고 이를 교육 내용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 정의는 크게 달라지지 않고 2022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도 그대로 계승되는데, ‘읽기는 독자가 자신의 배경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하여 언어를 비롯한 다양한 기호나 매체로 표현된 글의 의미를 능동적으로 구성하는 행위이다(교육부, 2022: 8)’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읽기교육의 내용은 문자 해독(decoding), 텍스트 독해(comprehension)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즉 간명히 말해서, 초등 저학년의 교육은 해독 중심이고, 이를 바탕으로 중학교부터는 독해 중심의 기능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후술할 것이다.

이러한 개념에 따르면, 약 12년의 학교라는 공교육을 통해 읽기교육은 언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호나 매체 형식의 정보를 이해하고 해석하며 비판하는 등의 능동적 의미 구성 능력을 길러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읽기 능력의 발달은 국가로부터 주기적으로 추적되는데, 교육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주관하는 ‘학업성취도평가’를 통해 교육의 책무성을 높이고 교육 정책의 결정을 위해 학습자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현재 초6, 중3, 고2의 3개 학년을 대상으로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을 평가하고 있지만, 2024학년도부터는 초3, 초5, 중1, 고1로 대상 학년을 늘린다. 이는 학교급별로 기초 미달 학생을 찾아 촘촘하게 지원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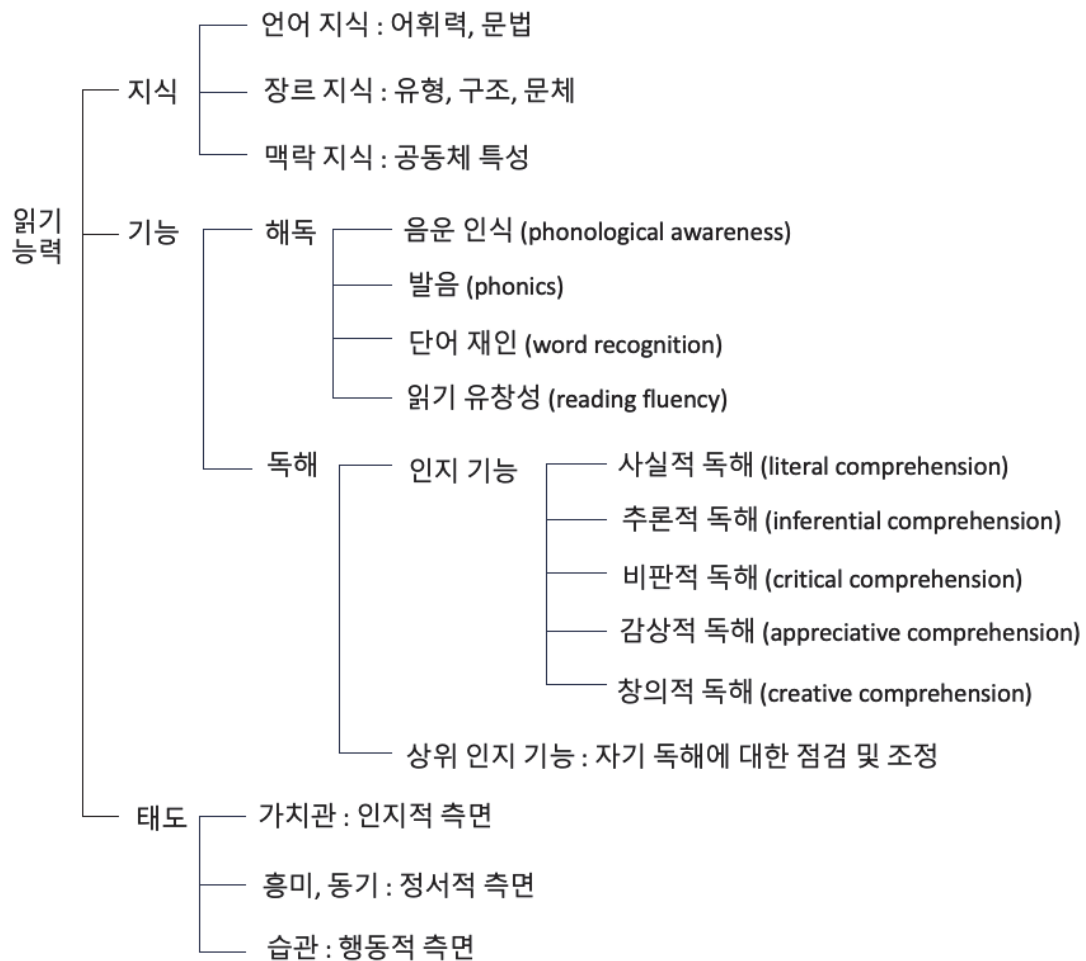
또한 학교에서 읽기의 대상이 되는 제재(materials)는 주로 인쇄물(printed writings)이었다. 그러나 정보기술의 급격한 발달로 디지털 시대가 도래하여 학교 및 일상생활 전반을 변화시키면서 읽기의 대상이 되는 텍스트의 성격도 디지털 기반 제재로 급변하였다. 주지하다시피 교육부는 2025년부터 ‘영어, 정보, 특수교육 국어’ 과목을 중심으로 학교에서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고 있으며, 2028년까지 ‘국어’도 인공지능 기반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도록 했다(교육부, 2023. 6. 8.).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읽기를 단지 종이책으로만 한정하여 ‘글자나 그림을 이해하는 것’ 정도로 가르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고, 다양한 기호 형식의 디지털 미디어로 구현되는 제재들로 읽기 대상을 확대하면서, 어떻게 다양한 디지털 기호들을 읽을 것인가 하는 정보처리 능력(information-processing skill)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2022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중 초1~중3까지의 국어교육 내용에서는 그동안 국어교육의 하위 내용에 잠재적으로 포함되어 있던 매체 교육을 영역 독립시켜 ‘매체 영역’을 별도로 신설하였다. 그만큼 매체 영역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읽기교육의

대상과 범위를 확장하는 데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국어과 교육에서 읽기교육은 교과교육과정 기반에 근거하여 읽기교육 내용이 통일되어 있다. 다인종, 이민 사회로 이루어진 미국의 경우, 정규 학교교육에 흡수되지 못한 이민자들과 저소득 계층의 학교 밖 문해력(Out-of-School Literacy) 교육에 정책적 관심이 크고, 또한 연구도 상당히 많이 이루어진 반면, 국내는 주로 학교 내에서 문해력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로 학교 중심의 문해력 실천 연구들이 많은 편이다. 즉 국내 읽기교육은 학교교육을 전제로 연구됐다.

따라서 읽기교육의 내용도 주로 잘 정리된 편인데, 천경록 외(2022: 71)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그림 II-4] 읽기 능력의 내용 요소(구인)

*출처: 천경록, 김혜정, 류보라(2022). 독서교육론 개정판. p.71.

이는 읽기 능력을 ‘지식-기능-태도’로 구분하고, 지식에서는 읽기를 하기 위해 필요한 지적 자원을, 기능에서는 읽기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인지 전략을, 태도에서는 읽

기를 지속하는 데 필요한 정의적 측면을 기술하였다. 이는 학교에서 읽기를 가르치고 배울 때 학습자가 신장시켜야 할 읽기 능력으로 설정된 요인들이라고 할 수 있다.

2.2. 학교 밖 넓은 의미의 ‘읽기교육’ 개념(reading of out-of-school)

학교 밖 넓은 의미의 ‘읽기교육’ 개념을 살펴보면, 첫째, 위에 언급하였듯이, 읽기의 대상이 단순히 인쇄물에서 다양한 기호 양식의 복합 양식적 텍스트로 확대되면서 읽기의 의미역도 바뀌게 되었다. 21세기 이후 정보기술(IT)의 급격한 발달로, 읽기 대상이 되는 텍스트는 문자 중심의 인쇄 텍스트(written text)에서 문자를 비롯한 다양한 기호, 시각 및 청각, 동영상 등이 복합적으로 구현되는 복합 양식 중심의 텍스트(multimodal text)로 변화되었고, 텍스트의 집적물 형태인 ‘책(book)’이 인터넷 기반에서 하이퍼텍스트로 구현되는 디지털 텍스트로 바뀌면서, 읽기의 개념도 ‘문해력(literacy)’과 거의 동등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책 이외에도 영화, 연극, 텔레비전, 컴퓨터, 정치, 시대, 상황, 기호, 음악, 미술, 신문, 등 모든 문화적 매체나 형식을 이해하는 것이 ‘읽기’로 수렴되고 있다. 예컨대, 호주 연방 교육과정(The Australian Curriculum, Assessment and Reporting Authority: ACARA 개발)에서는 읽기는 ‘보기(viewing)’를 포함하는 수용 양식으로, 쓰기는 ‘만들기(shaping)’를 포함하는 생산 양식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는 읽기 개념이 디지털 텍스트 읽기를 아우르는 넓은 개념으로 확장된 것을 뜻한다.

둘째, 읽기의 사용역은 쓰기와 말하기·듣기를 포함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사회구성주의 인식론이 전 세계 교육에 깊이 관여하면서, 읽는다는 것 자체가 사회적 실천이자, 사회적 참여(social participation)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 인식론에 따르면, 글을 읽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과의 내적 대화(inner speech)일 뿐 아니라 가상의 필자와의 대화이며, 나아가 담화 공동체 내의 다른 구성원과의 해석을 비교하며, 의미를 협상하는 머릿속의 과정이므로 읽기는 본질적으로 사회적 의미 구성 과정으로서의 독서, 즉 사회적 독서(social reading)라는 것이다. 따라서 글을 읽는다는 것은 방 한구석에서 혼자 조용히 묵독하는 개념이 아니라, (비록 그렇게 읽는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해석을 말하고 쓰며, 다른 사람의 해석을 듣고 읽으며, 다른 사람과 텍스트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며 읽기를 공유하는 것까지를 포괄하는 개념이 되었다.

또한 읽기와 쓰기의 발달은 두 영역이 분리되어 있지 않으며, 읽기와 쓰기를 통합할 때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많은 읽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 장면에서는 읽기와 쓰기의 경계가 불필요해지고, 점차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의 영역 통합 교육, 즉

총체적 언어 접근법(Whole Language Approaches)을 선호하고 있다. 영어권에서는 ‘reading’보다는 ‘literacy’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어떤 분야나 매체에 대한 읽기 능력을 갖춘 사람은 그 분야나 매체에 대한 식견을 갖추었다는 뜻이다. 이를 반영하듯, 세계적인 읽기 연구 학회인 국제읽기학회(International Reading Association)는 2015년부터 국제문해력학회(International Reading Association)로 명칭을 바꾸었다. 요컨대, 읽기는 쓰기 활동으로 수렴되고, 쓰기는 읽기 활동이 전제된다는 점에서, 읽기 능력은 쓰기를 포함한 보다 큰 ‘문해력’ 개념으로 확장되고 있다.

셋째, 삶의 기준에서는 다양하고 포괄적인 문해력이 요구된다. 학교 안에서 교과서를 통해 글을 읽는 경험이 읽기 능력을 신장시키는 것의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국어 성적=사회와 생활문해력’과 큰 차이가 없었으나, 지금은 사회 및 생활 속의 문해 환경(literacy environments)이 급변하면서, 학교 내 학업 능력으로서 국어 성적이 삶의 다양한 측면에서의 문해력과 큰 차이가 생겼다. 즉 학교에서의 국어 성적이 좋다고 해서 사회와 삶의 다양한 맥락에서 요구되는 과제 처리와 문제 해결의 아이디어 생성을 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또 반대로 학교의 국어 성적이 낮다고 해서 문해력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다. 요컨대,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문해력과 학교에서 가르치는 문해력 간의 간극이 심해지고 있다. 여기서는 보다 포괄적 경계를 가진 학교 밖 문해력의 정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국어과 교육에서도 단순히 시험을 위한 ‘읽기’ 능력이 아니라 삶을 고양할 수 있는 ‘문해력 교육’으로 확장하고 새로운 교육 내용을 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 내 국어과 교육에서는 주로 문자 해독과 같은 기초문해(fundamental literacy)와, ‘사실적 이해, 추론적 이해, 비판적 이해’와 같은 텍스트 독해에 필요한 전략 중심의 기능문해(functional literacy) 교육에 치중하고 있으나, 사회생활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주체적으로 자기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그 외에도 다양한 고차적 문해력(higher literacy)이 더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해 ‘기초적 문해력’에서부터 ‘고차적 문해력’의 발달 단계를 제시한 이론을 보면(김혜정, 2015), 과거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은, ‘미디어 문해력, 비판적 문해력, 문화적 문해력’ 등을 교육과정에 적극적으로 끌어들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미디어 문해력의 경우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매체 영역’의 신설로 주목되었으나, 여전히 ‘비판적 문해력’이나 ‘문화적 문해력’의 경우는 연구도 부족하거나와 교육의 중립성 유지라는 기준으로 인해, 교육의 장에 적극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결정에는 교육과정이 정치적 텍스트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들어 있기 때문이다.¹³⁾

13) 김혜정(2015)의 연구에서는 ‘문식성’이라는 개념을 썼지만, 본 연구에서 용어의 일관성을 위하여 ‘문

<표 II -4> 국어과 교육에서 중점 문해력의 등장과 배열

문해력	1~2학년군	3~4학년군	5~6학년군	7~9학년군	10학년
문화적 문해력					
비판적 문해력					
미디어 문해력					
기능적 문해력					

*출처: 김혜정(2015). 문식성 발달 이론과 국어교육 내용 관련 문식성 유형 검토, 국어교육연구. 36. p.487.

이에 따르면, 초등에서는 기초 문해력으로서 기능적 문해력(해독, 독해, 유창성)에 치중하다가, 초등 고학년부터는 미디어 문해력(디지털 기술의 이해, 정보 접근)을 교육하기 시작하고 중등 저학년에서는 비판적 문해력(정보의 가치 평가, 팩트 체크)을 집중적으로 지도하고, 중등 고학년에서는 문화적 문해력(문화의 향유와 생성)을 지도한다. 이는 적어도 교육에서 있어서는 문해력의 수준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며, 학습자의 발달 단계에 따라 접근의 시차가 있어야 함을 말하고자 한 것이다.

사회생활이나 일상생활에서 요구되는 문해력이 훨씬 포괄적이고 경계가 넓어서, 학교에서 배우는 문해력보다 훨씬 낮은 수준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학교에서는 텍스트 중심의 정보처리 능력만 배우기 때문에, 이런 문해력을 갖고 사회와 일상의 구체적이고 복잡한 맥락에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성인 문해력 교육에서는 사회생활과 일상생활에서 맞닥뜨리는 구체적인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맥락 기반 문해력(context based literacy)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문해력은 일차적으로 시대적으로 혹은 그 사회 혹은 문화권에서 통용되는 의사소통 기호인 ‘언어 양식’에 의해서 규정된다. 문해력은 복잡한 사회적 환경과 상황 속에서 그 본질을 이해할 수 있는 복잡한 개념이다. 이제 단지 언어를 읽고 쓰는 능력에서 더 나아가 변화하는 사회에서의 적응 및 대처하는 능력으로 그 개념이 확대되어야 한다.

2.3. 읽기교육 내용의 계열성

읽기교육 내용은 다른 교육 내용과 마찬가지로 계열성을 지니고 있는데, 첫째는 학년별 읽기 발달 단계에 따라 읽기 기능(전략)을 배열하고 있다. 이는 읽기교육 내용의 계열성으로서, 교육과정 설계에 적용되었다. 다음에 제시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읽기 기능의 배열을 참조할 수 있다(김창원 외, 2015: 112).

해력’으로 수정하였음.

<표 II -5>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읽기교육 내용의 계열성

기능	초등학교 1~2학년	초등학교 3~4학년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1~3학년	고등학교 1학년
낭독	소리 내어 읽기	→			
	띄어쓰기	→			
사실적 이해	중요한 내용 확인하기	중심 생각 파악하기	유형에 따른 대강 간추리기	목적에 따른 내용 요약하기	→
추론적 이해		짐작하기	생략된 내용 추론하기	내용 예측하기	→
비판적 이해		사실과 의견 판단하기	주장의 타당성, 표현의 적절성 판단하기	표현 방식 및 의도 평가하기	필자의 관점, 표현 방법 적절성 평가하기
창의적 이해				동일한 화제의 다양한 글 통합하기	문제 해결 및 대안 제시하기
상위 인지			읽기 전략 적용하기	읽기 과정의 점검과 조정하기	다양한 읽기 전략 적용하기

*출처: 김창원 외(2015). 2015 개정 교과교육과정 시안 개발 연구 I·II. p.112.

이를 보면, 확실히 ‘중심 내용 파악, 생략된 내용 추론, 요약, 주요 내용과 세부 내용의 구분’ 등 사실적 이해 기능은 저학년부터 일찍 출현하며, ‘텍스트의 비교, 주제 통합적 독서, 내용이나 표현 형식의 비판, 독서를 통한 문제 해결의 아이디어 찾기’ 등 비판적 이해나 창의적 이해에 해당하는 읽기 기능(전략)들이 고학년에 배치됨을 알 수 있다. 읽기 전략 자체에 난이도가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읽기 전략에 수준은 존재한다. 즉 읽기 평가에서 난이도 개념은 텍스트가 어려운지 쉬운지에 달려 있거나 문항 자체가 어려운지 쉬운지 등에 좌우되는 것이므로 읽기 기능(전략) 자체의 난이도는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읽기 기능은 이해의 수준(levels of comprehension)에 따라 구분된 것이므로, 학습자가 읽기에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쉽게 적용할 수 없는 전략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읽기 기능의 수준이 낮은 사실적 이해는 저학년에, 읽기 기능의 수준이 높은 비판적 이해나 창의적 이해는 고학년에 배치된다.

둘째, 우리나라와 미국의 주 공통핵심성취 기준(Common Core State Standards, 이하 CCSS) 간의 비교를 통해서도 읽기 기능의 위계성을 확인할 수 있다. 미국은 주마다 서로 다른 교육 환경과 교육 수준, 각기 다른 교육과정으로 인한 상이한 교육

내용과 결과 때문에 주 간 교육 정보들의 교류가 어렵게 되자, 이를 통일할 목적으로 연방정부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연구를 통해, 각 주의 교육과정에 꼭 담아야 할 핵심성취 기준을 발표하였다. 이것이 CCSS인데, 그 내용 중에 “Reading” 영역의 성취 기준을 다음과 같이 표로 재구성해 보았다. CCSS에서는 ‘사실적 이해-추론적 이해-비판적 이해-창의적 이해’에 해당하는 기능의 중영역을 ‘핵심 아이디어와 세부 내용의 구별’, ‘표현과 구조’, ‘지식과 아이디어의 통합’이라고 설정하고 있다. 각 중영역에 속하는 하위 성취 기준들은 그 오른쪽에 배열한 기능들이다. 이를 보면, 앞서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 읽기교육 내용의 계열성을 확인한 바와 같이, 성취 기준 내용들이 수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 -6> 한국과 미국의 CCSS 비교

수준	Range of Reading	낮은 수준> 높은 수준				
	전통적 명칭	Reading Skill of CCSS				
↓ 낮은 수준	사실적 독해 (정보 확인 및 이해)	핵심 아이디어와 세부 내용	▶ 텍스트의 명시적 정보 (화제, 세부 내용) 파악 ▶ 텍스트 내의 구체적 근거로부터 결론 도출	▶ 텍스트의 중심 생각 혹은 주제 파악		
		표현과 구조	▶ 텍스트의 명시적인 정보로부터 논리적 추론 ▶ 단어나 구의 기술적, 함축적, 비유적 의미 해석	▶ 핵심적인 뒷받침 내용 요약	▶ 중심 생각 및 주제의 발전 양상 분석	
	추론적 독해 (통합 및 해석)		▶ 구체적인 단어 선택의 의미 혹은 어조에 기여하는 효과 분석	▶ 구체적인 문장, 문단, 텍스트의 부분 (장, 절)과 전체 간의 관계 및 텍스트의 구조 분석	▶ 인물, 사건, 아이디어가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발전하며(발전 과정과 목적) 상호 작용하는지 분석	
	비판적 독해 (평가 및 성찰)	지식과 아이디어의 통합	▶ 다양한 형식과 매체 (시각적, 통계적 자료)의 내용 통합 및 평가	▶ 증거의 신뢰성, 주장 및 근거의 타당성 평가 ▶ 텍스트에 나타난 논쟁과 구체적인 주장 설명 & 타당성 평가	▶ 관점 혹은 의도가 텍스트의 내용과 표현을 어떻게 형성하는지 평가	
	감상 및 창의적 독해 (적용 및 해결)			▶ 지식 창출 및 관점 비교를 위해 둘 이상의 텍스트에서 유사한 화제와 주제를 어떻게 다루는지 분석	▶ 주장이나 주제 구성을 위해 다수 텍스트의 통합 및 활용	Level of Text Complexity

요컨대, 국내 읽기교육 내용은 전 세계적으로 공통되는 국외 논의들을 적절하게 수용하고 있으며, 읽기교육 내용으로 ‘사실적 이해-추론적 이해-비판적 이해-감상적 이해’와 같은 읽기 기능(전략)을 설정하고 있으며, 인지 수준(levels of comprehension)

에 따라 위계적으로 배열함으로써 학년별 학습자의 읽기 발달을 고려하여 교육하고자 함을 확인할 수 있다.

2.4. 읽기 이론에서 문해력 진단

2.4.1. 읽기의 구인(Constructs)

읽기 능력, 즉 읽기 문해력을 구성하는 내용은 크게 문자를 능숙하게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인 ‘해독(decoding)’과 정보를 처리하여 글 내용을 이해하는 능력인 ‘독해(comprehension)’, 그리고 읽기의 도구가 되는 ‘어휘력(vocabulary)’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 주로 참고로 하는 PIAAC의 문해 평가 영역을 봐도 동일한 요소를 확인할 수 있다(OECD, 2013: 18). PIAAC의 성인 능력(adult skills)은 3가지 평가로 이루어져 있는데, 아래 보는 바와 같이, ‘문해, 수리, 컴퓨터 기반 문제 해결’이다. 문해의 인지 전략은 <표 II-7>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접근 및 확인, 통합 및 해석, 평가와 성찰’로 구성됨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각각 ‘사실적 이해, 추론적 이해, 비판적 이해’ 전략에 해당한다.

<표 II-7> PIAAC의 성인 능력 조사 측정 영역 요약

구분	문해	수리	컴퓨터 기반 문제 해결
인지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근과 확인 • 통합과 해석(텍스트의 연결) • 평가와 성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인, 위치, 접근 • 행동과 활용(순서, 계산, 예측, 측정, 모델) • 해석, 평가, 분석 • 의사소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설정과 모니터링 과정 • 계획 • 정보 습득과 평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 기반 • 개인 • 사회와 공동체 • 교육과 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 기반 • 개인 • 사회와 공동체 • 교육과 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 기반 • 개인 • 사회와 공동체

*출처: OECD(2013). *Draft reading literacy framework*. p.18.

또한 미국의 권위 있는 전미 학업성취도평가(The National Assessment of Educational Progress, 이하 NAEP)에서도 읽기 평가를 다음과 같이 3개의 영역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2026년 평가부터는 1개를 더 추가하여 4개 평가 요소를 다루고 있다.

<표 II-8> NAEP의 읽기 평가 틀과 개선안

영역	2019 NAEP 읽기 평가 (2009 틀을 기반으로)	2026 NAEP 읽기 틀 개선안
정의	읽기는 다음을 포함한 활동적이고 복잡한 과정이다. 문자 텍스트 이해하기 텍스트에서 의미 발전시키고 해석하기 텍스트 양식, 목표, 상황에 맞게 의미 활용하기	독해는 텍스트로 의미를 만드는 일, 즉 여러 변인이 작동하여 만드는 복잡한 과정이다. 이해를 위해 독자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쇄 텍스트와 다중 양식 형태의 텍스트에 참여해야 한다. 기본적인 읽기 기술, 언어, 지식, 동기를 포함한 개인 자원을 동원해야 한다. 사회문화적 상황을 가로지르는 활동 속에서 의미를 추출하고, 구성하고, 통합하고, 비판하고, 적용해야 한다.
이해 목표	탐색과 회상 통합과 해석 비판과 평가	탐색과 회상 통합과 해석 분석과 평가 활용과 적용
학문 맥락	문학 텍스트 정보 텍스트 - 보다 일반적이지만 사회과학, 과학 등 기타 주제 포함	문학 상황 사회과학 상황 과학 상황

*출처: National Assessment Governing Board(2021).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2019 NAEP reading assessment & proposed 2026 NAEP reading framework*. p.1.

이를 보면, 읽기 영역의 평가 내용으로, ‘(정보의 위치) 확인 및 회상, 통합 및 해석, 비평 및 평가(~2019)’였으나 2026년부터는 ‘확인 및 회상, 통합 및 해석, 분석 및 평가, 적용 및 창안’으로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2026년부터 적용되는 평가에서는 창의적 이해에 해당하는 ‘적용’(apply) 요소가 포함되었는데, 이는 읽기가 단순히 ‘수용 활동’이 아닌 ‘생산 활동’까지 포괄함을 보여주는 단서이다. 이는 읽기 이론에서 말하는 ‘사실적 이해, 추론적 이해, 비판적 이해, 창의적 이해’에 대응된다고 할 수 있다.

이상으로 살펴본 세계적인 평가 도구들도 미국의 100년 이상 된 읽기 이론의 전통을 바탕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이론상으로 큰 차이가 없다. 이에 따라 읽기교육의 내용을 정리하여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II -9> 읽기 능력의 구성요소 : 해독 + 어휘 + 독해

해독(decoding)력				어휘력 (vocabulary)	독해(comprehension)력				
음운 인식 (phonological awareness)	발음 (phonics)	단어 재인 (word recognition)	낭독 유창성 (reading fluency)		사실적 독해 (literal comprehension)	추론적 독해 (inferential comprehension)	비판적 독해 (critical comprehension)	감상적 독해 (appreciative comprehension)	창의적 독해 (creative comprehension)
초기 문해 (early literacy)				어휘력 (vocabulary)	기능문해 (functional literacy)				
기초문해 (fundamental literacy)									

위 표에서 왼쪽은 주로 학습자 발달 단계별 초기 문해력(early literacy)에 해당하며, 미국 연방정부의 CCSS가 설정한 용어에 따르면, ‘기초문해(foundational literacy)’에 해당한다. 이는 초등학교 6학년까지 완성되어야 할 교육 내용으로 설정되어 있다. 반면, 오른쪽은 주로 기능문해(functional literacy)에 해당하며, ‘사실적 독해-추론적 독해-비판적 독해/감상적 독해/창의적 독해’로 하위 분류되는 5가지 기능(skills)으로 구성된다. 흔히 독해력으로 불리며, 중등 이상에서 읽기교육의 핵심 내용이 되고 있다.

특히 후자의 5가지 기능은 세계적으로 읽기 연구자 대부분이 동의하는 읽기의 3수준(levels of reading comprehension)에 근거한 층위로서(Ruddell, 2001: 113, 재인용), 국내 대부분의 읽기 중심 문해력 진단 도구와 ‘수능’ 등에서 중요한 평가 요소로 적용되어 왔다. 다만 최근 읽기나 독해의 하위 기능을 구분하는 용어에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인지주의 연구에서 명명한 용어를 바꾸어 사회적 구성주의 연구에서 제기하는 실천적 측면을 내세운 용어로 개량되는 경향이 있다. 이에 앞서 살펴보았듯이, ‘사실적 독해-추론적 독해-비판적 독해/감상적 독해/창의적 독해’라는 기능 중심 구분을 버리고, ‘탐색과 확인, 통합 및 해석, 평가와 창안’ 등의 행동적 용어로 바뀌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그것이 지시하는 내용(referents)은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다.

2.4.2. 세계적 평가 도구에서의 읽기(reading)의 평가 틀(framework)

- 대규모 표준화 검사, 선다형 평가를 전제로 설계된 읽기 검사 구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제적인 수준에서 성인 문해력을 시행하고, 국가 간 문해

력 차이를 비교할 수 있는 도구로는 PIAAC이 있다. 물론 각 국가는 자기 국가의 문해력의 특색을 반영하고, 문화적 특수성을 반영한 보다 세분된 성인 문해력 평가 도구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국립국어원에서 2013년부터 조사하고 있는 ‘국민의 국어능력’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국내 성인 문해력 평가는 국제 간 비교가 어렵다. OECD의 평가 도구는 그런 점에서 장점이 있으며, 1994년부터 국제 문해력 비교를 해왔다. 대표적으로 IALS는 세계 성인 문해력을 측정하고 비교하기 위한 국제적인 조사로, 1994년과 1998년에 2차례 진행되었으나, 현재 더 이상 시행되지 않고 있다. 또한 ALL 또한 성인의 삶에 필요한 기본적인 문해력 및 생활기능을 평가하기 위한 국제적인 조사로, 2004년과 2007년 총 2차에 걸쳐 진행되었으나 현재 더 이상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이 두 평가는 2011년부터 PIAAC으로 전환되었으며, ‘문해력, 수리력, 문제해결력’을 중심으로 5년마다 여러 국가에서 성인들의 문해력 수준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비교하고 있다. 이들 3가지 조사 간의 연결을 통하여 일부 국가의 13~17년 동안의 문해력 발달상을 비교 기술할 수 있게 되었다.¹⁴⁾

따라서 아래에는 OECD의 성인 문해력 평가 도구인 PIAAC을 중심으로 ‘읽기 문해력’과 ‘컴퓨터 기반 문제해결력(PST)’을 살펴보았다. 또 같은 기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만 15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국제 청소년 문해력 평가 도구인 국제 학생 평가 프로그램(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이하 PISA)의 읽기 평가 내용도 함께 참고하였다. OECD는 자체 연구 기관과 위원회를 조직하여 평가 도구 개발을 준비하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평가 요소나 평가 프레임이 유사하여, 내용을 공유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들 평가 도구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인지 중심의 평가

평가 내용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인지 과정 부분인데, 문항 개발의 준거가 되는 평가 요소이기 때문이다. 이를 보면, 정보처리 능력을 중심으로 한 인지(cognition) 평가가 주된 내용임을 알 수 있다. 최근 이들 평가 요소의 명칭은 ‘사실적 이해, 추론적 이해, 비판적 이해, 창의적 이해’ 등의 용어에서 ‘행동(action)’을 의미하는 ‘접근, 확인, 통합, 성찰’ 등의 용어로 바뀌고 있지만, 여전히 텍스트 처리 과정의 수준을 변별하고 있는 것은 공통적이다.

14) <https://www.oecd.org/skills/piaac/linksbetweenskillsassessedintheoecdssurveyofadultskillsallandials.htm>

<표 II -10> PIAAC(2018)과 PISA(2018)의 인지 전략

구분	PIAAC(2018)		PISA(2018)	
	문해	컴퓨터 기반 문제 해결		
인지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접근 및 확인 통합 및 해석 평가 및 성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표설정 및 진행 과정 점검 계획 정보 수집 및 평가 정보 활용 	텍스트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 확인 이해 평가와 성찰
			과제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표설정, 계획 수립 점검 및 조절

□ 실제적 평가

PIAAC은 ‘내용-인지 전략-맥락’(contents-cognitive strategies-contexts)의 3가지 입체적인 틀을 설계하고 있다. 내용에서는 평가에서 다룰 읽기의 대상, 즉 매체와 형식에 따른 다양한 텍스트의 종류를 설정하였고, 맥락에서는 읽기의 목적에 따른 맥락을 제시하였다. 가운데 인지 전략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이처럼 텍스트 양식과 맥락을 평가 틀에 반영하여 읽기가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환경을 고려함으로써 문항 개발의 실제성(authenticity)을 높였다.

<표 II -11> PIAAC(2018) 3가지 평가(문해력-수리력-문제해결력)의 평가 틀 비교

구분	문해	수리	컴퓨터 기반 문제 해결
내용	<p>다양한 텍스트 양식. 텍스트는 매체 특성(인쇄 매체 또는 디지털 매체)과 형식에 따른다.</p> <p>연속 또는 산문 텍스트 비연속 또는 문서 텍스트 혼합 텍스트 다중 텍스트</p>	<p>수학적 내용, 정보 또는 아이디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 또는 숫자, 차원 또는 도형, 패턴, 관계 그리고 변량, 데이터나 기회 <p>수학 정보 표현물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물과 그림, 수와 상징, 시각 표현물(예: 다이어그램, 지도, 그래프, 표), 텍스트, 디지털 표현물 	<p>기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드웨어 기기 소프트웨어 앱 명령어, 기능어 표현물(예: 텍스트, 그래프, 비디오) <p>과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적 복잡성 문제 진술의 명확성
인지 전략	<p>접근과 확인 통합과 해석(텍스트의 연결) 평가와 성찰</p>	<p>확인, 위치, 접근 행동과 활용(순서, 계산, 예측, 측정, 모델) 해석, 평가, 분석 의사소통</p>	<p>목표설정과 모니터 과정 계획 정보 습득과 평가</p>
맥락	<p>일 기반 개인 사회와 공동체 교육과 훈련</p>	<p>일 기반 개인 사회와 공동체 교육과 훈련</p>	<p>일 기반 개인 사회와 공동체</p>

이 중에서 문해력 평가의 내용과 맥락을 PISA(2018), NAEP(proposed 2026)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PIAAC(2018)의 평가 틀은 2022~2023의 평가에도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현재 OECD 2022년의 조사 결과는 분석 중이다.

<표 II-12> PIAAC, PISA, NAEP의 Framework 비교

PIAAC(2018)			PISA(2018)			NAEP(~2026)		
맥락	텍스트	인지 전략	맥락	텍스트	과정	맥락	텍스트	인지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업 관련 개인적 사회와 공동체 교육 및 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속적 텍스트 또는 산문 비연속적 텍스트 또는 문서 텍스트 혼합 텍스트 복합 텍스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접근 및 확인 통합 및 해석 평가 및 성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적 공적 교육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체: 인쇄 또는 전자물 환경: 필자 또는 메시지 중심 형식: 연속적 또는 비연속적 텍스트 혼합 또는 복합 텍스트 유형: 묘사, 서사, 설명, 논증, 지시 또는 교섭(transaction)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텍스트 처리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 확인 이해 평가 및 성찰 2. 과제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표 설정 계획 점검 및 조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문 맥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학 맥락 사회과 맥락 과학과 맥락 2.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해력 증진 문제 해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학 텍스트 사회 텍스트 과학 텍스트 2. 형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적 텍스트(이미지, 그래프, 인쇄물) 동적 텍스트(비디오, 내비게이션, 하이퍼링크) 3. 텍스트 복잡도: 전문가 평정, 길이, 양적/질적 복잡도 수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확인 및 회상 통합 및 해석 분석과 평가 사용과 적용

이들 평가 준거 틀을 간단히 살펴보면,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맥락-텍스트-인지’의 3가지 측면을 입체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도구 개발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고와 관련하여 성인 문해력 진단 도구 또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도 이러한 평가 준거 틀을 참조하여 다층위적 측면에서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3. 시사점

문해가 가진 다양한 의미를 정책 담론, 주요 이론, 읽기 이론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향후 본격적인 성인 문해교육의 진단 도구와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론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문해교육에 참여하는 학습자들의 생활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16세 이상의 청소년과 성인이 참여하는 문해교육은 정형적인 교육과정의 틀에서 이루어지기보다는 세대별, 집단별, 지역별 요구에 근거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앞선 문해 관련 논의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최근의 문해 연구들은 표준화된 틀보다는 문해교육에 참여하는 학습자들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특수성을 집중하고 있다. 둘째, 문해교육의 영역을 읽기 중심으로 설정하되 확장적 문해 영역도 고려해야 한다. 정책 영역에서 문해교육은 국어능력뿐만 아니라 기초문해와 기능문해, 직업 기초 영역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최근 삶의 기본 소양으로서 금융문해, 미디어문해, 건강문해 등이 중요해지고 있다. 셋째, 평가 준거 틀을 참조할 때, ‘문해 전략-맥락-텍스트’와 같은 입체적인 교육 틀을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프로그램 개발에서는 읽기 기능(전략)을 중심 내용으로 하되, 실제 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학습자의 요구와 목적 등을 고려한 ‘읽기 맥락’을 설정하고, 변화된 문해 환경을 반영하여 인쇄물 텍스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복합 양식적 텍스트를 교육 내용에 포함하여, 텍스트의 경계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진단 도구 개발에서는 세계적인 성인 문해력 진단 도구를 참조하여 큰 틀은 공유하되, 세부적인 평가 요소를 설정할 때는 국내의 문해 환경을 고려하여 국내 읽기교육의 특수성을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문해력의 향상이나, 문해력에 이르는 교육적 실천의 공간에서는 지식, 기능, 태도의 적절한 조화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단순히 인지 기능(전략)의 교육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정의적 영역(affective domain)의 발달까지도 함께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말하기·듣기, 읽기, 쓰기’의 총체적 접근은 물론, ‘지식, 기능, 태도’ 간의 통합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제3 장

문해교육 프로그램 및 진단 체제 운영 현황



1. 국내 문해교육 및 진단 체제 현황

1.1. 국내 문해교육 프로그램 현황 분석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만 16세 이상의 청소년과 성인 대상 문해교육 프로그램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관들의 프로그램을 조사하였다. 우선 국립국어원이 속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조사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서는 국립국어원에서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교육 프로그램과 (사)국어문화연합회 산하의 각 지역 국어문화원에서 운영한 일반 성인 대상 프로그램을 조사하였다. 국립장애인도서관이나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등에서도 독서 프로그램 혹은 문자해독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으나 본 연구가 목표로 하는 ‘16세 이상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라 보기 어려워 제외하였다.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평생교육기관과 중첩되거나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국가문해교육센터의 지원을 받는 경우도 많아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프로그램 현황에서 제외하였다.

두 번째로 교육부 산하 기관들이다. 교육부 산하 기관으로 성인 문해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은 학교를 제외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산하 국가문해교육센터와 시도문해교육센터를 비롯한 평생교육기관으로 한정하여 조사하였다. 국가문해교육센터는 직접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콘텐츠와 학습 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강사 양성을 위한 지원체계도 갖추고 있기에 이와 관련된 현황도 분석에 포함하였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비대면으로 학습콘텐츠를 제공하거나 평생학습 관련 프로그램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국가 평생학습 포털 늘배움,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인 K-MOOC(Korean Massive Open Online Course), 그리고 K-MOOC와 유사한 플랫폼으로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에서 제공하는 고등교육 교수학습 자료 공동 활용 체제인 KOCW(Korea Open Course Ware)에서 제공되고 있는 성인 대상 문해교육 프로그램도 분석하였다.

성인 직업교육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성인 문해력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살펴보았다. 성인 직업교육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성인 문해력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살펴보았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평가와 관련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원의 직업기초능력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을 살펴보았으며, 한국고용정보원 산하기관으로 직장인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직업훈련 포털 HRD-Net과 한국표준협회의 원격 평생교육시설인 KSAEDU, 입직기 청년들을 위해

온라인 진로교육 프로그램들을 제공하는 사이버 진로교육센터를 살펴보았다. 전문대학협의회에서 제공하는 기초 국어능력 진단 프로그램과 관련 교육 프로그램 현황도 이 절에 포함되었다.

마지막으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문해력을 측정하고 문해력 향상을 위한 교육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EBS 당신의 문해력+’ 프로그램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국민적 관심을 상당히 많이 받은 프로그램이기에 ‘당신의 문해력’이라는 이름으로 후속 프로그램, 교재 개발 등 다양한 방면으로 관련 프로그램이 확대 제작되었으나, 대상이 아동·청소년이거나 학업 능력과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하여, 본 연구의 관심에 해당하는 일반 성인의 문해력과 관련된 내용만 분석에 포함하였다.

1.1.1. 국립국어원¹⁵⁾

현재 국립국어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 활동은 국어문화학교, 한국어교원 자격과정, ‘알고 싶은 한글’, 한국어 교수 학습 센터, 그리고 우리말 꿈터로 요약할 수 있다. 이 중, 한국어교원 자격의 경우 자격증 발급을 위한 학위과정과 비학위과정에 대한 교육이며 국립국어원에서 직접 교육 활동을 주관한다기보다 자격증 발급과 관련된 사항을 관리하는 활동이다. ‘알고 싶은 한글’은 한글과 관련된 지식을 망라한 전자책과 같은 프로그램이며, 우리말 꿈터는 그 대상이 어린이와 청소년이다. 따라서, 만 16세 이상 청소년과 성인의 문해 활동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들은 이 절의 분석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국립국어원에서 이루어지는 일반 성인 대상 국어교육은 국어문화학교를 통해 주로 이루어진다. 국어문화학교는 국립국어원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국어 지식 보급을 위해 1992년부터 직접 운영하는 국어교육으로, 현재에는 집합교육(대면) 프로그램과 비대면 교육과정을 병행하고 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온라인 과정과 찾아가는 과정, 그리고 교사 직무 연수 등이 있다. 국립국어원이 국어문화학교를 통해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은 <표 III-1>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5) 이 부분의 내용은 국립국어원(<https://www.korean.go.kr/>)과 국어문화학교 누리집(<https://edu.korean.go.kr/kires/index.html>) 내용을 바탕으로 함.

<표 III-1> 국어문화원별 프로그램 개요

분류	강좌명	교육 대상	교육 방식	교육 시수 차시(시간)
온라인 과정	한글 맞춤법	일반 국민	비대면	15 (7)
	표준어 규정	일반 국민		10 (5)
	외래어 표기법	일반 국민		8 (4)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일반 국민		3 (1)
	띄어쓰기	일반 국민		10 (5)
	생활 속 어문 규범	일반 국민		15 (7)
	청소년을 위한 어문 규범	일반 국민		6 (3)
	교과서와 함께하는 어문 규정	일반 국민		8 (4)
	국어책임관 길잡이	일반 국민		3 (1)
	보도자로 바르게 쓰기	일반 국민		6 (3)
	공문서 바로 쓰기	일반 국민		10 (5)
	우리말 다듬기	일반 국민		9 (4)
	공공언어 바르게 쓰기	일반 국민		5 (2)
	정책명과 공공언어	일반 국민		3 (1)
	행정 용어와 공공언어	일반 국민		4 (2)
	일상용어와 공공언어	일반 국민		4 (2)
	언어 폭력 개선을 위한 올바른 말하기	일반 국민		7 (3)
	표준 언어 예절	일반 국민		15 (7)
	돋보기로 들여다본 나의 언어	일반 국민		8 (4)
	소통과 공감에 있는 즐거운 말하기	일반 국민		10 (5)
	미래를 여는 소통, 독서	일반 국민		5 (2)
	디지털 시민의 언어생활	일반 국민		4 (2)
	병명 언어 예절	일반 국민		4 (2)
	북한 이탈 주민을 위한 남한 생활 표현 익히기	일반 국민		8 (4)
	훈민정음의 이해	일반 국민		6 (3)
	말뭉치의 이해와 활용	일반 국민		4 (2)
찾아 가는 과정	한글 맞춤법의 이해	희망 기관/단체	대면	2시간
	어문 규범의 이해			2시간
	공공언어의 이해			2시간
	쉽고 바른 공공언어 쓰기			2시간
	보도자료 작성의 이해			2시간
	문장 바로 쓰기			2시간
	병명 언어 예절			2시간
	소통과 배려의 말하기(언어 예절)			2시간
기획 과정	공공언어 과정	공무원/공 공기관 종사자	비대면 (실시간 온라인)	1일 과정/ 2일 과정
	교사 직무 연수	교사 및 교육 전문직	대면	4일 과정

*출처: 국립국어원 국어문화학교 누리집 (<https://edu.korean.go.kr/kires/index.html>)

국립국어원의 일반 성인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정보 전달과 쓰기 활동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어문 규정 관련 수업의 경우 규정에 대한 숙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공공언어의 경우에도 관련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수업이 많다. 찾아가는 과정의 경우 어문 규정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이 정보와 지식을 바탕으로 제대로 된 문서 작성을 안내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고 있다. 교육 프로그램의 대상에 있어, 공무원, 공직자, 교사 등 대민 업무에 있어 올바른 한국어 사용이 요구되는 공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문해력 향상과 관련되는 과정은 ‘디지털 시민의 언어생활’ 정도로 볼 수 있다.

1.1.2. 국어문화원연합회 및 국어문화원

국어문화원은 2005년 ‘국어 상담소’로 국가 지정을 받아 설립된 국어 상담 전문 기관으로 2008년에 관련법 개정으로 ‘국어문화원’으로 이름이 바뀌었으며 전국에 22곳이 지정 운영되고 있다. 대부분이 대학교 부설기관이며 예외적으로 세종(구 국어단체연합) 국어문화원, 한글문화연대 국어문화원, 한국방송 국어문화원 등이 있다. 그 시작이 국어 관련 상담 활동이었기 때문에 주요 사업은 국어 상담 및 교정·교열, 운문 등이 있으며 교육 활동은 국립국어원에서 위탁하는 ‘찾아가는 과정’ 이외에 이주민 대상 한국어교육과 어린이 대상 ‘쑥쑥 국어교실’이 주를 이룬다. 문화 행사로 한글날 행사 등을 진행하기도 한다.

국어문화원연합회(2023)의 2022년 백서에 따르면, 대면과 비대면 방식을 결합하여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어 관련 교육 프로그램이 총 21,900명에게 실시되었으며 이 중 대면으로 이루어진 교육은 5,835명, 비대면으로 진행된 교육은 16,065명이었다. 또한, 공무원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국어교육 역시 대면과 비대면 방식의 조합을 통해 총 14,865명에게 제공되었다. 개별 국어문화원별로 조금씩 교육프로그램 내용과 구성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었으나, 교정교열 사업과 찾아가는 과정은 대부분의 국어문화원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며, 그 외의 교육활동은 지역별 학습자 특성에 따라 운영되는 경향이 보였다.

공통 교육 프로그램을 제외하고, 국어문화원에서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문해력 향상과 관련될 만한 교육 프로그램을 추려내면 아래 <표 III-2>와 같다.

<표 III-2> 국어문화원 프로그램 교육과정 개요

기관명	교육과정	프로그램 개요 및 특징
경북대	실용 글쓰기 능력 향상을 위한 글쓰기 특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차시, 10명 (내외국인) 한국 실용 글쓰기 검정시험 대비 대학원생 연구 관련 글쓰기
고려대	매력적인 글을 쓰는 법 (세종시, 시민대학 무료교육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글감 발굴, 생각을 만드는 연습, 창의적인 표현력 연습 등
	알고 보면 더 재미있는 우리말 글의 문화 (세종시, 시민대학 무료 강좌)	<ul style="list-style-type: none"> 5천 년 전 우리말은 어떻게 형성되었나, 도대체 왕이 문자를 왜 만들었을까? 반갑다 사투리, 한국문학 등
세종	국민 국어능력 향상 프로그램 <독서법과 글쓰기 기본 다지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평을 위한 읽기, 서평 쓰기 입문, 설득력 있는 글과 말하기 방법
	취약 계층 대상 국어능력 향상 교육: 어르신 국어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60회, 서울, 경기, 충북, 전남, 부산, 광주 등 치유와 성찰을 위한 자기 서사 쓰기 프로그램 세대 간 갈등 극복을 위한 화법 프로그램, 시 향유 프로그램
	지역민 대상 국어능력 향상 교육 <글쓰기 틈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첫 문장 쓰기, 책을 읽고 글쓰기, 주제가 있는 글쓰기, 논리적인 글쓰기, 작품 평가, 서평을 위한 책 읽기 등 3기 15차시
	독서법과 글쓰기 기본 다지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5주, 비대면, 30명 내외 참여 지속
안양대	그림책을 통한 향상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6개 기관에서 운영 (아동 돌봄센터, 종합복지관 등) 발달장애인, 문해학교나 복지관 어르신, 방과후교실, 초등학교 특강, 다문화가정 자녀 등
이화여대	취약 계층 언어 예절 개선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시 여성보호센터 노숙인 5명 시 쓰기, 문집 만들기 등
제주대	이주민, 결혼이민자 대상 제주어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어 교육
청주대	청주 시민과 함께하는 인문학 강좌	<ul style="list-style-type: none"> 8회 국립청주박물관 및 충북지방병무청

* 출처: 국어문화원연합회(2023). 2022 국어문화원 지원 사업 자료집. 각 문화원 사업성과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

국어문화원 교육 프로그램에서 흥미로운 점은 한글과 관련된 정보 제공 활동이 많은 것이다. 올바른 맞춤법 등의 내용을 이메일 혹은 포스터 게시 등의 비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정보 제공 활동을 교육 활동의 하나로 분류하여 보고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매주 보내는 어문 규정 관련 소식지 형식의 이메일을 배포하는 것이 교육 프로그램으로 분류, 보고되었으며, ‘찾아가는 바른 우리말 선생님’ 프로그램 또한 선택한 언어 관련 주제로 40분 분량의 영상을 제작하여 전국 초·중등 450개 학교에 배포하는 사업으로, 교육 활동으로 보고되었다. 후자의 경우, 학교에서 요청받아 145개 학교에서 아나운서 실시간 비대면 강의를 추가로 진행한 예도 있었다.

추가로 국어문화원은 대부분 지역 대학교 내에 위치하면서 지역사회와의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확장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예를 들어 고려대 프로그램 중 세종책문화센터와 연계 프로그램으로 한글 창제와 관련된 6차시 프로그램이 있었다.

1.1.3. 국가문해교육센터¹⁶⁾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을 주관하는 국가문해교육센터는 전국적인 성인 문해교육을 총괄하는 기관이다. 정부는 2006년부터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을 통해 민간기관과 공공기관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던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기 시작하였으며, 민간 문해교육기관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문해교원 양성과 교재 개발 등을 추진하였다(변종임, 이경아, 허준, 2012). 2007년 12월에는 개정된 「평생교육법」에 따라 초등·중학교 수준의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성인 학습자에 대해 학력을 인정해주는 학력인정제도가 도입되었으며(허준, 김지현, 이정은, 2022), 2016년 「평생교육법」 제39조2(문해교육센터 설치 등)에 근거하여 국가문해교육센터가 설립되었다.






국가문해교육센터는 지자체 평생교육진흥원과 연계하여 기초문해교육 사업을 지원하고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성인 기초문해교육 교원 연수 등을 주요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성인 기초문해교육은 문해력이 부족한 성인들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글 읽기와 쓰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며, 생활문해교육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문해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국가문해교육센터 누리집에 제시된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첫째, ‘광역 문해교육 지원’ 사업은 시도 단위 맞춤형 문해교육 지원 체제 구축을 위해 지역거점 기관을 선정하고 이 기관을 중심으로 해당 지역의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문해교육 대상자 발굴·상담 지원, 해당 지역의 문해교육 기관 간 연계 체제 구축(컨설팅, 워크숍 등), 문해교육 교원 양성 및 연수 개최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둘째, ‘성

16) 이 부분의 내용 중 별다른 인용이 없는 내용은 국가문해교육센터 누리집(<https://www.le.or.kr/>)의 내용을 바탕으로 함.

인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은 저학력·비문해 성인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초 지자체 및 소속기관, 학교, 평생교육시설, 비영리 민간단체 등에 프로그램 운영비(교·강사비, 체험 활동비 등)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도문해교육센터가 1차 심사를 진행한 후, 국가문해교육센터에서 최종 심사를 진행하며, 한 해에 400여 개 기관에 4만 명 이상의 성인 학습자의 문해 학습을 지원하고 있다. 2006년 첫해 사업에서 국고 기준 13억을 투입하였으며, 2023년 국고 지원은 41억이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관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에서 100% 대응투자를 하는 것이 조건이다(교육부, 2023). 셋째, '성인 문해교육 학력인정제도'는 학령기에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성인 학습자가 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통해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학력인정제도는 국가가 공식적으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성인 문해교육 기관에서 이루어진 문해교육을 학력으로 인정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국가문해교육센터는 문해교원을 양성하고 보수교육을 제공하며, 성인 문해교육 교과서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다.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위해 개발된 교과서로는 초등 교육과정 소망·배움·지혜의 나무 각 4권, 워크북 총 3권, 교사용 지도서 총 3권이 있으며, 중학 교육과정으로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 각 3권과 교사용 지도서 총 5권이 있다. 문해교육 교원 연수는 초등과 중학 연수 과정으로 구분되며, 각 과정은 2개 역량(기본 역량, 전문 역량), 13개 교과목, 35개 세부 교육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연수 시간은 67시간이다. 넷째, '성인 문해능력 조사'는 3년을 주기로 통계청 승인을 받아 만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기초문해력"(허준 외, 2023: 223)을 측정하는 사업이다. 2023년에 4차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조사 결과는 국민의 기초문해력 수준 변화를 측정하고 성인 기초문해교육 대상자와 필요한 문해교육 수준을 파악하는 데에 활용된다(허준 외, 2023). 다섯째, '문해교육 활성화' 사업은 문해의 달 행사와 전국 시화전 개최 등의 참여형 행사와 더불어, 민·관·기업과 연계하여 문해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협력 활동으로 생활문해 교재 개발 및 학습콘텐츠 제작이 있는데, 지역 성인 문해 학습자의 생활문해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생활문해 교과서(전자책)와 방송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다.

<표 III-3> 국가문해교육센터 발간 생활문해 교재

영역	교과서	워크북	교수학습 자료	협력 개발
교통안전 문해				TBN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방송 (라디오방송 송출)
디지털문해 교육 (2020)				
디지털 키오스크 (2023)				한국맥도날드
금융문해 교육				금융감독원
건강문해 교육				식품의약품안전처

영역	교과서	워크북	교수학습 자료	협력 개발
문해교육 안전 도우미				에스원 블루에셋

*출처: 성인 문해교육 e-학습터 (<https://www.le.or.kr/edu/livEbook3In.do>)

또한, 국가문해교육센터에서는 개별 문해 학습자의 학습을 지원하고 문해교사들의 교수활동을 지원하고자 e-학습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가문해교육센터가 EBS와 함께 만든 생활문해교육 방송 ‘학교 가기 좋은 날’도 누리집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모범생’이라는 문해 콘텐츠를 유튜브 채널¹⁷⁾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표 III-4> 생활문해교육 방송 학교 가기 좋은 날(시즌6) 주요 목차

회	제목	주요 내용
4회	금융 정보 활용하기	금융 정보를 이해하고 제대로 활용하기(Bank, Account)
5회	금융 사기 예방하기	금융 사기의 종류와 예방법 학습(Fishing, Voice phishing)
8회	교통안전 표지판	표지판 읽는 방법과 표지판 예시 학습(silver, zone, silver zone)
9회	스마트폰 익히기	스마트폰 기능 익히기(smartphone, display)
12회	SNS 시작하기	SNS(메신저)를 활용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학습(talk, profile)
15회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 방법 알기(medicine)
16회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이해(vitamin)
24회	은행 창구 이용하기	계좌 개설 방법 및 입금, 출금, 송금 방법에 대해 학습

*출처: 국가문해교육센터 누리집 (<https://www.le.or.kr/index.do>)

광역 단위 시도평생교육진흥원에서도 지역민에게 맞는 생활문해 및 고급문해 교재를 개발하기도 한다. 몇 가지 예를 들자면 『전남지역과 이순신』, 『비그플 사용 매뉴얼』(문해 학습 애플리케이션), 『막달씨의 비밀』(성인 문해 학습자 그림 동화) 등이 있다. 이러한 교재들은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자체 제작하는 경우도 있지만, 특성화 프로그램과 연관 지어 발간되기도 한다. 2019년에 보고된 성인 문해교육 특성화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17) <https://www.youtube.com/@niletv>

<표 III-5> 2019년 문해교육 특성화 프로그램

연번	강의명	연번	강의명
1	자서전 출판	4	시 쓰기 교실 (창작곡 발표)
2	치유의 글쓰기 체험	5	그림책 작가 수업 (그림책 공부, 그림 그리기)
3	인문학 체험 여행	6	지역 교재 편찬 (화순 문화 축제, 버스노선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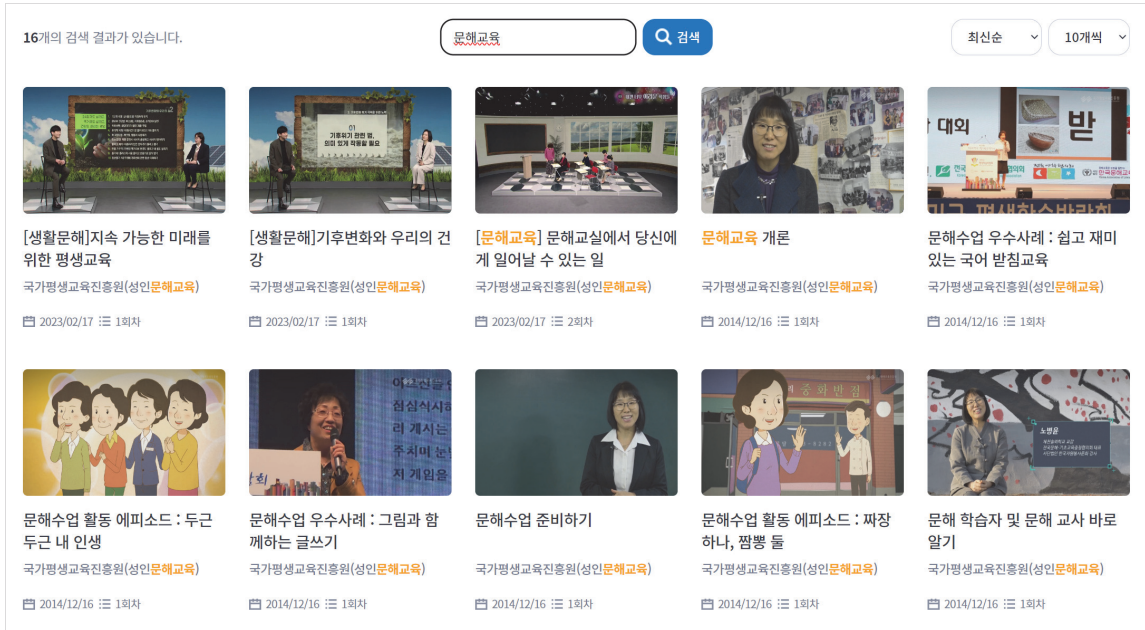
*출처: 국가문해교육센터 누리집 (<https://www.le.or.kr/index.do>)

1.1.4. 국가 평생학습 포털 늘배움

국가 평생학습 포털 '늘배움'¹⁸⁾은 전국에 산재하여 있는 평생교육 정보, 학습콘텐츠 등을 한곳에서 제공하여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평생학습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평생학습 종합 포털"로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운영하는 온라인 사이트이다. 온라인 학습 과정의 경우 검색, 수강 신청, 증명서 발급 등이 늘배움 사이트에서 완료가 되고, 오프라인 교육정보의 경우 기관 검색과 프로그램 검색이 사이트 내에서 이루어지지만 검색 결과를 바탕으로 한 등록 등의 과정은 각 프로그램 제공처의 등록 조건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늘배움은 학습콘텐츠를 직접 생산해내는 사이트라기보다는 학습콘텐츠를 제공하는 여러 국가 기구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민간 교육 기업의 학습콘텐츠를 모두 한곳에서 검색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플랫폼이다. 플랫폼의 기능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여러 기관과의 유기적이고 긴밀한 협력체제가 중요하다. 현재 늘배움에 연계 기관에는 17개 시도에서 운영 중인 평생교육 기관 및 강좌 정보 제공 기관을 비롯하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DI 사이버 연수원,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한국직업방송, EBS 한국교육방송, 국립국악원의 국악교육과 e-국악아카데미,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의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과학기술 인재 양성 교육, 한국생산성본부 직무교육, 선거연수원의 민주시민교육,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미디어, 언론인 연수 교육,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교육과 같은 국가 기관 산하 교육 프로그램 제공 기관과 민간기업인 휴넷 상상마루와 애니컴 삼성시각장애인정보화교육센터 등이 있으며, 온라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기관들은 모두 무료로 온라인 강의를 제공하고 있다. 인문 교양 과목과 직업교육 관련 콘텐츠들은 이후에 나올 프로그램 현황과 중복되어 제외하고, 문해교육을 검색하였을 때 그 결과는 [그림 III-1]과 같다.

18) <https://www.lifelongedu.go.kr>



[그림 III-1] 늘배움 문해교육 프로그램 검색 결과 화면

*출처: 늘배움 누리집 (<https://www.lifelongedu.go.kr>)

문해교육 프로그램으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늘배움 검색을 통해 찾아낸 일반 국민의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예를 요약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유아·아동의 문해력 증진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처럼 문해력의 대상이 아동이지만 실제 수업의 대상이 부모나 주 양육자인 프로그램들이 다수 있었으며, 앞서 설명한 성인 기초문해교육 프로그램, 인문학 독서 프로그램 등이 다수 발견되었으며, 이 외에도 국어 지도와 관련된 자격증 과정 혹은 직무 연수 과정 등이 포함되었다.

<표 III-6> 늘배움 검색 결과 요약: 평생교육 기관 운영 프로그램

연번	평생교육 기관 운영 프로그램
1	아이의 디지털문해를 키우는 학부모 특강
2	우리 아이 그림책 문해력
3	그림책으로 문해력 탄탄
4	슬기로운 언어생활 (청소년 자녀와의 대화법)
5	[디지털 직업생활문해교실] 정보기술 자격반
6	학력인정 과정 문해교실
7	6070세대 디지털문해교육 (기초, 중급)
8	문해교육 활동가 역량 강화
9	국어문법지도사 (인력개발센터 강좌)
10	글쓰기 교육 전문지도사

*출처: 늘배움 누리집 (<https://www.lifelongedu.go.kr>)

국가 평생학습 포털 늘배움은 자체 교육 프로그램 제공처로서의 의미보다는 플랫폼으로서의 의미가 강하다. 특히 여러 국가 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들을 한번에 검색할 수 있고 무료로 참여하고 학습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다른 기관이 연계를 통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할 때 교육 프로그램 탑재를 위한 별도의 사이트 운영 없이 늘배움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다.

1.1.5. K-MOOC와 KOCW

무크(MOOC)란 ‘Massive, Open, Online, Course’의 줄임말로 「평생교육법」 제22조 및 「고등교육법」 제26조에 따라 수강인원의 제한 없이(Massive) 모든 사람이 수강할 수 있는(Open) 웹 기반의(Online) 강좌(Course)를 뜻한다.¹⁹⁾ K-MOOC는 무크(MOOC)의 한국형 모델로 모든 국민이 학습할 수 있는 온라인 지식 공유 플랫폼으로 개발하였으며,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운영하는 오픈형 온라인 학습 과정이다.

주로 대학의 교수들이 강의를 진행하며, 대학생 수준을 전제한 강의들이기 때문에 대체로 수준이 높은 편이다. 각 강의는 대학교 교육과정과 유사하게 상당수가 10에서 15주 차 정도의 차시로 구성된다. 인문, 사회, 교육, 공학, 자연, 의약, 예체능 및 융복합 분야로 구성되며, 2023년 가을 현재 2,400개가 넘는 강의를 제공하고 있다. 인문학 분야에서 ‘한국학’ 강의로 분류되는 강의는 한국 문화 102개 강좌이며 한국어 61개 강좌이다. 하지만 이 분류에 속하지 않더라도 문해교육과 관련된 강의로 볼 수 있는 강의들이 다수 발견된다. K-MOOC에서 ‘한글’, ‘문해’, ‘한국어’를 검색어로 검색한 후, 외국어로서 한국어 관련 강의, 불교와 같은 종교 내용을 포함하는 한국 문화 강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강의, 고전 읽기와 같은 문학작품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들을 제외하였을 때, 문해교육과의 관련성이 높은 강좌들이 다수 발견되었다. 주로 문자로서 한글을 탐구하는 강좌 외에 비전공생을 위한 어문 규정 관련 수업이 있었으며, 한국 문화 혹은 지역문화를 국어와 관련지어 다루는 내용도 있었으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강의는 글쓰기와 문법과 관련된 강의들이었다. 그 검색 결과의 일부를 자세하게 정리하자면 다음 표와 같다.

19) <http://www.kmooc.kr>

<표 III-7> K-MOOC 문해 관련 강의 목록

연번	제목	강의자	운영기관	주차	수업 내용/ 수업 목표
1	재미있는 한국어 표기법 이야기	김양진	경희대학교 K학술확산 연구소	12주	본 강좌의 목적은 한국어 학습에서 한글 맞춤법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원론적인 이야기로부터 한국어의 발음, 한국어의 형태, 한국어의 준말, 한국어 속에 들어와 있는 외래어, 단어와 띄어쓰기 문제, 그리고 신조어들과 문장 표기에서 나타나는 몇몇 특수표기들을 중심으로 한글 맞춤법과 관련된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나누어서 살펴봄으로써 한국어를 바르게 쓸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하고자 한 것이다.
2	한국의 문자 발명가와 표기의 역사	장경준	고려대학교 (한국언어 문화학술확 산연구소)	10주	설총과 이두, 차자표기의 탄생 차자표기의 종류와 초기 이두 자료, 8세기~10세기의 이두 자료, 15세기 이후 한글과 이두, 구결의 공존, 한글 표기의 변화
3	문자와 한글	김종진	동국대학교 K학술확산 연구소	10주	1) 한국어의 발달과 한글 창제 2) 향찰 표기와 구결 3) 불교문학과 관련된 한글 서사 문학 4) 한글 시가문학
4	성인 학습자를 위한 대학 글쓰기	주민재 허운	명지대학교	15주	성인 학습자가 대학의 다양한 글쓰기를 수행하는 데 필수적이면서도 공통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이해 및 적용할 수 있도록 개념과 학습활동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대학에서의 글쓰기에 대한 기본 이해, 텍스트 읽기의 구체적 방법, 문장과 단락 쓰기, 학술적 에세이 쓰기에 필요한 자료 활용과 요약하기 등 대학에서 성인 학습자가 갖추어야 할 기본 능력을 증진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5	학문적 글쓰기를 위한 한국어 문법	오경숙	서강대학교	6주	본 과목은 한국의 대학교 학부(또는 대학원) 입학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학문적 한국어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대학 글쓰기에 필수적인 한국어 문어 문법 학습을 통해 문장을 정확하고 적절하게 작성하는 능력을 향상할 수 있다.

연번	제목	강의자	운영기관	주차	수업 내용/ 수업 목표
6	한국어학 개관	박진호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한국어문학 연구소	10주	학문으로서의 한국어학을 처음 접하는 학습자들이 한국어가 세계의 한 언어로서 어떠한 특질을 가졌는지 넓은 시각으로 조망할 수 있도록 평이한 수준에서 한국어학의 연구 영역과 연구 방법을 탐색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한다.
7	한국어 어문 규범	이진호	서울대학교 인문학 연구원 한국어 문학연구소	10주	한글 맞춤법의 기본 원리와 개별 조항의 내용을 파악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다. 표준어 규정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실제 언어생활에 적용할 수 있다. 외래어 표기법과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현실 언어생활에 적용할 수 있다.
8	한국어 문화 문법을 통한 한국 문화의 이해	임채훈 외 4명	송실대학교	15주	정확하고 유창한 한국어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한국어에 대한 사회, 문화적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 강좌를 통해 한국어 문화 문법이 갖는 고유한 특성에 대한 이해를 기르고, 실질적인 한국어능력과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및 학습에 관심을 가진 외국인과 한국어 교육자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9	어원으로 문화 읽기	장한업	이화여자 대학교	15주	1) 일상생활 외국어/외래어의 진짜 의미를 알 수 있다. 2) 일상생활 외국어/외래어와 관련된 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 3) 외국어/외래어가 떠올리는 심상과 본래의 의미를 비교할 수 있다. 4) 상상력, 감수성, 상호 문화성을 통해 인문학적 감각을 개발할 수 있다.
10	한국 문화 깊이 읽기	조혜란	이화여자 대학교	15주	1. 전통문화의 각 영역에서 신분과 젠더에 따른 다양한 차이를 이해한다. 2. 교육부터 놀이 문화까지 한국 전통문화의 다양한 영역과 층위를 이해한다. 3. 역사의 추이 속에서 전통문화의 지속과 변모 및 현대적 계승의 면모를 이해한다.

연번	제목	강의자	운영기관	주차	수업 내용/ 수업 목표
11	한국인의 말과 글 그리고 얼	박창원	이화여자 대학교	16주	1. 우리 말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 2. 한글 창제의 과정과 원리 그리고 그 속에 담겨있는 정신 이해 3. 한글 맞춤법과 그 속에 있는 정신 이해 4. 배려, 창조, 조화라는 민족 고유의 정신 문화 이해
12	우리 지역의 말과 문학	이태영	전북대학교	15주	전북 방언이 한글 고전소설, 필사본 문 헌, 천자문, 현대 시, 현대 소설 등 매 우 다양하게 사용된 자료를 검토하여 지역 방언이 갖은 의미와 기능을 바르 게 이해하고, 지역어에 대한 자부심을 갖도록 유도한다.

*출처: K-MOOC 누리집 (<http://www.kmooc.kr/>)

K-MOOC와 유사한 플랫폼으로 KOCW가 있다. KOCW는 고등교육 교수학습 자료 공동 활용 체제로 ‘Korea Open CourseWare’의 약자이며, 한국의 대학과 기관에서 제공하는 무료 온라인 교육 자료를 모아놓은 플랫폼이다. 이는 대학 강의 동영상, 강의 노트, 시험 문제 등 다양한 교육 자료를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해당 과목에 대한 학습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개념이다. K-MOOC보다는 고등교육, 즉 대학 수업을 받아서 제공하는 측면에 초점이 있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에서 주관하는 사이트이다. KOCW 강의들 중 ‘한글’, ‘문해’, ‘한국어’, ‘읽기’를 검색어로 검색한 결과 다음의 강좌들이 조회되었다.

<표 III-8> KOCW 문해 관련 강의 목록

연번	제목	강의자	운영기관	년도	수업 내용/ 수업 목표
1	글쓰기와 읽기	김병길	숙명여자 대학교	2013	세계의 고전을 자료로 읽기와 쓰기 능력을 기르기 위한 과목이다. 지도자적 교양과 사고력, 표현력을 배양하며 학문 활동의 기초가 되는 보고서, 논술문, 논문 등의 작성 요령을 실습으로 익히게 된다.
2	생활 한문	하정승	한림대학교	2013	생활 한문 과목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한자, 고사성어 등의 한자어를 익히기 위하여 개설되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동아시아 한자문화권에

연번	제목	강의자	운영기관	년도	수업 내용/ 수업 목표
					속하여 있었기 때문에 한자, 한문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 그 때문에 우리 말을 잘 구사하기 위해서도 한자 학습은 필요하다.
3	한국어의 이해	안병섭	고려대학교	2017	이 교과목에서는 국어국문학과와 한국학 전공 2,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과목으로, 한국어 연구에 필요한 제반 내용과 우리말의 특징들을 종합적으로 알아본다. 특히 한국어학의 기본적인 용어, 한국어학 하위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한국어 연구를 위한 언어 분석 방법을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어 학습한다.
4	읽기와 쓰기	권미란	서강대학교	2018	본 수업에서 학생은 교수의 이론 강의를 들으며 학생 스스로 자신의 읽기와 쓰기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병행하게 된다.
5	대학 글쓰기	임선숙	단국대학교	2022	본 교과목은 학생들의 합리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능력을 함양하고 정확하고 창의적인 표현능력을 신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구성되었다.
6	한국 사회와 미디어 리터러시	서성현	전북권역 센터	2022	한국 사회 속 미디어리터러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자기 언어로 미디어리터러시를 정의하며, 생활 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디어리터러시를 발휘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력을 기르는 교과

*출처: KOCW 누리집 (<http://http://www.kocw.net/>)

K-MOOC와 KOCW는 모두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고급의 학습콘텐츠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인문 교양 강좌에서부터 최신 과학기술 관련 강좌까지 고등교육 수준에서 제공되는 모든 종류의 학문과 지식이 제공된다는 측면에서 이 플랫폼들은 일반 성인의 문해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려는 국립국어원의 입장에서 주목해야 할 플랫폼이라 할 수 있다. 제공되는 강좌들의 상당수가 대학 강의이기 때문에 강의 대상자가 대학생인 경우가 많고, 따라서 대학 강의의 특징에 수요에 따라 강좌가 편중되는 특징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 검색된 국어 관련 강좌의 수가 적고, 문해력과 관련된 강좌가 없다는 검색 결과가 반드시 일반 성인의

문해력 향상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없다고 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넘어가고자 한다.

1.1.6. 국가직무능력표준원의 직업기초능력

성인의 문해능력에 대해 접근할 때 학교와 일상생활 다음으로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지점이 일 혹은 직장생활과 관련된 부분이다. 일터는 상호작용을 통해 공동의 성과를 창출하는 특별한 기능을 하는 삶의 장소라는 측면에서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언어를 통한 상호작용이 중요한 공간이다. 따라서 직장을 구하고자 하는 성인들은 일정 수준의 국어능력을 갖추어 있어야 하며, 직장생활을 하는 성인들에게도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능력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구직자들이 갖추어야 하는 기본적인 역량을 한국산업인력공단 산하기관인 국가직무능력표준원에서는 직업기초능력이라 명명하고 그 능력의 영역과 표준, 수준을 설정하여 제시하고 있다. 국가직무능력표준은 한국에서 직업교육 및 훈련을 위한 표준 체계로, 국가가 인정하는 직업기초능력과 역량을 명시하고 측정하기 위한 체계적인 표준 체계로 개발되었다. 국가직무능력표준원에서는 다양한 직업 분야에서 필요한 역량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세분화하고 체계화하여 표준을 설정한 후, 이를 기반으로 한 교육 및 평가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각 직업에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등을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일자리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직업교육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개발되었으며, 국가 자격 시험, 교육과정 개발, 채용 프로세스, 업무 평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국가직무능력표준원에서는 노동시장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노동력을 양성하기 위한 노력으로 만들어진 이 체계에서 구직자가 갖추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능력, 즉 직업기초능력을 “직종이나 직위에 상관없이 모든 직업인들에게 공통으로 요구되는 기본적인 능력 및 자질”로 정의하고 있다. 국가직무능력표준원에서는 이 능력을 세분화하여 10가지 영역과 34개 하위 영역으로 분류하였으며, 각각의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강의와 능력 측정을 위한 측정 도구(시험 문제)를 개발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표 III-9> 직업기초능력 정의, 10대 영역 및 34개 하위영역


10대 영역	하위 영역 (34개)
의사소통능력	문서이해능력, 문서작성능력, 경청능력, 의사표현능력, 기초외국어능력
수리능력	기초연산능력, 기초통계능력, 도표분석능력, 도표작성능력
문제해결능력	사고력, 문제처리능력
자기계발능력	자아인식능력, 자기관리능력, 경력개발능력
자원관리능력	시간관리능력, 예산관리능력, 물적자원관리능력, 인적자원관리능력
대인관계능력	팀워크능력, 리더십능력, 갈등관리능력, 협상능력, 고객서비스능력
정보능력	컴퓨터활용능력, 정보처리능력
기술능력	기술이해능력, 기술선택능력, 기술적용능력
조직이해능력	국제감각, 조직체제이해능력, 경영이해능력, 업무이해능력
직업윤리	근로윤리, 공동체윤리

*출처: 국가직무능력표준원 누리집 (<https://ncs.go.kr/th03/TH0302List.do?dirSeq=152>)

이 중에서 국민의 문해력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영역이 의사소통능력이다. 그 하위 영역으로 문서를 이해하고, 작성하며, 타인과의 의사소통을 위한 경청과 의사 표현 등이 포함되어 있다. 최근 언론을 통해 화제가 되었던 ‘심심한 사과’와 같은 일련의 사건들이 대부분 문해력 부족으로 인한 의사소통 장애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상당히 주목할 만한 능력과 교육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이 영역은 기초능력이기 때문에 국가자격 시험이나 공무원 시험 등에서 기본적으로 포함하는 능력이며, 따라서 구직자들의 직업기초능력 의사소통능력 시험에 대비한 교육 프로그램들은 민간업체와 공공기관 모두에서 활발하게 제공되고 있다. 국가직무능력표준원에서 제공하는 의사소통능력 관련 강의의 일부를 공유하자면 아래 그림과 같다.

 3. 다음은 문서작성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설명한 것이다. 잘못된 것은?

- ① 문서의 작성 시기는 중요하지 않다.
- ② 문서의 첨부자료는 반드시 필요한 자료 외에는 첨부하지 않도록 한다.
- ③ 문서작성 후 반드시 다시 한 번 내용을 검토해야 한다.
- ④ 문서내용 중 금액, 수량, 일자 등의 기재에 정확성을 기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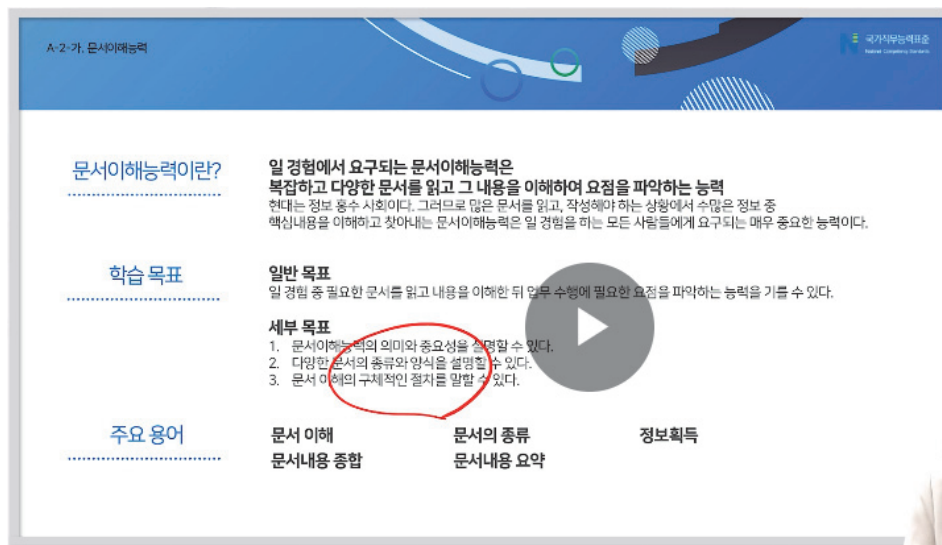
 4. 다음 문서작성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맞으면 ○, 틀리면 ×를 표시하여 보시오.

- 문장은 짧지 않아도 된다. ()
- 문장은 부정문 형식으로 작성해도 괜찮다. ()
- 문서의 주요한 내용을 먼저 쓰도록 한다. ()

[그림 III-2] 직업기초능력 가이드북: 학습 내용 확인하기 (의사소통능력 편)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n.d.) 직업기초능력 가이드북: 학습 내용 확인하기. p.16.

국가직무능력표준원은 각 능력을 학습하기 위한 학습자 가이드, 해당 능력을 가르치는 사람을 위한 교수자 가이드, 학습 내용 확인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 중, 학습 내용 확인을 위한 자료의 일례를 살펴보면 [그림 Ⅲ-3]과 같다. 제시된 문제에서 살펴보듯이 직업기초능력 평가는 객관식 혹은 주관식 시험의 형태로 측정되며, 이는 일반 국어 시험이나 성인 문해력 조사 시험 문항의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다시 말해, 현재 직업기초능력을 측정하는 도구는 지극히 단편적인 지식에 대한 질문들로, 기초문해력 측정검사와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Ⅲ-3] NCS [01.의사소통능력] 2. 문서이해 능력 강좌 중 일부

*출처: 국가직무능력표준원 누리집 (<https://ncs.go.kr>)

1.1.7. 직무교육을 위한 플랫폼

직장인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중 그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플랫폼 사이트로 한국표준협회의 원격 평생교육시설인 KSAEDU(<https://www.oksa.or.kr/>), 한국고용정보원의 직업 훈련 포털 HRD-Net(<https://www.hrd.go.kr/>)과 2022년 9월에 오픈한 사이버진로교육센터(<https://www.work.go.kr/cyberedu>) 정도가 있다. KSAEDU와 HRD-Net이 직장인들을 위한 직무교육에 초점을 맞춘 온오프라인 교육 플랫폼 두 곳이라면, 사이버진로교육센터는 고용서비스 종사자, 청소년, 대학생과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플랫폼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세 플랫폼 모두 집합교육과 온라인 동영상 강의를 모두 제공하고 있으나 그 특징과 목적에서 세부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우선, KSAEDU (Korea Standards Association Education)은 기업 표준 교육 프로그램으로 기업이나 조직에서 필요로 하는 표준 및 인증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는 주로 표준화, 인증, 품질 관리, 안전 등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을 포함하며, 한국표준협회가 국가직무능력표준원의 위탁을 받아 진행하는 교육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누리집에 제시된 문해력 관련 프로그램의 예를 살펴보자면 아래 표와 같다. NCS 직업기초능력이 입직자들에게 관련 내용에 대한 지식을 평가하는 시험이라면, 한국표준협회 교육 프로그램들은 실무자 연수 프로그램으로, 문서 작성 능력 향상 등과 관련된 강义들이 다수를 차지한다.

<표 III-10> KSAEDU 문해력 관련 프로그램 예시

 <p>비즈니스 문해력</p> <p>이러닝 교재 경영 > 비즈니스 스킬 > 문서작성/보고 성과를 보장하는 텍스트 커뮤니케이션, 비즈니스 문해력</p>	 <p>이해를 잘해야 일도 잘한다! 직장인을 위한 문해력 수업</p> <p>최수지 선생님</p> <p>이러닝 이해를 잘해야 일도 잘한다! 직장인을 위한 문해력 수업</p>	 <p>직장인 글쓰기 트레이닝 알하는 문장들</p> <p>이러닝 모바일 교재 [직장인 글쓰기 트레이닝, 알하는 문장들(참고도서제공)] 85,000원</p>
 <p>기획안과 문서 작성 노하우</p> <p>이러닝 경영 > 비즈니스 스킬 > 문서작성/보고 [Work#] 한 번에 읽히는 기획안과 문서 작성 노하우</p>	 <p>고미숙의 글쓰기 "절차탁마의 자세로 소통하라!"</p> <p>이러닝 경영 > 비즈니스 스킬 > 문서작성/보고 고미숙의 글쓰기, 절차탁마의 자세로 소통하라!</p>	 <p>1Page 보고서 작성 실무</p> <p>집합 2023 1Page 보고서 작성실무 280,000원 (1일, 8시간)</p>
 <p>설득력 있는 문서작성 노하우</p> <p>집합 2023 설득력 있는 문서작성 노하우 480,000원 (2일, 16시간)</p>	 <p>백승권의 청찬받는 보고서 작성법</p> <p>이러닝 경영 > 비즈니스 스킬 > 문서작성/보고 [유 퀴즈를 만나다] 문서의 신 백승권의 청찬받는 보고서 작성법</p>	 <p>세대간 어울림 소통과정</p> <p>집합 2023 세대간 어울림 소통과정 0원 (0일, 0시간)</p>

*출처: KSAEDU 누리집 (<https://www.oksa.or.kr/edu/main.user>)

HRD-Net (Human Resources Development Network)은 국내 직업훈련 및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 포털로, 다양한 직업 분야의 교육정보와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즉, 직접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기관이라기보다는, 여러 민간 및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국내의 다양한 직종과 산업 분야에 관련된 교육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여 개인과 기업이 다양한 직무교육 프로그램을 찾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플랫폼이라 할 수 있다. HRD-Net에서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청년, 취업 준비생, 구직자, 취업자 및 재취업 희망자에게 3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교육 훈련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이 사이트를 이용할 경우 교육 훈련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러 민간과 공공기관 직무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한 곳에서 검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HRD-Net에서 검색할 수 있는 문해력 관련 강의의 예를 살펴보자면 아래에 제시된 한겨레교육문화센터에서 제공하는 ‘보고서, 기획서, 제안서 작성 실무’와 같은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한겨레교육 문화센터 서울 마포구 (02-3279-0903) 3년 인증	보고서, 기획서, 제안서 작성 실무		모집중 246,740 원 193,940 원 ? 자비부담액보기 > 수강신청 관심등록 비교하기
	내일배움카드(재직자)		
	훈련기관	한겨레교육문화센터	
	훈련기간	2023-12-08 ~ 2024-01-26 (1회차)	
	훈련시간	8일, 총16시간 시간표보기	
	훈련기관 취업률 (국가...)	취업률(해당없음)	

[그림 III-4] HRD-Net 프로그램 예시

*출처: HRD-Net 누리집 (<https://www.hrd.go.kr/hrdp/ma/pmmao/newIndexRenewal.do>)

사이버진로교육센터(www.work.go.kr/cyberedu)는 생애 전반에 걸친 진로 개발을 위해 다양한 계층(청소년, 취업 지원 담당자, 상담원 등)의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지난 2022년 9월에 개편 오픈하였다. 진로 탐색과 선택, 취업 및 입직, 경력 형성과 유지, 경력 전환 및 퇴직 등 다양한 생애 전반에 걸친 진로 및 취업 관련 지원을 위해, 다양한 집합 및 온라인 교육과 더불어, 직업심리검사, 직업 진로 탐색 자료, 취업 지원프로그램, 직업 및 취업 관련 동영상 등을 개발하여 보급하기 위해 설계된 센터이다. 직무교육보다는 진로교육에 무게중심이 있는 센터이기 때문에 문해력과 관련된 직접적인 프로그램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취업을 준비하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취업 관련 쓰기 수업이라든지 직장 예절과 그리고 노동법 강의처럼 넓은 의미의 문해, 세대 소통, 혹은 리터러시와 관련된 강의들이 제공되기도 한다.

상기에서 살펴본 세 가지 교육 플랫폼을 통해 직장인의 일터에서의 삶을 위한 문해력을 향상하는 데에 도움을 주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그 내용 면에 있어서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직장 내 세대 소통을 위한 어휘 학습, 보고서 작성을 위한 어휘 및 실무능력 함양, 공적 예절이라 할 수 있는 직장 내 예절에 대한 교육 등 확장된 의미에서 의사소통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국어능력 증진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으며, 국립국어원의 전문성이 결합한다면 좀 더 다양한 직무교육 프로그램이 가능할 것이다.

1.1.8. 전문대학기초학습지원센터²⁰⁾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서는 전문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의 기초학습능력을 진단하고 능력 수준에 맞는 기초학습능력 지원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전문대학 기초학습지원센터를 설립하고 기초학습능력 진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기초 학습 강의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수요는 전문대생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직업계고등학교²¹⁾ 졸업생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기초능력 평가 시험제도와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도 있고, 전문대에 진학하는 늦깎이 성인 학습자들에게 학교에서의 수업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 능력을 평가하고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맥락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전문대학기초학습지원센터는 전문대학생 기초학습능력을 ‘전문대학생 등 전문대학 이상의 과정에서 원활한 학습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기초적인 학습 능력으로, 국어 및 영어 등의 언어(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 능력, 산술, 사고능력’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진단 영역은 4개 영역으로 국어, 수리, 영어, 사고 영역으로 나누어지며, 국어의 경우 세부 영역으로 ① 내용 확인, ② 언어 추론, ③ 문장 구성, ④ 어법 활용으로 나누어진다. 국어 영역 4개 세트 시험시간은 총 40분이며, 자세한 평가 정보는 아래 표와 같다.

20) 이 부분의 내용은 전문대학기초학습지원센터 누리집(<https://www.cbic.kr>)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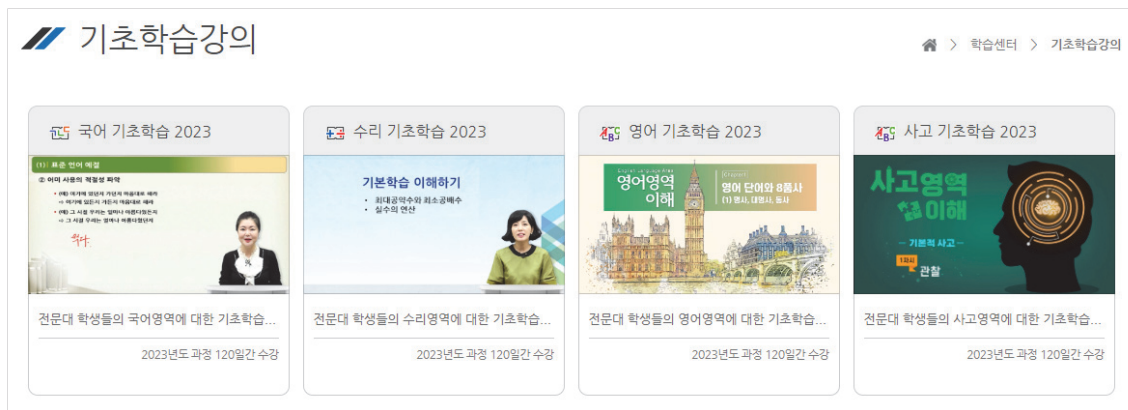
2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등학교)와 제91조의 ‘특성화고등학교’를 합쳐서 직업계고등학교로 칭함.

<표 III-11> 언어(국어) 세부 영역별 문항 구성(4개 set)(시험시간 : 40분)

세부 영역	세부 영역별 문항 구성	문항 수
내용 확인	제목, 일치/불일치, 글에 대한 설명(서술 특성 포함)	8개
언어 추론	적용(구체적 사례, 다른 사례), 전제 추론, 주제 추론하기, 상황 추론하기 등	8개
문장 구성	어휘력(관용어, 의미관계, 의미), 접속어, 표현하기 문제, 빈칸 추론-()안에 단어 넣기, 단어 바꿔쓰기, 접속어, 문장의 의미 묻는 문항, 문장 바꿔쓰기, 의미관계, 관용어, 조건 주고 문장 쓰기	7개
어법 활용	어문 규정(표준어, 맞춤법, 띄어쓰기), 문법요소(피동 사동, 높임, 부정), 정확한 문장(중의성), 호응 관계(주어-서술어, 부사어-서술어 등), 높임법, 부정 표현, 수식어와 피수식어 관계, 조사의 쓰임, 시제, 맞춤법(단어 수준)	7개
소계		30개

*출처: 전문대학기초학습지원센터 누리집 (<https://www.cbic.kr/web/main/layout.do>)

전문대학생 기초 학습 지원 서비스는 1차 평가 시험을 치른 학생들 중, 기초학습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학생들에게 영역별 이러닝 수업 수강을 지원하며, 학습 이후 2차 평가 시험을 통해 능력 향상 여부를 확인한다. 기초 학습 강의 목록은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III-5] 전문대학기초학습지원센터 기초 학습 강의

*출처: 전문대학기초학습지원센터 누리집 (<https://www.cbic.kr/web/main/layout.do>)

구체적인 강의 내용을 살펴보자면, 2023년 국어 기초 학습 강의 주차별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III-12> 2023 국어 기초 학습 강의 계획안

주차	강의 내용	동영상 학습	퀴즈
제1강	내용 확인	읽기 전략의 기초	읽기 전략의 기초
제2강	내용 확인	문제 유형 파악	내용 확인 - 문제 유형
제3강	내용 확인	실전 문제 풀이	내용 확인 3 - 실전 문제
제4강	언어 추론	문제 유형 파악	언어 추론 1
제5강	언어 추론	실전 문제 풀이	언어 추론 2
제6강	언어 추론	심화 문제 풀이	언어 추론 3
제7강	문장 구성(쓰기)	유의/반의/상하/동음이의/다의 관계 이해하기	유의, 반의, 상하
제8강	문장 구성(쓰기)	적절한 어휘 및 어법 구사하기	적절한 어휘 및 어법
제9강	문장 구성(쓰기)	논리적으로 글 구성하기	올바른 문장 표현
제10강	어법 활용(문법)	국어의 품사: 동사, 형용사, 조사의 적절한 활용	국어의 품사
제11강	어법 활용(문법)	문장 성분의 생략과 호응	문장 성분과 구조
제12강	어법 활용(문법)	중의적 표현 및 중의성 해소 방법	중의적 표현
제13강	어법 활용(문법)	피동, 사동, 시간 표현	피동, 사동, 시간 표현
제14강	어법 활용(문법)	높임, 부정 표현	높임, 부정 표현
제15강	어법 활용(문법)	일상생활에서 자주 틀리는 한글 맞춤법	한글 맞춤법

*출처: 전문대학기초학습지원센터 누리집 (<https://www.cbic.kr/web/main/layout.do>)

1.1.9. EBS 당신의 문해력²²⁾

마지막으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문해력을 측정하고 문해력 향상을 위한 교육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EBS 프로그램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먼저 ‘EBS 당신의 어휘력’은 EBS에서 제작한 언어 학습 프로그램으로, 삶의 다양한 맥락 속에서 어휘력을 증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시청자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단어나 표현을 배우고, 그 의미와 사용법을 이해하게 된다.

본격적인 문해교육 프로그램은 2021년도 방영한 ‘당신의 문해력’이다. 이 프로그램은 성인보다는 아동 청소년들의 어휘력 향상을 위한 강의와 교재 개발에 주력하였고, 본격적으로 성인 문해의 문제를 다룬 프로그램은 2022년 방영한 ‘당신의 문해력+’이다. ‘당신의 문해력+’는 문자 문해뿐만 아니라 수리 문해력(프로그램에서는 성인 수해력), 언어 감수성, 성인 어휘력, 미디어 문해력, 디지털 문해력 등의 문제를 다뤘다. 직업생활 맥락에서 필요한 업무 관련 문해력의 문제도 다뤘다는 점이 특징적이었다. ‘당신의 문해력+’의 주차별 제목과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 표와 같다.

22) EBS 당신의 문해력 누리집 <https://literacy.ebs.co.kr/yourliteracy/index>

<표 III-13> EBS 당신의 문해력+ 프로그램 개요

주차	제목	주요 내용
1	읽었다고 확신하는 사람들	읽었다고 확신하지만 읽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른들을 위해 계약서 읽기, 업무 메일 쓰기 등 실생활에 꼭 맞춘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성인 대상 문해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본다.
2	나를 지키는 계약서 문해력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계약서, 정확히 읽지 않고 서명했다가 큰 화를 당할 수 있다? 전문가와 함께 계약서 문구 이면에 있는 의미를 잘 읽어내는 법을 알아본다.
3	일 잘하게 되는 업무 문해력	업무 메일, 기안 작성 등 직장인의 피할 수 없는 숙명, 업무 문서 작성. 업무 문서 작성을 위한 문해력은 따로 있다? 직장 에서 일 잘하는 사람이 되는 문해력을 살펴본다
4	이모티콘 세대의 자기소개서	MZ세대 구직자들이 가장 막막하다고 느끼는 항목 자기소개서. 많은 취업 준비생 들이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기에 어려움을 느낀다. 자기소개서와 면접, 나를 표현하는 취업 문해력에 대해 알아본다.
5	모르면 당하는 숫자의 거짓말	우리의 일상에서 마주치는 다양한 숫자들. 우리는 그 숫자의 속마음을 제대로 알고 있을까? 진실만을 말한다고 믿었던 숫자의 속마음을 읽을 문해력, 데이터 문해력을 알아본다.
6	까다로운 공공문서, 필요한 문해력은?	가정통신문, 화재 대피 요령처럼 일상에서도 재난 상황에서도 중요한 공공문서. 읽기 까다롭지만, 나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 주는 공공문서를 제대로 읽는 법을 알아본다.
7	생존을 위한 법 읽기	법조문을 읽기 위한 문해력은 따로 있다. 생존에 꼭 필요한 법조문 읽기를 위한 문해력 향상법을 전문가와 함께 배운다.
8	어른을 위한 어휘력	21만 명을 혼란에 빠뜨린 EBS 성인 어휘 능력 검사! 문제 풀이와 함께 다양한 일상생활 속 문해력의 근간이 되는 어휘력에 대해 알아본다.
9	나는 제대로 풀고 있을까?	2022년 수능 응시자 수 44만 8,138명, 공무원 경쟁률 42.7대 1 우리는 끊임없이 시험을 치고 문제를 푼다. 잠깐. 그런데 당신 제대로 읽고 문제는 풀고 있나요? (자격증 시험/취득을 위한 문해력)
10	내 말이 그렇게 불편한가요?	일상 속 나도 모르게 사용했던 차별적인 표현들. 모두를 존중하는 '언어 감수성'에 대해 알아본다.
11	가짜 뉴스에 속지 않는 문해력	당신이 지금 보고 있는 뉴스는 진짜가 맞을까요? 거짓 정보가 섞인 기사를 가려내는 가짜 뉴스에 속지 않는 문해력에 대해서 알아본다.
12	온라인 생존 문해력 (디지털문해, 비판문해)	정보 홍수시대 속 매일 접하는 수많은 정보. 모든 미디어 메시지는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만들어졌다. 검색의 시대, 더욱 중요해진 문해력! 온라인 정보를 더 똑똑하게 활용하기 위한 디지털문해력을 알아본다.
13	AI 시대에 살아남는 힘, 인간의 문해력	기술의 발전으로 산업의 여러 곳에서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하고 있다. 인공지능과 경쟁해 살아남는 인간의 힘인 문해력을 알아보자

*출처: EBS 당신의 문해력 누리집 (<https://literacy.ebs.co.kr/yourliteracy/index>)

1.2. 문해력 진단 체제 운영 현황: 문해 조사를 중심으로

1.2.1. 2000년대 이전의 문해 조사

□ 전국 문맹자 표본 조사 : 전국 수준에서 실시된 최초의 조사²³⁾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실시된 전국 수준의 문해 조사는 중앙교육연구소에서 1957년에 실시한 「전국 문맹자 표본 조사」라 할 수 있다(최제만, 1959). 전국에서 12세 이상 인구의 0.5%를 표집한 후 조사원이 가구를 방문하여 직접 조사하는 방식으로 실시되었는데 훈련된 조사원에 의한 가구 방문 조사라는 점에서 오늘날의 표본 조사와 상당히 유사하다. 한편, 조사 방식과 함께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이 조사에서 활용한 문해의 개념이다. 여기에서는 UNESCO가 내린 정의에 근거하여 ‘문맹자’와 ‘문해자’를 구분하고, 이를 다시 ‘순문맹’과 ‘반문맹’, 그리고 ‘최저 문해’와 ‘기능적 문해’(functional literacy)로 나누어 정의하고 있다.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12세 이상 인구의 22.1%가 문맹자라고 보고하였으며 이를 다시 반문맹자(6.6%)와 순문맹자(15.5%)로 구분하되 성별과 경제인구별 수치도 제시하였다. 참고로 이 조사에서 최저 문해는 “자신의 일상생활에 관한 짧은 간단한 문장을 이해하며, 읽고 쓰는 것”을 의미하며, 기능적 문해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속하고 있는 문화 혹은 집단에서 문해자로 취급될 수 있는 모든 활동에 효과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쓰기와 읽기의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특히 기능적 문해의 개념은 이후 실시된 문해 조사에도 지속해서 활용되었다.

문해는 이후 다룰 「한국인의 문해 실태조사」가 실시되기 전까지 한동안은 별도 체계로 조사되지 않았으나, 「인구총조사」의 하나로 2차례 조사된 바 있다. 일례로 1966년 실시된 인구총조사에서는 “글을 읽지도 못하고 쓸 줄도 모르는 자”를 문맹자로 정의하고, 13세 이상 미취학 인구 중에 문맹 여부를 ‘쓸 줄 안다’, ‘읽는다’, ‘모른다’, ‘미답’ 등 4가지 범주로 조사하였다. 그 결과, 13세 이상 미취학 인구 중에 읽기와 쓰기를 전혀 하지 못하는 인구가 8.9%로 나타났는데, 인구총조사의 경우 미취학 인구에 한정된 수치이며 실제 문해능력을 진단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제한적인 현황을 보여주는 자료라 할 수 있다(허준, 2021: 20).

23) 「허준 외(2023). 성인 문해능력 조사 측정 도구 개선 및 제4차 성인 문해능력 조사 예비조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내용을 발췌하여 정리한 것임

□ 한국인의 문해 실태조사 연구 : 본격적인 문해 조사의 출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국 문맹자 표본 조사」 이후 한동안 문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가 1989년과 1990년에 걸쳐 전국 단위 문해 실태조사가 다시 실시되었다. 이 조사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수행한 「한국인의 문해 실태조사 연구」(최운실, 백은순, 1989)와 「한국의 문해 실태와 문해교육」(최운실, 백은순, 1990)에서 실시한 것으로서 문해가 하나의 영역으로 본격적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 조사 역시 ‘기능문해’ 기준으로 문해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데, 이때 문해 단계를 구분하기 위해 문해 수준뿐만 아니라 영역도 고려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즉, 문해를 4단계로 구분하면서 문해 수준이 높아질수록 필요한 문해능력의 적용 영역을 확정하면서 측정 내용이나 문항 수를 다르게 설계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표 Ⅲ-14>와 같다.

<표 Ⅲ-14> 한국인의 문해 실태조사 연구에서의 단계별 문해 개념

개념	설명	측정 문항 수 및 내용
초보적 문자 문해	단순히 낱개의 문자나 숫자를 읽고 쓸 수 있는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 3문항 한글로 이름 쓰기, 그림 보고 숫자 파악하기, 시계 보기
기초 문해	-실생활 영위에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읽기, 쓰기, 셈하기(3Rs)의 기초 기능을 보유한 상태 -초등학교 6학년 수준의 읽기, 쓰기, 셈하기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 6문항(영역별 2문항) 읽기(광고문 해독, 문장 요지 파악) 쓰기(문장 만들기) 셈하기(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기능 문해	읽기 쓰기 셈하기의 기초 기능 보유를 전제로 하여 이와 함께 실생활 영위에 필요한 기본적인 생활기능(life skill)을 보유한 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 11문항 전화 걸기, 편지 주소 해독, 전출신고서 작성하기, 무통장 입금증 작성하기, 관광 안내문 읽기, TV 프로그램 해독, 약 복용 안내문 해독, 고속버스 시간표 해독, 지하철 노선표 해독, 생활한자 해독, 생활영어 및 외래어 해독
영역별 기능 문해	기초문해 기능과 생활문해 기능의 보유를 전제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념, 직업 기술 및 과학, 컴퓨터 등의 제반 사회 구성 특수 영역에 있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기본 지식 및 기능의 보유 상태	미조사

한편, 이 연구에서는 전국 13세 이상 인구의 0.007%인 2,116명을 대상으로 하되,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지역에서 지역별 인구 비례에 따라 무선 표집하여 조사하였

다. 면담원에 의한 직접 조사가 이루어졌고, 특히 문해능력을 실제 진단하는 방식으로 조사되었다는 점에서 인구총조사와는 성격을 달리한다. 그 결과, ‘초보적 문자 단계에서의 비문해’는 5.9%(남자 3.9%, 여자 7.6%), ‘기초문해 단계에서의 비문해’는 9.1%(남자 7.0%, 여자 11.0%), ‘생활기능 비문해’는 남자 6.3%, 여자 11.7%로 나타났다.

1.2.1. 2000년대 이후의 문해 조사

□ 한국 성인의 비문해 실태조사 연구 : 국제 비교 연구 이후 독자적인 조사 실시²⁴⁾

2000년대에 들어 처음 이루어진 문해 조사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2001년에 실시한 「한국 성인의 문해 실태에 관한 OECD 국제 비교 조사 연구」(이희수, 박현정, 이세정, 2001)의 하나로 실시되었다. 이 조사는 OECD의 「국제 성인 문해 조사(International Adult Literacy Survey, 이하 IALS)」 도구를 번안하여 문해능력을 측정하였다는 점에서 특징을 지을 수 있다. IALS는 문해를 ‘일상적인 활동, 가정, 일터,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문서화된 정보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바라보면서 3가지 영역(산문, 문서, 수리)-5수준으로 문해를 세분화하고 있는데, 이상의 문해 영역과 수준 구분은 OECD에서 실시하고 있는 PIAAC 조사에도 적용되고 있다.

이 연구의 조사 설계 및 결과를 간단히 살펴보면, 전국의 16~65세 성인 1,200명을 대상으로 하되 성별, 지역별, 연령별, 학력별 비례 표집을 한 후 면접 조사의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조사 결과는 IALS의 점수 체계에 따라 영역별로 500점 만점으로 보고되었는데, 산문문해는 269.16점으로 2단계, 문서문해는 237.5점으로 2단계, 수리문해는 276.87점으로 3단계에 해당하였다(<표 III-15> 참조).

<표 III-15> 「한국 성인의 문해 실태에 관한 OECD 국제 비교 조사」 문해 영역별 정의 및 결과

영역	정의	평균점수	표준편차
산문문해	논설, 기사, 시, 소설을 포함하는 텍스트 정보를 이해하고 사용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	269.16	51.70
문서문해	구직 원서, 급여 양식, 대중교통 시간표, 지도, 표, 그래프 등 다양한 형태의 문서에 포함된 정보를 찾고 사용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	237.50	52.49
수리문해	금전 출납, 팁 계산, 주문 양식 완성, 대출 이자 계산 등 인쇄된 자료에 포함된 숫자를 계산하거나 수학 공식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	276.87	54.44

24) 「이희수, 박현정, 이세정(2001). 한국 성인의 문해 실태에 관한 OECD 국제 비교 조사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및 「이희수 외(2002). 한국 성인의 비문해 실태조사 연구.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주요 내용을 발췌하여 재구성한 것임

이 연구가 이뤄진 다음 해인 2002년, 한국교육개발원이 독자적인 도구를 개발하여 「한국 성인의 비문해 실태조사 연구」(이희수 외, 2002)를 실시하였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문해 영역은 크게 읽기, 쓰기, 셈하기 등 3가지 영역으로 구성되며, 초등학교 6학년 수준을 기초문해 수준으로 설정하고 성인의 생활 문제 해결 맥락에서 총 25개의 문항 개발이 이루어졌다(읽기 9개, 쓰기 8개, 셈하기 8개). 이때 문항은 주관식과 객관식 문항을 모두 포함하며 특히, 주관식은 사전에 개발된 채점 기준표를 활용하여 채점하였다. 그리고 문항의 난이도를 상·중·하로 나누고 난이도가 ‘하’인 것은 0.7점, ‘중’인 것은 1점, ‘상’인 것은 1.3점을 주는 등 가중치를 부여하여 채점하였다는 점도 이전 조사들과 다른 점이다. 한편, 문해 수준을 연속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기초 1수준, 기초 2수준, 기초 3수준과 같이 3개 수준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러한 수준 구분은 문항 구성의 방식에도 영향을 미쳐 쉬운 문항에서 뒤로 갈수록 어려운 문항이 배치되었다.

<표 III-16> 「한국 성인의 비문해 실태조사」 영역 정의 및 하위 영역 구성

영역	정의	하위 영역
읽기	쓰인 글을 바르게 읽고 이해하는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시된 글을 읽고 내용을 이해하기 • 기호나 상징을 보고 이해하기 • 단어와 문장을 읽고 이해하기
쓰기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거나 남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을 글로 쓰는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어 쓰기 • 수 쓰기 • 기호나 부호 쓰기 • 문장 쓰기
셈하기	특정한 산수 계산을 할 수 있는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산(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 관계 • 측도

구체적으로 문해 수준을 판정하는 방법은 정답률과 총점에 근거한다. 예컨대, 가장 낮은 수준인 기초 1수준은 정답률이 20% 미만이며 총점 기준으로는 5점 미만(25점 만점)을 획득한 집단으로서 ‘글을 못 읽거나 읽기 유창성 수준이 낮으며 글을 쓸 수 없고 셈하기가 어려운 수준’을 의미한다. 이에 반해 기초 3수준은 ‘복잡한 상황에서도 읽기, 쓰기, 셈하기 능력을 갖추고 글을 읽고 해석하며,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데 어려움이 없고 일상적인 생활에서 사용되는 계산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수준’을 뜻하는데, 기초 3수준 이상을 문해자로 판정하게 된다(전체 문항의 80% 이상 정답).

<표 III-17> 「한국 성인의 비문해 실태조사」 수준과 판정 기준

영역	단계	정의	수준 판정 기준	
			정답률 기준	점수 기준
읽기 (총점 9점)	기초 1수준	글을 전혀 읽지 못하거나 읽더라도 문맥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	정답률 20% 미만	1.8점 미만
	기초 2수준	글을 읽을 수나 있으나 문장의 이해력이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	정답률 20% 이상 - 80% 미만	1.8점 이상 ~ 7.2점 미만
	기초 3수준	글을 읽을 수 있으며, 대부분의 상황에서 문장의 뜻을 이해하는 경우	정답률 80% 이상	7.2점 이상
쓰기 (총점 8점)	기초 1수준	글을 쓰지 못하거나 아주 초보적인 수준에서의 단어 쓰기만 가능한 경우	정답률 20% 미만	1.6점 미만
	기초 2수준	기초적인 수준에서 글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으나, 상황에 따라서 정확하지 못한 표현을 하는 경우	정답률 20% 이상 - 80% 미만	1.6점 이상 ~ 6.4점 미만
	기초 3수준	글로써 자신을 표현하거나 남에게 전달할 때 아무런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정답률 80% 이상	6.4점 이상
셈하기 (총점 8점)	기초 1수준	산수 계산 능력이 전혀 없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정답률 20% 미만	1.6점 미만
	기초 2수준	아주 간단한 산수 계산만을 할 수 있고 복잡한 수준의 산수 계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정답률 20% 이상 - 80% 미만	1.6점 이상 ~ 6.4점 미만
	기초 3수준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산수 계산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	정답률 80% 이상	6.4점 이상

조사는 만 19세 이상 성인 3천여 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대도시권 3개 지역, 경기도 소재 중소 도시 2개 지역, 및 전라도 소재 군 1개 지역에서 지역 규모에 비례한 유층 표집의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조사 결과 평균 점수는 20.18점(표준편차 7.03점)이며 문해 수준별로 보면 1수준 8.4%, 2수준 16.8%, 3수준 74.8%로 나타났다. 즉, 초등학교

교 6학년 수준의 문해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수 있는 비문해자에 해당하는 1수준과 2수준의 합은 25.2% 정도에 해당하였는데, 성별과 연령, 그리고 지역 규모별로 보면 여성보다는 남성, 고연령층, 그리고 읍면리 지역의 응답자 중 비문해 비율이 높은 편이었다.

□ 성인 문해능력 조사 : 국가승인통계로 실시되는 정기 조사²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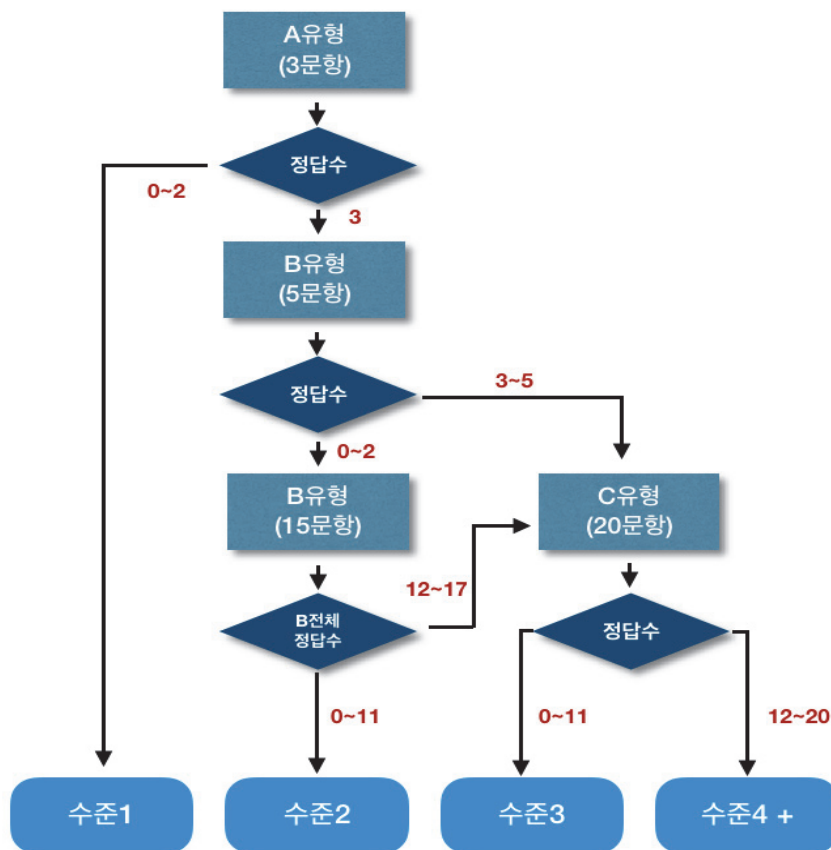
국책 연구 기관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가운데 실시된 문해 조사들과는 달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성인 문해능력 조사」는 국가 수준에서 성인의 문해능력 수준을 공식적으로 보고하기 위한 승인통계(승인번호 제42001호)로서 실시되는 조사이다. 이 조사는 IALS의 분류에 따라 산문문해, 문서문해, 수리문해를 설정하였고,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 능력을 포함한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 능력 등을 갖추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 프로그램”(「평생교육법」 제2조제3항)이라는 「평생교육법」상 생활문해적 속성을 갖는 우리나라 문해교육의 제도적인 특성에 따라 가정생활, 경제생활, 공공생활, 여가생활, 미디어생활 등 5개의 생활영역을 기반으로 문해 영역을 구성하고 있다.

문해 수준의 경우 문해/비문해의 이분화가 아니라 ALL, PIAAC, LAMP(Literacy Assessment and Monitoring Programme) 등 OECD와 UNESCO의 문해 조사 도구와 프랑스의 IVQ(Information et Vie Quotidienne), 독일의 LEO(Level One Survey) 등 주요국의 문해 조사 도구처럼 단계별로 설정하고 있다. 문해 조사 결과는 총 4개 수준으로 판정되는데, 본 조사가 국가의 문해교육 제도와 정책의 맥락 속에서 실시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핵심적으로 산출해야 하는 통계의 문해 수준을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중학 수준까지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수준 4 이상은 중학 이상의 문해능력을 의미하고 그 이상의 수준을 세분하지는 않고 있다. 구체적으로 수준별 의미를 살펴보면, 수준 1은 ‘기본적인 읽고, 쓰기, 셈하기 중 어느 하나라도 못 하는 수준’으로 완전 비문해에 해당한다. 수준 2는 ‘기초적인 읽기, 쓰기, 셈하기가 가능한 수준’이지만 일상생활에 필요한 읽기, 쓰기, 셈하기의 기초 역량은 갖추지 못한 수준으로서 초등학교 수준의 문해력을 갖추지 못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수준 3은 ‘일상생활의 문제를 해결할 정도의 기본적인 읽고 쓰고 셈하기 능력’은 갖추고 있지만 복잡한 일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미흡한 수준에 해당하여 중학교 수준의 문해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수준 4 이상은 기초적인 문해능력을 갖추고 있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문해능력을 갖추고 있어 성인 문해교육 정책 비대상자 집

25) 「허준 외(2023). 성인 문해능력 조사 측정 도구 개선 및 제4차 성인 문해능력 조사 예비조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주요 내용을 발췌하여 재구성한 것임.

단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문해능력 조사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SQC 모델을 따라 조사가 설계되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SQC 모델은 작은 규모(Small), 신속성(Quicker), 경제성(Cheaper)을 목표로 한 모델로서 국가 인구센서스 모델(모집단 대표성을 반영하기 위해 자기 응답식으로 조사)과 '대규모 문해력 평가 모델'(실제 문해능력을 수준별로 측정)의 중간 형태로 이해될 수 있다. 즉,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실시할 수 있고 적정 수준의 표집을 바탕으로 낮은 수준의 문해력 조사를 경제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이러한 모델은 조사의 독특한 판정 논리로도 연결된다. 본 조사는 주관식과 객관식을 포함하여 총 43개 문항(산문문해 20개, 문서문해 14개, 수리문해 9개)으로 구성되는데 각 문항은 수준 판정의 논리에 따라 다시 3개 유형에 배치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수준 1과 수준 2를 판별하는 문항인 A유형 3문항, 수준 2와 수준 3을 판별하는 문항인 B유형 20문항, 수준 3과 수준 4 이상을 판별하는 문항인 C유형 20문항으로 구성되는데, 우선 응답자는 A유형의 3문항을 모두 풀게 되고 이때 1문항이라도 틀리면 수준 1로 판정하고 조사는 종료되게 된다. 반면, 3문항을 모두 맞힐 경우 B유형 문항에 응하게 되는데 가장 난도가 높은 문항으로 구성된 5문항을 풀어 3문항 이상을 맞힐 경우 C유형 문항을 풀도록 하였고, 정답 수가 2개 이하인 경우 B유형의 나머지 15문항을 풀도록 하였다. 이후 B유형 문항 정답률이 60% 미만(11개 이하)이면 수준 2, 60% 이상(12개 이상)이면 수준 3로 판정하였다. 그리고 B유형의 처음 5문항 중 3문항 이상 맞춰 C유형 문항을 풀 응답자 중에 정답률이 60% 미만(11문항 이하)이면 수준 3, 정답률이 60% 이상(12문항 이상)이면 수준 4로 판정하게 된다. 이상의 논리는 2017년에 문해교육 과정의 단계에 맞춰 7개 수준으로 판정되는 과정에서 다소 변동된 면도 있으나 2020년에는 다시 2014년의 논리로 회귀하여 큰 틀에서는 유지되고 있다([그림 III-6] 참고).



[그림 III-6] 2020년 성인 문해능력 조사 판정 논리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성인 문해능력 조사는 “국민의 실질적인 생활문해력에 대한 공식 통계 부재, 다양화되고 확대된 문해 개념의 반영, 성인·문해교육 정책 관련 활용과 정기적(조사 주기: 3년)으로 비교 가능한 자료의 수집”(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4: 1)을 목적으로 2014년 이후 정기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국가승인 통계인 만큼 통계청 인구총조사 조사구를 표집 틀로 삼아 체계적인 표본 설계 및 관리하에서 전문 조사 업체를 통한 개별 방문 대면 면접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성인이 조사 대상이되, 조사 규모는 2014년과 2017년에는 각각 4,057명과 4,004명 정도를 유지하다가 2020년에는 10,429명 규모로 확대되었다.

성인 문해능력 조사 결과는 성인 문해교육 정책 대상자 규모를 추정하는 데 활용되며, 2020년 기준으로 그 대상자는 18세 이상 성인 중 20.2% 정도에 이른다. 수준별로 보면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읽기, 쓰기, 셈하기가 불가능한 수준(초등 1~2학년 학습 필요 수준)인 수준 1이 4.5%, 기본적인 읽기, 쓰기, 셈하기는 가능하지만, 일상생활에 활용은 미흡한 수준(초등 3~6학년 학습 필요 수준)인 수준 2는 4.2%로 나타나 초등교육 대상자는 8.7% 수준이었다. 가정 및 여가생활 등 단순한 일상생활에

활용은 가능하지만, 공공 및 경제생활 등 복잡한 일상생활에 활용은 미흡한 수준(중학 1~3학년 학습 필요 수준)인 수준 3은 11.4%이었다.

<표 III-18> 성인 문해능력 조사 영역 구성 및 결과

영역	형식	수준	구분	정의	결과		
					2014	2017	2020
산문 문해	정보 전달문	수준 1		기본적인 읽기, 쓰기, 셈하기가 불가능(초등 미만)	6.4%	7.2%	4.5%
	설득문						
	생활문	수준 2		기본적인 읽기, 쓰기, 셈하기가 가능하지만, 일상생활 활용에 미흡(초등 미만)	6.0%	5.1%	4.2%
	문학						
문서 문해	표	수준 3		수준 2 이상의 문해능력으로 가정생활 및 여가생활 등에 단순한 일상생활의 문제 해결은 가능하지만 복잡한 일상생활 문제 해결에 미흡한 정도(초등 이상 중학 미만)	16.2%	10.1%	11.4%
	그래프						
	지도						
	서식						
수리 문해	수와 연산	수준 3		수준 2 이상의 문해능력으로 가정생활 및 여가생활 등에 단순한 일상생활의 문제 해결은 가능하지만 복잡한 일상생활 문제 해결에 미흡한 정도(초등 이상 중학 미만)	16.2%	10.1%	11.4%
	규칙성과 함수						
	확률과 통계						
	도형						
	측정	수준 4		일상생활에 필요한 충분한 문해능력을 갖춘 수준 (중학 이상)	71.5%	77.6%	79.8%

□ 국민의 기초문해력 조사 및 국어능력 실태조사: 국어능력에 초점을 맞춘 조사²⁶⁾

앞서 살펴본 문해 조사들은 읽고 쓰고 셈하기의 3가지 영역을 모두 조사하였으나 국립국어원에서 2008년과 2018년에 실시한 「국민의 기초문해력 조사」와 「국어능력 실태조사」는 읽기 문해에 초점을 맞추어 국민의 기초문해를 조사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는 조사 시행의 근거법과 및 조사의 필요와도 관련되는데 예컨대, 「국민 기초문해력 조사」는 「국어기본법」 제9조에 따라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 정책을 위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실태조사의 필요성으로 이루어졌다.

「국민 기초문해력 조사」부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여기에서는 국민의 기초문해를 읽기 문해를 중심으로 ‘현대사회에서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데 필요한 글을 읽고 이해

26) 「국립국어원(2008). 국민의 기초문해력 조사. 국립국어원」 및 「국립국어원, 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 (2018). 2018년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조사. 국립국어원」에서 주요 내용을 발췌하여 재구성한 것임.

하는 최소한의 능력'으로 규정한다. 이때 문해 수준은 의무교육 기간인 중학교 3학년에 맞춤으로써 국민 의무교육 기간을 마치고 개인의 삶과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일상생활을 유지해 나가는 데 필요한 19세 이상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국민 기초문해력 측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문해력 측정을 위해 문해 요소를 내용, 과정, 상황의 3가지로 분류하고 있으며, 총 25개 문항으로 조사 도구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표 Ⅲ-19>와 같다.

<표 Ⅲ-19> 국민의 기초문해력 조사 문항 개발 틀

내용	과정	상황
문해 자료의 장르적 특성 - 산문(문학/비문학) - 문서(도표, 그림)	문해자의 인지적 기능 - 사실적 문해(13개) - 추론적 문해(9개) - 비판적 문해(3개)	문해자의 지식이나 인지 과정이 적용되는 맥락 - 실용(일상생활, 공적 생활, 미디어) - 교양(인문/예술, 사회/문화, 과학/기술)

한편, 조사는 가구 방문 면접 조사 형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전국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79세 이하 성인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최종적으로는 7,033명이 본 조사에 응하였다. 국민의 기초문해력 조사에서 문해력 점수는 크게 '문해력 부진'과 '기초문해력 보유'로 나뉘고, 세부적으로는 0수준부터 4수준까지 다섯 단계로 나뉜다. 즉, '문해력 부진'은 '0수준', '1수준'에 해당하고 '기초문해력 보유'는 2~4수준으로 나뉘며, 특히 0수준을 읽고 쓰는 능력이 전혀 없는 비문해자로 규정하고 있다. 조사 결과를 보면 0수준인 완전 비문해는 1.7%, 1수준인 반문해자는 5.3%로 나타났고 이상의 '문해력 부진'에 해당하는 인구는 7.0%로 약 260만 명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교 3학년 학생의 평균 문해력(77.4점)을 비교 분석 집단으로 삼고 있다는 점도 이전 조사들과는 다른 점이라 할 수 있다.

<표 III-20> 국민의 기초문해력 조사에서의 수준 구분 및 판정 결과

구분	단계	문해력 정도	비율	인구수 (추정치)	점수
문해력 부진 (7%)	0수준 (비문해자)	읽고 쓰는 능력이 전혀 없음	1.7%	약 62만 명	-
	1수준 (반문해자)	낱글자나 단어를 읽을 수 있으나 문장 이해 능력은 거의 없음	5.3%	약 198만 명	24점 이하 (중학생 평균의 30% 이하)
기초 문해력 보유 (93%)	2수준	초청장·명함 등 간단한 생활문을 읽고 원하는 정보를 찾아낼 수 있음 다소 길거나 복잡한 문장은 이해하지 못함	21.1%	약 788만 명	28~48점 (중학생 평균의 30~60%)
	3수준	신문 기사·광고·공공기관 서식 등 일상적인 생활문을 대부분 이해할 수 있음 법령문 등 복잡한 문서이해나 추론 능력이 부족함	36.8%	약 1,374만 명	42~72점 (중학생 평균의 70~80%)
	4수준	길고 어려운 문장이나 내용이 복잡한 문장도 잘 이해할 수 있음 글에 직접 드러나지 않은 내용도 추론할 수 있음	35.1%	약 1,310만 명	76점 이상 (중학생 평균 수준 이상)

「국민의 기초문해력 조사」 이후 국립국어원에서는 2013년에 「국민의 국어능력 평가」를 실시했으며, 2018년에 실시된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조사」는 이를 보완하여 「국어기본법」 제6조와 제9조에 따라 5년 주기로 국민의 국어능력을 정례화하여 조사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실시되었다. 이때, 2013년에 실시된 조사 도구와 비교 가능하도록 조사 도구를 동등화 설계하고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여 디지털 문해력을 측정할 필요를 반영하여 <표 III-21>과 같이 조사도구(48개 문항, 116분의 조사 시간, 1,080점 만점)로 재설계하였다. 한편 조사 시간이 116분이 이르는 것은 응시자의 상당한 피로도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조사」는 ‘공통 문항 비동등 집단 설계’ 방식을 적용하여 ‘가형(2,500명, 37개 문항, 70분, 660점)’, ‘나형(2,500명, 27개 문항, 70분, 610점)’, ‘통합형 가+나형(500명, 48문항, 116분, 1,030점)’ 등 삼원적으로 조사 도구를 설계하였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상의 조사를 통해 디지털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은 4개 수준으로 판정되는데, 각 수준을 판정하기 위한 분할 점수는 2013년 조사에서 산출되었던 분할 점수를 2018년 원점수 척도로 변환하여 활용하였다. 각 수준의 정의를 살펴보면 1수준은 ‘국

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 국어 과목을 이수한 국민에게 기대되는 국어능력을 미흡하게 (20% 미만) 획득한 수준'을 의미하며, 2수준은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 국어 과목을 이수한 국민에게 기대되는 국어능력을 부분적으로(20% 이상 50% 미만) 획득한 수준'을 의미한다. 그리고 3수준은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 국어 과목을 이수한 국민에게 기대되는 국어능력을 상당 부분(50% 이상 80% 미만) 획득한 수준'을, 마지막으로 4수준은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 국어 과목을 이수한 국민에게 기대되는 국어능력을 대부분(80% 이상) 획득한 수준'을 의미한다. 각 영역에 대한 조사 결과, 1수준은 최소 7.3%(읽기)에서 최대 27.8%(쓰기)로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1>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조사」의 조사 도구 및 조사 결과

조사 영역 (대영역)	중영역	문항 유형	문항 수 (배점)	시간	조사 결과
읽기	정보 확인 추론 평가 재구성	선택형(객관식)	20문항 (300점)	40분	1수준(7.3%), 2수준(33.1%) 3수준(38.5%) 4수준(21.1%)
문법	규범 어휘 문장 담화	선택형(객관식)	10문항 (150점)	10분	1수준(11.1%) 2수준(23.2%) 3수준(41.6%) 4수준(24.1%)
쓰기	친교적 쓰기 설명적 쓰기 논증적 쓰기	서답형(논술, 주관식)	3문항 (250점)	30분	1수준(27.8%) 2수준(41.8%) 3수준(26.4%) 4수준(4.0%)
듣기	사실적 듣기 추론적 듣기 비판적 듣기	선택형(객관식)	10문항 (150점)	15분	1수준(9.4%), 2수준(21.7%) 3수준(30.7%) 4수준(38.2%)
말하기	설득하는 말하기 설명하는 말하기	선택형(객관식)	3문항 (150점)	15분	1수준(18.1%) 2수준(50.0%) 3수준(27.2%) 4수준(4.7%)
디지털	정보 확인	선택형(객관식)	2문항 (30점)	6분	16.72점/30점 만점

□ EBS 성인 문해력 테스트: 온라인을 통한 자기 주도적 문해력 진단²⁷⁾

앞서 언급된 조사들은 주로 구조화된 조사 도구를 활용하여 전문적으로 훈련된 조사원들이 가구를 방문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실시되는 조사에 해당한다. 이에 반해 EBS 성인 문해력 테스트는 홈페이지를 통해 수시로 자신의 문해능력을 테스트하는 것이 가능하다. EBS 성인 문해력 테스트 홈페이지에 소개된 것처럼, 만 19세 이상 성인의 문해력을 대략 조사하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글과 자료를 파악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묻는 본 문항 15개와 기타 추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뿐만 아니라 홈페이지를 통해 「성인 어휘력 검사」 등에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데 2022년 8월 30일 기준으로 참여한 28만여 명의 결과를 참고해 보면 평균적으로 15점 만점에 약 9점 정도로 나타나 100점 만점으로 환산 시에는 약 60점 정도로 나타났다. 이를 다시 등급별로 보면 ‘최우수’ 등급을 받은 4.2%는 14~15점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며 어휘력이 매우 우수한 편이고 대부분의 글과 기본 전문 서적들을 능숙하게 읽고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성인이다. 4명 중 1명은 11~13점을 받았는데, 이들은 대체로 우수한 어휘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신문은 물론 거의 모든 대중 서적 등도 잘 읽어낼 수 있다고 기대된다. 그리고 42.6%는 ‘보통’으로 판정받았는데 이들은 보통 수준의 어휘력을 갖추고 있으며 일상생활과 기본적인 서류나 문서 등을 이해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지만, 전문적인 분야와 관련되는 글을 읽고 이해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미흡에 해당하는 성인도 27.5%에 이르렀는데 이들은 0~7점을 받아 노력이 필요한 문해력 수준으로서 계약서나 공문서는 물론 신문이나 소설책을 읽고 이해하는 데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일상 생활에서의 소통에서도 어휘력 때문에 종종 어려움이 따를 수 있어서 어휘 학습에 꾸준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되어 있다.

본 절에서는 국내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문해능력을 조사한 도구를 개괄하였으며, 그 결과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해능력을 조사한 기관은 1959년의 중앙교육연구소로 시작으로 하여 통계청, 한국교육개발원, 국립국어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 정부 부처 및 국책 연구 기관 등 다양하였는데, 어느 기관에서 조사하는지에 따라 조사 배경이나 목적, 조사의 근거법 등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 조사의 토대를 이루는 문해의 개념이나 측정 영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다만, 국립국어원에서 실시하여 읽기 능력에 초점을 맞춘 조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조사는 UNESCO에서 제시한 기능적 문해 개념에 근거하여 산문, 문서, 수리 문해를 측정하

27) EBS 성인 문해력 테스트 <https://literacy.ebs.co.kr/yourliteracy/literacyPoll/plus>

고 있었다. 조사 대상의 경우에도 2000년대 이전과 달리 이후에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되, 각 기관에 따라 조사 대상 범위의 설정은 다소 차이가 있었다.

둘째, 조사 시기 및 방법 측면을 보면 2000년대 이전 혹은 2000년 직후에는 한국 교육개발원에서 수행한 연구의 하나로 조사가 실시되어 다소 일회적으로 결과가 보고 되었으나, 2014년 이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성인 문해능력 조사’를 국가승인 통계조사로 추진함에 따라 체계적인 표본 설계 하에 3년 주기로 결과가 보고되고 있고 국립국어원 또한 2018년에 실시된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조사’를 통해 5년 주기의 정례화된 조사를 추진했다. 즉, 국가 수준에서 성인의 문해능력에 대한 공식적인 자료를 산출하되 잘 관리된 도구를 활용하여 국가 (혹은 지역) 수준에서의 정책적 활용을 염두에 두고 성인의 문해능력 관련 자료를 누적하여 산출하고 있었다. 이와 달리 최근에는 EBS 성인 문해력 테스트 등과 같이 온라인을 통해 누구나 언제 어디에서 자신의 문해력을 대략 진단하려는 시도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자기 문해력 수준에 대한 개인적인 관심을 충족시킴과 동시에, 연구와 방송의 목적으로 데이터가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지점이라 할 것이다.

셋째, 1966년과 1970년에 인구총조사의 하나로 실시된 조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문해 조사 도구는 주로 객관식과 주관식 모두를 활용하고 있으며 성인들이 직접 문항을 풀도록 하는 직접 측정의 방식을 적용하고 있었다. 이때 조사마다 영역 및 하위 영역 (요소)의 구성에 따라 문항 수에는 다소 차이가 있었는데, 조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성인 문해능력 조사’는 판정 로직에 따라 A유형부터 C유형까지 배치된 문항 중 일부 문항만을 풀고도 수준을 판정받을 수 있도록 설계하였고,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조사’는 공통 문항 비동등 집단 설계에 기반한 삼원 설계를 하여 조사 부담을 줄이고 있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마지막으로 문해 수준의 경우 초기에는 비문해/문해의 이원화된 결과로 보고하였으나 어느 시점부터는 문해를 연속적인 개념에 놓고 그 수준을 3개에서 4개 정도로 보고하는 것이 일반화됨을 알 수 있다. 즉, 문해 수준은 ‘규준’을 설정하여 상대적 위치를 비교하는 방식이 아닌 ‘준거’를 설정하여 절대적 위치를 보고하는 방식에 해당한다. 그리고 정책적으로 문해교육 대상자를 설정하거나 혹은 그 수준을 보다 명료히 이해하기 위해 의무교육 단계인 중학교 수준을 비교 집단으로 삼는 경우도 있었다. 이상의 개요를 종합하여 정리하면 <표 III-22>와 같다.

<표 III-22> 국내 주요 성인 문해능력 조사 개요 종합

구분	전국 문맹자 표본 조사	문해 실태조사 (인구총조사)	한국인의 문해 실태 조사 연구	한국성인의 문해실태에 대한 OECD 국제비교 조사연구	한국 성인의 비문해 실태조사 연구	국민의 기초 문해력 조사	성인 문해능력조사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조사
실시 기관	중앙교육 연구소	통계청	한국교육 개발원	한국교육 개발원	한국교육 개발원	국립국어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립국어원
조사 시기 (년)	1959	1966, 1970	1989	2001	2002	2008	2014, 2017, 2020 (국가승인통계조사)	2018
조사 방법	가구방문	가구방문	가구방문	가구방문	가구방문	가구방문	가구방문	1:1 방문 면접조사
조사 대상	12세 이상 인구	13세 이상 미취학자	13세 이상	16-65세 성인	20세 이상 성인	만 19세 이상 성인	만 18세 이상 성인	만 20세 이상 만 69세 이하 성인
조사 인원	-	-	2,116	2,116	2,979	7,033	2014년(4,057) 2017년(4,004) 2020년(10,429명)	삼원적 조사설계 가형 2,500명, 나형 2,500명, 통합형(가+나형) 500명 등 총 5,500명
조사 영역 (문해 개념)	UNESCO의 기능적 문 해, 최저문 해 개념 도 입	글을 읽거나 쓸 수 있는 지 여부	초보적 문자 문해, 기초 문해, 생활 기능 문해, 영역별 기능 문해	IALS (산문, 문서, 수리문해) 도구 번안 활 용	자체 개발한 조사도구 읽기, 쓰기, 셈 하기 25문항 선택형, 주관 형	배경설문: 독서 량, 미디어 이 용, 사전이용, 한글교육 기초 문해력 측 정: 사실적, 추 론적, 비판적 문해	3개 유형 내 생활/문해 영역 포함 -A유형: 여가, 산문, 수리 -B유형: 가정, 미디어, 여가, 산문, 문서, 수리 -C유형: 경제, 공공, 문서, 수리, 여가, 산문	읽기, 문법, 쓰기, 듣기, 말하기, 디지털 *전체 48개 문항(1,030점, 116 분) 선택형, 서답형(논술, 주관식), 수 행형 조사 시 가형(37개), 나형(27개), 통합형(48개)으로 구성 디지털 문식력의 경우 별도 영역 으로 조사하되, 인터넷 텍스트에 대한 읽기 능력만을 조사하는 2 개 문항으로 최소화

구분	전국 문맹자 표본 조사	문해 실태조사 (인구총조사)	한국인의 문해 실태 조사 연구	한국성인의 문해실태에 대한 OECD 국제비교 조사연구	한국 성인의 비문해 실태조사 연구	국민의 기초 문해력 조사	성인 문해능력조사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조사
결과	순문맹 22.1%	비문해: 8.9% (1966년) 7.0% (1970년)	비 문 해 : 5.9% 기초비문해: 9.1%	산문:269.16 (2단계) 문서:237.5 (2단계) 수리: 276.87 (3단계)	기 초 문 해 1 수 준: 8.4% 기 초 문 해 2 수 준: 16.2% 기 초 문 해 3 수 준: 75.4%,	안 전 비 문 해 : 1.7%	수준 1: 6.4%(2014년), 7.2% (2017년), 4.5%(2020년) 수준 2: 6.0%(2014년), 5.1% (2017년), 4.2%(2020년) 수준 3: 16.2%(2014 년), 10.1%(2017년), 11.4%(2020년) 4수준 이상: 71.5% (2014년), 76.6% (2017년), 79.8%(2020년)	듣기: 1수준(9.4%), 2수준(21.7%), 3 수준(30.7%), 4수준(38.2%) 말하기: 1수준(18.1%), 2수준(50.0%), 3수준(27.2%), 4수준(4.7%) 읽기: 1수준(7.3%), 2수준(33.1%), 3 수준(38.5%), 4수준(21.1%) 쓰기: 1수준(27.8%), 2수준(41.8%), 3수준(26.4%), 4수준(4.0%) 문법: 1수준(11.1%), 2수준(23.2%), 3수준(41.6%), 4수준(24.1%) 다지탈: 16.72점/30점 만점

2. 국외 문해교육 및 진단 체제 현황²⁸⁾

2.1. 아일랜드: 삶을 위한 성인 문해(Adult Literacy for Life, ALL)

2.1.1. 성인 문해 지원 정책 현황²⁹⁾

아일랜드 정부는 성인의 문해력을 삶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적 역량으로 규정하고 모든 성인이 적절한 수준의 문해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아일랜드에서 모든 성인의 문해력 보장을 지원하는 것은 완전히 포용적이고 평등한 사회 및 경제(fully inclusive and equitable society and economy)를 구현한다는 국가적 목표 달성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로 여겨지기 때문에 이에 대해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왔다. 대표적으로 최근 2021년에는 ‘삶을 위한 성인 문해(Adult Literacy for Life, 이하 ALL)’ 10개년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10개년 계획은 모든 아일랜드 성인이 질 높은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언어, 수리, 디지털문해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다방면의 정책적 지원 전략을 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다음 네 가지의 원리를 강조한다.

- 모든 국민이 문해력과 관련하여 자신의 요구를 파악하고 어떻게 그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 이해할 수 있다.
- 모든 국민이 필요한 학습 및 지원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다.
- 국민들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학습 및 지원프로그램이 확장될 수 있다.
- 국민들의 삶에 실질적 변화가 있도록 개인과 지역사회를 지원한다.

아일랜드 정부는 문해력을 폭넓게 정의하여 기본적인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산수, 일상적인 기기 및 기술 활용 역량을 모두 문해력의 범주에 포함하였다. 질 높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이 다양한 영역에서 기본적인 문해 역량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그 때문에 아일랜드의 ALL 10개년 계획은 교육 분야뿐 아니라 보건, 고용 및 노동, 사회복지 등 다양한 영역의 국가적 정책과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아일랜드 정부 통계에 따르면 아일랜드 성인의 약 18%가 일상적인 지문을 읽고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성인의 약 4분의 1(25%)은 일

28) 이 절은 김지혜(미국 대학교육협의회-American Council on Education, 선임연구원)박사가 집필에 도움을 주었음.

29) 이 절은 The Department of Further and Higher Education, Research, Innovation and Science (2021)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상생활에 필요한 산수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또한 무려 47%의 성인이 기본적인 디지털 역량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처럼 기본적인 문해능력을 갖추지 못한 집단일수록 교육 수준과 소득 수준도 더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문해능력이 삶의 질과 긴밀한 연관관계에 있음을 보여준다. ALL 10개년 계획은 위에서 언급된 수치들을 모두 절반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상에서 언급한 대로 ALL 10개년 계획은 교육뿐 아니라 보건, 고용 및 노동, 사회복지는 다양한 영역에서의 노력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 글은 그중에서도 교육 지원에 초점을 두어 그 현황을 살펴보았다. 이 계획에 따르면 성인 문해를 위한 교육 지원은 크게 세 집단이 주축이 되고 있다. 첫 번째 축은 교육훈련위원회(Education and Training Boards, 이하 ETBs)이다. 아일랜드에는 전국적으로 16개의 ETB 지역 네트워크가 있으며 각 네트워크는 해당 지역에서 문해교육을 필요로 하는 성인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영어활용능력을 높이려 하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개별 학습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문해교육을 제공하는 동시에 학습자의 이후 교육 및 직업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들도 함께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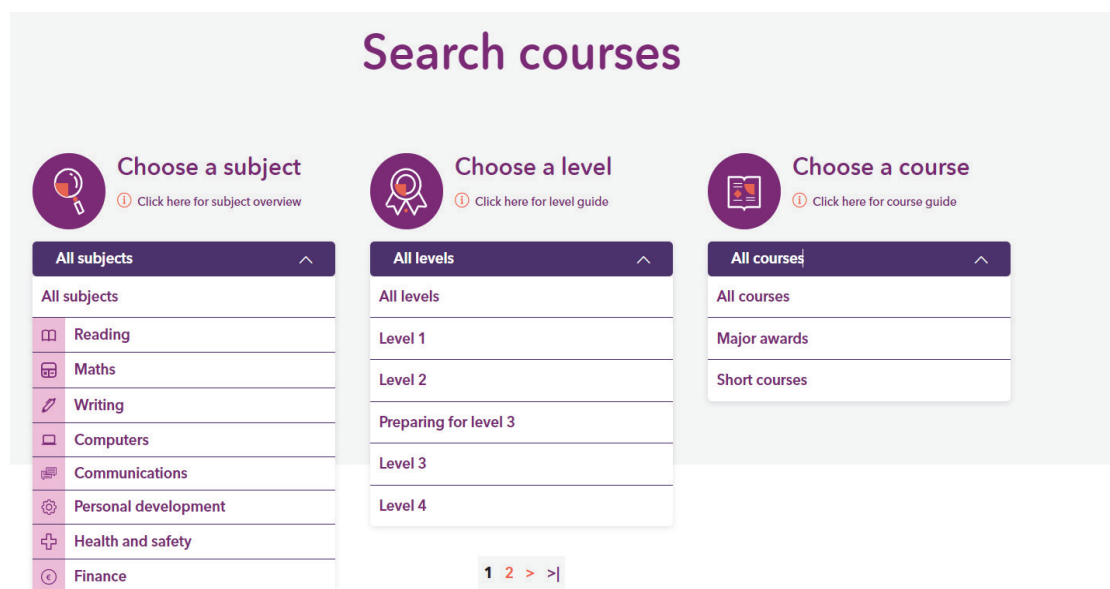
두 번째 축은 아일랜드의 국가성인 문해지원기구(National Adult Literacy Agency, 이하 NALA)이다. ETBs가 각 지역의 성인 문해교육을 주관한다면, NALA는 국가 차원에서 문해교육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원한다. 먼저 문해력을 높이려 하는 학습자에게 문해교육에 대한 정보 및 기회를 제공한다.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원격 과외 서비스(Tutoring service)를 제공하며, ‘런 위드 날라(Learn with NALA)’라는 온라인 학습 사이트를 운영한다. 런 위드 날라 사이트는 특히 학습자가 자신의 수준을 진단하고 그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내용은 성인 문해력 진단 도구 사례를 살펴본 다음 절에서 더 자세히 다룰 예정이다. 이 외에도 NALA는 문해교육 및 관련 지원 서비스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제고하고, 관련 연구를 수행 및 발간하며, 성인교육 우수 사례를 지원하고 공유한다. 또한 SOLAS와 ETBs와의 협력하에 성인 문해 관련 캠페인을 운영하고 있다³⁰⁾.

마지막으로 세 번째 축은 지역사회 교육자(Community Education Providers) 네트워크이다. 이들을 실제 현장에서 성인 학습자에게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육자들로 구성된다. 각 지역사회의 요구에 맞게 다양한 문해력 관련 수업 및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ETBs와 기타 지역사회 발전 기금 등을 통해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

30) SOLAS는 고등교육 및 연구 혁신 과학부(Department of Further and Higher Education, Research, Innovation, and Science)의 산하 기구로 2013년 성인 직업교육 및 훈련법(Further Education and Training Act)에 근거하여 설립되었다. 다양한 성인 직업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고용 및 노동을 위한 문해교육 지원에 초점을 둔다.

2.1.2. 성인 문해 진단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 런 위드 날라(Learn with NALA)

이 절에서는 성인 문해를 위한 교육이 어떻게 제공되는지, 학습자의 문해 수준을 어떻게 진단하고 그에 맞는 지원을 제공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전 절에서 간략히 언급한 것과 같이 아일랜드에서 성인 문해교육을 주관하는 기관 중 하나는 NALA이며, NALA는 런 위드 날라라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학습자 수준을 고려한 다양한 온라인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아래 [그림 III-7]은 런 위드 날라 웹사이트의 화면 중 하나로, 원하는 과목, 수준, 수업 유형을 선택하면 자신의 요구에 맞는 수업을 찾아서 들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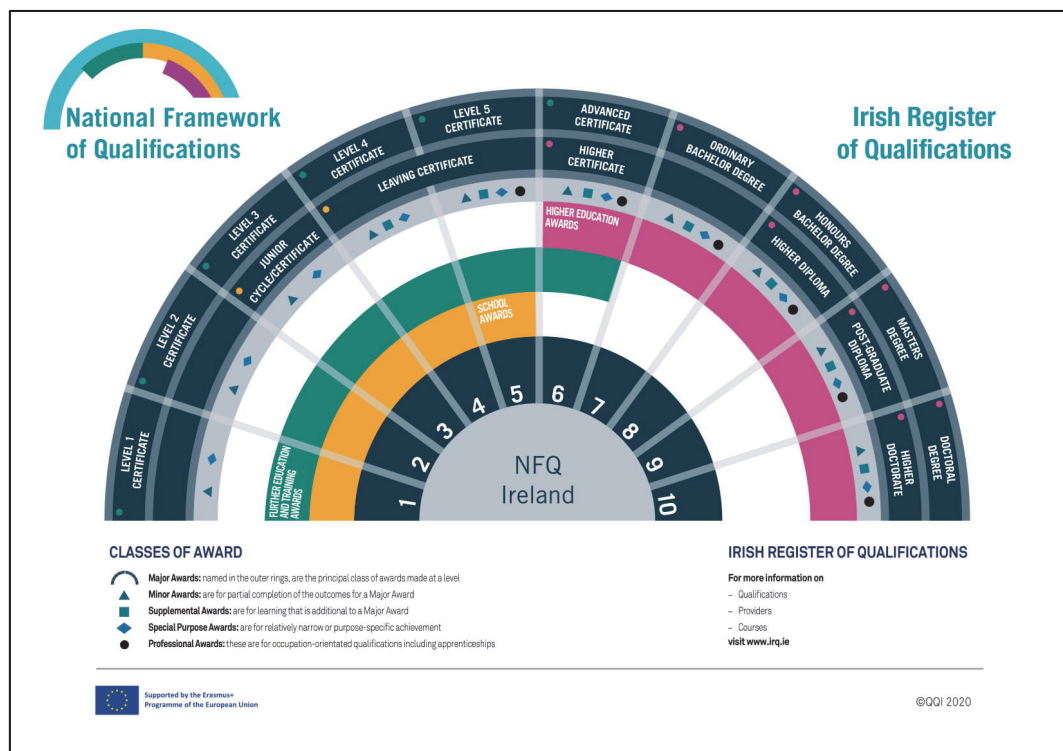
[그림 III-7] 런 위드 날라(Learn with NALA)의 수업 검색창

*출처: <https://www.learnwithnala.ie/catalog?pagename=online-courses>

런 위드 날라의 수업 검색창에서 알 수 있듯 런 위드 날라는 읽기, 쓰기, 수학, 컴퓨터, 의사소통, 보건 및 안전, 금융 등의 영역에 대해 총 5개로 구분된 수준별 수업을 제공한다. 그리고 수업 유형도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먼저 메이저 어워드(Major awards)라고 표기된 수업은 특정 목표나 테마를 중심으로 여러 과목에 걸쳐 통합적인 수업 내용이 제공된다. 예를 들어 ‘취업 준비’라는 특정 목표 또는 주제를 위해 읽기, 의사소통, 컴퓨터활용능력 세 과목에 걸쳐 수업을 구성하여 함께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이 유형에 속한다. 쇼트 코스(Short courses)라고 표기된 수업은 특정 한 과목 내에서 특정 주제에 대해 제공되는 수업이다. 예를 들어 ‘읽기’ 과목에서 특히

‘듣기와 말하기’라는 주제의 수업을 원할 경우 이에 해당하는 쇼트 코스를 선택하여 수강하면 된다.

런 위드 날라는 학습자가 스스로 자신의 수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수준 가이드(Level Guide)를 제공한다. 여기에서 특징적인 것은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진단 도구가 국가역량체계(National Framework of Qualifications, 이하 NFQ)와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는 점이다. 먼저 아일랜드의 NFQ는 크게 10단계로 구분되어 있으며, 아래 그림은 이를 도식화한 것이다([그림 III-8] 참조). 아일랜드의 NFQ를 주관하는 기관은 QQI로 “Quality and Qualifications Ireland”의 약자이다. QQI는 아일랜드의 성인 계속교육(further education)과 대학교육(higher education), 그리고 관련 훈련 프로그램의 질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아일랜드 NFQ의 개발 및 관리를 담당하면서 NFQ에 기반하여 다양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인증하고 관련 자격 검정(award) 체계를 관리하기도 한다.



[그림 III-8] 아일랜드의 국가 역량 체계(NFQ)

*출처: <https://www.qqi.ie/what-we-do/the-qualifications-system/national-framework-of-qualifications>


런 위드 날라의 수준 가이드는 교육 프로그램들을 아일랜드의 NFQ와 연계하여 제공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NALA는 NFQ의 10단계 중 수준 1에서 수준 4까지를 기본적인 문해교육 지원 영역으로 보고 런 위드 날라를 통해 각 수준에 맞는 수업을 제공

한다. 구체적으로는 위에서 살펴본 여러 과목에 대해, 수준 1, 수준 2, 수준 3 준비 과정, 수준 3, 수준 4까지 총 5개 수준으로 구분된 수업을 제공한다. 상위 수준에 해당하는 수업을 듣기 위해서는 그 전 단계에 해당하는 수업을 완료했다는 이수증(certificate) 또는 그에 준하는 자격요건, 관련 역량, 업무 경험 등을 갖추어야 한다. 런 위드 날라가 제공하는 각 수준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 수준 1 : 철자를 배우고, 숫자를 사용하고, 기술 및 기기를 활용하기 시작하는 단계
- 수준 2 : 짧은 문장 읽기 쓰기를 배우고 기본적인 수업 및 컴퓨터활용능력을 익히는 단계
- 수준 3 준비 단계 : 수준 3을 진행하기에 앞서 수준 2 내용을 한 번 더 점검하고 다듬는 단계
- 수준 3 : 의사소통, 수학, 컴퓨터 등 분야에서 개인적 역량과 업무 역량을 개발하는 단계
- 수준 4 : 수준 3 또는 주니어 인증서(Junior Certificate)를 획득한 후에 수강하는 심화 단계


[그림 Ⅲ-9]와 [그림 Ⅲ-10]은 임의로 ‘읽기’ 영역에서 수준 1에 해당하는 쇼트 코스들과 수준 3에 해당하는 메이저 어워드 수업들을 검색해본 결과이다. 검색 결과 수준 1에 해당하는 수업으로는 듣기와 말하기(Listening and speaking), 읽기(Reading), 쓰기(Writing)에 대한 기본 수업들이 검색되었다. 수준 3에 해당하는 수업을 검색한 결과, 쇼트 코스에 해당하는 수업은 검색되지 않았으며, 대신 의사소통 기술 등 다른 교과와 통합하여 수업이 구성되어 있는 메이저 어워드 수업들만 검색되었다. 구체적인 수업 설명에 따르면 수준 1에 해당하는 수업은 읽기 문해능력의 기본 요소들을 갖추기 위한 수업인 반면, 수준 3에 해당하는 수업은 해당 문해능력을 실제 의사소통 상황이나 직무 상황 등 삶의 현장에 실제로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Search courses




Choose a subject
Click here for subject overview

Reading ▾



Choose a level
Click here for level guide




Level 1 ▾



Choose a course
Click here for course guide


Short courses ▾

Search courses 🔍

Course level	Course type	Subject	
Level 1	Short Courses	Reading	 NALA Certificate
<p>Level 1 Listening and speaking</p> <p>Click here for more information +</p> <p style="text-align: right;">Register now</p>			
Level 1	Short Courses	Reading	 NALA Certificate
<p>Level 1 Reading</p> <p>Click here for more information +</p> <p style="text-align: right;">Register now</p>			
Level 1	Short Courses	Reading	 NALA Certificate
<p>Level 1 Writing</p> <p>Click here for more information +</p> <p style="text-align: right;">Register now</p>			


[그림 III-9] 런 위드 날라(Learn with NALA)의 수업 검색창: 수준 1 수업 검색 결과

Search courses




Choose a subject
Click here for subject overview

Reading ▾



Choose a level
Click here for level guide




Level 3 ▾



Choose a course
Click here for course guide

Major awards ▾

Search courses 🔍

Course level	Course type	Subject	
Level 3	Major Awards	Communications	
<p>Level 3 Certificate in Employability Skills</p> <p>Click here for more Information +</p>			<p>Register now</p>
Level 3	Major Awards	Communications	
<p>Level 3 Certificate in General Learning</p> <p>Click here for more Information +</p>			<p>Register now</p>
Level 3	Major Awards	Communications	
<p>Level 3 Certificate i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p> <p>Click here for more Information +</p>			<p>Register now</p>

[그림 III-10] 런 위드 날라(Learn with NALA)의 수업 검색창: 수준 3 수업 검색 결과

추가로, 각 수업 결과를 보면 수업에 따라 ‘QQI 어워드(award)’ 또는 ‘날라 어워드(NALA award)’라는 표기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수업을 이수할 경우 획득할 수 있는 자격의 종류이다. QQI 어워드라고 표기된 수업은 NFQ 운영기관인 QQI 인증 자격을 획득할 수 있는 수업이며 NALA 어워드라고 표기된 수업은 NALA가 인증하는 자격을 획득할 수 있는 수업이다. 이 자격들은 모두 국가 인증 자격들로 인정된다. NALA에 따르면 현재까지 12,000명 이상의 학습자가 42,000개 이상의 국가 인증 자격을 획득하였다.

이상에서는 아일랜드의 성인 문해 지원 정책 현황과 교육 프로그램 제공 사례를 살

펴보았다. 아일랜드는 성인 문해를 국가적 과제로 인식하고 이를 위해 교육뿐 아니라 관련 영역과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지원책을 제공하고 있다. 성인 문해교육을 위한 지원은 NALA라는 국가 단위 기구와 각 지역의 교육기관 및 교육자 네트워크 간의 협력이 주축이 되고 있으며, NALA는 런 위드 날라라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영역에서의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수준별로 제공하고 있었다. 특히 학습자의 현 수준을 진단하기 위해 NFQ에 기반한 수준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었는데, 이는 성공적인 경제활동으로의 연계를 순조롭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결국 ‘삶을 위한 문해’라는 아일랜드 성인 문해교육의 목표와도 일맥상통하는 운영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2.2. 호주: 핵심역량 체계와 역량 개발 시스템

2.2.1. 성인 영어활용능력 및 문해력 지원 정책 배경 및 개요

□ 국가 성인 기초 역량 제고 전략(National Foundation Skills Strategy for Adults)

호주는 지난 2012년, 국가 성인 기초 역량 제고 전략(National Foundation Skills Strategy for Adults)이라는 명칭의 10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에서 말하는 기초 역량은 영어활용능력, 문해력, 수리력(보통 세 역량을 함께 LLN(Language, Literacy, and Numeracy)으로 지칭함), 그리고 다양한 직업 역량(협력, 문제 해결, 자기관리, ICT 활용 역량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었으며, 이 계획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더 생산성 높고 더 포용적인 호주 사회를 만드는 것이었다. 즉, 호주 정부는 성인의 영어활용능력과 문해력을 수리력이나 다른 직무수행 관다 능력과 더불어 한 개인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기초 역량일뿐 아니라 경제활동에 참여하기 위한 기초역량의 한 요소로 보았다(Standing Council on Tertiary Education, Skills and Employment [SCOTESE], 2012).

□ 호주 핵심역량체계(Australian Core Skills Framework, ACSF)와 직업 핵심역량 개발체계(Core Skills for Work Developmental Framework)

위의 10개년 계획은 호주 정부와 관련 단체들이 추진하는 다양한 성인기초역량 지원 정책과 프로그램 간의 연계성을 강화함으로써 더욱 효과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교육뿐 아니라 산업, 고용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여러 전략들

이 제안되었는데, 이러한 다양한 지원체계 간의 유기적 운영을 위해 지원 대상자의 현 상황을 진단할 수 있는 공통적인 진단 도구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특히 성인의 기초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학습자의 현 수준을 체계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공통적인 역량 진단 도구가 필요하였다(SCOTese, 2012).

이후 호주 정부는 2개의 역량 체계를 범정부 지원체계에 적용하는 공통의 진단 도구로 선정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해왔다. 하나는 호주 핵심역량체계(Australian Core Skills Framework, ACSF)로 위의 10개년 계획에서 말한 기초 역량 중 영어활용능력, 문해력, 수리력(LLN)을 진단하기 위한 도구이다. 다른 하나는 직업 핵심역량 개발체계(Core Skills for Work Developmental Framework)로 위 계획에서 말한 다른 기초 역량들, 즉 경제활동 참여 및 직업생활에 필요한 역량들을 진단하기 위한 도구이다. 여기에는 문해 해결, 협력, 자기관리, 의사소통, 정보통신기술 활용 역량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두 진단 체계는 호주에서 성인의 기초 역량을 진단하기 위한 도구로 폭넓게 사용되어왔는데, 특히 ACSF는 아래에서 살펴볼 LLN 역량 제고 훈련 프로그램의 성취도 평가 도구로도 활용되고 있다(SCOTese, 2012).

□ 성인 이민자 영어교육 프로그램(Adult Migrant English Program, AMEP)

한편 호주의 성인 영어활용능력 교육을 위한 대표적인 지원 정책으로는 성인 이민자 영어교육프로그램(Adult Migrant English Program, AMEP)이 운영되고 있다. AMEP는 1948년 처음 도입된 프로그램으로 성인 이민자 또는 난민 등 인도적 체류자(humanitarian entrants)의 호주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무제한의 무료 영어 수업 비용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Acil Allen Consulting, 2015; Department of Home Affairs, 2023).³¹⁾ 특히 AMEP는 지원 대상자가 지역사회에 잘 정착하고, 경제활동에 참여하며, 자신에게 필요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둔다(Acil Allen Consulting, 2015).

□ 교육 및 고용을 위한 역량 훈련(Skills for Education and Employment, SEE) 프로그램

또 다른 성인 문해교육 지원 정책으로는 교육 및 고용을 위한 역량 훈련(Skills for Education and Employment, 이하 SEE) 프로그램이 있다. 이 프로그램은 2002년부터 운영되었던 ‘언어, 문해력, 수리력 지원 프로그램(Language, Literacy, and

31) 본래 510시간의 수업만 지원하는 제한이 있었으나 최근 폐지되었음.

Numeracy Programme, 이하 LLNP)’을 2013년부터 계승한 프로그램이다. AMEP가 성인 이민자의 적응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시작한 반면, SEE는 구직자의 LLN 역량을 제고함으로써 성공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돕기 위한 목적에서 시작되었다. SEE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자는 2년간 800시간까지 LLN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훈련 프로그램에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현재 SEE 프로그램의 궁극적인 목적이자 가장 중요한 성과지표는 지원 대상자의 취업이지만, 훈련 전후 학습자의 LLN 역량을 진단 및 비교하는 것 역시 프로그램 평가의 중요한 요소이다. 이때 학습자의 LLN 역량을 진단하는 도구로 위에서 살펴본 ACSF가 활용되고 있다(Acil Allen Consulting, 2015).

최근 교육훈련부(Department of Education and Training)는 AMEP와 SEE 각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두 프로그램 간의 연계 방안을 연구하였다. 해당 연구 보고서(Acil Allen Consulting, 2015)에 따르면 AMEP와 SEE는 성인 학습자의 LLN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 및 훈련 지원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므로 서로 간의 연계를 통해 시너지효과를 낼 가능성이 있다. 다만 몇 가지의 중요한 차이점을 조율할 필요도 제기되었다. 첫째, 두 프로그램이 그 목적과 대상 집단 면에서 이민자 지원과 고용 지원이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AMEP는 이민자가 주요 대상 집단이지만 비이민자도 참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SEE 지원 대상자를 배제하지는 않는다(Department of Home Affairs, 2023). 반면 SEE는 구직자가 주요 대상 집단이며 AMEP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SEE에 지원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이민자의 경우 AMEP를 통해 호주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필수적 역량을 먼저 획득한 후 구직을 위한 훈련이 필요할 때 SEE에 지원할 수 있다(Department of Employment and Workplace Relations, 2023). 두 번째는 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습자의 수준 간에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호주 사회에 이주한 지 얼마 안 된 성인들이 AMEP의 주요 지원 대상인 반면, SEE의 주요 대상은 구직에 필요한 LLN 역량을 높이고자 하는 성인 학습자들이므로 기본적인 영어활용능력과 문해력 면에서 차이가 크다(Acil Allen Consulting, 2015).

이뿐만 아니라 AMEP와 SEE가 사용하고 있는 LLN 역량 진단 도구가 서로 달라서 이 두 도구의 기준을 병합 및 조정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위에서 언급하였듯 SEE는 ACSF를 진단 도구로 삼고 있지만, AMEP는 ISLPR(International Second Language Proficiency Ratings)이라는 영어활용능력 평가 도구를 진단 도구로 삼고 있다(Acil Allen Consulting, 2015). ACSF와 ISLPR은 호주 내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영어활용능력 및 문해력 진단 도구인 만큼, 다음 장에서는 이 두 진단 도구의 수준별 주요 특징과 평가지표 등을 살펴보려고 한다.

2.2.2. 성인 영어활용능력 및 문해력 진단 도구 사례

□ 호주 핵심역량 체계(ACSF)

먼저 ACSF는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성인의 LLN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범정부적 노력에 활용되고 있는 진단 도구로, 대표적으로는 SEE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성인 학습자의 LLN 역량을 진단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학습 역량(learning), 읽기 역량(reading), 쓰기 역량(writing), 구두 의사소통 역량(oral communication), 수리력(numeracy)을 5개의 핵심역량(core skills)으로 삼고 각 영역에 대해 5개 수준으로 구분된 진단 기준을 제공한다. 특징적인 점은 영역마다 5개의 수준을 기본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수준 1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학습자를 돕기 위해 예비 수준 1(Pre Level 1)이라는 수준을 추가로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6개 수준이 규정되어 있다(McLean et al., 2012). 다음 <표 III-23>은 읽기(Reading) 영역의 5개 등급별 평가지표를 나타낸 것이다.

<표 III-23> ACSF 읽기 영역 5개 등급별 평가지표

수준	평가지표	
1	1.03	자신의 상황과 관련된 정보와 매우 친숙한 주제에 대한 지문의 주요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음.
	1.04	제한적인 전략을 사용하여, 분명하고 매우 친숙한 지문에 나타난 구체적인 정보를 배열하고 의미를 구성할 수 있음.
2	2.03	자신의 상황과 관련된 정보와 친숙한 주제에 대한 지문의 주요 내용을 파악하고 해석할 수 있음.
	2.04	친숙한 지문에 대해 다양한 읽기 전략을 사용하여 관련 정보를 파악하고 해석할 수 있음.
3	3.03	친숙한 유형의 지문과 일부 친숙하지 않은 유형의 지문에 나타난 정보와 주요 내용을 평가 및 통합하여 의미를 구성할 수 있음.
	3.04	지문의 목적과 유형에 따라 다양한 읽기 전략을 적절하게 선택하고 적용할 수 있음.
4	4.03	복잡한 지문을 해석하고 비판적으로 분석할 수 있음.
	4.04	복잡한 지문에 대해 적절한 전략을 적용하여 의미를 구성할 수 있음.
5	5.03	다양하고 복잡한 지문에 나타난 주요 내용과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평가 및 비판할 수 있음.
	5.04	광범위한 다양한 전략을 활용하여 복잡한 지문에 대한 이해를 구성 및 유지할 수 있음.

*출처: 이 표는 ACSF 원문(McLean et al., 2012)을 번역 요약한 것임.

□ ISLPR (International Second Language Proficiency Ratings)

ISLPR은 ‘International Second Language Proficiency Ratings’의 약자로 호주의 대표적인 영어활용능력 평가 도구다. 주로 이민자, 즉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습자의 영어활용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된다. 위에서 살펴본 대로 이민자의 LLN 역량 제고를 지원하는 AMEP에서 학습자의 영어활용능력 진단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ISLPR은 말하기(Speaking), 듣기(Listening), 읽기(Reading), 쓰기(Writing)의 4개 영역별로 먼저 수준을 진단하고 그 조합을 통해 각 등급을 규정하고 있는데, 크게 12개 등급으로 구분된다. 아래 <표 III-24>는 ISLPR의 12개 등급별 주요 특징과 활용 예시를 요약한 것이다. 아래 표에서 S, L, R, W는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4개의 영역을 의미한다. 또한 아래 <표 III-24>는 4개 대영역 수준이 같은 상황(예: S:1, L:1, R:1, W:1)을 가정하고 각 수준을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웹사이트에 따르면 모든 세부 사항이 포함된 원문 자료에는 4개 대영역 수준이 각각 다른 경우(예, S:1, L:2, R:2, W:1+)에 대한 설명도 포함하고 있다고 한다(ISLPR, 2019). 다만 일반적으로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는 아래 수준의 정보만이 제공되며,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추가적인 정보 요청이 필요하다(ISLPR, 2019).

<표 III-24> ISLPR 척도 12개 등급별 주요 특징 및 활용 예시

영역				등급	주요 특징	활용 예시
S	L	R	W			
0	0	0	0	Zero Proficiency	• 해당 언어(영어)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함.	• 모든 용도의 언어 사용이 불가능함.
0+	0+	0+	0+	Formulaic Proficiency	• 친숙하고 예측 가능한 필요 상황에서, 매우 제한적인 수준의 공식화된 표현(formulaic proficiency)을 사용함.	• 예측 가능한 영역에서 단일 단어 또는 간단한 공식화된 표현 사용하기
1-	1-	1-	1-	Minimum ‘Creative’ Proficiency	• 친숙하고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 필요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음. 대체로 공식화된 표현을 사용함.	• 필요한 물건 구매하기 • 자신과 가까운 타인에 대한 익숙한 정보 제공하기
1	1	1	1	Basic Transactional Proficiency	• 일상적인 거래적 상황에서 필요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음.	• 익숙한 상점, 기관, 대중교통, 식당 등에서 기본적인 거래 활동하기(예. 식당 예약하기 등)

영역				등급	주요 특징	활용 예시
S	L	R	W			
1+	1+	1+	1+	Transactional Proficiency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상적인 상호작용 상황과 제한적인 사회적 상황에서 의사소통을 통해 자신의 필요를 채울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무수행 상황에서 간단한 반복 업무에 대해 소통하기 예측이 약간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사회적 상황에서 자신을 소개하고 간단한 의도를 전달하기
2	2	2	2	Basic Social Proficiency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적인 사회적 상황에서 필요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음. 일상적인 상업 및 여가 활동, 그리고 언어 사용 면에서 까다롭지 않은 직무수행 영역과 관련된 반복적인 상황에서 필요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 상황에서 일상적 주제에 대한 비공식적인 대화에 참여하기 직무수행 상황에서 정기적으로 소통하는 대상에게 자신의 필요와 희망 사항을 전달하기 학술적 상황에서 간단하게 개인적 경험을 말하기 일부 성인 직업교육(Technical and further education, TAFE) 프로그램이 이 수준에 해당하는 영어활용능력을 요구하고 있음. 이민국이 요구하는 Functional English가 이 수준에 해당함.
2+	2+	2+	2+	Social Proficiency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준 2보다는 분명히 높지만, 수준 3에는 미치지 못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많은 TAFE 프로그램이 이 수준에 해당하는 영어활용능력을 요구하고 있음.
3	3	3	3	Basic 'Vocational' Proficiency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신의 사회생활, 상업 생활, 여가생활, 그리고 언어 사용 면에서 까다롭지 않은 직무수행 영역과 관련된 다양한 공식적, 비공식적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부 대학이 학사과정 등록을 위한 자격요건 중 하나로 이 수준에 해당하는 영어활용능력을 요구하고 있음.

영역				등급	주요 특징	활용 예시
S	L	R	W			
3+	3+	3+	3+	Basic 'Vocational' Proficiency Plus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준 3보다는 분명히 높지만, 수준 4에는 미치지 못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부 대학이 학사과정 또는 대학원 과정 등록을 위한 자격요건 중 하나로 이 수준에 해당하는 영어활용능력을 요구하고 있음.
4	4	4	4	'Vocational' Proficiency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신의 사회생활, 상업생활, 여가생활, 그리고 직무수행 영역과 관련된 거의 모든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호주에서 교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비영어권 지원자는 이 능력에 해당하는 영어활용능력을 갖추어야 함. 일부 대학이 특정 수업 등록을 위한 자격요건으로 이 수준에 해당하는 영어활용능력을 요구하기도 함. 이 수준에 해당하는 학습자는 일부 상황에서는 원어민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영어활용능력을 보임.
4+	4+	4+	4+	Advanced 'Vocational' Proficiency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준 4보다는 분명히 높지만, 수준 5에는 미치지 못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부분의 상황에서 원어민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영어활용능력을 보임.
5	5	5	5	Native-like Proficiency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어민 수준의 영어활용능력을 보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우 복잡한 상황에서도 언어 사용에 제한이 없음. 일상생활에서 의미를 정확하고 유창하게 전달할 수 있음.

*출처: 이 표는 ISLPR 척도 원문(ISLPR, 2019)을 번역하여 작성한 것임. 다음 웹사이트에서 원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https://islpr.org/why-use-islpr/summary-of-islpr>).

2.3. 미국 연방정부 : 영어활용능력 진단 도구들

2.3.1. 연방정부의 성인교육 정책 배경 및 개요

미국 연방정부 차원에서 강조하는 성인교육(adult education)은 모든 성인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적절한 중등 후 교육(post secondary education) 또는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경제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활동을 어려움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실제로 연방정부 차원의 대표적인 성인교육 관련 법안인 성인교육 및 가족문해법(Adult Education and Family Literacy Act, 이하 AEFLA)은 미국 인력 개발을 위한 법안인 인력 개혁 및 기회법(Workforce Innovation and Opportunity Act, 이하 WIOA)의 제2편(Title II)에 해당하며 WIOA가 인력 개발 및 강화를 위해 강조하는 6개의 핵심 영역 중 하나이다.³²⁾ WIOA는 기존의 인력투자법(Workforce Investment Act of 1998)을 대체하여 2014년 서명된 법안으로 모든 구직자가 적절한 고용, 교육, 훈련 및 기타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다. 이를 통해 구직자들은 질 좋은 직업을 구하고 고용주는 필요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미연방 노동부(U.S. Department of Labor)는 성인교육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제공하기 위해 연방 교육부(U.S. Department of Education) 및 보건복지부(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와의 협력하에 WIOA 시행을 주관하고 있다.³³⁾

AEFLA에 따르면 각 주정부는 초중등 학생뿐 아니라 성인교육을 위한 적절한 학업 표준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모든 성인 학습자가 자신의 수준과 필요에 맞는 적절한 고등교육 또는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³⁴⁾ 성인 학습자의 경우 학업 수준과 학습 환경에 편차가 크기 때문에 학습자의 수준을 진단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특히 꾸준히 이민자의 수와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미국 사회에서는 성인 학습자마다 영어활용능력에 편차가 크기 때문에 기본적인 영어활용능력을 진단하고 그에 맞는 언어 지원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성인교육 지원의 중요한 영역 중 하나이다.

이러한 필요를 고려하여 미국의 대표적인 사회과학 분야 비영리 연구기관인 미국연구원(American Institute for Research, AIR)은 연방 교육부의 지원을 받아 2016년에 ‘성인교육을 위한 영어활용능력 표준(English Language Proficiency Standards for Adult Education)’을 개발하였다. WIOA 하의 AEFLA 시행을 주관하는 연방 교

32) AEFLA 누리집 참조 <https://aefta.ed.gov/laws-guidance>

33) WIOA 누리집 참조 <https://www.dol.gov/agencies/eta/wioa>

34) AEFLA 누리집 참조 <https://aefta.ed.gov/laws-guidance>

육부 산하 직업, 기술 및 성인교육실(Office of Career, Technical and Adult Education)이 해당 연구과제를 지원하였다.

2.3.2. 영어활용능력 진단 도구 개발 사례³⁵⁾

AIR의 성인교육을 위한 영어활용능력 표준은 총 10개의 표준(standards)으로 구성되며 표준별 달성 수준(level)은 수준 1(level 1)에서 수준 5(level 5)까지 다섯 단계로 구분된다. 즉 성인 영어 학습자의 영어활용능력을 진단하고 교육 목표를 설정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10개 표준을 제시하는 동시에 표준별로 학습자의 달성 수준을 진단할 수 있는 기준을 함께 제시한다. 교육 현장에서는 이 5개 수준별 기준 내용을 토대로 하여 표준별로 학습자의 학습 전, 중, 후의 수행 수준을 진단할 수 있다. 학습자에 따라 특정 표준에서 다른 표준에서보다 더 높은 수행 수준을 보일 수 있다.

10개 표준은 크게 두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표준 1에서 표준 7까지는 영어 학습자가 각 주정부가 채택한 학업 표준에 해당하는 다양한 교과목의 교육 활동에 무리 없이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영어활용능력을 다룬다면, 나머지 3개 표준, 즉 표준 8에서 표준 10까지는 앞의 7개 표준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언어학적 역량을 강조한다. 표준 1에서 표준 7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 주어진 지문이나 의사소통 상황에서 나타나는 핵심 내용을 파악하고 타인과 적절히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 즉 상황과 맥락에 맞는 의사소통능력을 강조한다. 이에 비해 표준 8에서 표준 10까지는 단어의 의미 확정하기, 적절한 말하기와 언어 규칙을 사용하기 등 비교적 기술적이고 미시적 수준의 언어학적 역량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표준 1은 듣기, 읽기, 보기 등의 활동을 통해 구두 의사소통 또는 지문에서 나타나는 의미를 적절히 구성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데, 이를 제대로 수행하려면 표준 8에 해당하는, 주어진 구두 발표 또는 지문의 단어와 구절의 의미를 확정할 수 있는 언어학적 역량이 필요하다.

또한 10개 표준은 전체적으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네 가지 언어 습득 영역에 기반한다. 표준 1과 8은 특히 듣기, 읽기와 같은 수용적 기능(receptive skills)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표준 3, 표준 4, 표준 7은 말하기, 쓰기와 같은 산출적 기능(productive skills)에 초점을 둔다. 표준 2, 표준 5, 표준 6은 수용적 기능과 산출적 기능을 함께 사용할 것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상호작용적(interactive) 특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표준 9와 표준 10은 영어의 언어학적 구조에 초점을 둔다. 아래 <표 III-25>는 10개의 표준 내용과 표준별 달성 수준의 진단 기준을 함께 제시한 것이다.

35) 이 절은 U.S. Department of Education, Office of Career, Technical and Adult Education (2016) 보고서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표 III-25> AIR의 성인교육을 위한 영어활용능력 표준과 표준별 달성 수준 진단 기준

표준	수준 1	수준 2	수준 3	수준 4	수준 5
1. 구두 발표, 문해 및 정보 문서를 자신의 수준에 맞게 듣고, 읽고, 봄으로써 의미를 구성할 수 있다.	매우 제한적인 범위의 전략을 사용하여 구두 의사소통 상황과 간단한 지문에 나타난 핵심 단어들과 구절들을 파악할 수 있다.	초보 수준의 전략을 사용하여 구두 발표와 간단한 지문에 나타난 1) 핵심 주제를 파악할 수 있다. 2) 몇 가지의 중요한 세부 내용을 다시 말할 수 있다.	심화 수준의 전략을 사용하여 구두 발표와 지문에 나타난 1) 핵심 주제를 파악할 수 있다. 2) 주요 세부 사항을 다시 말할 수 있다. 3) 주요 세부 사항에 관한 질문에 답할 수 있다. 4) 세부 내용들이 어떻게 핵심 주제를 구성해가는지 설명할 수 있다. 5) 지문 일부를 요약할 수 있다.	한 가지 이상의 전략을 사용하여 구두 발표와 지문에 나타난 1) 핵심 주제를 파악할 수 있다. 2) 핵심 주제의 구성 과정을 분석할 수 있다. 3) 그러한 분석 내용을 지문에 나타난 세부 내용과 예시를 인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4) 지문을 요약할 수 있다.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여 구두 발표 및 지문에 나타난 1) 핵심 주제를 파악할 수 있다. 2) 핵심 주제의 구성 과정을 분석할 수 있다. 3) 그러한 분석 내용을 지문에 나타난 세부 내용과 예시를 인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4) 지문을 요약할 수 있다.
2. 다양한 사회적, 학술적 맥락에서 동료, 청중, 독자 의 의견과 질문에 응답하면서 자신의 수준에 맞게 정보, 생각, 분석을 말과 글로 소통할 수 있다.	1) 적극적으로 타인을 경청할 수 있다. 2) 익숙한 상황에서 익숙한 주제에 대해 간단한 대화와 글로 소통할 수 있다. 3) 간단한 정보를 제시할 수 있다. 4) 간단한 객관식 질문들과 일부 주관식 질문들에 답할 수 있다.	3) 익숙한 주제와 지문에 대해 간단한 대화와 글로 소통할 수 있다. 4) 정보와 자신의 생각을 제시할 수 있다. 5) 타인과 적절히 번갈아 가며 의사소통할 수 있다. 6) 간단한 주관식 질문들에 답할 수 있다.	1) 익숙한 주제, 지문, 이슈들에 대해 대화하고 토론하며 글로 소통할 수 있다. 2) 타인의 생각을 참고할 수 있다. 3) 자기 생각을 표현할 수 있다. 4) 관련 질문을 하고 답할 수 있다. 5) 핵심 내용 일부를 재진술할 수 있다. 6) 토론 시 규칙을 준수할 수 있다. 7) 정보를 얻거나 이해를 본	1) 다양한 주제, 지문, 이슈들에 대해 대화하고 토론하며 글로 소통할 수 있다. 2) 타인의 생각을 참고할 수 있다. 3) 자기 생각을 표현할 수 있다. 4) 구체적이고 관련성 있는 근거와 함께 요점을 명확하게 뒷받침할 수 있다. 5) 주장과 결론을 명확히 하기 위한 질문을 하고 답할 수 있다.	1) 다양하고 실제적인 주제, 지문, 이슈들에 대해 대화하고 토론하며 글로 소통할 수 있다. 2) 타인의 생각을 참고할 수 있다. 3) 자기 생각을 명확하고 설득력 있게 표현할 수 있다. 4) 자기 생각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문 또는 연구에서 찾은 구체적이고 관련성 있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 5) 추론과 주장 내용을 규명

표준	수준 1	수준 2	수준 3	수준 4	수준 5
			명히 하기 위한 질문을 할 수 있다.	6) 논의의 요점을 요약할 수 있다.	하기 위한 질문을 하고 답할 수 있다. 6) 논의의 요점과 관련 근거를 요약할 수 있다.
3. 자신의 수준에 맞게 복잡한 문항 및 정보 지문과 주제들에 대해 말하고 글을 쓸 수 있다.	도움을 받아서, 익숙한 지문, 주제, 경험에 대한 정보와 감정을 주고받을 수 있다.	도움을 받아서, 익숙한 지문, 주제, 경험, 사건에 대해 1) 짧은 구두 발표를 할 수 있다. 2) 글로 정보 지문을 작성할 수 있다. 3) 몇 가지 세부 내용과 함께 주제를 전개할 수 있다.	도움을 받아서, 익숙한 지문, 주제, 사건에 대해 1) 짧은 구두 발표를 할 수 있다. 2) 글로 정보 지문을 작성할 수 있다. 3) 관련성 있는 세부 내용, 개념, 예시, 정보를 가지고 주제를 완전하게 전개할 수 있다. 4) 필요한 경우 그래픽 또는 멀티미디어 자료를 함께 제시할 수 있다.	다양한 지문, 주제, 사건에 대해 1) 구두 발표를 할 수 있다. 2) 글로 정보 지문을 작성할 수 있다. 3) 관련성 있는 세부 내용, 개념, 예시, 정보를 가지고 주제를 완전하게 전개할 수 있다. 4) 필요한 경우 그래픽 또는 멀티미디어 자료를 함께 제시할 수 있다.	다양한 주제에 대해 의미 있는(substantive) 주장을 할 수 있다. 2) 주장을 소개할 수 있다. 3) 주장을 반론과 구분할 수 있다. 4) 주장을 뒷받침하고 반론에 대응하기 위해 논리적으로 정렬되고 관련성 있는 근거와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 5) 논의된 주장을 요약해 주
4. 자신의 수준에 맞는 말과 글로 주장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적절한 추론과 증거로 뒷받침할 수 있다.	1) 익숙한 주제, 경험, 또는 사건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다. 2) 의견에 대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	1) 익숙한 주제, 경험, 또는 사건에 대해 자기주장을 할 수 있다. 2) 주제, 경험, 또는 사건을 소개할 수 있다. 3)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다. 4) 결론을 제시할 수 있다.	1) 익숙한 주제에 대해 자기주장을 할 수 있다. 2) 주제를 소개할 수 있다. 3)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와 사실을 제시할 수 있다. 4) 결론을 제시할 수 있다.	1) 다양한 주제에 대해 자기주장을 할 수 있다. 2) 주제를 소개할 수 있다. 3) 논리적으로 정렬된 근거와 사실을 제시하여 주장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다. 4) 결론을 제시할 수 있다.	1) 다양한 주제에 대해 의미 있는(substantive) 주장을 할 수 있다. 2) 주장을 소개할 수 있다. 3) 주장을 반론과 구분할 수 있다. 4) 주장을 뒷받침하고 반론에 대응하기 위해 논리적으로 정렬되고 관련성 있는 근거와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 5) 논의된 주장을 요약해 주

표준	수준 1	수준 2	수준 3	수준 4	수준 5
5. 질문에 답하거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를 수행하고 결과를 평가 및 전달할 수 있다.	<p>도움을 받아서.</p> <p>1) 단기 연구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p> <p>2) 제공된 인쇄 및 디지털 자료로부터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p> <p>3) 수집한 정보, 경험, 사건을 분류할 수 있다.</p> <p>4) 경험 또는 제공된 자료로부터 얻은 정보를 상기할 수 있다.</p>	<p>도움을 받아서.</p> <p>1) 단기 연구과제를 단독 또는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p> <p>2) 제공된 인쇄 및 디지털 자료로부터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p> <p>3) 간단한 메모를 통해 정보를 기록할 수 있다.</p> <p>4) 자료 및 정보를 요약할 수 있다.</p>	<p>도움을 받아서.</p> <p>1) 특정 질문에 답하기 위해 단기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p> <p>2) 여러 인쇄 및 디지털 자료로부터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p> <p>3) 짧은 말과 글을 통해 핵심 정보를 자신의 방식으로 바꾸어 표현할 수 있다.</p> <p>4) 그림, 도표 및 기타 그래픽 자료를 적절히 포함할 수 있다.</p> <p>5) 출처 자료 목록을 제시할 수 있다.</p>	<p>1) 특정 질문에 답하기 위해 해 단기 및 장기 연구과제를 모두 수행할 수 있다.</p> <p>2) 여러 인쇄 및 디지털 자료로부터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p> <p>3) 출처 자료의 신뢰성을 평가할 수 있다.</p> <p>4) 고급 검색어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p> <p>5) 여러 인쇄 및 디지털 자료들로부터 얻은 정보를 종합할 수 있다.</p> <p>6) 관련 정보를 분석하고 분명하고 체계를 갖춘 구두 및 서면 지문에 통합할 수 있다.</p> <p>7) 그림, 도표 및 기타 그래픽 자료를 적절히 포함할 수 있다.</p> <p>8) 출처 자료를 적절히 인용할 수 있다.</p>	<p>1) 설득하는 말과 글에 사용된 추론을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다.</p>
6. 말과 글로 타인의 주장을 분석하고 비판할 수 있다.	<p>도움을 받아서. 화자의 요점을 파악할 수 있다.</p>	<p>도움을 받아서.</p> <p>1) 화자의 핵심 주장을 파악할 수 있다.</p>	<p>도움을 받아서.</p> <p>1) 화자가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한 근거를</p>	<p>1) 설득하는 말과 글에 사용된 추론을 분석할 수 있다.</p>	<p>1) 설득하는 말과 글에 사용된 추론을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다.</p>

표준	수준 1	수준 2	수준 3	수준 4	수준 5
있다.		다. 2) 화자가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한 근거를 파악할 수 있다.	설명할 수 있다. 2) 화자가 요점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한 한 두 가지의 근거를 파악할 수 있다.	2)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충분한지를 평가할 수 있다. 3) 분석을 뒷받침하는 지문 증거를 인용할 수 있다.	2)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충분한지를 평가할 수 있다. 3) 분석을 완벽하게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지문 증거를 인용할 수 있다.
7. 말하고 쓸 때 목적, 과업, 청중에게 맞게 언어 선택을 조절할 수 있다.	1) 공식적인 언어 사용 용과 비공식적인 언어 사용의 차이에 대해 인식하기 시작함을 보여준다. 2) 대화 및 읽기를 통해 배운 단어의 의미를 인식할 수 있다.	1) 공식적인 언어 사용과 비공식적인 언어 사용의 차이에 대해 보다 나아진 인식을 보여준다. 2) 다양한 사회적, 학술적 맥락에서 약간의 통제력과 함께 과업과 청중에게 맞게 언어 선택을 조절할 수 있다. 3) 일반 학술용어와 특정 분야에서 통용되는 용어와 표현을 말과 글에서 더 많이 사용한다.	1) 다양한 사회적, 학술적 맥락에서보다 더 편안하게 언어 선택과 형식을 목적, 과업, 청중에게 맞게 조절할 수 있다. 2) 일반 학술용어와 특정 분야에서 통용되는 용어와 표현을 말과 글에서 더 많이 사용한다. 3) 말과 글에서 사용하는 형식과 논조에 대해 보다 더 발전된 통제력을 보여준다.	1) 다양한 사회적, 학술적 맥락에서 목적, 과업, 청중에게 맞게 언어 선택과 형식을 조절할 수 있다. 2) 일반 학술용어와 특정 분야에서 통용되는 복잡한 용어와 구절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 3) 공식 또는 비공식적 언어 형식과 논조를 말과 글에서 적절히 선택하고 유지할 수 있다.	1) 다양한 사회적, 학술적 맥락에서 목적, 과업, 청중에게 맞게 언어 선택과 형식을 편하게 조절할 수 있다. 2) 일반 학술용어와 특정 분야에서 통용되는 복잡한 용어와 구절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 3) 공식 또는 비공식적 언어 형식과 논조를 말과 글에서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한다.
8. 구두 발표, 문항 및 정보 지문에 나타난 단어와 구절의 의미를	1) 모국어의 맥락과 형태론적 지식에 근거하여, 2) 익숙한 주제, 경험.	1) 모국어의 맥락과 형태론적 지식을 사용하여, 2) 익숙한 주제, 경험.	1) 모국어와 영어의 맥락과 보다 발전된 형태론적 지식을 사용하여, 2) 익숙한 주제, 경험, 또는	1) 영어의 맥락과 늘어난 형태론적 지식을 사용하여 2) 다양한 주제, 경험, 또는 2) 다양한 주제, 경험, 또는	1) 영어의 맥락과 확립된 형태론적 지식을 사용하여 2) 다양한 주제, 경험, 또는 사건에 대한 말과 글에서

표준	수준 1	수준 2	수준 3	수준 4	수준 5
확정할 수 있다.	또는 사건에 대한 말과 글에서 3) 자주 사용되는 단어, 간단한 문구, 공식적 표현의 의미를 인지할 수 있다.	힘, 또는 사건에 대한 말과 글에서 3) 자주 사용되는 단어, 문구, 표현의 의미를 특정할 수 있다.	사건에 대한 말과 글에 나타난 3) 일반 학술용어와 특정 분야에서 통용되는 단어, 문구, 표현의 의미를 특정할 수 있다.	사건에 대한 말과 글에서 3) 일반 학술용어와 특정 분야에서 통용되는 단어와 문구, 비유적이고 함축적인 표현, 일부 관용적 표현의 의미를 특정할 수 있다.	3) 일반 학술용어와 특정 분야에서 통용되는 단어와 문구, 비유적이고 함축적인 표현, 관용적 표현의 의미를 특정할 수 있다.
9. 자신의 수준에 적합하게 명확하고 일관된 말하기 및 글쓰기를 할 수 있다.	도움을 받아서, 1) 특정 사건 또는 주제에 대한 기본 정보를 소통할 수 있다. 2) 좁은 범위의 어휘와 문법적으로 간단한 문장을 사용한다.	도움을 받아서, 1) 비교적 간단한 사건을 순서에 맞게 이야기할 수 있다. 2) 특정 주제의 정보를 소개할 수 있다. 3) 해당 주제에 관한 한 두 가지의 사실을 제시할 수 있다. 4) 사건과 생각을 연결하기 위해 일반적인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도움을 받아서 1) 시작, 중간, 끝이 있는 일련의 사건을 이야기할 수 있다. 2) 특정 주제의 정보를 사실과 세부 내용을 포함하여 소개하고 전개할 수 있다. 3) 사건, 생각, 의견을 연결하기 위해 일반적인 전환어 및 구문을 사용할 수 있다. 4) 결론을 제시할 수 있다.	1) 보다 길고 세부적인 일련의 사건 또는 전개 과정에 대해 명확한 순서와 연대기적 구조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다. 2) 특정 주제의 정보를 사실, 세부 내용, 관련 증거와 함께 소개하고 효과적으로 전개할 수 있다. 3) 말과 글의 핵심 부분을 연결하고 사건과 생각들의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다양하고 복합적인 전환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4) 결론 문단과 결론문을 제시할 수 있다.	1) 복합적이고 세부적인 일련의 사건 또는 전개 과정에 대해 효과적이고 순차적 및 연대기적 구조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다. 2) 특정 주제의 정보를 사실, 세부 내용, 관련 증거와 함께 소개하고 효과적으로 전개할 수 있다. 3) 말과 글의 핵심 부분을 연결하고 사건과 생각들의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다양하고 복합적인 전환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4) 결론 문단과 결론문을 제시할 수 있다.
10. 표준 영어 (standard English)의 언어 규칙을 준수	도움을 받아서, 1) 적은 수의 자주 사용되는 명사, 명사구, 동사구, 동사, 접속사.	도움을 받아서, 1) 자주 사용되는 명사, 명사구, 동사, 접속사, 전치사를	도움을 받아서, 1) 단순한 구조의 구 (phrases)를 사용할 수 있다.	1) 보다 복잡한 구조의 구 (phrases)를 사용할 수 있다. 2) 보다 복잡한 절(clauses)	1) 복잡한 구조의 구와 절을 사용할 수 있다. 2) 단순문과 복합문, 몇 가지의 복합 문장을 만들고

표준	수준 1	수준 2	수준 3	수준 4	수준 5
하여 수준에 맞는 말과 글로 의사소통할 수 있다.	전치사를 인지하고 사용할 수 있다. 2) 간단한 질문을 이해하고 답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 2) 단순문과 복합문을 만들 수 있다.	2) 단순한 구조의 절 (clauses)을 사용할 수 있다. 3) 단순문과 복합문, 몇 가지의 복합 문장을 만들고 확장할 수 있다.	을 사용할 수 있다. 3) 단순문과 복합문, 몇 가지의 복합 문장을 만들고 확장할 수 있다.	확장할 수 있다.

*출처: U.S. Department of Education, Office of Career, Technical and Adult Education (2016)의 보고서 21~30페이지에 제시된 표를 번역 및 통합하였음.

2.3.2. 영어활용능력 진단 도구의 교육 현장 적용을 위한 지원 노력

AIR의 성인교육을 위한 영어활용능력 표준 개발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성인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자를 위한 지침서의 성격을 갖는다. 각 표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동시에 실제 교육 현장에서의 활용을 돕기 위해 다음의 내용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첫째, 영어, 수학, 과학 영역의 학습 역량 및 직업 준비도를 진단하는 도구인 ‘대학 및 직업 준비도 표준(College and Career Readiness Standards)’ 내용과의 호환 정도를 분석하여 함께 제시하였다. 새로 개발된 영어활용능력 진단 도구가 기존에 널리 활용되어 온 성인 학습자를 위한 학습 역량 진단 도구와 서로를 보완하는 자료으로써 활용되기를 기대하였기 때문이다. 둘째, 각 표준에 해당하는 교수활동 시나리오 예시를 함께 제시하여 새로 개발된 진단 도구를 실제 교육 현장에서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용어 해설집을 함께 제공하여 새로 개발된 표준에서 자주 사용된 주요 용어들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수준의 학습자 학습을 촉진하기 위한 교수적 비계설정(스캐폴딩, scaffolding) 및 지원 사례를 함께 제공하였다. 실제 교육 현장에서 대면하는 성인 학습자의 영어활용능력에 실제로 많은 편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교육자들이 새로 개발된 표준을 적용함에 있어 각 학습자의 현 수준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다음 단계로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자극을 어떻게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함께 제공한 것이다.

보고서 발간 이후 미연방 교육부 산하 직업, 기술 및 성인교육실(Office of Career, Technical and Adult Education)은 위에서 소개한 성인교육을 위한 영어활용능력 표준의 현장 적용을 돕기 위해 관련 온라인 강의를 성인교육자를 위한 정보 공유 포털인 ‘LINC S (<https://lincs.ed.gov/>)’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특히 해당 표준에 대한 강의는 세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모듈(Module One: Introduction to the ELP Standards for Adult Education)은 해당 표준의 개발 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개발된 표준이 어떻게 주정부가 채택하고 있는 학업 내용 표준과 연결되는지를 설명한다.³⁶⁾ 두 번째 모듈(Module Two: Analyzing Student Tasks in Relation to Content Demands, Thinking Skills, and Language Use)은 성인 영어 학습자가 주정부의 학습 표준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교과 지식, 분석 기술, 언어 사용의 세 측면이 갖는 중요성을 강조한다.³⁷⁾ 마지막 모듈인 세 번째 모듈(Module Three: Digging Deeper into the English Language Proficiency Standards for Adult Education)에서는 성인교육을 위한 영어활용능력 표준이 어떻게 실제 교수활동과 연결되는지, 교육자는 어떻게 이 표준을 그들의 수업 계획과 교수활동에 통합시

36) LINC S 누리집 참조 <https://lincs.ed.gov/professional-development/resource-collections/profile-1049>

37) INC S 누리집 참조 <https://lincs.ed.gov/professional-development/resource-collections/profile-1105>

킬 수 있는지 등을 다루고 있다.³⁸⁾³⁹⁾

이상에서는 미 연방정부의 성인교육 정책 개요,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아 AIR이 개발한 성인교육을 위한 영어활용능력 표준의 세부 내용과 각 달성 수준별 진단 기준, 그리고 해당 표준의 교육 현장 적용을 위한 지원 노력을 살펴보았다. 미 연방정부는 성인 학습자가 경제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활동에 적절히 참여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그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어야 함을 강조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학습자들의 기본적인 영어활용능력 수준을 진단하고 이들이 적절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달성해야 할 교육 목표를 논의할 수 있는, 일종의 표준을 설정하는 것이 주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필요 하에 개발된 성인교육을 위한 영어활용능력 표준은 상황과 수준의 편차가 매우 큰 성인 학습자의 교육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언어교육학적 측면과 달성 수준을 고려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학습자가 해당 진단 도구에 따라 일렬로 평가될 것을 기대하지 않으며 학습자에 따라 달성 수준이 높거나 낮은 영역이 상이할 것을 상정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이는 일반 국민이라는, 역시 상황과 수준에 편차가 큰 집단을 대상으로 문해력 진단 도구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는 본 연구에도 유용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2.4. 유럽 공통 언어 평가 기준(CEFR)⁴⁰⁾

2.4.1. 유럽평의회 언어교육 지원 정책 개요 및 CEFR의 개발 목적

유럽 공통 언어 평가 기준(Common European Framework of Reference for Languages, 이하 CEFR)은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가 2001년 처음 발간한 평가 기준으로 유럽 국가들에서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학습자들의 언어 능력을 공통의 틀을 통해 평가하고자 개발된 일종의 언어 능력 진단 도구이다. 최근에는 2020년에 평가기준 내용을 업데이트하였다. 유럽평의회는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정부 간 국제기구로 인권, 민주주의, 법치 수호를 위해 1949년 창립되었다. 유럽평의회는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유럽 사회에서 CEFR을 통해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더라도 공통된 평가기준에 따라 각 언어 사용자의 능력을 평가 비교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하였다.

38) LINC스 누리집 참조 <https://lincs.ed.gov/professional-development/resource-collections/profile-1106>

39) LINC스 누리집 참조 <https://lincs.ed.gov/state-resources/federal-initiatives/elp-standards>

40) 유럽평의회 언어교육 누리집 내용 참조

<https://www.coe.int/en/web/common-european-framework-reference-languages/language-policy-in-the-council-of-europe>.

즉, CEFR 개발을 통해 국가 또는 기관별로 주관적인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인해 발생하는 혼란을 줄이고 언어활용능력 평가의 객관성과 명확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유럽평의회가 언어교육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은 다언어주의(plurilingualism)를 지원하고 언어 사용의 다양성을 증진하려는 노력이다. 특정 언어가 우월하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모든 언어의 사용이 존중받고 학습자가 필요로 하는 교육 및 훈련 활동에 참여함에 있어서 언어로 인한 장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때문에 CEFR은 유럽 내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언어별 버전이 개발되었다. 언어 사용의 맥락을 고려하여 일부 세부 사항에는 언어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지만, 대체적인 평가 기준의 내용은 언어와 관계없이 동일하다. 즉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학습자와 독일어를 사용하는 학습자의 언어 능력을 공통의 진단 도구인 CEFR을 통해 일관되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언어 사용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이러한 유럽평의회 언어교육 정책 기조는 1954년 채택된 유럽문화협정(European Cultural Convention)을 기반으로 한다. 현재 유럽평의회 언어교육 지원 정책은 평의회 산하 교육부(Education Department)의 언어 정책 프로그램(Language Policy Programme)과 유럽 현대언어센터(European Centre for Modern Languages)가 주관하고 있으며 이들은 교사교육 등의 영역에서 긴밀한 협력을 통해 CEFR의 교육 현장 보급 및 활용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언어 정책 프로그램에 따르면 유럽평의회 49개 회원국은 다언어주의와 언어의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과 관련 표준을 개발할 책임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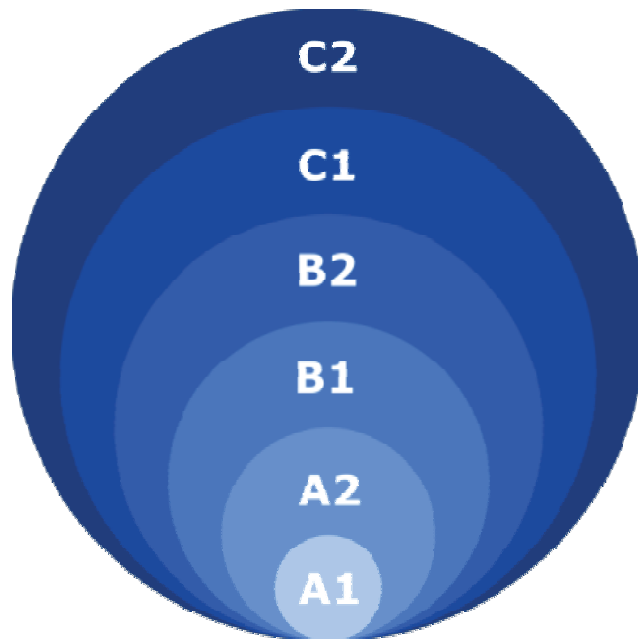
유럽평의회는 CEFR 개발의 주요 목표로 다음의 일곱 가지를 명시한다.⁴¹⁾

1. 교육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언어 선택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다언어주의(plurilingualism)를 촉진한다.
2. 개별 학습자별로 다언어 사용 프로파일의 개발과 시연을 지원한다.
3. 언어 교육과정의 내용을 개발 및 검토하고, 학습자의 연령, 흥미, 필요에 맞는 수행 기준을 '~할 수 있다(can do ~)'의 긍정적인 형식으로 정의한다.
4. 교과서와 교수 자료를 설계 및 개발한다.
5. 교사교육과 서로 다른 언어를 가르치는 교사들 간의 협력을 지원한다.
6. 학습, 교육, 평가의 질과 성공을 제고한다.
7. 평가의 투명성과 인증 체제 간의 호환성을 높인다.

41) 유럽평의회 누리집 참조 <https://www.coe.int/en/web/common-european-framework-reference-languages/uses-and-objectives>

2.4.2. CEFR의 등급별 진단 기준⁴²⁾

CEFR은 크게는 초급, 중급, 고급의 세 등급으로 구분되지만, 각 등급은 다시 2개의 세부 등급으로 구분되어, 결과적으로 총 6개의 등급을 갖는다. 알파벳 A로 표현되는 초급 등급은 해당 언어활용능력이 기초 수준인 사용자(basic user)를 위한 것으로 가장 초급 단계를 나타내는 A1 등급과 보다 높은 등급인 A2 등급으로 나뉜다. 중급 단계는 특별한 도움 없이도 대체로 해당 언어를 필요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독립적 사용자(independent user)를 위한 단계로, 알파벳 B로 표현되며 역시 B1 등급과 보다 높은 등급인 B2 등급으로 구분된다. 마지막으로 가장 높은 단계인 고급 단계는 해당 언어활용능력이 유창한 전문적 사용자(proficient user)를 위한 등급이다. 고급 단계는 알파벳 C로 표현되며 C1 등급과 가장 높은 등급인 C2 등급으로 나눌 수 있다. 아래 [그림 III-11]은 CEFR의 6개 등급을 가장 낮은 등급(A1)에서 가장 높은 등급까지(C2) 구분하여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III-11] CEFR의 6개 등급

*출처: <https://www.coe.int/en/web/common-european-framework-reference-languages/level-descriptions>

<표 III-26>은 CEFR의 6개 등급별 진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위에서 언급하였듯 CEFR은 유럽에서 사용되는 여러 언어의 맥락에 맞게 번역되어 제공된다.

42) CEFR 등급표 설명 누리집 내용 참조

<https://www.coe.int/en/web/common-european-framework-reference-languages/level-descriptions>

각 언어 사용의 맥락을 고려하여 일부 표현은 언어에 따라 상이하지만, 대체적인 진단 기준의 내용은 언어에 관계없이 동일하다. 이 글에서는 여러 버전 가운데 영어 버전을 번역하여 제시하였다.

<표 III-26> CEFR의 6개 등급별 진단 기준: 영어

구분	등급	진단 기준
고급 (Proficient User)	C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듣거나 읽은 것의 거의 전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 다양한 서면 및 구두 자료의 정보를 요약할 수 있으며, 그 안의 사실과 주장을 일관되게 다시 제시할 수 있다. • 즉흥적으로 유창하고 정확하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으며, 복잡한 상황에서도 미세한 의미 차이를 구분할 수 있다.
	C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길고 까다로운 다양한 지문을 이해할 수 있으며, 함축적 의미를 인지할 수 있다. • 특정 표현에 대한 검색을 많이 하지 않고도 유창하고 자연스럽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다. • 사회적, 학술적, 또는 직업적 목적에 맞추어 언어를 유연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 복잡한 주제에 대해 명확하고 체계적이며 상세한 글을 작성할 수 있으며, 글의 구조, 연결, 결합을 위한 요소들을 필요에 맞게 사용할 수 있다.
중급 (Independent User)	B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이 전문 분야에 대한 기술적 논의 등, 구체적 주제와 추상적 주제 모두에 대해 복잡한 지문을 접했을 때, 요점을 이해할 수 있다. • 유창하고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이 가능하여 자신과 상대방 모두에게 부담이 되지 않게 원어민과 일상적인 대화가 가능하다. • 다양한 주제에 대해 명확하고 상세한 글을 작성할 수 있으며, 각기 장단점이 다른 여러 선택지가 있는 시사 문제에 대해 자신의 관점을 설명할 수 있다.
	B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장, 학교, 여가생활 등에서 일상적으로 직면하는 친숙한 문제에 대해 표준어를 사용하는 경우 그 요점을 이해할 수 있다. • 특정 방언을 사용하는 지역을 여행하는 동안 발생하는 대부분의 상황을 다룰 수 있다. • 친숙하거나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는 분야의 주제에 대해 간단하고 일관된 글을 작성할 수 있다. • 경험, 사건, 꿈, 희망 사항, 목표 등에 대해 설명할 수 있으며, 자신의 의견과 계획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고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
초급 (Basic User)	A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상황에 매우 밀접한 주제와 관련하여 자주 사용되는 문장과 표현들을 이해할 수 있다(예: 기본적인 개인과 가족 정보, 쇼핑 상황, 지역 지리, 업무 상황 등).

구분	등급	진단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단하고 직접적인 정보 교환만을 필요로 하는 단순하고 일상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 자신의 배경, 당면한 상황, 당장 도움이 필요한 문제 등에 대해 간단한 용어를 사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A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인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친숙한 일상 표현과 기본적인 구문들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 • 자기 자신과 타인에 대해 소개할 수 있고, 거주지, 타인과의 관계, 소유물 등 개인적인 내용에 대해 질문하고 답할 수 있다. • 상대방이 정확하고 천천히 말하며 협조적인 경우 간단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주: 이 표는 CEFR의 공식 영어 버전을 번역하여 작성한 것임. 언어별 등급표 원문은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음
<https://www.coe.int/en/web/common-european-framework-reference-languages/official-translations-of-the-cefr-global-scale>.

*출처: <https://rm.coe.int/CoERMPublicCommonSearchServices/DisplayDCTMContent?documentId=090000168045bc7b>

2.4.3. CEFR의 활용

유럽평의회는 CEFR의 2020년 개정판을 발표하면서 교육 현장에서 CEFR을 활용할 수 있는 여러 전략에 대한 예시를 함께 제공하였다. 그러한 전략 중 하나는 CEFR을 통해서 개별 학습자별로, 그리고 사용 언어별로 활용 능력을 진단하여 일종의 언어 프로필을 만드는 것이다. 이때 언어 프로필은 여러 방식으로 만들 수 있다. 첫 번째로는 학습자가 사용하는 언어별로 언어 활동의 주요 측면들, 즉 말하기, 읽기, 듣기, 쓰기 등의 요소별로 언어활용능력을 진단하고 그것을 도표로 그려 언어별 활용 능력 프로필을 작성할 수 있다. 아래 [그림 III-12]는 이러한 방식으로 만든 프로필의 예시로, 한 학습자의 스페인어(Spanish) 사용 역량을 언어 활동의 요소별로 진단하여 표시하고 있다. 두 번째 방법은 학습자별로 사용하는 모든 언어를 나열하고 언어별 활용 능력을 진단하여 하나의 다언어활용능력 프로필을 만드는 것이다. 예를 들면 [그림 III-13]과 같이 한 학습자가 영어(English), 독일어(German), 프랑스어(French), 스페인어(Spanish), 이탈리아어(Italian)의 5개 국어를 한다고 가정할 때, 언어별로 종합적인 활용 능력 진단 결과를 취합하여 하나의 도표로 나타낼 수 있다. 이 외에도 개선 노력이 필요한 언어 학습 요소를 언어별로, 혹은 영역별로 진단하여 동심원 형태의 그래프로 제시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즉, 교육 상황에 맞게, 혹은 학습자의 필요와 특성에 맞게 진단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학습자의 이해를 돕고 학습자와 교육자 간의 소통을 더욱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다(Council of Europe, 2020).

Spanish	Pre-A1	A1	A2	A2+	B1	B1+	B2	B2+	C1
Oral comprehension									
Reading comprehension									
Oral interaction									
Written interaction									
Oral production									
Written production									
Mediation									

[그림 III-12] 언어 프로파일 예시 1: 언어별 활용 능력 프로파일(a proficiency profile)

*출처: : Council of Europe (2020: 40), Figure 9

	Pre-A1	A1	A2	A2+	B1	B1+	B2	B2+	C1	C2	Above C2
English											
German											
French											
Spanish											
Italian											

[그림 III-13] 언어 프로파일 예시 2: 학습자별 다언어활용능력 프로파일 (a plurilingual proficiency profile)

*출처: : Council of Europe (2020: 40), Figure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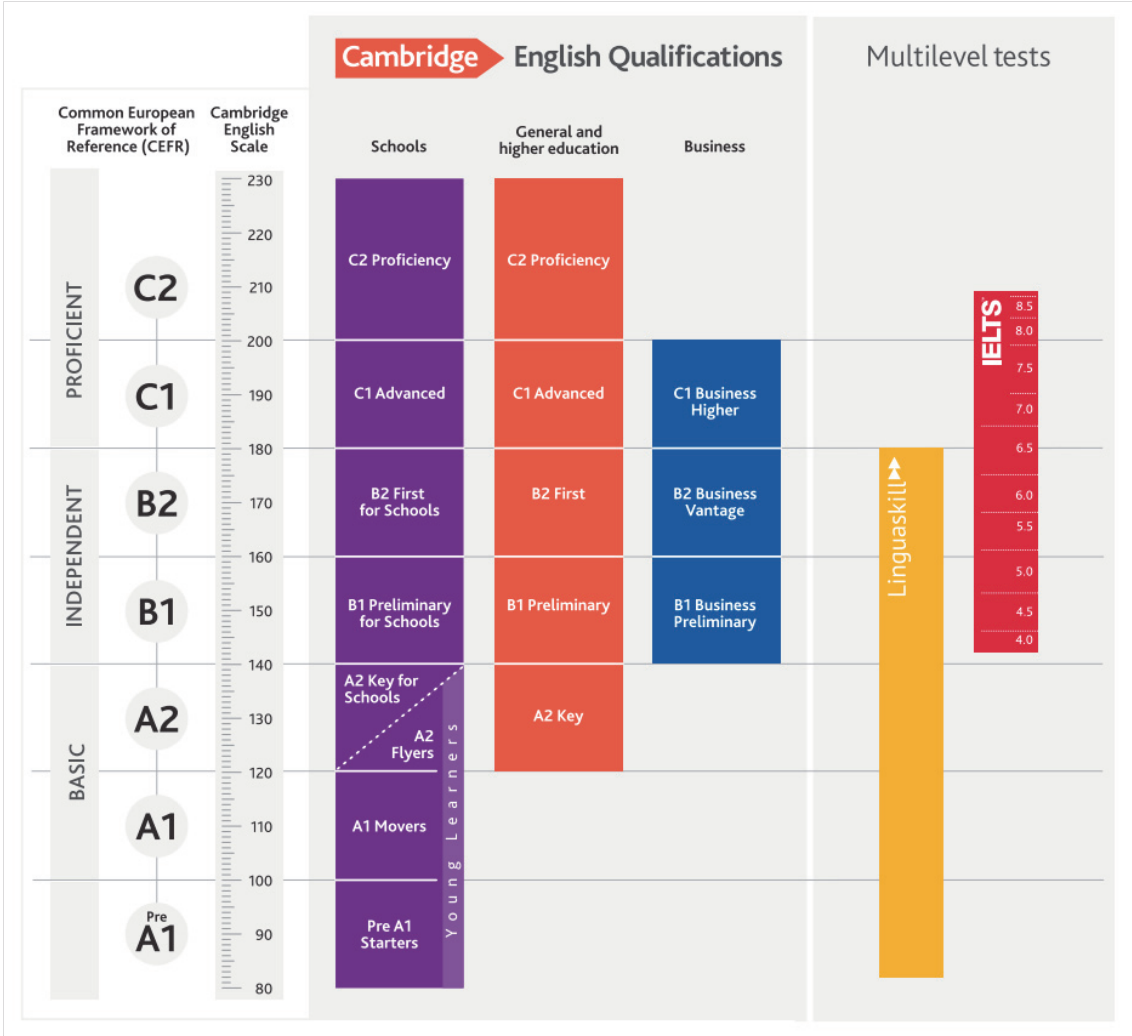
CEFR은 유럽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에서 개인의 언어활용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CEFR의 개발 목적과 같이 특히 교육 분야에서 CEFR의 활용이 활발한데, 주로 언어교육을 담당하는 전 세계의 많은 기관 및 조직이 CEFR을 활용하여 학습자의 언어활용능력을 평가하고 있다. 이를 고려하여 유럽평의회는 전 세계의 주요 언어교육 및 평가 기관에서 사용되는 CEFR의 평가지를 분석하고 공개하여 CEFR이 최대한 개발 목적에 맞게, 그리고 일관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가령 CEFR 웹사이트를 살펴보면 미국 외국어교육협의회(American Council on the Teaching of Foreign Languages, ACTFL), 캠브리지 영어 평가(Cambridge English Language Assessment), 괴테 인스티튜트(Goethe Institute)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CEFR 평가 화면 또는 평가지의 예시를 공개하고 있다.⁴³⁾

특히 유럽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영어 능력 평가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캠브리지 영어 평가는 CEFR과 연계한 평가 척도를 개발하고 이를 학교(schools), 일반 및 고등교육(general and higher education), 비즈니스(business) 분야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다. 아래 [그림 III-14]는 CEFR에 기반한 캠브리지 영어 평가의 척도

43) CEFR의 실제 사용 예시를 제시한 웹사이트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https://www.coe.int/en/web/common-european-framework-reference-languages/illustrations-of-levels>

를 보여준다. 각 분야의 학습자 특성에 맞게 평가 등급의 종류와 명명을 달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III-14] CEFR과 캠브리지 영어 평가 척도

*출처: <https://www.cambridgeenglish.org/exams-and-tests/cambridge-english-scale/#>

캠브리지 영어 평가 외에도 영국에서는 정부 차원에서도 CEFR이 널리 활용되고 있다. 가령 영국 이민국은 CEFR B1 수준 취득을 학생비자 발행의 필수 요건 중 하나로 삼고 있다. 비학위과정의 경우는 B1 수준을, 학위과정의 경우는 최소한 B2 또는 이에 상응하는 영어 시험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이 정책은 비영어권 국가 출신 국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⁴⁴⁾

44) 영국 정부의 학생비자 정책을 설명하는 웹사이트 내용을 참고하였음.
<https://www.gov.uk/student-visa/knowledge-of-english>

3. 시사점

이 장에서는 국내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과 해외의 국가 수준의 진단 체계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국내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국가 수준에서는 주로 저학력 및 저문해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문해교육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주로 학력인정과 연계되어 지원되며, 초급 수준의 생활문해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중급 및 고급 수준의 프로그램은 국어문화원, K-MOOC 등 일부에서 제공되고 있으나, 아직 발전의 여지가 많다. 따라서,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확장성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확장적 문해교육 요구와 실제 텍스트 특성에 부합하는 내용을 담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의 문해교육 프로그램은 직업교육 분야에서의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 직업교육은 높은 수준의 문해능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에 적합한 프로그램이 충분하지 않은 점이 발견되었다. 직업교육 분야에서의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확대함으로써, 실질적인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갖춘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 이러한 부족한 지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의 노력이 필요하다.

해외에서는 아일랜드 국가성인 문해지원기구의 문해교육 플랫폼 런 위드 날라와 국가 역량 체계와 연계된 문해교육 프로그램 설계, 호주의 성인 이민자 영어교육 프로그램(AMEP)과 호주 핵심역량 체계와 연동된 구직자 교육훈련 프로그램인 SEE 프로그램, 미국의 AIR이 개발한 성인 영어활용능력 표준, 그리고 유럽의 언어교육 지원 정책 및 유럽 공통언어 평가표준(CEFR) 등 다양한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과 표준에 대해 살펴보았다. 각 국가의 성인 문해능력 지원 체계들은 각각 학습자의 다양성과 요구에 맞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표준을 기반으로 효과적인 평가 체계를 운영함으로써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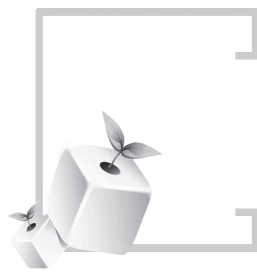
국내 문해 관련 프로그램 현황과 해외 성인 문해교육 지원 체제 분석을 통해 도출할 수 있는 한국 성인 문해력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학습자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다. 학습자들의 수준과 요구에 맞춰 프로그램을 유연하게 조정하고,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텍스트를 활용한 교육이 필요하다. 그뿐만 아니라, 확대된 텍스트와 학습자 수요에 맞춘 프로그램을 위해 교수자들을 위한 교육과 지원도 필요하다. 현재 성인 기초문해교육 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국가평생교육원과 국가문해교육센터뿐만 아니라 더 확대된 차원에서 더 많은 자원과 지원을 투입하여 교육 프

로그래의 다양성과 품질을 향상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민의 문해력 향상이라는 성인 문해교육의 목표를 질적으로 담보하고 문해력 향상을 통한 개인 및 사회적 발전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확장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현재의 초급 중심 프로그램 외에도 중급 및 고급 수준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특히 직업교육 분야에서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모든 수준의 학습자가 필요한 능력을 효과적으로 향상할 수 있다.

셋째, 직업교육 분야에서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취업과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문해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제 업무와 연계된 자료 및 텍스트를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힘써야 한다. 직업교육 분야에서 요구되는 문해력은 업무를 해 나아가기 위한 보조적인 수단이지만 그 능력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 주요 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실제 직무교육에서는 우선순위에서 배제되거나 부수적으로 취급되는 경향이 있다. 수요가 있어도 그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교육 프로그램이 충분하지 못하다. 천편일률적인 보고서 작성을 위한 문해력에서 벗어나 좀 더 해당 직무와 밀접하게 연계되면서 문해력과 업무능력을 함께 향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넷째, 해외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 및 표준을 참고하고,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다양한 국가의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에 맞는 최적의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국제적인 교류를 통해 성인 문해교육 분야에서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여 발전시켜야 한다. 특히, 협력에 있어 국내 다른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 관계가 필요하다. 다양한 교육기관, 비영리 단체, 산업계와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함으로써 교육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 국내 다른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속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와 플랫폼을 확보하고, 학습자들의 다양한 문해 수준과 요구에 맞춘 적합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노력한다면 국민의 문해력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제4 장

전문가 수요 조사 분석



1. 개요

전문가 수요 조사는 질적 연구 방법에 근거를 둔 개별 면담과 초점 집단 면담을 혼용한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국어문화원(국어학, 국어교육 등), 성인 문해교육, 직업교육, 읽기교육, 평생교육, 세대교육, 미디어교육 등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였다. 전문가들의 소속은 대학, 국책 연구 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문해교육 기관 등 다양하였다. 면담은 2023년 6월 15일부터 2023년 9월 21일까지 총 10회 실시하였다. 면담 형식을 보면, 다수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초점 집단 면담 8회, 일대일 개인 면담은 2회 실시하였으며, 면담 방법을 보면, 면대면 면담 5회, 비대면 면담 5회 실시하였다. 회차당 1시간~2시간을 소요하였다. 회차별 면담 참여자 명단과 일정 및 방법 등은 <표 IV-1>과 같다.

<표 IV-1> 전문가 수요 조사 참여자 명단(24명)

회차	날짜	영역	전문가	소속	면담 방법
1	2023.6.15	국어문화원	A	‘가’ 국어문화원	면대면
			B	‘나’ 국어문화원	
			C	‘다’ 국어문화원	
2	2023. 7. 4		D	‘라’ 국어문화원	비대면
			E	‘마’ 국어문화원	
			F	‘바’ 국어문화원	
3	2023. 7. 6	성인 문해	G	‘가’ 공공기관	면대면
			H	‘나’ 민간 교육기관	
			I	‘다’ 민간 교육 단체	
			J	‘라’ 민간 청소년단체	
4	2023. 7.30	직업교육	K	‘마’ 국책 연구 기관	
5	2023. 7.30		L	‘바’ 공공기관	
			M	‘가’ 대학	
6	2023. 8. 4	읽기교육	N	‘나’ 대학	
			O	‘다’ 대학	
			7	2023. 8.10	
8	2023. 8.31	평생교육	Q	‘가’ 시청	비대면
			R	‘나’ 군청	
			S	‘다’ 평생교육진흥원	
			T	‘라’ 시청	
9	2023. 9.19	세대교육	U	‘마’ 평생교육진흥원	
			V	‘라’ 대학	
10	2023. 9.21	미디어교육	W	‘마’ 대학	
			Y	‘바’ 연구소	

2. 분석 결과

문해교육 수요와 관련한 전문가들의 견해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주제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첫째는 ‘현재’의 문해교육이다. 전문가들이 활동하고 있는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문해교육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둘째는 ‘미래’의 문해교육이다. 문해교육이 향후 중점을 두어 실천해가야 할 문해교육의 방향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였다. 셋째는, ‘생애주기’별 문해교육이다. 세대별로 당면하고 있는 문해교육의 실천 과제를 짚어보았다. 넷째는, 문해교육의 ‘내용’이다. 향후 문해교육 프로그램이 다루어야 할 핵심 내용 영역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끝으로, 문해교육 ‘지원 정책’에 대한 요구는 무엇인지 확인하여, 문해교육 지원의 실효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였다.

2.1. 문해교육 운영 현황

문해교육의 현황은 운영 주체와 영역에 따라 상이한 양상을 보인다. 가장 대표적인 운영 주체인 국어문화원, 공공부문에서 가장 활발히 문해교육을 전개하고 있는 평생교육 부문에서의 성인 문해교육, 그리고 직업교육 영역에서 문해교육의 운영 현황을 보고자 한다.

<표 IV-2> 문해교육 운영 현황

주제	세부 주제
문해교육 운영 현황	국어문화원의 문해교육 : 언어 순화, 공공언어 개선 중심
	성인 문해교육 : 기초문해 중심의 문해교육
	직업교육 : 직업기초능력

2.1.1. 국어문화원의 문해교육 : 언어 순화, 공공언어 개선 중심

국어문화원들은 일선 학교나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언어 순화, 공공언어 개선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학교나 기관의 요구에 따라 ‘찾아가는 과정(구.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이라든가 ‘학교 순회 특강’ 등 다양한 형식으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텍스트를 주고 이런 내용들을 좀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거나, 아니면 그 텍스트의 내용이 어떤 주제를 줘서 가령 공공언어 개선을 주제로 삼는다든지, 아니면 학생들이

의 폭력적인 언어를 순화한 어떤 내용을 담는다면, 이런 식으로 해서 문해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했었는데요(‘가’ 국어문화원, A).

기본적으로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에서 제공하는 거는 누리집에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공공언어 이해부터 한글 맞춤법 이해까지로 되어 있고요. 무료교육이기 때문에 다양한 주제를 개설해 놓은 것 같지는 않은데 현장에서 더 많은 요구가 있어요(‘마’ 국어문화원, E).

국어문화원에서는 학교와 연계한 청소년 대상의 문해교육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라’ 국어문화원에서는 일선 중 고등학교와 연계하여 ‘올바른 국어 사용 방법’, ‘독해 방법’, ‘논증 방법’ 등 다양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었다. 또한, 개별 학교와 함께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동아리, 독서토론 동아리와 연계한 우리말 가꾸미 사업, 인문학 캠프, 우리글 바로 읽기 운동 등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었다.

코로나 이전에는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국어 문해교육을 진행했던 적이 있고요. 청소년 대상으로 했을 때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올바른 국어 사용 방법 그리고 독해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행한 적이 있었고, 다른 논증 방법 관련된 교육을 진행한 적도 있었습니다(‘라’ 국어문화원, D).

○○고등학교의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동아리하고 독서토론 동아리와 연계해서 우리말 가꾸미 사업을 우선 진행을 하고 있고 향후에는 인문학 캠프, 우리글 바로 읽기 운동 뭐 이런 것들을 그쪽 ○○고등학교 선생님들하고 계획을 하고 있는 상태(‘라’ 국어문화원, D).

대학생을 대상으로는 국어능력인증시험이나 NCS 직무능력 시험 준비를 위한 온라인 교육 등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대학생 요구를 반영한 문해교육 프로그램 사례라고 할 수 있었다.

실용 국어능력 시험과 관련해서 학생들이 실용 국어능력 시험에 나오는 주관식 문제들이 문해력과 관련된 문제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된 무료교육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중략)...실용 글쓰기 능력 시험 중에서 주관식 대비해서 주관식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문해력과 직결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학생들을 그 문해력 향상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불러들이는 것보다는 좀 실용적인 목적으로 NCS 직무능력 시험에도 들어가는 시험이기 때문에 실용 국어능력 시험으로 유인을 하고자 그 시험을 가지고 비대면으로 강의를 몇 번 진행을 했습니다(‘라’ 국어문화원, D).

국어문화원에서 성인 대상의 일반적인 문해교육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다. 일부 기관에서 노인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읽기뿐만 아니라 쓰기를 포함한 기초 수준의 문해교육을 하고 있다. 그러나 교재의 난이도가 높아서 노인 학습자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기도 하였다.

대부분 어르신 대상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이곳에 연합회랑 저희가 협력해서 대상 기관을 굉장히 많이 하지 못했고요. 시범 교육 형태로 이렇게 진행해서 올해도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이걸 하면서 저희도 여러 가지 한계에 좀 부딪히기도 하고 이 문해교육의 형태를 좀 고민도 했었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일단 읽기만 되어 있는 건 아니고...('다' 국어문화원, C).

많은 교육을 하시는 강사님들의 공통적인 평가가 읽기 지문이 많은 거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굉장한 부담을 갖는 거예요('다' 국어문화원, C).

요컨대, 국어문화원에서는 올바른 국어 생활 중심의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공공기관과 학교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청소년과 공무원이 주된 학습자로 참여하고 있었다. '찾아가는 과정'이나 학교 연계 프로그램 지원 등 다양한 형식의 문해교육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단, 일반 국민 대상의 문해교육은 일부 기관에서 노인 대상의 기초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례 외에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2.1.2. 성인 문해교육 : 기초문해 중심의 문해교육

「평생교육법」상 성인 문해교육이 초등과 중학 수준까지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에 따라 설치 운영되고 있는 국가문해교육센터, 시도문해교육센터도 이 수준의 문해교육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성인 문해교육은 기초문해, 그중에서도 초등 수준의 문해교육에 집중되어 있었고 중학 수준의 교육은 “많이 없는 상황”이었다.

이제 기관 관계자들과 이제 회의하면 주된 교육 운영은 초등 과정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중학 단계 교육들은 많이 없는 상황입니다('다' 평생교육진흥원, S, 평생교육).

국가문해교육센터와 시도문해교육센터의 설립,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 학력인정제도 등 문해교육 확산은 긍정적인 발전으로 볼 수 있었으나, 기초문해 중심의 정책과 사업의 확산이 문해교육 발전, 특히 기초 이상 수준의 문해교육 발전을 저해하고 있

다는 의견도 있었다.

기초문해에 굉장히 집중을 열심히 잘 계속해왔다는 것이 참 많이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음 단계로 스텝 업 하기에 발목을 잡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인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기초문해에 관련된 현장들이 이제 바뀌고 있는데 아직도 정책이나 지자체에서도 마찬가지로 다 대상은 기초문해에 맞춰져 있거든요(‘가’ 시청, Q, 평생교육).

실제로 시도문해교육센터나 지방자치단체 등은 기초문해 과정을 이수한 학습자보다 현재 기초문해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학습자 지원에 집중하고 있었다. 문해교육기관에서도 높은 수준의 문해교육 실시 등을 “희망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다.

지금 상황에서 일상생활에 불편한 점들을 개선하는 방향의 이제 교육을 계속 희망을 하다 보니까 기관에서도 별도로 어떤 수준 향상의 교육을 딱히 희망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다’ 평생교육진흥원, S, 평생교육).

요컨대, 「평생교육법」에 근거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체계적인 문해교육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기초문해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 전반적인 문해력 향상을 위한 정책으로 한계가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2.1.3. 직업교육 영역에서 문해교육: 직업기초능력으로서 문해력

직업교육 영역은 직업준비교육과 직무교육으로 나눌 수 있는데, 분야별 역량 체계와 교육과정, 그리고 진단시스템 등을 통해서 문해교육의 중점 영역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는 NCS와 직업계고 및 특성화고 졸업생을 위한 직업기초능력 평가, 그리고 전문대학에서의 기초학습능력 진단에서의 문해교육 운영 현황을 보고자 한다.

직업준비교육에서 문해교육으로는 국가직무능력표준의 직업기초능력 영역을 들 수 있다. 국가직무능력표준은 직무의 유형에 따라 필요한 능력을 세분화하여 각 능력 단위에 따라 수행 준거, 지식·기술·태도를 정의하고 능력의 수준을 8수준의 나누어 기술하고 있는 능력 단위의 집합을 의미한다. 모든 직무에 대해 필요한 능력으로 직업기초능력 10개 영역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의사소통능력’이 문해교육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는 영역이다.

직업기초능력을 가장 기본적이면서 공통적으로 갖춰야 될 능력으로 일단은 우리가 표방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 안에서 가장 첫 번째로 의사소통능력을 뒀고 거기서 이제 문서 작

성, 문서 이외 의사 표현 경청 이 부분이 사람들이 다들 할 줄 아는데 쉽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남의 말을 알아들어야 되는 거고, 이 문서를 읽을 줄 알아야 되는 핵심을 파악하고 그 문서를 표현해서 작성하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사’ 공공기관, P, 직업교육).

국가직무능력표준의 직업기초능력과 관련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 산하 국가직무능력표준원에서는 직업기초능력과 관련한 가이드북과 능력 수준 확인을 위한 필기 및 실기 면접 문항을 개발하여 누리집에서 공유하고 있다. 또한 국가직무능력표준원에서는 의사소통능력을 포함한 직업기초능력 수업 자료를 동영상으로 자체 제작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공공기관에서 이 직업기초능력을 필기랑 면접에서 보거든요 근데 그거는 각 공공기관별로 진단 체계를 만들어서 하는 거라 저희가 공식적으로 하는 건 없지만 그래도 분야별로 직군별로 어떻게 문제를 필기시험은 어떻게 내고 실기 면접 문항을 어떻게 내야 할지는 우리 여기 NCS 홈페이지에 공정 채용을 클릭을 해보시면 ...(중략)... 홈페이지에 ...(중략)... 직업기초능력 문제들이 다 올라가 있거든요. 거기에 의사소통능력도 다 올라가 있고. 160 문항(‘사’ 공공기관, P, 직업교육).

직업기초능력이 공공기관에 취업하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교육과정이라면, 직업계 고등학교 졸업생들에게는 직업기초능력 평가가 시행되고 있으며, 이 평가의 한 영역인 ‘의사소통 국어’ 영역이 성인 일반 문해교육과 연관성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었다.

[한국산업인력]⁴⁵⁾공단 사업이지만 특성화고등학교 애[학생]들 직업기초능력 평가를 하거든요. ...(중략)...그래도 이 학생들한테 일반고 애들 국·영·수 시험 보듯이 직업계고 애들한테는 그 직업기초능력 평가를 합니다. 대신 이제 10개 시험을 다 보는 건 아니고 의사소통 국어 그다음에 의사소통 영어 그다음에 수리 공용, [직무 적응], 이렇게 한 4개 영역을 보는 것 같아요(‘사’ 공공기관, P, 직업교육).

직업능력 개발의 맥락에서 문해교육과 관련이 높은 또 하나의 프로그램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개발하여 운영하는 ‘전문대학기초학습지원센터’이다.⁴⁶⁾ 이 센터는 전문대학생들의 기초학습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기초학습능력을 진단하고 수준에 맞는

45) 면담자가 언급하지 않았으나 연구자가 판단하기에 맥락상 필요한 내용은 [] 형태의 괄호 안에 내용을 추가함.

46) <https://www.cbhc.kr/web/main/layout.do>

기초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23년 현재 해당 센터에서는 총 4과목의 기초 학습 강의(국어 기초 학습, 수리 기초 학습, 영어 기초 학습, 사고 기초 학습)를 제공하고 있다.

전문대는 직업 그래서 이제 [성인 문해교육에 대한] 니즈는 있지만 [자체 수업으로는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전문대 협의회 차원에서 직업 기초 역량을 진단하고 끌어올리는 온라인 사이트를 만들었어요...(중략)...직업 기초 역량을 전문대가 개별 관리하기가 어려우니까 전문대 협의회에서 기초 역량 진단도 하고 온라인으로 교육도 받을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가' 대학, M, 직업교육).

요약하자면, 직업교육 영역에서 문해교육은 직업 혹은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국어 의사소통능력으로서의 필요성은 확인되지만, 이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다만, 직업인으로서의 기초적인 문해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직업기초능력으로서의 문해능력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진단 체계가 여러 맥락에서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2.2. 문해교육의 방향

전문가들은 국민 문해력 향상을 위한 문해교육의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었다. 이 장에서는 전문가들이 제시하고 있는 국민 문해력 향상을 위한 기본 방향을 ‘행복한 삶, 주체적 삶의 토양으로서 문해’, ‘소통을 위한 문해교육’, ‘사회적 실천으로서 문해교육’, ‘기초문해를 넘어, 문해 자체로’ 등 네 가지로 분석하였다.

<표 IV-3> 문해교육 방향

주제	세부 주제
문해교육의 방향	행복한 삶, 주체적 삶의 토양으로서 문해
	소통을 위한 문해교육
	사회적 실천으로서 문해교육
	기초문해를 넘어 “문해 자체”로

2.2.1. 행복한 삶, 주체적 삶의 토양으로서 문해

문해교육은 국민의 ‘행복한 삶’에 기여하는 일일 필요가 있었다. 「평생교육법」에서는 문해교육을 성인들의 일상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기초 능력으로 보고 있다. 또한 문해교육은 기본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행복추구권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의 하나일 것이다. 따라서 문해교육은 일상생활과 직업생활의 실용적 목적뿐만 아니라 행복 실현이라는 궁극적 목적성을 갖는다.

일상적인 생활을 위해서, 그다음에 개인적인 삶과 행복을 위해서, 그리고 직업 전문 세계에 진입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나’ 대학, N, 읽기교육).

즉, 성인기의 문해력은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요청되는 것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실제로 글을 읽는 행위 자체가 심리적인 불안감을 해소하여 정서적인 안정감과 행복감을 가져다주는 일이기도 하였다.

글을 읽는 행위 자체가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서 심리적 안정을 주고...(중략)... 심리적 안정이나 불안을 줄여주느냐 ...(중략)... 언어를 쓰려고 그러면 이게 일단은 이게 뭔가 이렇게 순서가 있어야 되고 체계를 만들어야 되고 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말을 한다. 글을 읽는다, 생각을 한다 이 자체가 심리적으로 불안한 거를 이렇게 해소를 해 주는데...(‘다’ 대학, O, 읽기교육).

행복한 삶을 위해서 주체적인 인간으로 성장하는 일은 중요할 것이다. Freire는 문해를 지식과 문화를 스스로 창조해 내는 삶의 행위(act of knowing)이자 문화 실천(cultural action)이라고 본다(Freire, 2022). 따라서 문해교육은 학습자가 “나를 알고”, “세계를 아는” 힘을 키우는 일이며, 이를 통해서 “자신의 두 발로 우뚝 세상에 설 수 있는” 주체적인 활동일 필요가 있다. 이 점에서 문해는 주체적인 “삶의 중요한 기초 토대”이다.

삶의 측면에서 결국은 문해력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기여하기 위한 하나의 큰 힘이니까 저는 학생들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문해력이 뭐냐 쉽게 엇그저께 교사 일정 연수에 가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학생들에게 쉽게 만약에 얘기한다면 나를 알고 또 상대방 너를 알고, 우리를 알고, 세계를 아는 것 그 힘이 아니겠는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면 그것이 궁극적으로 주는 의미는 뭐냐, 결국은 학생들이 또 우리 인간이 자신의 두 발로 우뚝 세상에 설 수 있는 것 그것이 아니겠는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삶의 중요한 기초 토대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나’ 대학, N, 읽기교육).

주체적 삶의 토양으로서 문해는 자기 정체성의 표현이자 자기 성찰의 방법일 수 있다. 정체성 표현으로서 문해는 저마다의 발달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실행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세대별, 집단별, 계층별로 다양한 문해교육 실천 형태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청소년도 마찬가지로 여성도 노인도 다 이 문해라는 것이 자기 삶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정체성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전제하고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제 20세 이상의 다양한 계층의 프로그램 뭐 해야 될 그 각각의 정체성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체성을 위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이제 들어가면 되죠(‘다’ 대학, O, 읽기교육).

궁극적으로 문해는 자기 성찰과 전 생애적인 자기 성장의 토양이다. 이는 문해교육이 실용적 목적뿐만 아니라 전 생애적 인간 성장의 토대가 되는 내재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런 자기 성찰과 성장의 토대로서의 문해는 개인의 성장을 넘어, 공동체의 성장,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결국은 문해력은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뿐만 아니라 살아가면서 자기를 성찰해낼 수 있는 힘이다. 그리고 그거를 체득하고 그렇게 해서 죽을 때까지 성장하는 존재로서의 인간이 핵심이다. 그건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같이 이렇게 할 때 더 큰 힘을 갖는 거...(중략)...단어는 생각의 말뚝이다. 단어를 통해서 딱 우리 생각을 남의 생각 또는 나의 생각을 붙잡아 놓는 그리고 그걸 붙잡아서 곰곰이 생각하면서 성찰하는 게 결국은 중요한데 나를 돌아보고 그 필자의 글을 생각해 보고 그러면서 우리가 성장하고 사회가 발전하는 거라고 생각 되는데...(‘다’ 대학, O, 읽기교육).

2.2.2. 소통을 위한 문해교육

문해교육은 또한 ‘소통을 위한 문해교육’일 필요가 있다. “문자나 매체를 통해서 읽고 이해하고 표현하는” 차원을 넘어서 “소통의 맥락”까지 고려한 문해교육 정책이 실행될 필요가 있다. 이는 문자해득과 활용의 기능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사회적 관계 안에서의 문해 실천을 고려한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본질적으로 깊이 있게 이해하고 들어갈 수 있어야 되지 않는가? 국민들도 이것을 정책을

입안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문자나 이런 매체를 통해서 읽고 이해하고 표현하는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소통의 맥락이라고 하는 것까지 깊이 있는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네요(‘다’ 대학, O, 읽기교육).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매체 환경의 변화로 이와 같은 소통으로서 문해교육이 중요해졌다. 우리의 소통 방식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면서 비대면 소통도 일상화되었다. 이 점에서 문해교육은 새로운 소통 방식에 적응할 수 있는 역량과 연결될 필요가 있으며, 디지털문해력 또한 포괄할 필요가 있다.

문해력은 소통의 문제이고 그다음에 삶의 문제이고 행복의 문제인데 소통의 문제에서 소통의 양상이 변하고 있죠. 매체가 변하고 있고 이른바 디지털 뉴미디어로 대표되는 그런 측면에서 그 부분이 좀 보강이 돼야 한다. 그러니까 디지털리터러시라고 하는 디지털문해력이라고 하는 부분을 간과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다’ 대학, O, 읽기교육).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우리는 “수없이 많이 소통”하고 있다. 소통하는 관계도 확장되고 있다. 문해교육은 새로운 매체에 적응하는 데 기여할 수도 있겠지만 의미 있는 소통의 회복에 도움을 줄 수도 있어야 할 것이다. 소통을 위한 문해교육은 의미 있는 의사소통의 회복, 즉, “서로 마주 보고” “자신이 읽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교환할 수 있는 소통”의 회복을 목적으로 할 필요도 있다.

디지털 사회 또 AI[인공지능] 사회가 되면서 우리는 모니터상으로 또 SNS를 통해서 수없이 많이 소통하고 확장이 되고 이려고 있지만, 결국은 더 중요한 것은 AI 시대에 인간에게 더욱 중요한 것은 서로 마주 보고 눈을 보면서 자신이 읽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교환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그게 핵심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다’ 대학, O, 읽기교육).

또한, 소통을 위한 문해교육은 세대, 계층, 성별 간 소통을 위해서 요청되는 것이기도 했다. 우리 일상의 여러 장면에서 입말 또는 글말로 된 언어를 매개로 소통한다. 상호 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개개인이 충분한 문해력을 갖추는 일이 중요할 것이다. 문해는 사회문화적 요소를 반영한다(Handsfield, 2020). 따라서 소통을 위해서는 타자의 문해 맥락을 이해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국립국어원에서 약간 교육 사업으로 하면 문해교육에 대한 대상도 확장할 수 있고 또 이제 전체적인 어떤 기관이든 아니면 많은 국민들이 조금 좀 더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

는 국어 사용을 하지 않을까? 이제 그리고 저조차도 그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조금 많이 했습니다(‘라’ 시청, T, 평생교육).

2.2.3. 사회적 실천으로서 문해교육

문해는 사회적 실천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기능문해(functional literacy)의 관점에서 문해는 글자 해득을 넘어서 생활의 맥락에서 글자의 적용과 활용을 강조한다. Frieire도 글을 읽고 쓰는 활동과 함께 세계를 읽고 쓰는 활동, 즉 사회적 실천으로서 문해를 중요하게 생각하였다(Frieire, 2022). 신문해 연구에서는 이런 관점을 본격적으로 표명하여, 문해의 표준화 모델을 거부하고 사회, 역사적 맥락에서 각각의 고유성을 갖고 이루어지는 문해 실천(literacy practice)에 주목하였다(Handsfield, 2020). 전문가들도 국민이 속한 각 삶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실천으로 문해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었다.

사회적 실천으로부터 문해, 이렇게 키워드를 잡는... 사회적 실천 삶 속에서 살아가는 장면 속에서 이 무대가 어떻게 실천되느냐 거기에 초점을 두고 교육과정도 그렇고 그렇게 [될 필요가 있어요](‘다’ 대학, O, 읽기교육).

사회적 실천으로서 문해는 생애의 발달과업과도 연결될 수 있다. 발달과업으로서 문해는 실용적 차원에서 각 생애 단계별로 주어진 발달과업과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해교육을 위해서는 생애 단계별 발달과업에 대한 검토와 함께 발달과업과 연결될 수 있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실용적인 차원에서 자기 살아가는 삶에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 딱 실천 장면, 그 장면 이렇게 나누면 되잖아요. 맨날 그러니까 20살들의 과제, 30살의 과제, 예를 들어서 40살이면 또 40살에 연령별로 발달과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발달과업하고 연결해서 필요한 그 일을 잘하려고 그러면 어떤 읽고 쓰기 능력이 필요한지 찾아서 프로그램화 시키면 되죠(‘다’ 대학, O, 읽기교육).

이와 같은 사회적 실천으로서 문해는 확장된 문해교육 영역과도 연결될 수 있다. 문해교육은 읽고 쓰고 셈하는 기초문해의 수준에서뿐만 아니라 미디어문해, 디지털문해, 금융문해, 건강문해처럼 생애의 여러 영역에서 필요한 기초 소양 학습을 지원하는 일을 의미하기도 한다. 국민을 위한 문해교육 지원은 전통적인 ‘학문’ 중심의 문해에서 ‘삶’ 중심의 문해로 전환될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이런 문해는 확장된 문해교육을

요청하는 것이기도 했다.

학문이 아니라 이제 실천으로 이거는 어때요? ...(중략)...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컴퓨터리터러시, 그다음에 또 보건리터러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삶의 영역을 학문이 아니라 삶의 영역으로 건강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어떤 그런 리터러시만 우리가 한다. 거기에 관한 어휘나 거기 그런 것과 관련되는 텍스트들을 해가 지고 또 교육하는 거죠(‘다’ 대학, O, 읽기교육).

사회적 실천으로서 문해는 현재 기초문해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성인 문해교육 영역에서도 요청되고 있었다. 학력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학력인정 프로그램에서도 학습자들이 학력 위주 교육과정보다는 생활 기반 교육과정을 더 원한다는 것이다. 학력 취득 프로그램은 비실용적이기에 학생 모집이 어렵기도 하였다.

오히려 교육청에서 처음 그런 말씀을 꺼내셨잖아요. 학력 위주의 교육과정을 이제 바꿔 달라고, 생활 기반으로. 이게 우선 학생 모집이 어렵고 이걸 배워서 어디에 쓰이는지 모르겠다고 답답해하신다. 학습자들의 요구가 그쪽 가까우니 교육과정 연구를 해달라고 교육부에 요구하셨거든요(‘가’ 공공기관, G, 성인 문해).

2.2.4. 기초문해를 넘어 “문해 자체”로

국립국어원이 추진하는 문해교육 지원 정책은 기초문해를 넘어 국민의 문해력 자체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현재의 기초문해 중심의 문해교육, 또는 학교 중심의 문해교육의 틀을 넘어서서 디지털 시대의 도래 등 성인들의 삶의 맥락을 고려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었다. 예를 들어 전통적인 문해 기능으로서 사실 이해, 추론, 비판, 감상과 적용 등의 접근 방식보다는 정보 탐색과 확인, 정보 통합과 이해 등의 최근 접근 경향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었다.

기존에 이제 사실적, 추론적, 비판적 이제 이 틀이 너무 오래도 좀 되었거니와 더구나 성인분들에게 적용을 하려면 좀 달라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디지털 시대 이렇게 되면서 ...(중략)... 학생들 평가 이런 걸 하는데 예컨대 사실적, 이렇게 하지 않고 [정보] 탐색과 확인, 추론적, 이렇게 하지 않고 [정보] 통합과 이해, 비판적 이렇게 하지 않고 [정보] 분석과 평가... (중략)...이렇게 새롭게 접근하는 것이 최근에 또 경향이기도 하고요 (‘나’ 대학, N, 읽기교육).

국민 문해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새로운 접근은 기초문해교육의 틀을 넘어서서 성인의 “진짜 문해력”에 집중하여 문해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는 일이다. 특히 국립국어원은 교육부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기초문해보다는 성인들의 문해력 자체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런 관점은 국민이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는 문해력 관련 서비스 자원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 터 하는 것이기도 했다.

기초문해교육이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에만 초점을 맞췄지, 실제로 그 문자를 읽으면서 어느 정도 이해하는지에 대한 진짜 문해력에는 조금 우리가 관심을 덜 하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가미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라’ 시청, T, 평생교육).

기초문해교육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 국립국어원에서 관심을 가질 게 아니고 성인들의 문해력 자체를 가지고 해소할 수 있는 거에 대한 방향으로 국립국어원이 좀 더 관심을 전환하는 게 좋지 않을까...(중략)...비그플 앱처럼 자체 개발한 것들이나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성인들의 문해력에 관련된 거는 하다못해 어문 규정에 관련된 것조차 서비스가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가’ 시청, Q, 평생교육).

2.3. 생애 주기별 접근

문해교육에 대한 요구는 생애 주기별로 다르다. 세대별로 독자적인 요구와 참여 특성을 보여서, 향후 문해교육의 방향 설정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기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문해교육 참여 집단을 청년, 중년, 노년 세대로 구분하여 세대별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 IV-4> 생애 주기별 접근

주제	세부 주제	
생애 주기별 접근	세대별 확장과 다양화	세대 ‘차이’와 문해력
	청소년과 청년 세대의 문해교육	사회적 경험과 사회적 언어
		문해 공간으로서 학교와 SNS
	중년 세대의 문해교육	문해 재교육과 실용성
	노년 세대의 문해교육	세대 이해, 생애 의미 찾기, 그리고 디지털
		노인 친화적 문해 공간
		노인 문해 교강사의 조건 : 권위와 나이

2.3.1. 세대별 확장과 다양화 : 세대 ‘차이’와 문해력

현재 성인 문해교육은 기초문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기에 주로 노년 층이 참여하고 있다. 국어문화원에서도 문해교육은 노년 층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었다. 그러기에 세대별로 필요한 문해교육 인프라는 부족한 게 현실이다. 따라서 노년 층을 포함하여, 청장년과 중년 등, 전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문해교육 지원이 필요하다.

지금 앞으로의 방향은 성인 문해교육은 어르신 대상뿐만 아니고 세대별 교육이 진짜 필요하대[고 생각해요]. 어르신뿐만 아니고 2, 30대 그리고 청소년 이후 세대 또 중장년 세대 굉장히 이 세대가 큰 폭이 아니면서도 굉장히 차이가 크기 때문에...('다' 국어문화원, C).

문해교육의 전 세대 확장과 함께 다양화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학력 수준에 따라 문해력 차이도 나타나겠지만 같은 학력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세대에 따른 문해교육 요구가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세대 간 어휘 친숙도의 차이가 세대별 문해력 차이로 나타나고 있었다. 예를 들어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한자어가 많은 공문서는 젊은 세대가, 신조어 등이 포함된 공문서는 기성세대가 이해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중졸 이상이라고 해도 이게 40대가 다르고 50대, 60대, 70대가 정말 달라서 되게 세분화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요('나' 국어문화원, B).

기관에서 있는 공무원이라도 20, 30대 공무원과 이제 40대 이상 공무원의 문해력에 또 차이가 있고 이분들은 거의 이제 대부분 그래도 고등학교 이상 대학교 수준이잖아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연령대별로 그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학력별 차이보다는 연령대 차이가 더 큰 것 같아요. 똑같은 이제 공문서 문장이어도 거기에 들어가는 어휘가 요즘 말이나 옛날 말이나에 따라 한자어나 아니면은 요즘 많이 쓰는 말이나에 따라서 이해력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나' 국어문화원, B).

문해력의 문제를 어휘 친숙도 문제로 접근한다면, 최근 언론 등을 통해 회자하고 있는 젊은 층들의 문해력의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있다. 실제로 2012년 OECD의 PIAAC 결과를 보면, 청년 층의 문해력이 중장년 층이나 노년 층의 문해력보다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임언 외, 2013).

또 기사나 이런 데서 좀 가볍게 다루기는 하는데 아직 어휘력이 되게 부족하다. 이렇게 다루기는 하는데 저는 그건 그렇게 심각하게 보지는 않아요('다' 국어문화원, C).

2.3.2. 청소년과 청년 세대

□ 사회적 경험과 사회적 언어

청년들의 문해교육 요구에 대해 전문가들은 먼저 청년기의 문해력 관련 특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었다. 먼저 청년기의 문해력의 차이는 ‘경험’의 차이에서 온다는 것이다. 청년들은 자신이 경험한 일들과 관련된 글의 읽기 능력은 높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문해력은 낮다는 것이다. 즉, “내가 경험한 거냐 아니냐”가 읽을 수 있는가 아닌가를 “좌지우지”한다.

우리가 이게 뭐 예를 들면 뭐 컵으로 물을 마셨다 그러면 물을 마셔야 그게 읽어드는 거잖아요. 글로 읽는 게 아니라. 근데 그런 학습 경험이 없다 보니까 컵으로 물을 마시는 거 하고 이 행위가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아서 읽어드지 않는 거죠. 읽기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초문해라는 게 탈학교 청소년이나 성인 20대 딱 성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경험한 거냐 아니냐가 읽어드느냐 안 됐냐를 좌지우지하는 것 같아요(‘라’ 민간 청소년단체, J, 성인 문해).

따라서 문해력이 부족한 청년들을 위한 문해교육 프로그램은 사회적 경험이나 문화적 경험 제공과 연결되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 전문가는 일 년 동안의 직장 경험으로 한 청년의 문해력이 획기적으로 높아진 사례를 이야기하고 있었다.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경험들이 이들의 언어 능력 발달에 긍정적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참여 경험을 통해 문해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해 보이는 대목이다.

사회적 문화나 경험이 읽혀야 결국은 그 글자가 읽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청소년 아이들은 성인이 만약에 이거를 직업능력까지 가져가려면 직업능력 이전 단계에 경험해야 할 것을 모두 교과에 담고 교과에서 읽어드는 거는 다 경험으로 연결을 시켜줘야 하는 것 같은데...(‘라’ 민간 청소년단체, J, 성인 문해).

사업장에서 경험하게 돼요. 누구를 상대를 해보고 그게 경험이에요, 사회적 경험. 근데 그게 애네들의 언어 능력을 상당히 발달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렇게 아이들이 지능이 조금 낮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어떤 친구가 일 경험을 한 1년 해서 왔는데 진짜 언어 능력이 평범한 아이들 언어 능력 수준의 단어를 쓰더라고요(‘라’ 민간 청소년단체, J, 성인 문해).

또한 청소년 전문가는 문해력이 부족한 청소년과 청년들은 사회적 의사소통 경험도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험의 부족’에서 찾고 있었다. 예컨대 문해력이 부족한 청소년이나 청년들은 “공적 체계에서 쓰는 용어”를 써본 경험도 없었고, “사회적 언어가 몸에 잘 배어 있”지도 못 하다. 충분한 사회적 문해력을 쌓을 수 있는 경험이 부족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언어’의 부족은 직업능력의 부족 문제로까지 연결되고 있었다.

나이가 30이어도 그러니까 공적 체계에서 쓰는 용어는 일상생활에서 한 번도 쓴 적이 없죠. 저희는 예전에 저기 썼었을 것 같아요. 공적 체계에서 쓰는 용어를 어릴 때부터 들었던 것 같아요(‘라’ 민간 청소년단체, J, 성인 문해).

사회적 언어가 몸에 잘 배어 있어서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물어보는 거 예의를 지키는 거, 질서를 지키는 거, 아까 말씀하신 민주시민이잖아요. 그게 배려하는 거... 나보다 어린 친구 다 배려하고 같이 의논하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직업능력의 가장 핵심이 인데...(‘라’ 민간 청소년단체, J, 성인 문해).

그러나 문해력이 부족한 청소년이나 청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마땅하지 않다. 고등학교나 대학에 가지 않는 청소년이나 청년들은 사회적 언어를 배울 기회가 없다. 학교에 재학 중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이들이 살아갈 세계가 요청하는 사회적 언어를 가르치는 교육과정이 충분하지 않다. 이 점에서 청소년이나 청년들의 실용적 요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문해교육 지원이 필요하다.

금방금방 읽고 단어도 금방 이해가 되는 것처럼 비진학 청년인들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언어를 배우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 언어가 교과에 담겨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교사들도 이제 사회적 언어를 많이 가르쳐요(‘라’ 민간 청소년단체, J, 성인 문해).

2. 30대는 너무 좀 단순히 자기 삶의 향후 이것보다는 당장에 굉장히 실용적인 부분에 문해력이 필요한 세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직무적인 문해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다’ 국어문화원, C).

□ 문해 공간으로서 학교와 사회 연결망 서비스(Social Networking Service, 이하 SNS)

그렇다면 청소년, 청년을 위한 문해교육은 ‘어디에서’ 제공할 수 있을까? 먼저 생각

해 볼 수 있는 공간은 학교다. 국립국어원의 문해교육의 대상이 의무교육 이후의 16세 이상 청소년과 청년이라고 할 때 일차적으로 고등학교 문해교육에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고등학교에서는 청소년들의 문해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핵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지 못하다.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문해교육 체제 구축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할 것이다.

대안 교과니까 근데 지금 이제 탈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학년 구분이 없기 때문에 중학교 가야 하니까 16살부터 초등도 있어요. 24살까지 인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보면 이 교육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핵심 교육과정이라는 게 없어서 그거는 기관의 성향에 따라 성격에 따라서 수업하고 있어서 지금 이제 우리 국립국어원이 말씀하시는 문해나 기초교육 이런 것들은 사실 아무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아요(‘라’ 민간 청소년단체, J, 성인 문해).

대학도 청소년과 청년들의 문해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공간일 수 있었다. 실제 국어문화원은 대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각 대학의 글쓰기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었다. 그러나 첨삭 중심의 글쓰기 프로그램은 대학생들의 문해력 향상뿐만 아니라 글쓰기 능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고 있지는 못하였다. 대학의 국어문화원에 소속되어 있는 한 전문가는 이런 문제를 극복하고자 정보 탐색과 정보 배열 등 문해력 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한 성과를 이야기하고 있었다. 문해력 중심의 프로그램은 문해력 향상뿐만 아니라 글쓰기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있었다.

저희가 이제 학교에 이제 아무래도 학교와 연계해서 학생들이 자기소개서라든지 보고서 같은 것들을 도움을 주는 어떤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첨삭하거나 이런 것들 위주로. 정말 그냥 1대 1로 그냥 빨리빨리 결과를 내는 위주로 했었는데 이게 자꾸 쌓이다 보니까 그냥 고쳐주기만 해서는 이 학생들이 좀 뭔가 나아지지 않겠다. 그래서 아예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쓰기를 하기 전에 일단 정보를 잘 이해하고 주도적으로 정보들을 찾아내고 정보를 배열하고 약간 이런 식의 프로그램을 했더니 그러고 난 후에 글쓰기를 하니까 훨씬 더 오류라든지[가 줄어들고] 문장 쓰기라는 것들이 훨씬 더 좋아지더라고요(‘바’ 국어문화원, F).

전통적인 성인 문해교육은 주로 평생교육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경로당이나 복지관 등 노인 친화적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기초문해, 노인 중심 문해교육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성인 문해교육의 이런 특성 때문에 다른 세대, 특히 청년 세대가 성인 문해교육 현장에 접근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청소년이나 청년들에게 친숙한 기관이나 플랫폼을 통한 문해교육 지원이 이루어

어질 필요가 있다. 한 평생교육 전문가는 이런 맥락에서 청년들이 어떤 곳에서 소통하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청소년이나 청년들이 이용하고 있는 사회 연결망 서비스를 문해교육 플랫폼으로 활용하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게 이제 청년들을 같이 가려면 그들의 채널에 녹아들어 갈 수 있는 것들을 좀 먼저 한 다음에 거기에 생태계를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저도 잘 몰라요. 제 아이하고도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애들 하는 거 보면 그 안에서 다 모든 세상이 있길래 아이들 세상이 거기에 다 들어있구나. 또 몰래 컴퓨터 한번 보면 우리 카카오톡에 카카오톡 단톡방보다 더 디스코드의 채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공부하는 것도 많고 모임도 많고 모임 유형에도 다르고 이거는 SNS 중에 하나만 말씀드린 것일 뿐인데 청년들이 숨어 있거나 그런 거는 아니니까 우리도 이제 청년들의 코드를 알 수 있는 문해력이 필요한 거죠. 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가’ 시청, Q, 평생교육).

2.3.3. 중년의 문해 : 문해 재교육과 실용성

전문가들은 중년기 문해교육에 대한 요구는 두 가지로 말하고 있었다. 첫째 국어능력을 새롭게 하기의 요구였다. 중년기의 삶은 다양하다. 활발한 직장생활을 하고 있기도 하고 경력 단절 상태에서 가정생활에 전념하고 있기도 하다. 이직이나 전직 등을 위한 새로운 도전이 이루어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그러나 한글 맞춤법이나 문법을 잘 모르는 중년들이 많다. 학창 시절 배운 어문 규범 지식을 갱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중년들은 직장생활이나 자녀교육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중년들이 가진 맞춤법이나 문법에 관한 지식을 지금 시점에 맞게 새롭게 하는 일이 중요할 것이다.

저희 또 40대 30~40대만 해도 문법에 어긋나게 이 글을 막 써대시는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저희 이제 근처에 동료들도 보고 그러면 저도 많이 틀리고 한글 맞춤법이나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시는데 그냥 얼추 의사소통이 되니까 쓰고는 있는데 이게 글이 났을 때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고(‘마’ 평생교육진흥원, U, 세대교육).

두 번째는 중년들이 가진 문해에 대한 실용적 요구에 부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생교육기관에서 중년 대상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 전문가의 경제활동과 연관된 중년들의 문해력 향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었다. 예를 들어 최근 유튜브나 블로그 등을 활용한 사회 연결망 서비스 마케팅에 대한 중년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때 글을 읽고 표현하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중년들

의 문해교육에 대한 실용적 요구는 경제생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자녀교육에도 부모들의 문해력이 요구되는 시대이기도 한 것이다.

근데 40대는 사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서 느낀 건데 경제활동에 이걸 직접적으로 연관시키고 싶은 욕구가 사실은 좀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 문해교육이라고 포함을 시킬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요즘에 저희들이 블로그나 SNS 마케팅 같은 강좌들도 인기가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글을 써야 하는데 그 글을 이제 어떻게 하면 소비자에게 신뢰롭고 또 이렇게 좀 어필할 수 있는 글을 쓸 것인가에 대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자녀교육 관련해서 또 글을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드네요(‘마’ 평생교육진흥원, U, 세대교육).

2.3.4. 노년 세대의 문해교육

□ 노년 세대의 문해 요구 : 세대 이해, 생애 의미 찾기, 그리고 디지털

노년기 문해교육은 지금까지 기초문해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여성 노인 중심이기도 하였다. 산업화 시기 학교교육을 받지 못했던 노인 여성들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였다. 전문가들은 노인 문해교육의 중요성에 관해 이야기하면서도 현재의 기초문해를 넘어선 새로운 접근이 필요함을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었다. 이때, 노인 세대의 다양성에 주목하는 일이 중요할 것이다. 노인마다 살아온 경험도 다양할 것이기 때문이다. 연령에 따라 다르고 지역에 따라도 다를 것이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도 학력과 건강에 따라 노인의 특성이 다양하다고 말하고 있다.

노인 세대만큼 다양한 세대가 없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일단 살아오신 연수가 많은 만큼 이제 다양성은 더 벌어지게 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연령을 65세에서 74세, 75세에서 84세, 85세 이상 이렇게 나누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학력 변수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력 변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건강 이슈거든요(‘라’ 대학, V, 세대교육).

노인 세대를 위한 문해교육은 다양한 요구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먼저 세대 이해를 위한 교육과 자서전 등 생애 의미 찾기를 위한 교육의 요구가 컸다. 우리 사회가 급속한 성장을 경험한 만큼 세대 간 문화 차이가 크다. 세대별로 친숙한 어휘도 다르고, 매체 경험도 다르다. 예를 들어, 노인 세대는 디지털 환경이 낯설 수 있지만 지금 어린 세대는 인쇄 매체보다 디지털 매체에 익숙하다. 서로 다른 세대의 문화 차이와

언어생활에 대한 이해를 높일 필요가 있다. 그러기에 세대 이해를 위한 문해교육은 노인 세대뿐만 아니라 전 세대에게 요청되는 것이다. 생애 의미 찾기는 노인 세대에게 특히나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그중에서도 시나 자서전 쓰기 등 글쓰기를 통한 문해교육은 “자기 삶을 기록”하고 “삶을 정리”하며 “자기 삶에 의미” 찾는 시기로서 노년기 문해교육에서 중요한 주제로 다룰 필요가 있다.

또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그런 자료들이 세대 공동체 세대가 서로 이해하는 교육에도 중요한 자료로도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창조와 관련한 문해력 또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라’ 대학, V, 세대교육).

노인분들에게는 또 글쓰기가 상당히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여러 측면에서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개인적 측면에서 우리 노인분들 ‘칠곡 가시나들’ 그런 거 보면 이렇게 시를 쓰고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어쨌든 그런 것이 자기 연령대에 자기 삶을 어떻게 기록하고 뭔가 삶을 정리하고 자기 삶에 의미 있게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특별히 글쓰기와 관련한 문해력 교육이 상당히 필요한 것 같고요(‘라’ 대학, V, 세대교육).

생애 이해를 위한 문해교육은 주로 쓰기 활동과 연결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노인을 위한 죽음 준비교육에서는 자서전 쓰기, 자녀나 주변 사람에게 편지쓰기 활동이 포함된다. 읽기보다 쓰기 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 점에서 노년기 문해교육 활동으로 쓰기와 연결된 문해교육도 중요하게 다뤄질 필요가 있다.

죽음 준비 교육이 핵심이 자서전 쓰기가 거의 최소 1시간에서 2시간 이상 들어가거든요. 그다음에 또 자녀한테 편지 쓰거나 주변 사랑하는 사람한테 편지 쓰기라고 측면에서 했는데 읽기가 있는 게 아니라 자서전 쓰고 편지 쓰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현실적으로도 프로그램을 찾아봐도 읽기가 이렇게 강조되지는 않네요(‘라’ 대학, V, 세대교육).

생애 의미 찾기의 교육은 영성교육과 연결될 수도 있을 것이다. 영성교육과 연결될 수 있는 문해교육에 대해 노인교육 전문가는 몇 가지 단계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먼저 “자기 자신이 누군지” 이해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그다음 단계로서 “타인과 연결성”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타인과의 연결성은 앞서 살펴본 세대이해교육으로서 문해교육의 측면에서 본다면 다른 세대와의 연결성을 획득하는 일이기도 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노인 세대가 젊은 세대를 이해하기 위해 디지털문해력을 갖추는 일도 중요해질 것이다. 노인교육 전문가는 영성교육의 마지막 단계로 “자연에 대한 이해”를 말하고 있다. 현재 노인을 위해 이 단계의 영성교육 또는 문해교육이 활발하

지 않지만, 자연을 이해하기 위한 문해교육은 자연에 대한 글을 읽는 활동과 연결될 수 있다.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일단 이해하는 게 영성의 핵심 1단계이기 때문에...(중략)...내가 누군지를 이해해야 내가 소중한지를 알아야 타인도 소중한 걸 알기 때문에 2단계가 타인과의 연결성입니다. 디지털문해력을 갖게 되면 젊은 사람들과 연결을 해야하고요(‘라’ 대학, V, 세대교육).

결국에는 어떤 성찰의 대상, 성찰의 주제를 나에 대한 이해, 타인에 대한 이해, 자연에 대한 이해 이런 식으로 어떤 읽기 주제를 하면 읽기와 영성이 연결됩니다. 그러면 주제를 과연 어떤 읽기 자료를 삼을 것이냐, 종교를 뛰어넘는 어떤 읽기 자료를 찾고 그렇게 하는 프로그램이 특별히 노인 분들 대상으로 따로 개발된 건 없는 것 같습니다(‘라’ 대학, V, 세대교육).

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 노인 세대에게 가장 필요한 문해교육의 영역은 디지털문해교육이라고 보고 있었다.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이 장기화하면서 스마트폰, 무인기기 등의 의존도가 높아졌다. 비대면 의사소통 방식이 일상화되면서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들의 일상적 소외는 커지고 있다. 문해력이 낮은 성인들의 디지털문해력 또한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길혜지 등, 2019)는 연구 결과를 고려할 때, 문해력의 문제와 디지털문해력의 문제는 통합적으로 다뤄져야 할 문제일 것이다. 노인의 디지털문해교육은 다양한 관점에서 고려될 수 있다. 디지털문해교육에는 디지털활용능력, 디지털 매체로 전달되는 다양한 정보 읽기부터, 디지털 콘텐츠의 창작, 디지털 윤리성과 시민성 등을 포함한다. 이런 디지털문해교육의 영역은 읽기와 쓰기 활동과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문해교육과의 점점 찾기가 가능할 것이다.

노인에게는 문해력과 관련해서 디지털문해력이 많이 고민이 되는 시기인데요. 근데 문제는 디지털리터러시가 읽기부터 창조 그러니까 디지털 콘텐츠를 창조하는 것까지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디지털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까지 3단계로 하기 때문에 어디에 포커스를 맞출 거냐...(‘라’ 대학, V, 세대교육).

디지털문해교육에는 특히 “비판적 문해교육”이 중요해지고 있다. 비판적 문해교육은 정보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을 경계한다. 비판적 문해교육은 비판문해 전통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비판문해란 정보의 진실을 가려내기 위한 비판적 사고를 발휘하는 일이다. 또한 비판문해는 현실 세계에 대한 비판적 이해와 실천, 그리고 주체적

인 문화 생산 활동도 포함한다(Freire & Macedo, 2014; Freire, 2022). 따라서 디지털 매체 생태계가 복잡해지고 가짜 뉴스 등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디지털문해교육의 맥락에서 비판적 문해교육은 중요하다. 이런 비판적 문해교육은 특정 세대뿐만 아니라 전 세대에게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이건 모든 세대에 필요한 일종의 비판적인 문해력 같은 거, 그러니까 좀 진위를 파악해서 읽어내고 이런 것들은 직무적 상관없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 필요한 내용이니깐 필수적인 것 같고요. 중년 이후는 특별히 이런 교육이나 필요하다는 생각은 들고요. 디지털문해와 더불어서 이런 정보를 해석하고...('다' 국어문화원, C).

특히 노인 세대에게 디지털 환경 속에서 비판적 문해는 중요하다. 다른 세대도 마찬가지로겠지만 노인 세대에서 인터넷이나 사회 연결망 서비스의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누가 이 정보를 만들었는지, 진실에 가까운 정보인지 판단하지 않고 수용하여, “확증 편향”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판적인 접근은 노인 세대가 디지털 환경 속에서 필요한 시민성과 윤리성을 획득하기 위해서 중요할 것이다.

특별히 비판적 문해교육이 더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게 됩니다. 시민으로 어르신들이 살아가야 하는데 많은 분들이 걸려지지 않은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체크하지 않으며, 정보의 출처를 확인하지 않고 확증 편향에 갇혀 다양한 정보를 수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노인 연령층에서 비판적 교육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라' 대학, V, 세대교육).

□ 노인 친화적 문해 공간

노인교육 전문가는 노인 세대를 위한 문해교육은 교육 공간 측면에서도 고려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었다. 노인 친화적 공간에서 문해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노인 접근성을 높이고 노인 세대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연령대에 따라 선호하는 공간의 차이가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 연령대가 상대적으로 낮은 노인은 백화점 문화센터나 평생학습관, 도서관 등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반면 연령대가 높은 노인은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 등을 선호할 것이다. 노인 세대의 문해교육 참여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연령별로 선호하는 다양한 공간에서 문해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노인복지관 등 노인 전문기관과의 문해교육 공동 기획과 운영의 방법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노인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4년마다 한 번씩 노인 실태조사를 하는데, 그 연령대에 따라서

선호하시는 평생교육시설 조사를 해보니깐 확실히 나이에 따라 명확히 구분되는데, 나이 어르신 분들은 백화점 문화센터를 선호하시던데 여하튼...(중략)...이제 75세나 85세 이상 그런 분들이 다니시는 곳이 아니라,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이 아니라 여전히 활동하시는 데 장소랑 또 타깃을 이렇게 좁히시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을 합니다(‘라’ 대학, V, 세대교육).

접근성이 떨어진 데서 열면 어르신들이 자발적으로 오시기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원래 이용하는 시설에서... 아니면 교회라든가 시설에서 협조를 받아서 열고 콘텐츠도 광고도 홍보도 그렇게 맞춰서 마케팅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라’ 대학, V, 세대교육).

최근에는 노인 세대의 도서관 이용자가 늘고 있다. 도서관을 이용하는 노인 세대는 비교적 읽기와 쓰기에 익숙할 것이다. 그러나 정작 도서관에서는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 비교적 높은 수준의 문해력을 갖춘 노인들을 위한 문해교육 공간으로서 도서관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금 도서관 이용자가 이미 65세가 반을 넘었고 이분들은 분명히 읽고 쓰는 거에 익숙하신 분들인데 이분들을 대상으로 복지 그니까 도서관에서 오히려 학부모나 젊은이 대상으로 많은 교육 프로그램을 하지만 노인 대상으로는 안 하고 있어요(‘라’ 대학, V, 세대교육).

□ 노인 문해 교강사의 조건 : 권위와 나이

공간과 함께 노인 세대를 위한 문해교육 교강사에 대한 고려도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어문화원 소속의 한 전문가는 노인 세대를 위한 문해교육을 실시할 때, 교강사의 ‘역량’과 ‘권위’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문해교육 교강사의 권위에서 중요한 변수 중의 하나는 ‘나이’였다. 교강사의 나이가 학습자들과 비슷할 때, 노인 세대의 교육 효과가 높다고 보고 있었다. 노인 세대의 문해교육에서 교강사와 학습자 사이의 “교감”이 중요하기 때문일 것이다.

사실 어르신들은 의외로 여기에선 강사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원하는 성인들은 20~30대가 아니라 50대 이상입니다 보니까 강사님이 좀 역량이 되게 중요한데요. 어쨌든 강사님과 굉장히 이런 교감이 잘 이루어지고 이런 교육은 굉장히 효과가 되게 좋았고...(‘다’ 국어문화원, C).

어르신들이 좀 가장 편하게 여기시는 분은 강사가 나랑 동일하거나 연령대가 비슷할 때 가장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의 어떤 인지 속도, 감정, 관심 있는 콘텐츠, 이런 것들이 저희가 예상할 수 없는, 그런 경험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라’ 대학, V, 세대교육).

마지막으로 노인 세대를 위한 비판적 문해교육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노인 세대의 실용적 요구에 부합할 수 있는 문해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세대 이해를 위한 문해교육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적을 수 있으므로, “손자 손녀와 함께 쉽게 대화하는 법”, “사기당하지 않는 법” 등의 윤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손자 손녀와 함께 쉽게 대화하는 법이나 사기를 당하지 않는 법과 같은 내용을 비판적 문해교육의 한 측면으로 포장하여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판적 문해교육은 콘텐츠를 만드는 주체와 내용의 진실성을 확인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훈련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면 어르신들은 사기를 당하지 않고 신문 기사를 확인하는 정도로 역량을 확장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시민교육에서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 대학, V, 세대교육).

2.4. 문해교육 프로그램 개발 요구: 내용의 확장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어떤 내용으로 구성할 것인지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크게 두 가지 방향을 제안한다. 종래 문해교육을 운영해온 성인 문해교육과 직업교육 분야에서는 내용의 수준과 주제를 확장할 것을 강조하고, 유사한 문해 영역에서도 사회 변화에 대응하여 보다 넓은 개념의 문해교육 접근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표 IV-5> 문해교육 프로그램 개발 요구

주제	세부 주제	
문해교육 프로그램 개발 요구	문해교육 관련 영역의 요구	성인 문해교육 : 문해 목표 수준의 상향
		직업교육 : 기초능력과 사회적 언어생활
	문해 확장 영역과 연계하기	미디어문해 : 읽기의 확장과 문화적 향유
		디지털문해 : 미래 기술의 이해와 적응
		금융문해: 생존을 위한 읽기 능력
		건강문해 : 올바른 건강 정보 읽기
		시민문해 : 공공 참여를 위한 읽기와 쓰기

2.4.1. 문해교육 관련 영역의 요구

기존에 문해교육을 운영해온 대표적인 두 영역인 성인 문해교육과 직업교육 영역에서는 모두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내용에 대한 새로운 요구를 제기하고 있다. 성인 문해교육 분야에서는 종래의 기초문해를 벗어나 보다 상향된 목표 수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직업교육 분야에서는 직업기초능력과 사회적 소통을 위한 문해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 성인 문해교육의 요구: 문해 목표 수준의 상향

성인 문해교육은 「평생교육법」에 따라 기초문해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기존의 성인 문해교육은 기초적인 한글의 해독이나 학력 보완의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국립국어원에서 실시하게 될 문해교육은 기존의 성인 문해교육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보완하거나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는 국립국어원의 독자적인 문해교육 생태계를 구축하되, 기존의 성인 문해교육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으로 ‘높은 수준의 문해교육으로 확장’을 강조한다.

기존의 성인 문해교육은 “의무교육 차원의 교육을 중학교를 종점”으로 보는 종점형 교육이다. 실제로 성인 문해교육 학력인정제도를 포함한 관련 정책이 중학교 수준까지에 맞춰져 있다. 그러다 보니 중학 이상의 성인 문해교육은 사각지대에 있다. 성인 문해 교육과정도 중학교에서 멈춰있다. 성인 문해교육 중학 과정을 졸업한 학생들은 고등학교로 진학하기 위해서 검정고시를 치르거나, 방송통신고등학교, 또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 진학해야 한다. 그러나 교육 내용과 수준 면에서 성인 중학 과정과 연계되지 못하다 보니 성인 문해교육 과정을 이수한 학습자들이 접근하기는 어렵다. “이제 중학교를 졸업한 학습자들이 계속해서 고등학교 연속 학습을 지속 가능한 학습의 요구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성인 문해교육이 이를 충족시키고 있지 못한 것이다.

의무교육 차원의 교육을 중학교를 종점으로 보고 우리가 교육과정 연구 초기에 할 때도 이게 중학이 종점이라고 보고 검정고시하고도 연결하지 않고 그 위에 고등학교 진학하고도 연결 없는 종점 학습을 해서 교과과정도 교과서도 그렇게 해서 했는데, 최근 들어서 중학교를 졸업한 학습자들이 계속해서 고등학교 연속 학습을 지속 가능한 학습의 요구도가 되게 많아져요(‘나’ 민간 교육기관, H, 성인 문해).

성인 문해교육의 이런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학력인정제도 중심의 교육과정이 읽기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보는 전문가가 있었다. 성인 문해교육 현장에서 ‘학력’ 중심으로 교과서가 활용되다 보니 “답답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초등과 중학 이후 진로가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읽는 즐거움”, “배움의 즐거움”을 위해서는 학력 중심의 문해교육을 넘어, 읽기 자체에 집중하는 문해교육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읽기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성인 문해도 학력 트랙에 맞춰 보니까 사실 교과서가 되게 답답해요, 수업하다 보면.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도 부재하고 콘텐츠도 굉장히 부재하기 때문에 지금 초등이나 중학을 졸업하면 갈 수 있는 게 학력 트랙밖에 없어요(‘나’ 민간 교육 단체, I, 성인 문해).

읽기 콘텐츠들이 정말 많이 개발되면 읽으면서 읽는 즐거움도 있지만 배움의 즐거움이 또 동시에 되는데, 그렇게 본다고 하면 저는 어쨌거나 학력 트랙에 머무르지 않고 이런 콘텐츠들이 개발이 된다고 하면 중등 이상의 콘텐츠... 예를 들어서 읽기 중심으로 개발이 된다고 하면 저는 기대감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나’ 민간 교육 단체, I, 성인 문해).

또한, 현재 성인 문해교육이 갖는 종점 교육으로서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이상 수준의 문해교육 경로의 다양화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해교육에 참여하는 학습자들의 삶의 문제와 연결하여 성인 중학 과정 이후의 다양한 문해교육 경로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소통을 위한 심화한 문해교육과정을 운영할 수도 있을 것이며, 고등학교와 대학 진학을 원하는 학습자들을 위해서는 고등학교 준비, 또는 대학교 준비를 위한 후속 문해교육과정을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글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전달력이 가장 초점이 돼 있으니까, 이거보다는 좀 더 사회 밖으로 나와서 생활의, 삶의 연결 부분에서 어떤 사각지대를 추출하여서 그것을 좀 해결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이제 교육과정을 만약에 기간을 설정한다고 하면, 저는 한 2년 정도의 기간을 통하면 사회적으로 소통하는 데 좀 삶에서 보탬이 되겠다...(‘나’ 민간 교육기관, H, 성인 문해).

이러한 다양한 문해 학습 경로의 제공은 기초 수준과 학력 중심에 머물러 있는 기존 성인 문해교육의 확장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한 전문가는 ‘읽기’ 중심의 전환은 기존의 ‘학력 취득’ 중심의 성인 문해교육이 갖고 있었던 경직성의 문제를 극복하여, 다양한 삶의 영역, 주제 영역과 연결될 수 있는 문해교육의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었다.

초등에서도 응용이 되고 중학교에서도 응용이 돼서 좀 기초에 지금 머물러 있는 성인들 또 뭔가 좀 갈 수 있는 트랙들이 좀 많이 생길 것 같고 또 하나는 읽기라는 거에 좀 주제로 접근한다면 굉장히 자유로울 것 같은 거예요. 국어 영역뿐만이 아니라 사회과학, 민주 시민, 환경,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여러 영역과 연결]된다고 하면 어휘력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런 프로그램을 굳이 개발하지 않아도 콘텐츠들이 있으면 갖다 쓰면서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래서 저는 많이 기대가 됩니다(‘나’ 민간 교육 단체, I, 성인 문해).

□ 직업교육 : 기초능력과 사회적 언어생활에 대한 요구

직업교육 분야에서 문해교육에 대한 수요는 높은 편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우선 기초학습능력으로서 국어와 의사소통능력에 대한 수요가 확인되었다. 또한, 직업계 고등학교 졸업생들을 비롯하여 청년기 혹은 입직기 청년들의 일상적 사회생활을 위한 문해교육의 필요성, 일반 성인을 위한 비판적 문해 학습 및 문제 해결 능력 향상을 위한 문해교육의 필요가 확인되었다.

직업교육 분야에서 가장 먼저 제기되는 것은 기초 능력으로서 문해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강조이다. 직업생활을 위한 기본적인 의사소통능력으로서 국어능력은 중학교까지의 의무교육을 마치면 완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교육부의 목표이자 가정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그러한 기초 능력으로서의 국어 수준이 직업생활을 영위하거나 직업교육을 받는 데에 충분하게 갖추어지지 못한 경우들이 전문가들을 통해 발견되었다. 폴리텍대와 같이 직업계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많은 경우, 기본적인 글쓰기 능력의 부족으로 자기소개서 작성과 같은 입직을 위한 기본적인 과정을 스스로 해결하기 힘든 경우들이 보고되었다.

제가 직업 기초교육에서 교양 필수 들어가면 전공 교수님들이 저한테 요구하는 게 제발 자기 손으로 직업 자기소개서라도 좀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제가 수업을 딱 해보니까 애들이 한 다섯 줄 이상 못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훈련도 안 되고(‘가’ 대학, M, 직업교육).

제가 보기엔 [학생들] 교양이 되게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기술만 가르치니까 기본적인 진짜 문해력이나 읽고 쓰기력이 제가 보기에는 [많이 부족해요]. 특성화고 출신들은 소양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자기 생각을 글로 쓴다거나 뭔가 비판적 사고를 한다거나 그런 면에서는 또 문해력이 너무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가’ 대학, M, 직업교육).

기초능력은 기초 어휘 부족에서 기인하기도 하고 읽고 쓰는 능력의 부족에서 기인하기도 했다. 특수 집단의 경우로, 한국 국적을 소유하고 있지만 외국에서 청소년기를 보낸 학생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문해력이 필요한 친구들이 누가 있냐 하면, 조기 유학 갔다 온 친구들 보면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한국어도 영어도 이렇게 명확지 못한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보면 생각보다 유학 갔다 돌아온 친구들 중에 보면 본인이 원하는 데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돌아오는 경우들인데 그런 친구들도 사실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친구들에는 꽤 필요로 할 것 같아요('바' 공공기관, L, 직업교육).

이미 성인이 되었거나, 국어로서 한국어를 읽고 쓰고 말하는 기초 능력이 있는 경우 중급 단계의 문해교육이 요구되더라도 그 수요를 찾아내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 폴리텍대를 비롯한 전문대학 학생, 해외 거주로 인한 국어능력 향상의 기회가 적었던 청년 등을 대상으로 이러한 수요를 발굴하고 학습 수준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일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일이나 교육부나 고용부에서 전담하기에는 취약한 부분으로 파악된다.

이런 기초학습능력 부족은 비판적 사고의 부족으로 연결된다. 비판문해는 주어진 다양한 형태의 텍스트를 비판적으로 사고하여 받아들이고 주어진 문제 사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능력과 직결되는 부분이다. 비단 청년들뿐만 아니라 직업기초역량으로 일반 성인들에게 요구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성인들의 비판문해 역량이 국내 및 국제 비교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오는 것을 지적하였다.

저희 쪽에서 맨날 PIAAC이랑 직능연[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서 나오는 PIAAC 보고서랑 그다음에 4차 산업 관련해서 SBA 산업진흥원이나 그다음에 산자부에서 나오는 산업발전연구원 이런 데서 하는 연구에서 맨날 하는 얘기는 비판적 사고랑 문제해결력이예요. 앞으로 제일 중요한 그런 기초 역량. 근데 PIAAC에서 보면 최근 결과 데이터 보면 그게 되게 낮아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거의 꼴등에 가깝고 그러니까 30대 이상 40대, 50대는 거의 꼴등에 가까워요('가' 대학, M, 직업교육).

두 번째로는 사회적 언어생활의 중요성이 제기되었다. 청년들의 경우 기초 능력으로서 국어능력이 확보되어있다고 할지라도 사회생활 맥락에서 요구되는 의사소통능력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예를 들면, 직업생활을 위해 요구되는 사회적 언어, 즉 공적언어 능력 수준에 대한 지적이다. 처음으로 직장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들의 경

우 직장생활은 공적언어 체계로 이루어지는 공간인 데 반해 여기에서 기대되는 어휘와 언어활용능력이 부족하여 생기는 문제로, 세대의 문제이면서 직장생활과 관련된 문해능력이기도 하다.

청소년단체에 계신 분 말씀 들어보니까 청소년들이나 아니면 그런 친구들이 청년이 된 이후에 가장 힘들어하는 게 직업 직장에 딱 갔을 때 바로 이제 그런 부분인 거예요. 직무 관련된 언어 사회적 언어라고 이제 표현하시는데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그러니까 그렇게 사적 세계에서 공적 세계로 이렇게 전환되는 새로운 언어 세계에 이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회적 언어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는 청년들을 지원해주는 게 중요하 다. 그런 맥락에서 직무 언어에 대한 어떤 교육들이 저는 실질적으로 청년들에게도 중요하 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바’ 공공기관, L, 직업교육).

대학생들의 대학 생활 적응 맥락에서 ‘교수님께 이메일 작성하는 법’과 같은 교육 프로그램이 등장하는 것처럼, 직장생활이라는 새로운 맥락에서 요구되는 공적언어 체계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기 위한 문해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유사하게, 직장생활을 시작하게 되면서 새롭게 접하게 되는 근로계약서나 노동법처럼 사회생활의 다른 맥락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지만, 직업생활을 하는 데에 필수적인 어휘와 문법 맥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생활문해는 우리 애들한테 전혀 안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생활문해 같은 경우는 알아서 해라 예요. 유일하게 하는 게 뭐 취업하면 노동법 이런 게 2시간은 필수로 하라고 고용부에서 지침처럼 내려와 있거든요. 노동법하고 약간 보험. 근데 실질적으로 그거를 애들이 2시간이어서 그걸 어떻게 알아요. 예를 들면 생활문해는 오히려 더 전문한 것 같아요. 금융문해, 그런 것들은 더 전문해요. 예를 들어 월급 관리 이런 거 알려주면 되게 좋잖아요. 그 다음에 해고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이런 것들이 어쨌든 생활문해 차원에서 되게 중요한데 부당한 사유로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교육을 해야 된다고 고용부 지침이 있어요. 교과 지침 내려올 때 안전하고 산업안전 관리를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우리 애들 수준은 제가 보기에 그렇게 높지 않을 것(‘가’ 대학, M, 직업교육).

2.4.2. 문해 확장 영역과 연계하기 : 미디어, 디지털, 금융, 건강 등

문해교육의 영역은 전통적인 읽기와 쓰기 영역뿐만 아니라 다양한 삶의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 장에서는 확장된 문해교육과 연결될 수 있는 문해교육 요구를 미디어문해, 디지털문해, 금융문해, 건강문해 등의 영역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 미디어문해 : 읽기의 확장과 문화적 향유

• 뉴미디어 시대의 문해 : 읽기의 확장

전문가는 미디어문해에서 언어의 문제는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미디어문해는 미디어 이해뿐만 아니라 텍스트 읽기를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는 것이다. 언어는 “가장 정교하게 작동하는 기호 체계”이며, 언어를 메시지 형태로 담고 있는 미디어에서도 이런 언어를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미디어문해는 미디어 이해를 위한 교육뿐만 아니라 언어 이해를 포함하며,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메시지를 언어로 재발견하는 일을 의미한다.

텍스트의 의도를 개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정교하게 작동하는 기호 체계는 언어거든요... (중략)...미디어리터러시 교육에서도 언어를 그런 사회적 차원으로 재조명하는 문법적인 요소들하고도 문법의 기능적 측면들하고 굉장히 많이 또 연동되는 부분이 수동태의 어떤 표현과 능동태의 어떤 표현들이 주어를 무엇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또 헤드라인의 의미가 전혀 다르게 읽히기도 하고, 하나는 보조사를 쓰느냐 안 쓰느냐에 따라서 그 뉘앙스가 전혀 다르게 읽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언어에서 재발견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어떤 사회학적 차원에서 재발견하는 것에 대한 교육도 기초적인 수준에서 좀 정교하게 다뤄질 필요가 있겠다(‘마’ 대학, W, 미디어교육).

미디어문해를 ‘언어’의 문제로 접근할 때 미디어문해는 미디어 활용과 함께 읽기와 쓰기 활동을 포함한다. 이런 맥락에서 현재 학교교육에서도 미디어문해는 국어 교과에서 다뤄지고 있으며, “미디어 텍스트의 수용 능력”과 함께 “미디어 텍스트 제작 능력”, 그리고 “미디어 텍스트 공유 능력”을 포함하고 있으며 학년군별로 각각의 능력들이 균형 있게 향상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제 어떤 미디어 텍스트에 대한 수용 능력과 미디어 텍스트에 대한 제작 능력 그다음에 이제 미디어 텍스트를 공유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다 그 속에 되고 있고 초등학교 저학년 서부터 그런 능력들을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방식으로 이제 설계를 해놓고 있습니다(‘마’ 대학, W, 미디어교육).

매체 영역 내에서도 초창기에는 주로 수용 능력에 조금 더 초점을 두고 고학년으로 갈수록 이제 제작이나 비평이나 참여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강조되는 형태, 그러니까 학년군별로 똑같은 비중은 아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균형을 좀 맞추려고 하는

편입니다(‘마’ 대학, W, 미디어교육).

실제로 평생교육이나 문해교육 현장에서 읽기에 집중한 미디어 교육이 실행되고 있거나 실행 예정이었다. 예를 들어, 대도시에는 광역 지방자치단체 평생교육기관에서는 “데이터 바로 읽기”를 목표로 하는 강좌를 운영하고 있었다. 데이터 이해와 활용의 측면을 강조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읽기 능력을 강조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국어문화원에서는 뉴스 문해 등 미디어문해 관련 프로그램을 대학에서 운영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다.

가짜 뉴스나 이런 것들 상당 부분이 일부 데이터들을 오해해서 생기는 그런 것들이 많아서 저는 우리 시민대학 강좌 중에 데이터 바로 읽기 이런 강좌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전반적으로 시민들이 조금 다 배웠으면 좋겠다 싶은 강좌들인 거예요. 데이터를 제대로 읽고 포착해서 이걸 내가 맞게 다른 사람한테 설득할 때 사용하는 그런 기본적인 역량도 있으면 좋겠다...(‘마’ 평생교육진흥원, U, 세대교육).

문해력 교육을 뉴스 문해력이라든가 미디어 문해력이라든가 AI 문해력이라든가 이런 걸 확장해서 대학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지원받는 프로그램을 좀 운영해 보려고 하고 있거든요(‘마’ 국어문화원, E).

뉴미디어 시대 인간의 문해력은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우리는 고립적이고 단기적인 자극적 영상 문화에 점점 도취하고 있고, 우리의 자아감(sense of self)을 구성하는, 지적인(복잡한) 읽기 능력은 상실되고 있다(Masny & Cole, 2012). 새로운 문해력이 요청되는 시대인 것이다. 뉴미디어 시대에 요청되는 문해교육에 대해 전문가들은 첫째, 선형적 읽기보다는 입체적 읽기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었다. 현대사회의 미디어 정보는 인쇄 매체의 선형적 텍스트가 아니라 텍스트, 영상, 이미지 등 복합성을 갖는다. 따라서 기존의 선형적 읽기에서 입체적 읽기로의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미디어 텍스트들이 그런 선형적인 텍스트 중심만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미지를 통해서 재현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기자들이 하루에 수천 개의 사진을 찍지만, 그중에 하나를 가지고 보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수천 개 사진 중에서 하나가 골라지는 과정 자체에서 의미가 의도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것들을 읽어내는 맥락은 우리가 이렇게 선형적 사고를 하는 데에서는 또 다른 측면이 있고 그 영상에 가면 또 다르게 작용하는 부분들이 있기도 한 것 같고요(‘마’ 대학, W, 미디어교육).

둘째, 문해교육은 감성 영역으로 확장이 필요하다. 전통적으로 문해는 “인지적인 요소 내용을 잘 이해하고 파악하고 분석하고 비판”하는 능력 중심이었지만, 최근 정의적 요인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감성 영역은 영상, 문자, 이미지 등 다양한 형식의 텍스트를 다루는 미디어문해에서 더 중요할 것이다.

전통적으로 리터러시를 인지적인 요소 내용을 잘 이해하고 파악하고 분석하고 비판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인지적인 능력을 중심으로 얘기해 왔다고 그런다면, 최근에 와서는 리터러시를 구성하는 또 다른 하나의 중요한 요소로 이제 정의적인 요인 어펙티브 도메인 [감성 영역]을 그것도 이제 능력의 개념으로 보고...('마' 대학, W, 미디어교육).

셋째, 뉴미디어 시대의 문해교육은 읽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미디어문해 영역에서는 읽기만 가능한 환경이 아니라고 전문가는 말하고 있다. 이 전문가가 보기에 읽기는 글이나 정보의 소비가 아니라 하나의 생산 활동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최근 사회 연결망 서비스에서는 많은 누리꾼이 읽기 자체를 콘텐츠로 만들어 유통하고 있다. 즉, 읽기의 행위는 쓰기, 창조하기, 공유하기, 확산하기 등의 활동과 엉켜 있다.

이제 미디어리터러시 영역으로 넘어오면 이게 읽기만 가능한 환경이 아니거든요. 그냥 읽는 것 자체가 생산이 돼버리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읽기와 쓰기와 만들어내고 공유하고 확산하고 참여하는 모든 것들이 이제 얹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읽기 중심으로 혹은 기존에 우리가 이제 문해능력, 문맹 퇴치에서 말했던 그것과는 조금 다른 결로 말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바' 연구소, Y, 미디어교육).

- 탈진실 시대의 비판적 미디어문해

미디어문해 전문가는 현대사회를 진실을 가리기 힘든 “탈진실 시대”라고 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전문성의 격차”에 있다고 보고 있었다. 우리는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없기에 “잘 모르는 영역들에서 거짓말을 해도 그게 거짓말인지를 알 수 없는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문해력이 수준이 높은 사람도 진실과 거짓을 가리는 분별력이 없다면 거짓을 전송하는 미디어 앞에서 속수무책일 수 있을 것이다.

탈진실 시대에 우리가 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해나갈 수 있나 이런 이제 근본적인 고민이 들고, 그 문제에 그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전문성의 격차에서 발생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잘 모르는 영역들에서 거짓말을 해도 그게 거짓말인지를 알 수 없는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라, 이 문제들은 사실 비단 어떤 기초적인 문해력 수준이

낮은 수준에서만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대학 교수님들이 제일 잘 속는 것 같
아요(‘마’ 대학, W, 미디어교육).

따라서 미디어문해의 맥락에서 비판적 문해교육은 중요해진다. 국어문화원의 한 전
문가는 사회 연결망 서비스 등에 넘쳐나고 있는 검증되지 않은 뉴스가 “편향적인 뉴
스인지 아닌지”, 그리고 인터넷 정보들이 “근거가 타당한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문해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었다. 한 미디어 전문가는 전통적인 뉴스 형식을 따르는
콘텐츠가 가짜 뉴스를 양산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었다. 미디어 형식에 대한 신뢰도를
악용하여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디어 환경, 플랫폼의 특성, 여기
에 등장하는 텍스트들의 특성 그리고 누가 만드는지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 읽기 능
력이 중요해진다.

뉴스를 만약에 본다 그러면 이 뉴스가 어떤 특정 이데올로기를 가진 사람, 이념적 가치를
가진 사람을 위해 맞춰져 있는 편향적인 뉴스인지 아닌지를 판단한다든지 아니면 인터넷
검색하다 나타난 어떤 데이터가 있다 그러면 이게 정말 근거가 타당한지 아닌지를 판단하
는 게 문해력이지 어휘를 알고 모르고의 문제로 자꾸 접근하는 것 같아서 어휘력도 물론
리터러시의 영역으로 다룰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다(‘마’ 국어문화원, E).

처음에 유튜브에 본격적으로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등장했을 때 그 뉴스 전통
적인 9시 뉴스의 포맷을 따랐었거든요. 이런 스튜디오 같은 것도 꾸며놓고 마치 자기가
앵커인 것처럼 말하고 뒤에 화면도 띄워놓고, 그런 형식을 빌려 갔던 것은 그 형식에 대
한 신뢰도가 있는 것을 이용 악용했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확실히 각 미디어 환경, 플
랫폼의 특성, 여기에 등장하는 텍스트들의 특성 그리고 누가 만드는지 그런 것들을 이해하
는 것 역시 읽기 능력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바’ 연구소, Y, 미디어
교육).

미디어 문해교육에서 비판적 문해는 개인 차원이 아니라 집단지성 차원에서 이루어
질 필요가 있다고 보는 전문가도 있었다. 진실과 거짓을 판별하기 어려운 ‘탈진실 시
대’에 개인 보다는 집단의 힘이 유효할 수 있다는 관점이었다. 예를 들어 나의 판단
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제에 대해 댓글들”을 읽어보면서 나와는 다른 타인
의 낯선 생각을 살펴보는 일이 중요할 것이다. 또한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여러 사람
의 의견이 어떻게 수렴되는지 파악하는 일도 필요할 것이다. 다양한 데이터와 정보들
사이에서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이러한 관심과 노력은 집단지성에 대한 인식
과 독단과 독선에 빠지지 않기 위한 심리적 상태를 갖추므로써 가능할 것이다.

대표적으로 얘기되는 것들 중의 하나는 집단지성의 힘인 것 같아요.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다못해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댓글들을 좀 충실히 읽어본다든가 그래서 이제 일정 수준 이상의 댓글들을 통해서 수렴되는 어떤 평균값들이 뭔지를 좀 찾아보는 연습을 한다든지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여러 의사들의 얘기들을 고르게 들어서 서로 합의되는 지점은 무엇인가를 이렇게 찾아보는 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조금 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해가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라는 생각이 들어서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리터러시 교육에 있어서도 그런 어떤 집단지성에 대한 어떤 인식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하나에 의존하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심리적인 상태들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꼭 좀 다루어진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마’ 대학, W, 미디어교육).

- 문화적 향유로서 미디어문해

국립국어원의 미디어문해교육은 기본적으로 ‘읽기’의 전통적인 맥락에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문화적 향유’의 관점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었다. 미디어문해에 대해서는 부처마다 다른 접근을 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디지털 격차 해소에 집중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표현과 세대 간 소통에, 방송통신위원회는 허위 정보와 가짜 뉴스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 미디어문해교육 자체에 집중하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보인다.

어떤 기관 부처에서 돈을 대느냐 어떤 부처에서 끌어가느냐의 문제였는데 과기정통부가 끌어갈 때는 잘 아시겠지만, 디지털역량센터라고 해서 그 격차 줄이는 거를 주로 했었고요. 지자체에서 할 때는 소통을 중심으로 해서 표현하는 법을 얘기했었고 세대 간 소통도 얘기했었고요. 방통위라든지 문체부 문체부는 지금 들어서 조금 그런 거긴 한데 방통위가 주도했을 때는 이제 허위 정보 이야기를 조금 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그게 이제 읽기교육하고 완벽하게 연결해서 한 경우는 저는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바’ 연구소, Y, 미디어교육).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인 국립국어원에서는 기관의 정체성에 맞게 “문화적 리터러시”의 관점에서 미디어문해교육 개념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미디어문해 전문가는 문화적 리터러시를 “어떤 디지털 콘텐츠를 좀 더 세련되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보고 있었다. 이런 목적으로 미디어문해교육은 품위 있고 세련된 읽기와 쓰기를 중심으로 할 것이다. 이 전문가는 “문화적으로 아름답게 풍자와 비유를 만들어내는” 댓글 달기를 예로 들고 있었다. 관행적으로 이루어졌었던 문화 소비가 아니라 문화적으로 풍부해질 수 있는 미디어문해교육에 대한 강조라고 볼 수 있다.

기초적인 어떤 미디어리터러시라고 하는 것들을 개념 설정함에 있어서 문광부에서 생각하는 어떤 리터러시 교육도 좀 조명이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제 문화적 리터러시의 측면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디지털 콘텐츠를 좀 더 세련되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좀 더 댓글을 달아도 문화적으로 아름답게 풍자와 비유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어떤 연습이라든지 아니면 드라마를 봄에 있어서도 좀 더 세련되게 그 드라마를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라든가 그래서 어떤 문화 콘텐츠로서의 미디어에 대해서도 그냥 늘 하는 관성이 아니라 좀 더 이렇게 문화적으로 풍성해질 수 있는...('마' 대학, W, 미디어교육).

□ 디지털문해 : 미래 기술의 이해와 적응

디지털문해는 넓은 의미에서 미디어문해에 속할 수도 있을 것이다. 최근 코로나19 등 비대면 의사소통이 활발해지면서 디지털 역량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매체에 익숙한, 소위 알파 세대의 등장과 함께 노인 세대는 변화한 디지털 환경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는 점에서 디지털 문제에 집중한 별도의 의미 분석이 필요하다. 여기에서는 앞서 노인 세대의 디지털문해교육에서 다룬 내용을 제외하고 디지털 기술의 이해와 미래 읽기 측면에서 전문가들의 면담 내용을 분석하였다.

• 미래 이해를 위한 시민문해로서 디지털문해

디지털문해는 우선 미래기술 이해의 의미를 갖고 있었다. 광역시도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연령대 학습자를 보면, 50대, 60대, 70대가 주류를 이룬다고 한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평생교육 전문가는 이들 집단이 “글을 읽고 쓰고 하는 것”에 대한 요구도는 높지 않지만 “빠르게 변하는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 이해를 굉장히 필요로”하고 있다고 보고 있었다. 디지털문해는 디지털 기기의 활용 능력을 갖추는 일이기도 하지만, “미래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리터러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60~70%가 5, 6, 70대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선호하는 어떤 그런 교육과정들이 뭐가 있을까 라는 그런 것들을 문해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사실은 이렇게 글을 읽고 쓰고 하는 것들은 이분들은 사실 큰 문제는 없는데, 문제는 이제 이분들이 빠르게 변하는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 이해를 굉장히 필요로 하는데 그거를 어디서든지 배울 수가 없어서 우리 시민대학에서 그런 부분들의 강의를 했을 때 굉장히 많이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게 미래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으로서의 리터러시인 것

같아요(‘마’ 평생교육진흥원, U, 세대교육).

여기에서 미래 기술에 대한 이해는 미래 사회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의 문제와 관련이 있었다. 그렇기에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라 일상의 영역에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 사용되고 있는 기술에 대한 이해는 미래 기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문제와 관련이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런 미래기술에 대한 문제는 미래기술 용어에 대한 이해 등과도 관련될 수 있을 것이다.

미래 사회 기술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돕는 과정들이 있고 그 과정들이 사실은 좀 많이 있죠. 그래서 미래 사회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이 용어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고 내 생활하고는 어떻게 관련되는지 그거를 하는 것이 한 축(‘마’ 평생교육진흥원, U, 세대교육).

- 생성형 AI와 비판적 디지털문해

미래기술에 대한 이해로서 디지털문해는 읽기와 쓰기의 전통적인 문해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공무원 교육에서도 챗 GPT를 활용한 보고서 쓰기 관련 강좌가 등장하기도 하는 등 최근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AI가 실제 정보의 탐색과 구성, 문장의 생성과 교정 등 읽기와 쓰기 활동에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제가 인재개발원에서 기획 보고서 작성하는 걸 가르치는데 이분들이 보고서를 쓰는 기본 배경을 쓸 때도 사실은 챗 GPT를 활용할 수 있잖아요. 챗 GPT를 활용하면 기존에 나와 있는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 배경을 찾아낼 수 있으니까 한 공무원이 자기 머릿속으로 생각해내는 것보다 훨씬 다양한 것들이 나오는데...(‘마’ 국어문화원, E).

생성형 AI 등장과 활용으로 진실과 거짓을 판별하는 비판적 문해력이 중요해진다. 챗 GPT 등 생성형 AI는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사실이 아닌 걸 이야기”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생성형 AI가 문장의 형태로 설명해주는 정보가 사실이 아닌지 판단할 능력이 중요해지는 것이다. 최근 UNESCO에서는 「고등교육에서 챗 GPT와 인공지능: 속성 기초 가이드」(*CHATGPT and artificial intelligence in higher education: quick start guide*)를 발간했는데(UNESCO, 2023), 이 보고서는 “챗 GPT가 만들어 낸 정보가 진실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판별하는 문항을 담고 있다.

문제가 뭐냐 하면 챗 GPT가 거짓말을 하잖아요. 사실이 아닌 걸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능력이 있는가? 내지는 이것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를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AI 리터러시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좀 교육한다면 공무원 대상으로도 얼마든지 이 교육 영역을 넓힐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마’ 국어문화원, E).

UNESCO에서 고등교육에서 ‘챗 GPT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보고서가 하나가 나왔었는데 거기에 보면 당신이 챗 GPT를 교육에 써도 되는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를 이렇게 표를 따라가면서 얘기를 하는 게 이렇게 해보는 게 있어요. 예스, 노를 선택을 해가면서 그중에서 어떤 기준이 나오나 하면 이 사실이 그러니까 이 정보가 챗 GPT가 만들어낸 정보가 진실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는가 예스면 써도 되고 노면은 쓰면 안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바’ 연구소, Y, 미디어교육).

- 디지털 적응과 기술과 문화 이해

디지털문화에서는 디지털 기술의 기능 습득과 비판적 문해력을 모두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최근에는 디지털 기술에 적응하고 기능을 익히는 게 급선무인 것으로 간주되고 있었다. 디지털문화는 기능의 습득과 비판적 이해의 선순환 과정이 전통적 입장이었으나, 최근 기술 속도가 빨라져 디지털 기술을 이해하고 디지털 기기의 활용 능력을 익히는 기능적 측면이 중요해졌다는 것이다.

기능부터 시작해서 비판으로 일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순환적으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게 이제 전통적인 입장이고...(중략)...그 기술의 발전 속도가 그때 그 핵심 개념이 잡혔을 때에 비해서 너무나 빨리 가고 있기 때문에 전이가 완벽하게 가능하지 않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환경을 생각했을 때는 기능이 먼저 갖춰지고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그것에 대한 비판이 가능해지는 그런 그게 섞여 들어가지 않냐는 생각을 하나를 해봤고요(‘바’ 연구소, Y, 미디어교육).

따라서, 디지털문화는 기술, 문화 맥락의 이해를 포함한 읽기 활동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단순히 디지털 기술의 적응이나 디지털 메시지 읽기는 기술적 맥락, 예를 들어 인터넷 환경에서 “하이퍼링크가 의미하는바”, 하이퍼링크 글 읽기의 의미 등에 대한 이해를 동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적 글 읽기는 기술적 맥락에서만 아니라 문화적, 미디어적, 사회적 맥락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성인 대상으로 했을 때 그런 거를 생각해 봤을 때 그 맥락을 이해한다는 것의 확장에 대해서 조금 주목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처음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텍스트에 하이퍼링크가 있을 때 그 하이퍼링크가 의미하는 바가 뭐고 하이퍼링크를 따라서 내가 이걸 읽는 이 자료를 읽는다는 것은 별개의 창을 띄우고 읽는 것과 어떻게 같고 다른지를 이해하고 어디에다 하이퍼링크를 넣는다는 건 또 무슨 의미인지 알고 약간 이런 기술을 맥락으로 이해하는 읽기가 있어야 할 거거든요...(중략)...그래서 기술이 맥락인가 문화가 맥락인가 아니면 그 기관으로서 미디어의 역할이나 사회적 기능이 맥락인가에 따라서 읽기의 방식이라든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포인트가 다 다를 거거든요(‘바’ 연구소, Y, 미디어교육).

□ 금융문해: 생존을 위한 읽기 능력

금융문해는 우리가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정보와 지식의 측면에서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었다. 평생교육 현장 전문가는 시민들의 금융문해 수준이 높지 않다고 보면서, 기본적인 금융 관련 용어, 예를 들어 “채권이란 말을 처음 들으신 분”도 있다고 말하고 있었다. 주식이나 예금 등 재테크 상품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도도 낮다고 보고 있었다. 국어문화원의 전문가는 금융 관련 지식과 정보가 “국어로 이루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국어문화원에서 다루고 싶은 주제라고 보고 있었다.

많은 시킨 분들이 저도 사실은 금융 비문해자예요. 근데 금융문해자가 되게 많다. 금융 비문해자가 많다. 뭐냐 하면 채권이란 말을 처음 들으신 분들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아주 기초적으로 최근에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재테크 상품이나 이런 것들을 이해를 잘하지 못하면 남들이 추천해 주는 거에 그냥 사기를 당하기 쉬운 그런 일들이 다 금융문해에 해당하는 거라서 굉장히 놀랄 정도로 많다. 기본적인 채권이 뭔지 주식의 정확한 개념이 뭔지 그다음에 예금 상품이 정확하게 뭔지,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마’ 평생교육진흥원, U, 세대교육).

저희가 사실은 금융 리터러시 하고 싶거든요. 그걸 금융 전문가팀에게 넘길 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다 국어로 이루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제로 넓혀서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의 요구가 들어온다면 얼마든지 프로그램을 짜서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마’ 국어문화원, E).

□ 건강문해 : 올바른 건강 정보 읽기

너트빔(Nutbeam)은 건강문해를 첫째, 건강 정보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읽기 및 쓰기 기술의 기능적 문해, 둘째, 의료 제공자와 소통할 수 있는 인지 및 문해능력,

그리고 정보 해석 및 적용 능력, 셋째, 건강 정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비판적 건강문해로 설명하고 있다(Frisch et al., 2011). 따라서 건강문해는 기초적인 건강 정보 이해뿐만 아니라 건강 정보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전문가와 의사소통할 수 있는 고도의 읽기 능력을 의미한다. 코로나19 상황을 거치면서 건강문해의 중요성이 커졌다. 초고령화 시대로 진입하면서, 건강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높아졌다. 디지털 매체를 통해 다양한 건강 정보가 쏟아지다 보니 올바른 건강 정보를 판별할 수 있는 문해력 요구도 커졌다.

저희 시민분들이 되게 건강 지식 같은 것들이 굉장히 오남용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제 강사님들을 모셔서 제대로 뇌 건강 알기 질병 예방 이런 것들에 대한 강좌를 여는데 그것도 역시 호응이 좀 높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약들은 너무 많고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강좌를 들으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건강문해, 이런 거에 조금 숙지해야 할 내용이 아닌가 그러니까 건강, 경제, 의사소통, 미래 사회 이게 약간 앞으로 살아가는 데 좀 필요로 하는 능력인데 이거는 꼭 비문해자가 아니라 이렇게 사회 변화에 못 따라가시는...('마' 평생교육진흥원, U, 세대교육).

□ 시민문해 : 공공 참여를 위한 읽기와 쓰기

청소년과 청년 세대들이 직업이나 공공 영역에서 주체적인 삶을 살기 위해 사회적 언어가 중요하다는 점을 앞서서 살펴본 바 있다. 공공 영역에서 소통하기 위한 읽기 쓰기 능력은 청소년과 청년 세대뿐만 아니라 시민으로서 공공 참여를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이다. 최근, 정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 영역에서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공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공공 용어 지식과 공문서 읽기, 제안서 쓰기 등의 능력이 중요해질 것이다.

실제 테크니컬 라이팅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보고서나 우리 요즘에 이제 정부에서 여러 가지 시민들 대상으로 제안서들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런 제안서를 제대로 잘 쓰는 공공 용어들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시민들이 정책 제안을 하려고 해도 그게 공공용 용어로 써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필요로 한 건지('마' 평생교육진흥원, U, 세대교육).

2.5. 문해교육 지원 요구

문해교육 실천을 위해서는 다양한 지원 정책의 도입과 실행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이 국립국어원이 문해교육을 실행하고자 할 때, 우선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는 정책 방안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었다. 이를 관련 분야에서 바라보는 국립국어원과의 정책 연계 필요성, 문해력 진단 평가 체제의 도입 그리고 실제 국립국어원에서 도입과 추진하기를 기대하는 정책 서비스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표 IV-6> 문해교육 지원 요구

주제	세부 주제	
문해교육 지원 요구	문해교육 정책 연계 필요	성인 문해교육 : 연계협력을 통한 지원 활성화
		직업교육 : 정책 연계에 의한 문해교육 실천
	진단 평가 체제 구축	정책 방향 : 연계성 기반
		정책 수단 : 문해력 진단 앱 도입
	문해교육 지원 서비스 요구	문해 콘텐츠의 개발과 보급
		온라인 사전과 어휘 활용 서비스
		참여적 문해교육 방법의 지원
		유관 기관과의 연계 사업 기획과 운영

2.5.1. 문해교육 정책 연계 필요

문해교육 관련 전문가들은 국립국어원의 문해교육 활성화가 기존 문해교육 영역과 배타적이기보다는 상호 협력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성인 문해교육과 직업교육 전문가들의 제언은 국립국어원이 문해교육 정책 지원의 중심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때, 우리 사회 문해교육 전반의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는 낙관을 갖게 한다.

□ 성인 문해교육: 연계협력을 통한 지원 활성화

성인 문해교육 전문가들은 국립국어원의 문해교육은 현재의 기초문해 중심의 성인 문해교육 이후의 영역을 포괄할 수도 있지만 현재의 성인 문해교육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었다.

성인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해 국립국어원이 할 수 있는 지원에 대해, 성인 문해교

육 전문가들은 저학력 문해 학습자를 위한 읽기 교재나 어휘집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었다. 특히 국립국어원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어휘집에 대한 요구가 컸다. 예를 들어 실생활에서 활용되는 어휘나, 세대별로 사용하는 어휘, 또는 “메타버스”와 같은 신조어 등 현재 문해 학습자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어휘 학습에 대한 지원을 국립국어원이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어휘 확장은 시 감상력 등 문해 학습자들의 읽기 능력 향상뿐만 아니라 쓰기 능력 향상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저학력을 위한 학생들 초등학생을 위한 의사소통 교재를 만들기도 하고 거기서 그 각각의 실생활에서 해야 하는 의사소통, 거기에 주요 어휘들,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전 세대 측면에서 다양하게 연구해 주고 교육과정이 나온다면 각각의 쓰임은 있을 것 같아요 (‘가’ 공공기관, G, 성인 문해).

초등 과정에 있는 어르신도 선생님 메타버스가 뭐예요? 어디서 듣고 오셔서 이야기하는데 이분들이 저는 이제 읽기든 쓰기든 한계가 뭐였냐면 저는 어휘력이라고 봐요. 어휘력이 확장이 안 돼. 그래서 글을 써보시면 이렇게 써요. 대부분이 시장에 갔다. 뭐 사고 했다, 뭐 사고 배추 사고 사과 사고 뭐 사고 집에 왔다, 그게 끝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서 자기 본인이 느낀 감정이나 표현 시를 읽고 어떠세요? 그러면 ‘다 좋아요’인 거예요. 이 본인이 표현하는 어떤 어휘의 확장 경험이 거의 없는 거죠(‘다’ 민간 교육 단체, I, 성인 문해).

또한, 고등학교 진학을 원하는 문해 학습자들에 대한 지원 요구도 있었다. 성인 문해교육 중학 과정을 졸업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할 만큼 충분한 문해력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후속 교육을 통해 중학 졸업자들을 위한 별도의 지원이 필요한 이유이다. 성인 중학 과정을 졸업한 문해 학습자들의 일반 고등학교 진학을 지원하는 한 기초자치단체의 담당자는 현재의 예산 범위에서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며, 문해 학습자를 위한 전문 강사 지원 등이 추가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었다. 비슷한 맥락에서 한 시도문해교육센터 담당자는 기초문해 수준에서 나타나는, 수준별 차이를 보완해 주는 국립국어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었다. 이런 새로운 교육과정에 대한 요구들은 기초 수준에 머물러 있고 수준 간 차이를 보완하는 데 한계가 있는, 현재의 성인 문해교육과정에 대한 평가에 기초한 것이라고 볼 수 있었다.

일단 고등학교까지 연결 수업을 연결 교육을 하시고 싶은 분이 계시다고 하면 중학 과정이 마무리될 때쯤에 고등학교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위한 교육과정이 있다든지 아니면 그런 예를 들어 예산 지원이 가능하다 하면 저희는 주어진 예산 내에서 하다 보니까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는 예산 강사로 지원이 될 수 있다고 하면 그것도 쓸 수 있는 부분이겠다는 생각이 들고요(‘나’ 군청, R, 평생교육).

국립국어원과 같이 연계해서 만약에 진행된다면 수준을 높이는 과정을 만드는 것은 맞는데 어떤 엄청난 그 수준을 높이는 교육이 아니라 수준 1과 수준 2의 그사이 어떤 그 격차를 좀 줄일 수 있는 어떤 교육과정을 만들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다’ 평생교육진흥원, S, 평생교육).

마지막으로 성인 문해교육 교강사들의 전문성 향상 지원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성인 문해교육 교강사들의 전문성 수준은 높지 않다. 2007년 「평생교육법」에 문해교육 관련 조항이 포함되고 학력인정제도의 시행으로 문해교원의 자격요건이 갖춰지기 이전의 성인 문해교육은 자원봉사 또는 교육운동 차원에서 이루어졌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었다. 오늘날 성인 문해교육 현장에 「평생교육법」에 따라 양성된 문해교원 등 전문 문해교사들의 참여가 늘어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 담당자들은 문해교육에 대한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었다. 예를 들어 농촌 지역의 문해교육 담당자는 교강사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면서, 표준어, 표기 방법, 신조어 등에 대한 문해교사들의 이해도가 낮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원인을 문해교사들이 “연령대가 높”기 때문이었다.

교사교육입니다. 지금 선생님들도 지금 새로운 단어들도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이분들도 교사들이 대부분 전국에 계신 분들이 연령대가 조금 높은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표준어라든지 또 표기 방법이라든지 또 요즘에 새롭게 생기는 신조어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다. 본인들도 그래서 학습자들에게 그걸 전달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교사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더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나’ 군청, R, 평생교육).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성인 초등학교 과정의 문해교원 자격은 1) 대학 졸업 이상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사람이거나 2) 고등학교 졸업 이상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고 제76조제1항에 따른 문해교육심의위원회에서 초등학교 과정 문해교육 교원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받은 사람이다. 중학교 과정은 1)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자격을 가진 사람 2) 대학 졸업 이상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고 제76조제1항에 따른 문해교육심의위원회에서 중학교과정 문해교육 교원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받은 사람(「평생교육법」 제70조)이다. 이와 같은 문해교원 자격은 문해교육이 법제화되기 이전 시민사회 영역에서 자원 활동에 의존하여 이루어지고 있던 성인 문해교육의 특수성을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

체의 담당자는 초등 수준의 기초문해 교강사의 역량 강화가 중학 과정보다는 절실하다고 보고 있었다. 이는 학력인정 과정뿐만 아니라 비인정 과정 교강사에게도 마찬가지로 요구되는 것이었다.

저희가 초등 과정 연수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초등 과정 연수 이후에 강사의 수준이라고 할까요? 초등 강사와 그리고 중학 단계를 맡은 강사의 어떤 강의 수준이 조금 차이가 크게 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학 과정을 만약에 준비한다고 하면 우선 이제 강사분들의 어떤 역량 강화 교육을 충분히 이제 어느 정도 시킨 이후에 조금 그런 수준을 좀 높이거나 아니면 격차를 좀 줄일 수 있는 과정을 운영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다’ 평생교육진흥원, S, 평생교육).

초등 학력 인정 또는 이제 그 수준의 학력 인정이 아니더라도 문해교육을 하는 학습자들이 원하는 것과 중학교 학력 인정 과정에서의 학습자들이 원하는 거에 성취도의 달성이 굉장히 달라서 선생님들의 역량이 차이가 느껴지게 보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초등 선생님들이 굉장히 역량이 낮아 보입니다. 가장 큰 이유가 초등 이제 학력 인정이든 학력 인정을 학력 인정이 아닌 경우에는 더 심한데 그다음 단계를 가기 위한 학습을 확장하는 요구가 많지가 않아요(‘가’ 시청, Q, 평생교육).

그렇다면 현재 활동하고 있는 성인 문해교육 교강사를 위해 필요한 지원은 무엇일까? 앞서 언급하였던 것처럼 표준어나 올바른 표기 방법 등의 교육이 필요하다. 성인 문해교육 교강사들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해서 중요한 일이다. 또한 문해교육 교수 방법에 대한 요구도 있었다. 국립국어원의 강점을 살린다면 성인 문해교육 교강사를 위한 국어 교수 방법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역의 경우 사투리를 활용한 읽기 교재 등의 요구도 있었다. 사투리 교재는 지역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될 수 있을 것이다.

국립국어원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표준, 표준어, 표준 표기 방법에 대한 내용도 좋고 그다음에 티칭에 대한 거는 두 번째더라도 교사들 자체가 잘못된 표기를 쓴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우리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알려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선생님들이 저한테 이렇게 쪽 쪽 주신 내용에서 보면 사투리에 대한 것을 저희는 ○○ 지역이다 보니까 이제 표준어하고 사투리에 대한 거를 교재화해서 하면 그것도 좀 재밌는 교재가 하나 되지 않겠느냐는 아이디어를 누가 한 명 주셨네요(‘나’ 군청, R, 평생교육).

□ 직업교육 : 정책 연계에 의한 문해교육 실천

직업교육 분야에서도 문해교육에 대한 필요에 비하여, 아직 정책적 뒷받침은 취약한 상황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국립국어원과 협력하여 시도해볼 수 있는 다양한 정책에 대한 기대가 높은 상황이다.

• 직업교육 분야에서 문해교육 활성화 필요

기초학습능력 향상에 대한 수요는 직업계 고등학교, 폴리텍대, 전문대학 등 직업능력 교육에 초점을 둔 기관에서 뚜렷하게 확인되었다. 그러나, 현재의 공교육은 효과적인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 기초학습능력은 직업교육을 위한 기초라는 측면에서 학교를 통해, 즉 공교육 체계를 통해 해결해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과정일 것이다. 그러나 공교육 체계에서 그 해답을 찾기에는 학교가 가지고 있는 경직성과 엄정성 등으로 인해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조금 더 그런 제도적인 측면에서 초중등 교육과정 총론이 그게 고시되는 문서이기 때문에 국가 문서이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2022 개정 교육과정을 할 때 공통 국·영·수가...(중략)...기초 기본 수학과 기본 영어를 가지고 이제 공통 수학이나 공통 영어를 대체할 수 있게 이렇게 지금 만들어 놔어요...(중략)...이게 직업계 고등학교만의 문제가 아니고 일반계 고등학교도 같이 대체할 수 있게 지금 만들어 놔거든요. 그만큼 일반 고등학교 수준에서의 문해교육이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고 그리고 이 부분을 공교육에서 해결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왜냐하면 공교육은 아까 말씀드렸던 굉장히 보수적인 국가 수준의 문서에 따라서 움직여야 하므로 그래서 결국은 평생교육과 관련된 부분 그래서 그 부분을 건드려줘야 (된다고 생각한다)(‘마’ 국책 연구 기관, K, 직업교육).

즉, 학교로 대표되는 공교육 체제 변화를 통해 해법을 찾으려는 시도가 지속되고 있으나, 학교 현장에서 직업기초능력으로서의 국어능력 향상이라는 실질적인 변화를 꾀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는 지적이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 직업 청소년의 경우 이러한 요구를 해결해줄 교육 기회가 적을 것이고, 청년들의 기초학습능력 향상 기회도 많지 않다. 그런데, 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학생이라 할지라도 취업과 같은 교육기관 본래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이러한 기초교육에 대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개별적 요구들을 그렇게 충족시켜줄 수 있는 교육과정을 제공해주는 것이] 우선순위가 떨어

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전공의 기술을 가르치기에도 시간이 많지 않다고 생각하고(‘가’ 대학, M, 직업교육).

직업기초역량으로 아까 얘기한 문제해결력, 의사소통능력 이런 건데 그게 물론 능력 단위의 비판적 사고가 있긴 있는데 그게 약간 직업 중심으로 되어서 회사 생활했을 때 비즈니스 스킬 위주예요. 고등학교 수준에서 NCS 수준에서 그렇게 깊지 않더라고요. 제가 강의를 해보니까 애들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잘 이해도 못하고(‘가’ 대학, M, 직업교육).

교수님들은 [기초능력 교육에 대한] 니즈가 있죠. 왜냐하면 산업이 바뀌는데 그런 쪽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은 하지만 지금은 전공을 애들을 가르치기도 너무 시간이 모자란다고 생각하시는 거고 애들 입장에서는 사회에서 부딪히지 않는 이상 모르는 거죠. 그 수위를 모르는 거죠, 수준을...(‘가’ 대학, M, 직업교육).

기초학습능력으로서의 국어능력에 대한 수요가 비교적 명확한 전문대학에서조차 이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에는 시공간의 제약이 상당하다는 것을 이야기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새로운 지원 정책 필요

직업교육 분야에서 요구되는 문해교육에 대한 수요는 기존 제도를 통해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명확하다는 점이 앞선 논의에서 확인되었다. 새로운 시도와 가능성에 대한 모색이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직업교육 전문가들은 네 가지 측면에서 새로운 시도를 제안하고 있었다. 첫째, 새롭게 도입된 직업계 고등학교 학점제 운영과 관련하여 학교 밖 국어교실 운영, 둘째, 학습 전달 매체에 대한 새로운 평생교육적 접근, 셋째, 문해력 관련 인증 체계 도입,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 기관과의 협력 제안이다.

첫째, 직업계 고등학교 고교학점제 도입은 보통 교과로서 국어교육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이 제도를 통해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계 고등학생들까지 학교 밖 교육을 학교교육의 하나로 인정해주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고교학점제에 대한 직업계 고등학교의 주된 관심은 지역의 대학이나 산업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으로 전문교과 이수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에 집중되어 있다. 하지만 보통 교과로서 기초교육 또한 개개인의 수요와 능력에 맞게 전문 기관 연계를 통한 고교학점제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이제 직업계 고등학교가 직업계고 학점제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게 외부 학점은 32학점까지 인정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굉장히 이제 굉장히 미묘한 상황에서 [성적으로] 분반하는 자체가 학생에게 주는 정서적인 영향이 긍정적이지 않고 부정적이잖아요. 그게 인지적으로 얼마나 성취도를 향상시킬지는 모르겠지만 정서적으로는 굉장히 이게 큰 무리를 주는 방법이라서 저는 직업계고 학점제를 활용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직업계고 학점제와 관련해서 외부의 교육 시스템을 시도교육청을 통해서 인정받는 평생교육 시설 기관에서 이제 예전에 했던 것처럼 아주 초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서부터 시작하자. 그러니까 EBS 프로그램을 그때 한 번 돌린 적이 있었는데 고등학생의 학업 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을 초등학교 수학 산수에서부터 시작해서 중학교까지를 압축해서 했을 때 훨씬 더 효과가 더 높은 걸로 나왔거든요. 그 말은 이 아이들에 상처를 주지 않고 정서적인 부분에서 좀 뭐랄까 뭐라고 그래야 하나 약간 본인이 무시당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감정을 갖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이 학생들에게 좀 더 더 맨 아래 단계에서부터 심층 단계까지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거를 학점으로 인정받고 그거를 시도교육청과 학교가 같이 연계해서 갈 수 있는 쪽으로 가면 직업계 고등학교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마’ 국책 연구 기관, K, 직업교육).

하여튼 직업계 고등학교 직업교육과 관련된 부분을 가려면 이제 직업계 고가 어찌 됐건 굉장히 중요한 고교학점제 지속. 고교학점제는 지금 2022년서부터 전면 도입이 되고 있어요. 일반 고등학교는 아직 멀었지만, 지금은 도입되고 있고 2000년서부터는 마스터고는 벌써 하고 있거든요(‘마’ 국책 연구 기관, K, 직업교육).

고교학점제가 되면서 이 학생들을 위한 문해교육을 통해서 대학에서의 수학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쪽으로 접근하는 부분의 경로가 있다...(중략)...보통 교과를 활용한 문해교육과 관련된 부분의 연결 이 부분을 한번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마’ 국책 연구 기관, K, 직업교육).

학령기 청소년이지만 중급 수준 이상의 문해교육이 필요한 학습자층이 존재하고 그 수요를 학교 밖에서 충족시켜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바로 고교학점제이다.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학교 밖 국어교실과 같은 형태를 통해 국립국어원이 직업계 고등학생들의 문해교육 수요를 해결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직업교육에서 필요한 문해교육을 제공하고자 할 때 그 전달체계와 더불어 학습 유인 장치로서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기업직업훈련카드’와 같은 바우처 제도와 기존의 평생교육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제안되었다.

전달체계와 관련된 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일회성으로 가면 안 되겠고 그거를 할 때 저

희가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바우처 계속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부와 고용부가 통합적으로] 바우처와 관련된 부분을 같이 좀 제시하면 단기간에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 아니라 본인이 희망하는 정도까지 지속해서 운영될 수 있고 그 부분에는 평생 교육시설이나 기관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조금 과하지만 제가 그런 범위를 넓혀서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 국책 연구 기관, K, 직업교육).

셋째, 문해 학습 성과에 대한 인증 체계 도입이 필요하다. 직업교육 분야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데에 있어 그 결과의 활용에 대한 부분은 교육 프로그램의 목적으로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 즉 직업교육 분야에서는 외재적 동기가 학습 참여의 큰 유인책이 될 수 있으며, 시간과 노력의 기회비용이라는 측면에서도 학습 결과가 인정되고 인증되지 않는다면 학습 참여를 끌어내기 힘든 측면이 분명히 존재한다. 따라서 직업교육의 하나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한다면 그 학습 결과를 인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인증제는 반드시 가면 좋겠다. 왜냐면 고교학점제로 했을 때 학점을 밖에서 뭔가 들었는데 학교 내부에서의 학점 플러스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에서 인증받을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봐주시면 더 학교가 접근하기가 더 좋겠다는 생각이구요(‘마’ 국책 연구 기관, K, 직업교육).

이 부분은 비단 고교학점제와의 연계에서뿐만 아니라 직무교육, 직업 연수 교육에서도 유효한 지적이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운영하는 학점은행제나 평생학습계좌제 등과도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다.

넷째, 유관 기관과의 연계협력의 필요성이다. 직업교육과 관련하여 강조된 부분 중 하나가 타 기관과의 연계와 협력이다. 우선, 문해교육 프로그램 혹은 진단 프로그램 제작 시, 한국형 국가 역량 체계(Korean Qualifications Framework, 이하 KQF)와의 연계이다.

문해교육 나중에 만들 때 참고하실 그 수준은 KQF 수준으로 보시는 게... NCS도 마찬가지로 8수준이고 이 KQF도 마찬가지로 다 8수준이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거예요. 뭔가 이게 가이드라인 기준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걸 갖고 이제 상황에 맞게끔 수정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사’ 공공기관, P, 직업교육).

한국폴리텍대학의 경우 외부 업체와의 연계를 통해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

으며, 담당자는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전통적이지 않은 방식의 문해교육 프로그램 제공의 가능성을 언급하였다.

폴리텍대 캠프라고 해서 비교과에 [있어요]. 외부 업체가 들어와서 외부 업체가 캠프처럼 그렇게 하기는 해요. 점수도 있고 인센티브도 있긴 있는데 2박 3일 동안 집중 이렇게 해 가지고 하기는 하거든요. 도움이 [되기는 해요](‘가’ 대학, M, 직업교육).

연계 협력은 교육 운영뿐만 아니라, 개발단계에서도 필요하며 가능하다.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한 직업교육 전문가가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과정을 제공하고 있는 한 국산업인력공단 등과의 협력을 통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지적하였다.

[NCS 직업기초능력 관련] 개편 연구를 다시 시작했는데 아까 예산 얘기를 한 이유는 이것도 NCS처럼 이게 업데이트가 돼야 하거든요. 이게 행정력이 따라가야 이게 살아있는 뭐랄까 교재라고 할까? 이 콘텐츠로서도 생명력이 있는데 자꾸 연구물로 끝내버리면 그냥 보고서가 이렇게 묻히고 그래요. 이번에 어찌 됐든 예산이 잘 되면 내년에 의사소통능력 업데이트할 때는 분명히 국립국어원하고 소통이 되면 훨씬 더 전문가들을 모시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사’ 공공기관, P, 직업교육).

2.5.2. 문해력 진단 평가 체제 구축

개인의 필요에 알맞은 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서, 선결되어야 하는 것은 정확한 진단이다. 국립국어원이 주축이 되어, 기존 진단 및 조사 체제를 단계적으로 통합해나가고 접근성을 높인다면, 효과적인 문해교육 지원 정책의 실행이 가능할 것이다.

□ 문해력 진단과 조사 기반 정책 방향: 연계성

문해교육 지원 정책은 문해력 진단과 평가와 연결될 필요가 있었다. 성인 문해 전문가가 문해교육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읽기 자료 등을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문해 학습 성과를 질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보고 있었다. 특히나, 기초문해 수준이 아니라 다양한 배경을 가진 국민들이 참여할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할 때는 문해 수준과 요구에 부합하기 위한 진단과 평가 체제 구축이 중요할 것이다.

읽기 자료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연습 문제가 있어야 하지 않나요? 그냥 학습했는데 어떻게 평가할 건지 이렇게 봤을 때는 그것을 좀 추출하고 평가하는 시스템도 어떤 콘텐츠를 던졌다면가 주제를 던졌으면 거기에서 어떤 정도에 왔다고 상, 중, 하를 구분하든지 A, B, C, D까지를 하든지 했을 때...(중략)...여러 세대에 작동하게 되더라도 결국은 총체적으로는 이런 안에서 결국은 [문해교육 프로그램이] 작동되지 않을까...('나' 민간 교육기관, H, 성인 문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3년 주기로 통계청 승인 통계로 '성인 문해능력 조사'를 하고 있으나, 기초문해능력 중심의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일반 국민들의 수준별 문해력 파악은 어려운 실정이다(허준 외, 2023). 이런 맥락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해교육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평생교육 담당자는 일반 국민을 위한 문해력 조사를 기반으로 한 문해교육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었다. 문해교육 참여를 원하는 잠재적 학습자의 문해력 진단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세대, 직업군 등 다양한 집단의 요구에 부합하는 문해교육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도 문해력 조사 실행은 중요하다는 것이다. 또 다른 기초지자체 평생교육 담당자는 법제화를 통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문해력 조사가 강제되어야 한다는 적극적인 주장을 하기도 하였다.

일반 성인들도 개인의 문해력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진단을 꼭 한 번씩 해보야 하는 부분인 것 같아서 그게 전 국민이 할 수 없다면 이 연구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다른 연구에서 어느 정도 표준을 뽑아서 초등, 중등 그다음에 일반 성인 또 아니면 직업군에 따라 문해력을 한번 조사를 해보는 것도 저희 문해가 앞으로 갈 방향을 만들어주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나' 군청, R, 평생교육).

우리가 「평생교육법」에서 교육부 장관이 평생교육 사업 조사하고 그다음에 성과를 평가한 다음에 보고하도록 해놓은 것처럼, 문해에 관련된 것도 이렇게 좀 하나로 강제할 수 있는 방식이 같이 평가하고 같이 연결돼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가' 시청, Q, 평생교육).

□ 정책 수단: 대중 친화적 문해력 진단 앱 도입

문해력 진단 방식에 있어서 일상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모색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었다. 이는 문해교육에 관한 관심과 참여 저변을 넓히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앱 등을 활용해서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문해력 진단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 전문가는 IT기업과 연계하여 문해 진단 앱 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

법도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었다.

다양한 생활 속의 앱에 다양하게 들어가서 자주 접하게 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아까 10원 받기 하는 것처럼 내가 하루에 이 지금 우리 생활문해력에 관련된 테스트 퀴즈를 5개 맞추면 10원 받게 하는 거죠. 이제 그걸 접속할 수 있게 한다면 우리가 돈을 들이지 않아도 이런 토스나 카카오 같은 데에서는 접근성을 높이게 하기 위해서 충분히 협의를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가’ 시청, Q, 평생교육).

일상적으로 쉽게 접할 수 있는 문해력 진단 방법이 도입된다면, 개인 생활 맞춤형 문해력 진단도 가능해질 것이다. 예를 들어 문해력 진단이 은행 앱이나 쇼핑몰 앱, 또는 사회 연결망 서비스 앱과 연동이 된다면 사용자의 생활 패턴을 반영한 문항 설정도 가능할 것이다.

테스트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지고 계속 변형이 될 수 있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상황이나 지역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다르게 문항도 줄 수 있고 또 이게 이제 앱 설정이기 때문에 개인 베이스로도 다르게 나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앱으로 만약에 한다면 이제 은행 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의 생활 패턴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자동으로 문항 설정도 할 수 있을 겁니다(‘가’ 시청, Q, 평생교육).

2.5.3. 국민 문해교육 지원 서비스 요구: 개발과 확산

국민 문해력 향상을 위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함에 있어서, 국립국어원이 추가로 추진할 수 있는 국민 문해교육 지원 서비스에 대한 요구들이 있었다. 이 장에서는 국립국어원이 향후 추진할 수 있는 문해교육 지원 서비스를 ‘문해 콘텐츠의 개발과 보급’, ‘온라인 어휘 활용 서비스’, ‘온라인 어휘 교정 서비스’, ‘다양한 문해교육 방법론의 도입’, ‘유관 기관 연계 사업 기획과 운영’ 등으로 분석하였다.

□ 문해 콘텐츠의 개발과 보급

전문가들은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문해 콘텐츠 개발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기초문해 영역에서도 읽기 능력을 수준별로 향상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콘텐츠들이 사실 너무 부족”한 상태였다. 다양한 영역의 문해 콘텐츠의 개발과 보급은 기초문해 중심인 기존의 성인 문해교육 영역뿐만 아니라, 각 수준과 영역별 문해교육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이렇게 읽기를 주제로 접근을 할 거면 일단 재미있고 자기가 알아들어야 하는데 사실 그 좋은 자료들은 차고 넘치잖아요. 근데 쉬운 자료가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학력 트랙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기초 학습이 돼야 차근차근 올라가는데 그 기초 학습 소외된 교육 소외 계층들이 그 기초 학습을 채워내야 하는 콘텐츠들이 사실 너무 부족한데... ('다' 민간 교육 단체, I, 성인 문해).

국립국어원에서 개발하여 보급하는 문해 콘텐츠는 다양한 형식의 텍스트일 필요가 있었다. 국립국어원의 한 전문가는 “단순히 문자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기호나 이미지” 등 다양한 형식일 필요가 있다. 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다양한 디지털 기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과 보급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읽기라고 하면 저희가 당연히 굉장히 막 텍스트를 생각하는데 굉장히 좀 다양한 텍스트를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읽기라는 거는 단순히 문자뿐만 아니고 이제 여러 가지 기호나 이미지도 있을 거고 또 최근에 디지털 가면 또 더 많은 영향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굉장히 좀 다양하게 생각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다' 국어문화원, C).

□ 온라인 사전과 어휘 활용 서비스

전문가들은 어휘와 어문 규범 정책이 국립국어원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가장 선명한 영역이라고 보고 있었다. 국민의 문해력 향상을 위한 정책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기존의 정체성을 다른 영역까지 확장할 필요가 있으면서도, 어휘와 어문 규범 정책의 전문성을 고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었다. 그중 하나가 국민이 생활의 여러 장면에서 쉽게 어휘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제공하는 일이다. 이에 어휘 관련 교육이나 온라인 사전 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었다. 우선 우리말 순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순우리말 사전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다. 한자어나 외래어를 순우리말로 순화하고자 할 때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순우리말 같은 것을 좀 모아놓은 목록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수업하다 보면 국립국어원에서 나온 이렇게 좀 순화해서 써야 하는 한자어 목록이나 외래어 목록 같은 것을 이렇게 제시를 해주면 좋아하시더라고요('나' 국어문화원, B).

언어 순화의 목적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용어 사전에 대한 요구도 있었다.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 전문가는 문해력의 문제가 상호 소통을

어렵게 하는 ‘용어’의 문제에 있다고 보고 국민 각자가 어렵게 느끼는 용어를 분야별로 찾아볼 수 있는 사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었다. 이런 사전 서비스는 기초문해교육 교강사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었다.

우리가 생활에서 어문 규정이나 이 문해력 때문에 느끼는 거는 가장 대표적인 게 서로 대화할 때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잖아요...(중략)...순화하려고 하는 것이 중심이 아니라 시민들이 분야별 용어를 쉽게 찾아보고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걸로 언어생활을 도움을 줄 수 있게 하는 것이 있으며, 이것 자체가 아까 기초문해교육할 때 선생님들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해당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가’ 시청, Q, 평생교육).

국민의 소통 증진을 위한 온라인 어휘사전 서비스는 표준어, 관용구, 방언, 옛말, 신조어 등을 서로 변환해 주는 기능과 연동될 필요가 있었다. 이런 변환 기능은 일종의 우리말 번역기 기능을 의미한다. 예컨대, 표준어를 방언으로, 전라도 방언을 경상도 방언으로, 신조어를 옛말로 변환해 주는 기능을 활용한다면 단순히 방언이나 신조어 등을 순화시키기 위한 표준어 사전이 아니라 지역, 세대, 집단 사이의 소통 증진에 기여하는 사전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궁금해하는 단어나 아니면 궁금해하는 어떤 문장을 얘기했을 때 어떤 그런 관용구나 방언이나 아니면 옛날에 어떻게 그런 이제 그 상황과 적절한 옛말은 어떻게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약간의 그런 번역기처럼 아마 국립국어원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만 잘 지금 가지고 있는 데이터만으로도 어느 정도 잘 로직만 만들면 그 정도의 어떤 앱이나 이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그게 이제 일상에서 내가 궁금할 때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라’ 시청, T, 평생교육).

국립국어원은 어휘와 어문 규범 문제뿐만 아니라 국민이 세련된 글쓰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를 운영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 기초지자체 평생교육 전문가는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맥락에 따라 글을 교정하거나 적합한 글을 추천해 주는 서비스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한다. 예컨대 동일한 문장이라고 하더라도 친구에게 쓰는 문장, 격식 있는 문장 등으로 변환해 주는 서비스를 통해 사용자들이 다양한 형식의 문장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었다.

똑같은 문장을 썼을 때 이게 친구들끼리 하는 표현으로 바뀌주든가 아니면 굉장히 공손한 표현으로 바뀌주든가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되게 도움을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영어를 굉장히 못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식의 저런 식의 표현을 배우고 싶고,

저 말이 이런 뜻인가 저런 뜻인가 이렇게 이해할 때 굉장히 잘 도움을 받는 것들이예요
(‘가’ 시청, Q, 평생교육).

온라인 용어 사전 서비스, 언어 교정 서비스와 함께 전문 용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특히, 기초지자체 평생교육 전문가는 공무원 교육에 용어 교육의 수요가 높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어순의 배열, 용어 활용 방법, 전문 용어 변환 등의 교육은, 지금까지 이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없는 공무원의 호응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어떤 어순의 배열이나 아니면 어떤 상황에 따라서 용어를 이렇게 잘 사용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은 전문적으로 배워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교육이 있으면 저는 정말 듣고 싶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고요. 그래서 공무원 대상으로 지금 이제 하는 그런 전문 용어에 대한 변환이나 이런 전반적인 교육을 하면은 그 수요가 굉장히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라’ 시청, T, 평생교육).

어휘사전에 대한 요구는 직업교육 전문가들도 강조하고 있다. 직업교육 측면에서 드러난 문해교육에 대한 수요에는 어휘 정리와 사전 제작에 대한 부분이 있었다. 우리나라 직업사전은 외국의 것을 번역하여 도입한 것으로 직업군을 분류해둔 것에 지나지 않으며, 그나마도 “보통 한 5~6년 7년 이런데 이제 매년 이렇게 산업별로 접근”하는 상황이다. 특정 직무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기초 및 전문 용어들을 망라한 직무사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하나를 제안을 드리면 직업 사전은 지금 있고요. 직무 사전과 관련된 부분이 직무 용어 사전 지금 말씀하셨던 OJT(on the job training, 현장 교육)를 하려면 용어 자체가 막 이제 혼용해서 쓰는 경우도 많이 있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이 이제 직업훈련 사전이라든지 그거는 고용부에서 조금 만들어서 하는 게 있거든 직업교육에서도 만들려고 하다가 한 번 정도만 하고 그다음에는 업데이트가 안 되는 상황이고요. 직업훈련 쪽도 아마 거의 비슷한 상황일 거라고 생각해서 그게 만들어지면 두 가지 측면에서 좋은 게 있을 것 같아요. OJT에서의 용어와 관련된 문해교육과 관련된 부분으로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직업계 고등학교에서 교과서 교육과정이나 교과서를 개발할 때 또는 더 나아가서 대학에서의 교재 활용할 때도 그 작업 사전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줄 수 있겠다. 그런 맥락에서 국립국어원이 잘할 수 있는 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매년 일정 주기로 개정해 주면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마’ 국책 연구 기관, K, 직업교육).

또한, 폴리텍대나 전문대학교와 같이 이직이나 전직을 위해 직장생활을 하다가 학

교로 재진입한 경우에도 관련 분야에 대한 기초 어휘 부족이 진입장벽으로 지적되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구조적인 시스템이 관련 기관에 부재하다는 부분 역시 지적되었다.

직업의 기술을 높이기 위해서 업 스킬이나 리스킬 교육 재직자든 현업에 있는 사람이든 진입하려고 하는 사람이든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교육이 전무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졸자가 인문계 출신이 예를 들면 인문계를 졸업한 학생이 와서 예를 들면 데이터시스템과에 들어와서 코딩하고 프로그램 짜고 이런 거를 배우는 거예요. 자기가 문과의 베이스를 갖고 있다가 오면 막 코딩이나 프로그램 용어 이런 것들이 자기는 다 생소한데 대졸자들이 와서 그거를 수준을 다 맞출 수가 없으니까 기초적인 이해력 정도를 가지고 자기가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청나게 10개월 동안 혼자 자기가 해야 하는 거죠(‘가’ 대학, M, 직업교육).

이런 수요를 해결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로서 직무사전 제작에 대한 요구가 지적되었으며, 이 부분 역시 직업교육 분야에서 기초 및 전문 어휘 학습이라는 측면에서 문해교육에 대한 요구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직무사전과 같이 변동성이 높은 영역은 위키피디아 방식의 일반인 참여 방법에 대한 제안도 제시되었다. 이전 시대보다 훨씬 더 빠르게 산업현장이 변화하는 지금, 새로운 사전 제작 방향으로서 국립국어원이 직무사전을 위한 플랫폼을 제공하고 개개인의 기여로 만들어진 사전의 내용을 국어원이 검증하거나 사전의 정의에 맞게 수정하는 정도의 관리시스템을 제공해주는 위키피디아 모델과 같은 방식이 검토 가능하다는 것이다.

사전을 만들지는 않더라도 사전을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 그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합니다...(중략)...저는 위키피디아를 하나 만들어야 한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해당하는 업종별 협회나 그런 데서 관련된 부분을 올리게 하고 다만 이게 제대로 된 부분이나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해서 그 국어 차원에서의 검증도 될 수 있지만 내용과 관련된 부분도 해주게 되면 활용도는 굉장히 높게 된다는 거를 좀 말씀드리려고요(‘마’ 정책 연구 기관, K, 직업교육).

이처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일반인 기반 공동 생산방식(common-based peer production, CBPP)’을 직업교육을 위한 어휘, 직업 세계 문법 학습을 위한 장치로 활용하는 학습 전달 장치에 대한 고민과 가능성도 언급되었다. 즉, 학습자와 교수자 간의 직접적 상호작용을 전제로 하는 전통적 교수학습 체제가 아니더라도 인터넷이라

는 기반을 바탕으로 각 직업 세계에서 요구되는 어휘, 문법 체계 등에 대한 학습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국어원이 제공해주고 ‘국어’와 관련된 정비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국립국어원 어휘사전을 직업교육 등 부문별로 확장해 나간다면, 국민의 실수요에 부응하는 핵심 서비스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제 플랫폼으로서 위키피디아처럼 뭔가 어휘와 관련된 게 만들어진다고 그러면 가르치는 사람은 내용을 가르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절한 상황과 그런 조건이나 그런 거를 통해서 자기가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쪽으로의 교육이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머릿속에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분들이 국문학자이신 분들이 과연 어떻게 이 학습자한테 뭔가를 줄 수 있는가를 보면 ...(중략)...어떤 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그 질문이 적절한지와 관련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얘기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마’ 국책 연구 기관, K, 직업교육).

□ 참여적 문해교육 방법의 지원

다양한 성인이 참여하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학습자 참여적인 방법론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첫 번째 고려할 수 있는 것은 쓰거나 글의 구성 학습을 통한 읽기 능력 향상 노력이다. 한 국어문화원의 전문가는 문장 구조 이해를 위한 방법으로 ‘단락 배열’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였는데, 정보 습득 속도와 이해력 향상에 만족도가 높았다고 말하고 있다. 수동적인 읽기를 넘어 적극적인 글의 구성과 쓰기 활동에 참여시킴으로써 문해력 향상에 기여한 사례라고 할 수 있었다.

최근에 저희가 공무원 교육하면서 도입했던 방법의 하나인데요...(중략)...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일단 교육 수준도 되게 높고 한데도 이 단락의 배열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문해력이 차이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빨리 그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는 속도라든가 이해력의 차이가 있어서 이제 그 교육도 굉장히 만족도가 좋았어요(‘나’ 국어문화원, B).

학습자 참여형 문해교육은 워크숍이나 동아리 등의 형식을 취할 수도 있을 것이다. 광역지자체에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는 한 전문가는 진로 탐색 분야에서 워크숍 형식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는 문해교육에도 접목할 수 있는 방법일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소집단의 워크숍을 만들고 준전문가를 촉진자(퍼실리테이터 또는 모더레이터)로 두어 참여자들의 직업전환 탐색을 주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이다. 학습자의 자기 주도성을 높여 참여 의지와 동기 수준을 높이는 방법으로 문해교육 프로그램에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실제 이 전문

가는 글쓰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습자들의 동아리 결성 요구도가 높다고 말하고 있다. 워크숍이나 동아리 지원 등으로 기존의 강의 중심의 문해교육 방법을 확장함으로써 학습자 참여적 문해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다.

워크숍을 그룹을 만들고 동일한 관심사들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 그룹을 만들고 거기에 퍼실[촉진자]들을... 이제 준전문가 아주 전문가면 안 되고 약간 먼저 해본 사람들을 이제 퍼실로 붙여서 컨설팅이나 이제 워크숍 리더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서 사실 저희가 하고는 있거든요. 문해교육은 아닌데 그냥 직업 탐색 직업전환을 위한 탐색 과정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는 하는 게 있고요. 미래 시민 연구단도 워크숍 형태로는 하고 있어요...(중략)...글쓰기 강좌 같은 거 듣고 나서 동아리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오늘 오전 수업에 이제 그런 게 있었는데 절반 이상은 더 하고 싶다. 그런 커뮤니티 활동을 하고 싶다('마' 평생교육진흥원, U, 세대교육).

□ 유관 기관과의 연계 사업 기획과 운영

전문가들은 국립국어원의 문해교육 정책의 확장과 다양화를 위해서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 등 관련 분야와 연계한 사업 기획과 운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예를 들어 생활문해적인 요소의 확장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학교, 기업 등과의 연계가 가능할 것이다.

먼저, 금융문해, 디지털문해, 건강문해 등 앞서 살펴보았던 확장된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유관 기관과 연계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공동 기획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금융문해는 금융감독원이나 은행과 연계하여 관련 프로그램을 공동 기획하여 운영하거나, 금융 용어 사전 등을 공동 개발하여 서비스할 수 있을 것이다. 금융문해력 진단 문항과 진단시스템도 공동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건강문해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미디어문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나 방송국, 직업교육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나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연계하여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하거나 관련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언어생활 쪽으로 하나 갈 수 있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제 생활문해에서의 문해력 유형 나와 있는 걸로 그걸 이제 국립국어원에서만이 할 수 있는 것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 기관에서 컬래버 한다면 패키지가 만들어지면 그것 자체가 아까 제가 제안했던 여러 가지 데이터를 확보한 거를 활용한 다음에 그거를 재가공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가' 시청, Q, 평생교육).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과 연계한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공동 개발과 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다. 이미 국어문화원을 중심으로 공무원을 위한 다양한 읽기와 쓰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확장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 담당자는 공무원의 법정 교육으로서 문해교육을 의무화하고 문해력 진단과 연계하여 분기나 연 단위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었다.

전 국민 대상으로 진행하는 게 어렵다면 일단 공공기관에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공무원 대상으로 우선 법정 의무 교육처럼 이렇게 국민 문해력 진단 키트나 아니면 어떤 문항들을 분기별이나 아니면 연 단위로 이렇게 실행하면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를 한번 내보고 싶습니다(‘다’ 평생교육진흥원, S, 평생교육).

또한,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과 연계하여 시민 대상의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 담당자는 국립국어원과 연계할 수 있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으로서 패키지형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있었다. 환경교육이나 법률교육을 예로 들면서, 국립국어원이 문해교육 강사진까지 포함하여 세부적인 교육 내용을 담은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한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국립국어원과 국어문화원의 자원과 전문가 네트워크를 활용한다면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공기관, 기업체, 학교 등에서 필요로 하는 문해교육 프로그램 패키지 지원이 가능할 것이다.

국가 단위에서 환경교육이나 아니면 법률교육이나 변호사협회랑 연결된 법률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중앙 단위에서 세팅을 다 해가 지고 굉장히 다양한 주제와 거기에서 운영할 강사들을 다 세팅을 해놓은 상태에서 우리 지역에다가 공문을 보내거든요. 그러면서 저희가 내는 비용은 이제 프로그램을 돌리되 저희가 내는 비용은 이제 이제 변호사들이 다 이렇게 세팅이 돼 있더라고요(‘라’ 시청, T, 평생교육).

이와 같은 문해교육 프로그램 패키지 개발과 제안의 방식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체 등과의 공동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형식도 가능할 것이다. 광역시도의 평생교육기관은 실제로 다양한 공공기관과의 호의적인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공동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문해교육 프로그램 분야에서 국립국어원은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과 공동 기획자, 개발자 또는 운영자로서 해야 할 역할이 가능할 것이다.

저희 학습자들에 좀 적합하게 몇 차례의 기획 회의를 거친 후에 그 프로그램을 여기에 이제 저희 캠퍼스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 파트너들을 지금 서울시 관내에 여러 가지 파트너들하고 하듯이 똑같이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이제 항상 전년도에 예산 책정하기 전에 이제 그게 들어와서 협의가 되고 그거를 이제 또 이런저런 또 시정에 또 맞는지 또 이런저런 검토도 좀 거쳐보고 해서 하는 거는 충분히 가능한데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한 규모나 이런 거는 이제 그 과정에서 정해 지고요(‘마’ 평생교육진흥원, U, 세대교육).

3. 시사점

문해교육 전문가들의 목소리는 ‘문해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얼마나 넓은 의미가 담길 수 있는지를 확인해주었다. 또한 동시에 그 의미에 비하여 실제 문해교육 현장은 여전히 취약하다는 것도 보여주었다. 문해교육이 도달해야 할 목적지와 현재 모습과의 간극은 국립국어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는 반증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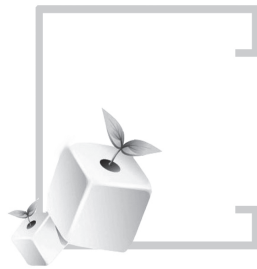
앞선 분석 결과는 국립국어원이 문해교육의 중심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몇 가지 시사점을 던져 준다.

첫째로, 국립국어원은 문해교육에서 제도와 정책 ‘연계의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 현재 문해교육은 추진 주체와 부처, 제도, 세대별로 분절되어 있다. 이렇게 분리된 문해교육을 국립국어원이 가진 전문성을 기반으로 제도와 교육의 연계를 추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학교와 학교 밖, 교육부-고용노동부-과기정통부 등으로 나뉘어 있는 문해교육을 관통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의 틀을 갖추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문해 진단과 평가, 그리고 호환할 수 있는 교육과정과 인증 체계의 도입은 정책 연계의 효과적인 매개가 될 것이다.

둘째로, 국립국어원은 ‘문해의 최전선’에 서 있어야 한다. 문해교육은 본질적으로 사회 변화에 대응하여 지속적인 변화 갱신이 필요하다. 문해교육을 구성하는 내용과 방법의 지속적인 갱신을 위해서는 가장 선도적으로 문해교육을 이끌어가는 주체가 필요하며, 국립국어원이 중심이 될 필요가 있다. 어휘사전 구축과 변화에 조응하는 새로운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제공은 문해교육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로, 국립국어원은 문해 ‘교육의 인프라’를 제공하여야 한다.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교육과정과 학습자 특성에 맞는 교재와 교수법의 개발이 필수적이다. 국립국어원이 중심이 되어, 내용과 방법을 직접 개발하는 데에서 나아가 유관 분야에서 개발된 성과를 연결하고 공유 및 확산할 수 있는 문해교육 플랫폼을 도입한다면 문해교육의 인프라는 더욱 강화될 것이다.

문해교육에 대한 요구가 복합적이고, 층위가 다양할수록 확실한 중심축은 더욱 긴요하다. 국립국어원을 중축으로 문해교육의 재편이 이루어질 때, 우리 사회는 또 다른 진전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제5 장

국민 문해교육 체제 개념 구성(안)



1. 국민을 위한 문해교육 프로그램 체제(안)

1.1. 개요

국민을 위한 문해교육 프로그램 체제를 구성하기 위해 본 연구진은 지금까지 문해 개념과 현황, 그리고 전문가 수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해교육 프로그램 체제 개념 구성안을 마련하고 전문가 타당화를 거친 후 수정 보완하여 최종안을 확정하였다. 그리고 최종안을 바탕으로 문해교육 프로그램 시안을 개발하였다. 국민을 위한 문해교육 프로그램 체제 안을 구성하는 과정은 [그림 V-1]과 같다.



[그림 V-1] 문해교육 프로그램 체제 개념 구성 단계

1.2. 개념 구성안

1.2.1. 구성요소

문해교육 체제 개념 구성을 위한 요소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였다. 첫 번째는 확장성이다. 국립국어원의 문해교육 체제는 전통적인 읽기 영역을 포함하여, 문해 활동이 이루어지는 생활영역과 문서 양식에 있어서 확장된 읽기 영역을 주제로 한다. 생활영역은 개인의 일상생활과 학습생활, 그리고 직업생활을 포함하며, 문해 양식은 산문 양식, 문서 양식, 혼합 양식, 복합 양식 등을 포괄한다. 두 번째는 연계성이다. 국립국어원의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주체는 국립국어원과 국어문화원을 중심으로 하되, 주제와 대상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파트너십 구축을 전제로 한다. 예를 들어 직업교육 영역은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연계하고, 평생교육 영역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과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세 번째는 전문화이다. 국립국어원의 문해교육 체제는 교원 양성 체제까지 포괄하여 설계한다. 이때 교원은 국어문화원의 박사급 전문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문해교육 관련 전문인력인 문해교원, 한국어강사 등의 전문성 향상과 활용 계획을 포함한다. 네 번째는 생애 맞춤형이다. 국립국

어원의 문해교육 체제는 생애 단계별 학습자의 요구를 고려한다. 의무교육 이후의 청소년, 성인들의 문해력 향상 요구에 부합하고, 각 집단의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체계를 설계한다.

문해교육 체제의 확장성, 연계성, 전문화, 생애 맞춤형의 네 가지 방향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국립국어원의 문해교육 체제의 개념을 구성하는 데 문해 생활 맥락, 문해교육의 목표, 문해 기능, 문해 실천이 이루어지는 텍스트 양식, 그리고 문해 학습자 등 다섯 가지 요소를 고려하였다.

구성 요소별로 살펴보면 먼저 문해 생활 맥락은 개인생활, 학습생활, 직업생활로 구성하며 각각의 의미는 <표 V-1>과 같다.

<표 V-1> 문해교육 체제 개념 구성 요소 - 맥락

항목	구성요소 및 설명
문해 생활 맥락	(개인생활 맥락) 개인생활 영역은 개인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영역으로, 일상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휘와 어법의 활용, 정보의 탐색과 확인, 정보의 통합과 해석, 정보의 분석과 평가 등의 읽기 활동이 이루어지는 영역이다. 개인생활은 생활의 장면에 따라 여가생활, 공공생활, 미디어생활, 경제생활 등으로 구성된다. 확장된 문해 실천으로서 미디어문해, 디지털문해, 건강문해, 금융문해 등과도 연결된다.
	(학습생활 맥락) 학습생활 영역은 학교나 평생교육 영역에서 요구되는 학습 역량의 바탕이 되는 어휘와 어법의 활용, 정보의 탐색과 확인, 정보의 통합과 해석, 정보의 분석과 평가 등의 읽기 활동이 이루어지는 영역이다. 학습생활이 이루어지는 맥락으로서 핵심 공간은 생애 단계에 따라 전문계고, 전문대, 대학, 평생교육기관 등 다양하게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전문가의 문해교육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학습생활’의 맥락에 포함한다.
	(직업생활 맥락) 직업생활 영역은 직업 준비, 직무수행, 경로 전환 등 직업교육 영역에서 요구되는 어휘와 어법의 활용, 정보의 탐색과 확인, 정보의 통합과 해석, 정보의 분석과 평가 등의 읽기 활동이 이루어지는 영역이다. 직업생활에서 이루어지는 문해교육의 목적에 따라 직업생활 맥락은 일터를 중심으로 형성된다.

두 번째, 문해교육의 목표는 문해 생활 맥락에 따라 개인생활을 문화인과 생활인으로 세분하여 문화인으로서 교양 있는 삶의 영위, 생활인으로서 일상의 문제 해결, 직업인으로서 기초 역량 강화, 평생학습자로서 학습 능력 강화 등의 네 가지로 구성하며 각각의 의미는 <표 V-2>와 같다.

<표 V-2> 문해교육 체제 개념 구성 요소 - 문해교육 목표

항목	구성요소 및 설명
문해 교육 목표	(문화인으로서 교양 있는 삶의 영위) 문화인으로서 교양 있는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어휘와 어법, 정보의 탐색과 확인, 정보의 통합과 해석, 정보의 분석과 평가 등의 문해력을 갖춘다.
	(생활인으로서 일상의 문제 해결) 개인의 일상의 문제를 원활히 해결하고 소통하는 시민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실용적인 어휘와 어법, 정보의 탐색과 확인, 정보의 통합과 해석, 정보의 분석과 평가 등의 문해력을 갖춘다.
	(직업인으로서 기초 역량 강화) 유능한 직업인으로서 직업 준비, 직무수행, 경로 전환 등 기본적인 직업 역량을 발휘하는 데 필요한 어휘와 어법, 정보의 탐색과 확인, 정보의 통합과 해석, 정보의 분석과 평가 등의 문해력을 갖춘다.
	(평생학습자로서 학습 능력 강화) 학교,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주체적인 학습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어휘와 어법, 정보의 탐색과 확인, 정보의 통합과 해석, 정보의 분석과 평가 등의 문해력을 갖춘다.

세 번째, 문해 기능은 읽기 능력에 초점을 맞추어 어휘와 어법 이해, 정보의 탐색과 확인, 정보의 통합과 해석, 자료의 분석과 평가, 자료의 감상과 적용, 지식과 정보의 생산 등 여섯 가지로 구성하여 각각의 의미는 <표 V-3>과 같다.

<표 V-3> 문해교육 체제 개념 구성 요소 - 문해 기능

항목	구성요소 및 설명
문해 기능	(어휘와 어법 이해) 맥락에 따라 필요한 다양하고 풍부한 어휘 이해 및 습득, 정확한 어휘와 어법의 활용, (소통을 위한) 적절한 어휘와 어법의 활용을 구성
	(정보의 탐색과 확인) 핵심어 또는 화제 파악, 중심 내용 및 세부 내용의 구분, 정보의 요약, 논지 및 전개 구조 파악
	(정보의 통합과 해석) 숨겨진 주장, 주제, 생략된 정보의 추론, 함축적 의미의 해석, 필자의 의도, 글 또는 자료의 관점, 글 또는 자료에 전제된 사회문화적 배경 추론
	(자료의 분석과 평가) 내용이나 주장의 타당성 평가, 자료 또는 출처의 신뢰성 평가, 필자 관점의 공정성 평가, 표현 및 어휘 사용의 적절성과 효과 평가
	(자료의 감상과 적용) 글 또는 자료의 감상과 공감, 즐거움과 깨달음의 내면화와 성찰, 지식과 정보를 삶의 문제에 적용
	(지식과 정보의 생산) 쓰기 목적과 과제 맥락을 고려한 정보의 재구성과 창의적 생산

네 번째, 문해교육 체제에서 텍스트 양식은 산문, 문서, 혼합, 복합 양식 등의 네 가지로 구성하였으며 각각의 의미는 <표 V-4>와 같다.

<표 V-4> 문해교육 체제 개념 구성 요소 -문해 텍스트 양식

항목	구성요소 및 설명
문해 텍스트 양식	(산문(prose) 텍스트) 서사, 논증, 기술 등으로 목적으로 작성된 일반적인 산문 텍스트.
	(문서(documents) 텍스트) 일상, 직장, 공공기관 등 다양한 생활영역에서 표, 목록, 그래프 등을 활용하여 작성한 문서 텍스트
	(혼합 텍스트) 산문, 인터넷 자료 등 단일 텍스트가 아닌 정보 통합적 구성이 요구되는 다문 거 텍스트
	(복합 양식(multimodal) 텍스트) 문자, 음성, 시각이미지, 동영상 등 다양한 언어와 기호가 통합적으로 결합되어 의미를 구성하는 텍스트

다섯 번째, 문해교육 체제 개념 구성 요소로서 문해 학습자는 청소년 학습자, 청장년 학습자, 중년 학습자, 노년 학습자 등의 네 가지로 구성하였으며 각각의 의미는 <표 V-5>와 같다.

<표 V-5> 문해교육 체제 개념 구성 요소 -문해 학습자

항목	구성요소 및 설명
문해 학습 자 유형	(청소년 학습자) 16세 이상 24세 미만의 청소년 학습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생활 - 교양인으로서 읽기, 시민적 소통 등 • 학습생활 - 고등학교, 대안학교, 대학 등에서의 학습 역량 • 직업생활 - 기초직업역량 등 직업 준비 관련 문해력
	(청장년 학습자) 25세 이상 44세 미만의 청장년 학습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생활 - 교양인으로서 읽기, 시민적 소통, 금융문해 등 • 학습생활 - 대학, 평생교육에서의 학습 역량 • 직업생활 - 직무수행, 직업전환 관련 문해력
	(중년 학습자) 45세 이상 65세 미만의 중년 학습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생활 - 교양인으로서 읽기, 시민적 소통, 미디어 & 디지털문해 등 • 학습생활 - 평생교육에서의 학습역량 • 직업생활 - 직무수행, 직업전환 관련 문해력
	(노년 학습자) 65세 이상의 노년 학습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생활 - 시민적 소통, 미디어 & 디지털문해, 건강문해 등 • 학습생활 - 평생교육에서의 학습역량 • 직업생활 - 노인 경제활동과 관련한 신 직업기초역량 등

1.2.2. 핵심 개념

본 연구에서는 국립국어원의 문해교육 체제 개념 구성 요소에 대한 설정을 통해 문해교육 등 관련 개념들을 정의하였다. 먼저, 문해교육은 앞서 살펴보았던 문해 학습자, 문해 맥락, 기능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문해교육)

16세 이상 청소년과 성인들이 개인생활, 학습생활, 직업생활 등의 삶의 영역에서 올바르게 적합한 어휘와 어법을 구사하고, 산문과 문서 등 다양한 양식의 정보 탐색과 확인, 통합과 해석, 분석과 평가, 감상과 적용을 할 수 있는 문해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직화된 프로그램.

문해교육 정의에서 ‘16세 이상 청소년 성인’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한 문해 학습자를 다음과 같이 두 가지 관점에서 정의할 수 있다. 하나는 연령에 따른 정의이며 두 번째는 문해교육 요구에 따른 정의이다.

(문해 학습자)

- 의무교육을 마친 16세 이상의 청소년과 성인 : 의무교육 이상 수준의 문해능력을 요구하는 사람
- 일상생활, 학습생활, 직업생활 등의 상황의 문제 해결을 위한 문해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람

본 연구에서는 국립국어원 문해교육의 실행 주체로서 문해교육 기관은 다음과 같다.

(문해교육 기관)

- 국립국어원 : 국립국어원이 일차적 문해 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한다. 국립국어원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물적, 인적 토대를 기반으로 대면, 비대면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전국 수준의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기획, 실행하며, 특히 문해교육 전문가 양성에 집중한 프로그램 운영 체제를 갖는다.
- 국어문화원 : 「국어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국어문화원이 지역 단위의 핵심 문해 교육

기관으로서 역할을 한다. 국어문화원의 국어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 단위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 주민의 생애 단계별 문해교육 시행의 주체로서 역할을 한다.

- 학교 : 고등학교, 전문대학, 산업대학, 폴리텍대, 대학 등이 중요 문해교육 기관으로서 역할을 한다. 고등학교는 자유학기제 등을 통해 고등학생들의 전문 문해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주체가 된다. 전문대학과 대학은 교양, 전공, 비교과교육과정 등을 통해 문해 관련 강좌를 운영함으로써 대학생들의 문해력 향상을 위한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주체로서 역할을 한다.
- 평생교육기관 : 지역사회에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평생교육기관들도 문해교육의 핵심 주체가 된다.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시군구 등이 운영하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야학, 복지관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특히, 기초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문해교육기관들과의 프로그램 연계를 모색한다.

2. 개념 구성안 전문가 타당화

2.1. 개요

국민을 위한 문해교육 체제 개념 및 구성요소(안)의 타당화를 검증하고 국민 문해력 교육 프로그램 주제 발굴을 위하여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연구진의 협의와 상호 토론을 통한 방법으로 제작하였으며, 문해교육 관련 개념과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다음의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첫 번째는 문해교육 체제 개념 구성 요소 검토이다. 문해교육 체제의 기본 방향, 문해 맥락, 문해교육 목표, 문해 기능, 텍스트 양식, 학습자 유형, 문해교육 정의로 질문을 구성하였다. 두 번째는 국민 문해력 교육 프로그램 주제 아이디어이다. 전문가들이 문해 목표에 따라(문화인, 생활인, 직업인, 평생학습자) 문해력 교육 프로그램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질문을 제시하였다.

문해교육 체제 개념안 타당화를 위한 전문가 조사에는 총 29명의 전문가가 참여하였다. 조사 참여자는 국어학, 국어교육, 독서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교육, 평생교육, 미디어교육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하였다. 조사는 한글 문서로 작성된 파일을 이메일로 배포하여 회수는 등 온라인 설문조사의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심층 면담에 참여하였거나 관련 분야 전문가를 추천받아 총 35명에게 발송하였고 29명(응답률 82.6%)이 응답하였다.

<표 V-6> 전문가 타당화 설문조사 참여자 (29명)

구분	성명	소속 및 직위	
국어문화원 (6명)	서현정	세종국어문화원	책임연구원
	안미애	경북대학교 국어문화원	부원장
	김선영	이화여자대학교 국어문화원	책임연구원
	이화영	전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책임연구원
	정인환	국어문화원연합회	부장
	심유경	이화여자대학교 국어문화원	책임연구원
국어교육 (독서교육 포함) (5명)	정옥년	가톨릭대학교	교수
	임성미	가톨릭대학교	겸임교수
	김남희	한남대학교	교수
	권우진	한양대학교	강사
	허모아	서울대학교	연구원
성인 문해 (4명)	김인숙	전국문해교육협의회	회장
	박영도	수원제일평생학교	교장
	부은희	청소년과 나란히	대표
	전은경	온평생교육연구소	대표
직업교육 (4명)	위영은	한국폴리텍	교수
	박동열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가열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
	김진실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직무능력표준원	원장
평생교육 (세대교육 포함) (8명)	이경아	서울평생교육진흥원	국장
	김호석	고양시청	전문위원
	안현숙	수성미래교육재단	팀장
	양은아	나사렛대학교	교수
	노일경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책임연구원
	정혜령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책임연구원
	박소연	안양대학교	교수
	김광선	거창군청	평생교육사
미디어교육 (2명)	김아미	한국복앤리터러시연구소	연구위원
	옥현진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2.2. 조사 결과

2.2.1. 개념 구성요소

본 연구에서 제시한 국민 문해교육 체제의 개념적 구성요소의 타당성을 살펴본 결과는 <표 V-7>에서 <표 V-19>까지와 같다. 방향, 맥락, 목표, 문해기능, 문해 텍스트 양식, 문해 학습자 유형 등 6가지 항목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평균이 최소 4.185

(방향-전문화)에서 최대 4.889(문해 텍스트 양식-문서 텍스트)로 나타났고, CVR 지수의 기준값인 0.31을 넘어(Lawshe, 1975), 전문가들은 전반적으로 구성요소들의 타당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항목별로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민 문해교육 체제의 첫 번째 구성요소인 ‘방향’의 경우, ‘연계성’에 대해 전문가들이 모두 타당하다는 일치 의견을 제시한 가운데, 상대적으로 ‘전문화’에 대한 평균, CVR 값이 낮은 편이었고 표준편차를 크게 나타나 전문가들 간 의견이 다소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7> 국민 문해교육 체제의 개념적 구성요소의 타당도(방향)

항목	구성요소 및 설명	타당도		
		평균(점)	표준편차	CVR
방향	(확장성) 전통적인 읽기 영역을 포함하여, 문해 활동이 이루어지는 생활영역과 문서 양식에 있어서 확장된 읽기 영역을 주제로 한다. 생활영역은 개인의 일상생활과 학습생활, 그리고 직업생활을 포함하며, 문해 양식은 산문 양식, 문서 양식, 혼합 양식, 복합 양식 등을 포괄한다.	4.519	0.753	0.704
	(연계성) 국민을 위한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주체는 국립국어원과 국어문화원을 중심으로 하되, 주제와 대상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파트너십 구축을 전제로 한다. 예를 들어 직업교육 영역은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연계하고, 평생교육 영역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과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4.519	0.509	1.000
	(전문화) 확장형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교원 양성 체제까지 포괄하여 설계한다. 이때 국어문화원의 박사급 전문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성인 문해교원, 한국어 강사 등의 전문성 향상과 활용 계획을 포함한다.	4.185	0.879	0.556
	(맞춤형) 생애 단계별 학습자의 요구를 고려한다. 의무교육 이후의 청소년, 성인들의 문해력 향상 요구에 부합하고, 각 집단의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체계를 설계한다.	4.741	0.594	0.852

전문가들이 제시한 방향 관련 의견 중에서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V-8> 국민 문해교육 체제의 개념적 구성요소-방향에 대한 전문가 주요 의견

구성요소		주요 의견
제안요소	확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적인 읽기 영역’과 ‘확장된 읽기 영역’에서의 읽기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정의를 토대로 확장성이 논의될 필요가 있어 보임 • 산문, 문서, 혼합, 복합 양식의 구분이 더 명료하게 제시되어야 하며, 문서 양식, 문해 양식이라는 표현은 혼란을 줄 수 있어 보임 • 직업생활은 일반적 직업생활과 특정 직업생활(전문영역)으로 구분되므로, 어디까지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연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교육은 초등학교 실과교육부터 성인 학습자의 학위과정 교육을 의미하는 반면, 직업훈련은 기업 현장 영역을 의미하므로, 두 기관에서 관심 있는 부분을 결정하고, 직업교육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직업훈련은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연계 방안 마련 • 문해력의 개념을 기능적 리터러시, 비판적 리터러시(사회문화적 리터러시), 직업 리터러시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이것에 따라 어떤 단체와 연계할 것인지를 논의할 수 있을 것임 • 문해교육을 교육 활동으로 본다면 교육 전문가가 필요함 • 국립국어원이 같은 문광부 산하기관인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등과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중등 학력 이상의 높은 수준의 문해력의 요소로서 미디어리터러시, 문화 콘텐츠 리터러시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기획,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함
	전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년 주기의 ‘보수교육’을 시행할 필요가 있음. 더불어 교재에서 사용하는 예문 등을 시의적절하게 바꾸는 일을 꾸준히 연구하는 상시 연구 집단이 필요함 • 계획의 실현 가능성 제고를 위해서는 국어원 내 조직 체계, 전문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설 및 운영 가능성, 양성한 전문인력의 활용 방안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는데 (예. 박사급) 초점이 있는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강사 양상까지 고려한다는 것에 초점이 있는지 모호함. 전자라면 전문성이 적합할 듯하나, 후자라면 실행 가능성 혹은 제도화 정도가 적합할 듯 함
	생애 맞춤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있어 일차 조직자가 생애 단계여야 할지, 장르나 주제일지, 직업군일지 고민이 필요함
추가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장성’ 범주에서 읽기 영역의 확장성과 대상 자료의 포괄성을 모두 아우르고 있으므로, 읽기 영역의 ‘확장성’과 대상 자료의 ‘포괄성’을 구분하는 방향도 고려할 수 있겠음 • 접근성 : ‘연계성’, ‘맞춤형’과 관련 있음.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구 집단의 상태와 요구 반영. 구조적 장벽을 넘는 유연한 접근을 위해 다양한 기관 단체와 연계 확대 모색 • 체계성 : 전통적인 영역을 넘어 점차 확장되는 문해교육 (콘텐츠, 프로그램 등)의 내용, 수준, 위계, 유형, 대상 등을 체계화하여 → 확장성, 연계성, 전문화, 맞춤형의 구성요소와 연계하는 작업 • 정책 변화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성’이 확보된 제도도 필요하다고 보임

국민 문해교육 체제의 두 번째 구성요소인 ‘맥락’의 경우, 개인생활 맥락, 학습생활 맥락, 직업생활 맥락의 순으로 CVR 값이 높게 나타났다. 이중 직업생활 맥락은 평균 점수도 4.556점으로 높았으나 표준편차가 0.847로 높은 편으로 나타나 전문가들 간 의견이 다소 존재하고 있었다.

<표 V-9> 국민 문해교육 체제의 개념적 구성요소의 타당도(맥락)

항목	구성요소 및 설명	타당도		
		평균(점)	표준 편차	CVR
맥락	(개인생활 맥락) 개인생활 영역은 개인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영역으로, 일상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휘와 어법의 활용, 정보의 탐색과 확인, 정보의 통합과 해석, 정보의 분석과 평가 등의 읽기 활동이 이루어지는 영역이다. 개인생활은 생활의 장면에 따라 여가생활, 공공생활, 미디어생활, 경제생활 등으로 구성된다. 확장된 문해 실천으로서 미디어문해, 디지털문해, 건강문해, 금융문해 등과도 연결된다.	4.778	0.506	0.926
	(학습생활 맥락) 학습생활 영역은 학교나 평생교육 영역에서 요구되는 학습역량의 바탕이 되는 어휘와 어법의 활용, 정보의 탐색과 확인, 정보의 통합과 해석, 정보의 분석과 평가 등의 읽기 활동이 이루어지는 영역이다. 학습생활이 이루어지는 맥락으로서 핵심 공간은 생애 단계에 따라 전문계고, 전문대, 대학, 평생교육기관 등 다양하게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전문가의 문해교육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학습생활’의 맥락에 포함한다.	4.407	0.694	0.778
	(직업생활 맥락) 직업생활 영역은 직업 준비, 직무수행, 경로 전환 등 직업교육 영역에서 요구되는 어휘와 어법의 활용, 정보의 탐색과 확인, 정보의 통합과 해석, 정보의 분석과 평가 등의 읽기 활동이 이루어지는 영역이다. 직업생활에서 이루어지는 문해교육의 목적에 따라 직업생활 맥락은 일터를 중심으로 형성된다.	4.556	0.847	0.704

전문가들이 제시한 맥락 관련 의견 중에서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V-10> 국민 문해교육 체제의 개념적 구성요소-맥락에 대한 전문가 주요 의견

구성요소	주요 의견
제안 요소	<p>개인 생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생활 장면을 여가, 공공, 미디어, 경제로 구분하는 것보다 오히려 가정 맥락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문해 실천 내용을 제시하는 것이 좋겠음 • 개인생활 대신 일상생활 영역로 하되, 가정 내 활동, 개인 관리, 여가 및 사회활동 등으로 구성 • 학습생활'이나 '직업생활'도 결국은 '개인적' 삶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보여 '개인 생활'이라는 범주 명이 다소 어색하며, '일상생활'이 더 해당 문해 상황을 더 잘 드러내는 용어로 보임
	<p>학습 생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심 공간으로 생애 단계별 직업계고, 전문대, 대학, 평생교육기관 등으로 제시하고 있어, 정규 교육기관에서의 학습 생활만을 제시하고 있음 •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대안교육 기관 등이 학습 생활영역 대상에서 누락 • 학습의 개념을 확장하여 다양한 학습 장소와 형태에서의 고급 문해 검토(세미나, 유튜브, 워크숍, 독서, 개인 연구, 프로젝트 등) 포함 필요
	<p>직업 생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계약서와 같이 모든 직업인에 통용되는 영역이 아니라면 직업마다의 차이를 반영하기 어렵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음 • 경로 전환 →경력 전환, 또는 경력경로 전환으로 표현하는 것 고려 가능 • 업무의 전문성은 단계적으로 존재할 것인데 어느 단계까지가 문해의 영역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임
추가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 분야의 문서를 잘 읽어낼 수 있는 문해력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하나, 분야를 세분하면 결국 핵심인 문해력은 사라지고 개별 문서 읽기나 금융 지식, 건강 지식 교육으로 치중되지 않을까 우려됨. 범용성 있는 '문해력'을 증진할 교육 방안이 우선되어야 할 듯함. • 세 가지 맥락 모두 '개인' 맥락에 해당할 수 있음. '직업생활'은 일터를 넘어 좀 더 포괄적인 의미를 내포할 수 있어야 함. 또한 '생활'은 개인의 삶의 전반적인 양상과 패턴을 나타내지만, '활동'은 더 구체적이고 측정할 수 있는 행동이나 작업에 초점을 둠. 즉, '생활'은 보다 포괄적이고 개념적인 이해를 요구하는 반면, '활동'은 실제 행위와 그 행위의 결과에 더 집중되어 있으므로, 문해교육 체제에서는 '활동'이 적합할 것임. 결론적으로 '일상 활동', '학습활동', '경제활동'으로 맥락 구분을 제안함. • 학습 맥락과 직업생활 맥락은 실제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중복 가능성이 다소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문해력 활용 맥락의 범주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모든 생활 장면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기본적인 문해력과 학습 장면에서 필요한 문해력, 직업 장면에서 필요한 문해력, 기타 공동체 및 문화생활에 필요한 문해력이 있을 수 있음 • 문해를 '읽기 활동'으로 표현하니 문해를 글을 읽을 줄 아는 것 즉 음성적 읽기에 치중한 것으로 보임. 현 연구의 목표가 고급 문해로까지 확장한다고 생각한다면 음성적 읽기를 넘어 의미적 읽기가 중요하다고 생각

구성요소	주요 의견
	<p>함. 이에 읽기 활동으로 한정 짓지 않고 다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읽기 기반 쓰기, 즉 문해 환경에서 다양한 의미를 주체적으로 이해하고 자신의 의미로 재구성하여 표현하는 것을 포함하여 문해력(literacy)으로 보는 것이 최근의 문해력 연구 동향이라고 알고 있음. 각 맥락의 설명에서 '읽기 활동'을 '문해 활동'으로 수정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제시함 • 개인생활 부분에 일부 반영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지역사회에서 공동체 구성원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맥락이 추가될 필요가 있음 • 맥락이라는 표현과 영역이라는 표현이 같이 쓰이고 있는데, 용어의 통일 이 필요해 보임

국민 문해교육 체제의 세 번째 구성요소인 '목표'의 경우, '생활인으로서 일상의 문제 해결' 목표가 CVR 값이 0.926으로 거의 일치가 가까웠고, 평균이 4.815로 매우 타당하다고 평가되는 가운데 표준편차도 0.483으로 상당히 작은 편이었다. 이외, 세 가지 목표는 CVR 값이 0.778로 동일하였으나 상대적으로 '문화인으로서 교양 있는 삶의 영위'에 대해서는 표준편차(0.926)가 크게 나타났다.

<표 V-11> 국민 문해교육 체제의 개념적 구성요소의 타당도(목표)

항목	구성요소 및 설명	타당도		
		평균(점)	표준 편차	CVR
목표	(문화인으로서 교양 있는 삶의 영위) 문화인으로서 교양 있는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어휘와 어법, 정보의 탐색과 확인, 정보의 통합과 해석, 정보의 분석과 평가 등의 문해력을 갖춘다.	4.370	0.926	0.778
	(생활인으로서 일상의 문제 해결) 개인의 일상의 문제를 원활히 해결하고 소통하는 시민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실용적인 어휘와 어법, 정보의 탐색과 확인, 정보의 통합과 해석, 정보의 분석과 평가 등의 문해력을 갖춘다.	4.815	0.483	0.926
	(직업인으로서 기초역량 강화) 유능한 직업인으로서 직업 준비, 직무수행, 경로 전환 등 기본적인 직업 역량을 발휘하는 데 필요한 어휘와 어법, 정보의 탐색과 확인, 정보의 통합과 해석, 정보의 분석과 평가 등의 문해력을 갖춘다.	4.630	0.688	0.778
	(평생학습자로서 학습 능력 강화) 학교,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주체적인 학습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어휘와 어법, 정보의 탐색과 확인, 정보의 통합과 해석, 정보의 분석과 평가 등의 문해력을 갖춘다.	4.407	0.694	0.778

전문가들이 제시한 목표 관련 의견 중에서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V-12> 국민 문해교육 체제의 개념적 구성요소-목표에 대한 전문가 주요 의견

구성요소		주요 의견
제안 요소	문화인으로서 교양 있는 삶의 영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인은 도서를 비롯한 다양한 미디어 문화 콘텐츠를 향유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설정될 필요가 있음 정의를 광범위하고 모호하나, 특정한 사회에서 공통적인 문화문해력은 목표가 될 수 있을 것임 ‘문화인으로서 교양있는 삶의 영위’라는 목표는 너무 광범위하고 모호해서 다른 목표들과 균형이 맞지 않음. 문해교육의 방향 차원에서 제시하는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
	생활인으로서 일상의 문제 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인으로서 일상적인 개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민주 사회 시민으로서 참여하고 소통하기 위한 문해능력은 구분해서 강조할 필요가 있음 생활인으로서의 일상의 문제 해결에서 ‘비판적 읽기’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겠음.
	직업인으로서 기초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해의 수준을 어디까지 가져갈 것인지에 따라 ‘유능한 직업인’의 포함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임
	평생학습자 로서 학습 능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앞서 필요로 하는 문해능력 외에 평생학습자로서의 학습 능력은 구체적으로 어떤 능력을 의미하는 것일지 그 내용이 다소 모호함. 2의 맥락에서 교육 공간에서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수준별 정규 교육 이수’에 필요한 문해능력’이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임
추가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목표가 “어휘와 어법, 정보의 탐색과 확인, 정보의 통합과 해석, 정보의 분석과 평가 등의 문해력”에 대한 교육으로 귀결되는 것 같아 별로 변별력이 없어 보임. 목표를(교육받은 학습자상을) ‘문화인’, ‘참여적 시민’, ‘갈등 조정자’, ‘생비자’, ‘새로운 가치 창조자’와 같이 변별하고 각각의 목표에 맞게 그 내용도 변별될 필요가 있을 것임. 위의 진술은 현재의 국립국어원의 정체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니, 향후 국민의 리터러시 교육 컨트롤 타워로서 기능하기에는 매우 협소한 위상으로 보임. ‘생활인’, ‘직업인’, ‘평생학습자’ 3가지로 삶의 형태를 대표하기 어려움. 일상 활동 증진, 경제활동 증진, 학습활동 증진 등 문해교육을 통해 개인의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의 활동이 증진되는 것이 목표임. 개인, 학습, 직업 영역 순으로 순서대로 구성요소를 갖추면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음. 생활인 다음에 교양인을 넣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함 문해교육은 사회적 맥락이 중요한데, 너무 개인적인 차원에 치중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 기본적인 문해능력 학습과 다양한 삶의 맥락(개인 문제, 학습, 직업, 문화, 시민 활동)에서 문해능력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의 균형이 필요

국민 문해교육 체제의 네 번째 구성요소인 ‘문해 기능’의 경우, ‘자료의 분석과 평가’(CVR=1.000)에 대해 전문가들이 모두 타당하다고 일치한 가운데, 그 외 요소에 대해서도 CVR 값이 0.778 이상(‘지식과 정보의 생산’)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타당성이 높게 평가되었다.

<표 V-13> 국민 문해교육 체제의 개념적 구성요소의 타당도(문해기능)

항목	구성요소 및 설명	타당도		
		평균(점)	표준편차	CVR
문해 기능	(어휘와 어법 이해) 맥락에 따라 필요한 다양하고 풍부한 어휘 이해 및 습득, 정확한 어휘와 어법의 활용, (소통을 위한) 적절한 어휘와 어법의 활용을 구성	4.741	0.594	0.852
	(정보의 탐색과 확인) 핵심어 또는 화제 파악, 중심 내용 및 세부 내용의 구분, 정보의 요약, 논지 및 전개 구조 파악	4.815	0.483	0.926
	(정보의 통합과 해석) 숨겨진 주장, 주제, 생략된 정보의 추론, 함축적 의미의 해석, 필자의 의도, 글 또는 자료의 관점, 글 또는 자료에 전제된 사회문화적 배경 추론	4.815	0.483	0.926
	(자료의 분석과 평가) 내용이나 주장의 타당성 평가, 자료 또는 출처의 신뢰성 평가, 필자 관점의 공정성 평가, 표현 및 어휘 사용의 적절성과 효과 평가	4.704	0.465	1.000
	(자료의 감상과 적용) 글 또는 자료의 감상과 공감, 즐거움과 깨달음의 내면화와 성찰, 지식과 정보를 삶의 문제에 적용	4.593	0.572	0.926
	(지식과 정보의 생산) 쓰기 목적과 과제 맥락을 고려한 정보의 재구성과 창의적 생산	4.519	0.802	0.778

전문가들이 제시한 문해 기능 관련 의견 중에서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V-14> 국민 문해교육 체제의 개념적 구성요소-문해 기능에 대한 전문가 주요 의견

구성요소		주요 의견
제 안 요 소	어휘와 어법 이해	• 어휘와 어법의 ‘이해’보다는 ‘활용’이 해당 기능에 대한 더 적절한 명명으로 보임
	정보의 탐색과 확인	• 정보의 탐색과 확인을 정보의 탐색과 구조화로 하는 것을 제안함. 확인도 중요하지만, 이전에 정보의 논리 구조 파악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구성요소		주요 의견
	정보의 통합과 해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성 요소명(정보의 ~~)이 일반적으로 디지털 정보를 연상하게 하므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자료의 분석과 평가	의견 없음
	자료의 감상과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료(장르)의 형식 및 특성 이해 추가 필요
	지식과 정보의 생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읽기 텍스트 수용 후, 쓰기 목적과 과제 맥락을 고려하여 텍스트를 재구성하거나 새로운 텍스트를 생산하는 기능을 ‘지식과 정보의 생산’이라고 명명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 필요 ‘지식과 정보의 생산’ 시에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 의식을 가지고 의사소통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는 내용을 덧붙이는 것도 고려해 볼직 함
추가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떤 사회의 문화적인 삶과 가치를 담고 있는 문화적 산물로서 읽기 자료 이해와 감상이 필요 생성형 AI 등의 디지털문해능력 추가 검토 필요 문해 텍스트와 문해 기능이 상호 연결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텍스트 양식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들이 다 포괄되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예컨대, 음성, 시각이미지, 동영상 등의 복합 양식을 고려한다면, 4-1은 어휘, 어법보다는 더 큰 범위로서 정보의 이해가 되어야 할 것 같음 ‘4-2’~‘4-5’ 항목 모두 ‘A의 B’ 형태로 문해 기능의 구성요소가 범주화되었는데, B에 해당하는 명사들은 기능의 범주에 해당하므로 충분히 타당한 용어 사용이라고 판단되나, A에 해당하는 명사들은 사용 근거가 분명하지 않음. 문해 활동의 대상인 ‘정보’, ‘자료’, ‘글’ 사이의 관계가 좀 더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함

국민 문해교육 체제의 다섯 번째 구성요소인 ‘문해 텍스트 양식’의 경우, ‘산문 텍스트’와 ‘문서 텍스트’(CVR=1.000)에 대해 전문가들이 모두 타당하다고 일치된 의견을 보였는데, 그 외 요소에 대해서도 CVR 값이 0.778 이상(‘혼합 텍스트’)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타당성이 매우 높게 평가되었다.

<표 V-15> 국민 문해교육 체제의 개념적 구성요소의 타당도(문해 텍스트 양식)

항목	구성요소 및 설명	타당도		
		평균(점)	표준편차	CVR
문해 텍스트 양식	(산문(prose) 텍스트) 서사, 논증, 기술 등으로 목적으로 작성된 일반적인 산문 텍스트.	4.815	0.396	1.000
	(문서(documents) 텍스트) 일상, 직장, 공공기관 등 다양한 생활영역에서 표, 목록, 그래프 등을 활용하여 작성한 문서 텍스트	4.889	0.320	1.000
	(혼합 텍스트) 산문, 인터넷 자료 등 단일 텍스트가 아닌 정보 통합적 구성이 요구되는 다문 거 텍스트	4.407	0.931	0.778
	(복합 양식(multimodal) 텍스트) 문자, 음성, 시각 이미지, 동영상 등 다양한 언어와 기호가 통합적으로 결합되어 의미를 구성하는 텍스트	4.630	0.565	0.926

전문가들이 제시한 문해 텍스트 양식 관련 의견 중에서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V-16> 국민 문해교육 체제의 개념적 구성요소-문해 텍스트 양식에 대한 전문가 주요 의견

구성요소		주요 의견
제안 요소	산문 텍스트	의견 없음
	문서 텍스트	• 도표 포함, 다양한 매체에 게시하는 문서
	혼합 텍스트	• 혼합 텍스트를 다문서 텍스트라고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텍스트의 유형이라기보다는 읽기 방식이나 읽기 능력 차원에서 다루어야 하는 것임
	복합 양식 텍스트	• ‘기호’도 포함할 수 있겠음
추가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텍스트 양식뿐만 아니라 텍스트를 추려낼 기준과 범위 설정도 필요함(문해교육 자료 유형 등) • 시, 극(劇)의 대사나 지시문 등 예술적 텍스트 양식을 추가로 고려할 수 있음 • 위에 열거한 텍스트들이 양식, 매체 유형, 텍스트 수(단일/다중) 측면에서 혼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예컨대 위의 문서 텍스트 정의와 복합 양식 텍스트 정의는 양식의 측면에서 중복되는 면이 있음. • ‘복합 양식 텍스트’만으로 현재 문해 환경을 포괄할 수 있는지 의문임. 디지털문해의 경우, 문자, 음성, 시각이미지, 동영상 등 텍스트를 구성하는 질료의 복합성 외에도 노드, 하이퍼링크 등의 요소로 인해 문해 대상 텍스트 자체가 유동성을 갖게 되는데(심

구성요소	주요 의견
	<p>지어 문자로만, 즉 단순한 질료로만 구성된 웹페이지의 경우에도 한두 번의 클릭으로 의미를 구성할 수도 있지만, 무한히 연속되는 링크를 따라 의미 구성이 지연되거나 확장되는 경우도 있음)</p> <p>이와 같은 디지털 텍스트의 특수성을 포괄할 필요는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자 유형에 따라서는 시를 포함한 문학 텍스트에 대한 문해 경험이 더 의미 있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고려가 빠져 있는 것이 의도적인 설계의 결과인지도 궁금함(5-1의 설명에 포함된 ‘서사’는 문학적 서사를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해됨)

국민 문해교육 체제의 마지막 구성요소인 ‘문해 학습자 유형’의 경우, CVR 기준을 넘어서기는 하였으나 다른 구성요소들에 비해 CVR 값이 낮은 편이었다(최소 0.600~최대 0.840). 특히, ‘청장년 학습자’의 경우에는 평균이 4.440으로 나타나 상당히 타당하다고 평가받았지만, 표준편차가 1.003점으로 모든 구성요소 중에 가장 크게 나타나 전문가들의 견해차가 큰 편이었음을 알 수 있다.

<표 V-17> 국민 문해교육 체제의 개념적 구성요소의 타당도(문해 학습자 유형)

항목	구성요소 및 설명	타당도		
		평균 (점)	표준편 차	CVR
문해 학습 자 유형	(청소년 학습자) 16세 이상 24세 미만의 청소년 학습자. • 개인생활 - 교양인으로서 읽기, 시민적 소통 등 • 학습생활 - 고등학교, 대안학교, 대학 등에서의 학습역량 • 직업생활 - 기초직업역량 등 직업 준비 관련 문해력	4.440	0.870	0.680
	(청장년 학습자) 25세 이상 44세 미만의 청장년 학습자. • 개인생활 - 교양인으로서 읽기, 시민적 소통, 금융문해 등 • 학습생활 - 대학, 평생교육에서의 학습역량 • 직업생활 - 직무수행, 직업전환 관련 문해력	4.440	1.003	0.600
	(중년 학습자) 45세 이상 65세 미만의 중년 학습자 • 개인생활 - 교양인으로서 읽기, 시민적 소통, 미디어 & 디지털문해 등 • 학습생활 - 평생교육에서의 학습역량 • 직업생활 - 직무수행, 직업전환 관련 문해력	4.600	0.866	0.840
	(노년 학습자) 65세 이상의 노년 학습자 • 개인생활 - 시민적 소통, 미디어 & 디지털문해, 건강문해 등 • 학습생활 - 평생교육에서의 학습역량 • 직업생활 - 노인 경제활동과 관련한 신 직업 기초 역량 등	4.560	0.821	0.760

전문가들이 제시한 문해 텍스트 양식 관련 의견 중에서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V-18> 국민 문해교육 체제의 개념적 구성요소-문해 학습자 유형에 대한 전문가 주요 의견

구성요소		주요 의견
제안 요 소	청소년 학습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에 필요한 미디어문해교육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청장년 학습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장년의 기준을 25~40세 미만으로 조정 검토(고용노동부 청장년 사업 연령 기준) • 청장년 학습자에게 필요한 미디어문해교육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중년 학습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년은 40~49세, 장년을 좀 더 고연령의 50~64세로 구분하기도 함
	노년 학습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양인으로서의 읽기도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추가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기초능력(핵심역량)에도 수준이 있으므로, 청장년, 중년, 노년에서도 직업기초능력(핵심역량) 포함하는 것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디지털문해교육이 노년 학습자에만 제시되어 있는데, 디지털문해를 문해교육의 영역에 포함한다면, 청소년 학습자에게도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음 • ‘목표’에서 다루는 내용이 연령별 학습자별로 좀 더 정교하게 포함되면 어떨까 함. ‘시민적 소통’이라는 표현이 다소 모호함. 이를 구체적인 문해 활동으로 제시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겠음 • 연령에 따른 발달 단계 및 발달과업을 중심으로 학습자들을 구분할 수 있지만, 성인들의 경우 같은 연령대에서도 관심 가지고 있는 영역들에 따라서, 혹은 학습자 특성 (수준, 장애, 성별, 문화, 특수한 맥락)에 따라서 다른 학습자 유형을 구분할 수 있음. 장애인이나 특수 상황 (교도소, 병원, 집단 시설, 종교 기관 등), 문제 중심의 학습자 집단을 구성할 수 있음 • 문해 학습자 유형을 생애 주기별로 구분한 것은 체계성을 높이는 데 일조할 수 있겠으나, 연령별로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은 문해교육 요구로 인해 프로그램 개발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특히, 사회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중장년, 노년의 경우 유사한 교육과정이 개발될 필요가 있음. 오히려, 각 학습자 집단이 요구하는 상황에서의 문해교육의 중점적 요구사항으로 구분하는 것은 어떨지(예. 학교 교육과정 이해 요구가 있는, 새로운 디지털기계 적응 요구가 있는, 비판적 미디어 정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등)

2.2.2. 국민 문해교육 체제 개념 정의

이상의 구성요소를 토대로 한 국민 문해교육 체제 개념 정의에 대한 타당성을 분석한 결과, 평균은 4.241점으로 나타나 전문가들은 상당히 타당하다고 평가하고 있었고, CVR 지수값도 0.778로서 기준값(0.31)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Lawshe, 1975).

<표 V-19> 국민 문해교육 체제 개념 정의(안)의 타당도

항목	구성요소 및 설명	타당도		
		평균(점)	표준편차	CVR
정의	(국민 문해교육 체제 개념) 16세 이상 청소년과 성인들이 개인생활, 학습생활, 직업생활 등 삶의 영역에서 맥락에 맞는 적절한 어휘와 어법을 구사하고, 글과 자료, 다양한 복합 양식의 텍스트를 통해 정보의 탐색과 확인, 통합과 해석, 분석과 평가, 감상과 적용, 그리고 재구성과 생산을 할 수 있는 문해력을 향상하기 위해 체계화된 교육 프로그램과 진단 체제	4.241	0.752	0.778

2.2.3. 국립국어원의 ‘국민 문해교육 프로그램’ 주제 아이디어

앞서 제시된 개념적 구성요소에 근거하여 전문가들이 국민의 문해교육 프로그램 주제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제시한 결과를 정리하면 <표 V-20>과 같다.

<표 V-20> 국민 문해교육 프로그램 주요 주제(안)

맥락	목표	주제
일상생활	문화인으로서 교양 있는 삶의 영위	<p><문학과 문화></p> <p>사진과 글을 활용하여 나의 삶 표현하기 (문학작품-시, 소설 등)을 읽고 나를 읽는 글쓰기 자기 이해와 치유를 위한 문학과 영화 읽기 자서전 읽기와 자전적 글쓰기의 통합 다양한 관점에서 ‘동화’ 읽기 소설 및 영화 주인공의 삶을 언어 분석 전래 이야기를 읽고 오늘날 상황에 맞게 개작하기 소설에서 배우는 공감하는 말과 글 시대별 베스트셀러 읽기를 통한 문화 인식 성인을 위한 고전 여행</p>

맥락	목표	주제
		<p>고전으로 읽는 행복한 중년의 삶과 사랑 이야기 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비평과 분석하기 예술 작품과 함께하는 비평문의 이해 음악으로 배우는 문해교육 그림으로 배우는 문해교육 종합예술(연극, 영화) 속의 문해교육 영화 읽는 법 영화나 드라마를 통한 언어생활 탐구 영화와 드라마 속에서 발견하는 우리 사회 문제 읽기 시나리오를 통해 살펴보는 인간 마음의 추론 문화예술(미술사)에 대한 심미안(감상 능력) 기르기 문학 및 예술 작품으로 소통하는 상징과 은유</p> <p><언어와 문해> 생활 속 과장된 언어의 어원과 새로운 활용에 관한 토론을 통한 나의 언어생활 탐구 고전으로 배우는 한자어 이해하기 세대 소통을 위한 신조어와 한자어 이해하기 우리말 기초문해력 키우기: 어문 규범 등 기초문해력 우리말 중급 문해력 키우기: 문장 이해와 쓰기 등 중급 수준의 문해력 노인을 위한 생애사 글쓰기 관점의 확장을 위한 엮어 읽기(상호텍스트적 읽기) 주제 통합적 독서를 통한 삶의 문제 해결</p>
	생활인으로서 일상의 문제 해결 시민	<p><미디어 & 디지털 생활> 신문 바르게 읽기를 통한 근거와 비판(예. 신문 제목과 내용의 바른 연결 등) 신문 칼럼, 사설 읽기(주장, 근거, 추론, 표현 등) 미디어 바로 읽기 미디어문해 마당: 미디어문해력 키우기 노년 : 바람직한 은퇴 후 삶을 위한 칼럼 읽고 비평 광고 텍스트의 현혹에서 벗어나기- 전자우편 바르게 작성하기 누리 소통망 서비스(SNS)를 활용한 자기 생각 쓰기 사회적 소통을 위한 SNS 활용 누리소통망에 올린 자신의 글(본문, 댓글 등) 들여다보기 악플과 선플 분석 필터 버블(유튜브 알고리즘)에서 벗어나기 거짓, 편향 정보 가려내기 대화형 AI를 활용한 궁금증 해결하기 다양한 생활 공간에서의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리터러시 습득 노인을 위한 키오스크 사용법 노년 층) 온라인 서비스에 이용되는 어휘와 표현 알아보기 노인을 위한 미디어에 나타난 디지털 용어 이해하기 (노년 층) 온라인 서비스(스마트폰 배달앱/온라인 쇼핑몰 등) 활용하고 댓글 남기기 노인을 위한 복합 양식 텍스트 이해하기</p> <p><공공생활> 실생활에서 만나는 공문서(주민센터 등)</p>

맥락	목표	주제
		<p>나를 위한 정부 정책 활용법(정부 정책 문건 읽고, 해석하고 적용하기) 통계자료에 나타난 오해와 이해 사회 초년생을 위한 법령 이해 내가 사는 동네 기관의 이모저모</p> <p><경제생활> 중년 : 경제 뉴스 읽고 비평하기 금융 문서 읽기 청(소)년을 위한 생존 금융 미래를 준비하는 금융 이해 경제 뉴스를 활용한 금융문해 금융거래를 위한 리터러시 백세시대 행복한 은퇴 생활을 위한 금융 정보 살펴보기 재테크 기법 분석하고 이해하기 청년을 위한 생활 계약서 이해하기(부동산계약서 등) 부동산계약서의 올바른 이해 온라인으로 각종 계약서, 약관, 보험증권 등 확인하기 피싱 예방 교육</p> <p><가정생활> 건강 및 의료 관련 텍스트 비판적 읽기 영양제 복용 법 읽기를 통한 올바른 건강 관리 고령화 시대 건강 관리 사용 설명서 바로 읽고 이해하기 전자기기에 사용되는 부호 이해하기</p> <p><참여> 역사와 정치 이해력을 통한 시민정신 기르기 청소년 : 인권, 젠더 감수성을 기르는 문해력 청장년 : 기후 생태 문제 해결을 위한 문해력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는 광고 분석 권리 알기 의무 알기 지역사회 이해하기 지역사회 이슈를 찾아보고 비평하기</p> <p><소통> 전화, 인터넷, 지하철, 편의점 등 일상생활에서 문화인으로 갖추어야 할 커뮤니케이션 에티켓 청소년 : 대인관계능력 향상을 위한 문해력 청장년 : 세대 간 소통을 위한 문화 이해 능력 세대 간 갈등 해소를 위한 텍스트 읽기와 토론</p>
직업 생활	직업인으로서 기초역량 강화	<p><커뮤니케이션 및 소통> 때와 상황에 맞는 어휘와 표현 사용하기 듣고, 이해하고, 소통하는 방법 조직 구성원과의 업무 대화 분석하기(공감, 이해 등) 직장동료와 소통하고 이해하기 업무 관계자와의 대화기술 리더십과 의사소통능력 성공적인 직업생활을 위한 대인 소통 능력</p>

맥락	목표	주제
		<p>조직에서의 소통 역량 비결</p> <p><문서 작성 및 의사소통> 직장에서 사용하는 어휘 살피기(설익은 이해) 직장생활을 순조롭게 하는 어휘 학습 직장인을 위한 메일 쓰기 직장인이라면 알아야 할 기본 의사소통의 이해(전화, 메일 예절) 공공언어 익히기 회의록 쓰기 공공문서의 이해와 적용 (보고서, 기획안, 공문 작성법 등) 설득력 있는 기획서/제안서 쓰기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공문서 기반 의사소통 새내기 직장인을 위한 공공문서 쓰기 자주 쓰는 공문서 작성법</p> <p><직업 관련 기술 및 역량> 경제 동향 정보 이해하고 활용하기 예산, 지출에 사용되는 어휘 파헤치기 직장인을 위한 법조문 이해 직장생활 각종 규정, 관련 법령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기 프레젠테이션 상황에서의 효과적 의사소통</p> <p><진로 탐색 및 직업 관련 교육> 청소년 : 노동인권 및 진로 탐색을 위한 문해력 청년 : 직무 추세(trend) 따라잡기를 위한 신문 기사로 직무 탐색 중년 : 일의 보람과 가치에 도움이 되는 인문 교양서 읽고 비평하기 노년 : 직업 경험 나누기 & 글쓰기, 온라인 연수 과정 신청하고, 온라인으로 과제 제출하기 등</p>
학습 생활	평생학습자로서 학습 능력 강화	<p><학습 역량 강화> 생애 주기별 성인 학습자를 위한 백과사전 생애 진단을 통한 학습 목표 설정과 자기 주도 학습 전략 마련 자기 계발의 타이밍과 방법론</p> <p><커리어 개발> 미래 사회와 커리어 개발 예비 사회 초년생을 위한 기초 배움 프로젝트 해결을 위한 언어와 소통 능력</p> <p><읽기와 문학> 책, 드라마, 영화 등에서 긍정적인 역할모델 찾아 읽고 이해 & 비평 신문이나 미디어에서 사회적 이슈와 논쟁 찾아 읽고 비판하기 긴 글을 읽고 내용 요약하기</p> <p><과학과 수리력> 과학 잡지 읽기를 통한 기초 과학 지식 습득 데이터 및 기본 통계의 이해와 활용 글을 읽고 그래픽 조직자나 도표 만들기</p>

3. 수정 사항

국립국어원 문해교육 체제 개념을 최종 구성하기 위하여 전문가들의 타당도 점수와 의견에 따라 문해교육 체제 개념안의 주요 구성요소들의 내용을 수정하였다. 먼저 문해교육 기본 방향에 관련하여, 모든 요소의 타당도가 높게 나타난 기존 안이 적절하였지만, 전문가들의 추가적인 수정 의견을 반영하여 기본 방향 요소를 추가하였다. 즉, 기존의 확장성, 연계성, 전문화, 생애 맞춤형 등 네 가지 방향 요소에 접근 가능성과 체계성을 추가하여 여섯 가지로 구성하였다. 접근 가능성은 “다양한 배경의 집단이 쉽게 접하고 원하는 문해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연하고 접근할 수 있는 문해교육 체제를 고려한다”로 내용 기술을 하였으며, 체계성은 “문해력 진단,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가, 그리고 문해력 인증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체계적인 문해교육 체제를 지향한다”로 하였다. 또한 다른 요소에 관해서도, 개념과 표현 수정 요구를 반영하였다. 문서 양식과 문해 양식이라는 개념이 혼재되어 있어서 텍스트 양식으로 통일하였고, 연계성에서 직업교육 분야 연계 기관의 예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한국직업능력연구원으로 변경하였다. 또한 전문화 부분에서 교원 양성체계가 학교 교원을 연상한다는 전문가의 우려를 반영하여 교강사 양성 체제로 변경하였고, 교원이라는 용어를 교강사로 일괄 변경하였다. 주요 변경 사항은 <표 V-21>과 같다.

<표 V-21> 문해교육 기본 방향의 수정

요소	기존(안)	수정 사항
기본 방향	<확장성> 첫째, 전통적인 읽기 영역을 포함하여, 문해 활동이 이루어지는 생활영역과 문서 양식 에 있어서 확장된 읽기 영역을 주제로 한다. 생활영역은 개인의 일상생활 과 학습생활, 그리고 직업생활을 포함하며, 문해 양식 은 산문 양식, 문서 양식, 혼합 양식, 복합 양식 등을 포괄한다.	문서 양식→텍스트 양식 개인의 일상생활→일상생활 문해 양식→텍스트 양식
	<연계성> 둘째, 프로그램 운영 주체는 국립국어원과 국어문화원을 중심으로 하되, 주제와 대상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파트너십 구축을 전제로 한다. 예를 들어 직업교육 영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과 평생교육 영역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과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직업능력연구원

요소	기존(안)	수정 사항
	<전문화> 셋째, 확장형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u>교원 양성</u> 체제까지 포괄하여 설계한다. 이때 <u>교원</u> 은 국어문화원의 박사급 전문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문해교육 관련 전문 인력인 문해교원, 한국어 강사 등의 전문성 향상과 활용 계획을 포함한다.	교원 양성 체제→교강사 양성 체제 교원→교강사
	<맞춤형> <u>마지막으로</u> , 생애 단계별 학습자의 요구를 고려한다. 의무교육 이후의 청소년, 성인들의 문해력 향상 요구에 부합하고, 각 집단의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체계를 설계한다.	마지막으로→넷째
	<추가>	<접근 가능성> 다섯째, 다양한 배경의 집단이 쉽게 접하고 원하는 문해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연하고 접근할 수 있는 문해교육체제를 고려한다.
	<추가>	<체계성> 여섯째, 문해력 진단,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가, 그리고 문해력 인증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체계적인 문해교육 체제를 지향한다.

문해교육 생활 맥락과 관련하여, 모든 요소의 타당도가 높게 나타난 기존 안이 적절하였지만, 전문가들의 추가적인 수정 의견을 반영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다. 먼저 개인생활 맥락이 직업생활과 학습생활과 중복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개인생활을 일상생활로 변경하였다. 또한 영역과 맥락이라는 용어가 혼용되고 있어서 맥락으로 일괄 통일하였고 일부 모호한 설명을 수정하였다. 또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경로 전환을 경력 전환으로 수정하였다. 주요 변경 사항은 <표 V-22>와 같다.

<표 V-22> 문해 생활 맥락 수정

요소	기존(안)	수정 사항
생활 맥락	(개인생활 맥락) <u>개인생활 영역은 개인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영역으로</u> , 일상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휘와 어법의 활용, 정보의 탐색과 확인, 정보의 통합과 해석, 정보의 분석과 평가 등의 읽기 활동이 이루어지는 <u>영역이다</u> . 개인생활은 생활의 장면에 따라 여가생활, 공공생	개인생활 영역→일상생활 맥락 영역이다→맥락이다. 개인생활 영역은 개인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영역으로→삭제

요소	기존(안)	수정 사항
	활, 미디어생활, 경제생활 등으로 구성된다. 확장된 문해 실천으로서 미디어문해, 디지털문해, 건강문해, 금융문해 등과도 연결된다.	
	(학습생활 맥락) 학습생활 영역 은 학교나 평생교육 영역에서 요구되는 학습역량의 바탕이 되는 어휘와 어법의 활용, 정보의 탐색과 확인, 정보의 통합과 해석, 정보의 분석과 평가 등의 읽기 활동이 이루어지는 영역이다. <u>학습생활이 이루어지는 맥락으로서 핵심 공간은 생애 단계에 따라 전문계고, 전문대, 대학, 평생교육기관 등 다양하게 포함할 수 있다.</u> 또한 전문가의 문해교육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학습생활’의 맥락에 포함한다.	학습생활 영역→학습생활 맥락 학습생활이 이루어지는 맥락으로서 핵심 공간은 생애 단계에 따라 전문계고, 전문대, 대학, 평생교육기관 등 다양하게 포함할 수 있다. →학습생활의 핵심 공간은 생애 단계에 따라 고등학교, 대학, 평생교육기관 등 일반적인 교육기관뿐만 아니라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 공간뿐만 아니라 디지털 공간 등 다양하게 포함할 수 있다.
	(직업생활 맥락) 직업생활 영역 은 직업 준비, 직무수행, <u>경로 전환</u> 등 직업교육 영역에서 요구되는 어휘와 어법의 활용, 정보의 탐색과 확인, 정보의 통합과 해석, 정보의 분석과 평가 등의 읽기 활동이 이루어지는 <u>영역이다</u> . 직업생활에서 이루어지는 문해교육의 목적에 따라 직업생활 맥락은 일터를 중심으로 형성된다.	직업생활 영역→직업생활 맥락 경로 전환→경력 전환 영역이다→맥락이다.

문해 목표와 관련하여, 모든 요소의 타당도가 높게 나타난 기존 안이 적절하였지만, 전문가들의 추가적인 수정 의견을 반영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다. 먼저 공공 영역에서의 시민의 문해력도 중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을 수용하여 ‘시민으로서 공동체 문제 해결’을 새롭게 추가하였고, “소통하는 시민으로 공동체 참여와 공동의 문제 해결에 필요한 어휘와 어법, 정보의 탐색과 확인, 정보의 통합과 해석, 정보의 분석과 평가 등의 문해력을 갖춘다”를 해당 목표의 내용으로 추가하였다. 이외에 내용 수정에 관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문화인으로서 교양 있는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을 ‘문화인으로서 다양한 미디어의 문화 콘텐츠를 향유하고 교양 있는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으로 수정하였다. 또한, ‘시민으로서 공동체의 문제 해결’을 추가하였기에 ‘생활인으로서 일상의 문제 해결’에 포함되어 있던 해당 내용 수정이 필요하여 ‘개인의 일상의 문제를 원활히 해결하고 소통하는 시민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을 ‘개인의 일상의 문제를 원활히 해결하는 데 필요한’으로 변경하였다. 주요 변경 사항은 <표 V-23>과 같다.

<표 V-23> 문해 목표 수정

요소	기존(안)	수정 사항
목표	(문화인으로서 교양 있는 삶의 영위) <u>문화인으로서 교양 있는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u> 어휘와 어법, 정보의 탐색과 확인, 정보의 통합과 해석, 정보의 분석과 평가 등의 문해력을 갖춘다.	문화인으로서 교양 있는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문화인으로서 다양한 미디어의 문화 콘텐츠를 향유하고 교양 있는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생활인으로서 일상의 문제 해결) <u>개인의 일상의 문제를 원활히 해결하고 소통하는 시민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u> 실용적인 어휘와 어법, 정보의 탐색과 확인, 정보의 통합과 해석, 정보의 분석과 평가 등의 문해력을 갖춘다.	개인의 일상의 문제를 원활히 해결하고 소통하는 시민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 개인의 일상의 문제를 원활히 해결하는데 필요한
	추가	(시민으로서 공동체의 문제 해결) 소통하는 시민으로 공동체 참여와 공동의 문제 해결에 필요한 어휘와 어법, 정보의 탐색과 확인, 정보의 통합과 해석, 정보의 분석과 평가 등의 문해력을 갖춘다.
	(직업인으로서 기초역량 강화) <u>유능한</u> 직업인으로서 직업 준비, 직무수행, <u>경로 전환</u> 등 기본적인 직업 역량을 발휘하는 데 필요한 어휘와 어법, 정보의 탐색과 확인, 정보의 통합과 해석, 정보의 분석과 평가 등의 문해력을 갖춘다.	유능한 → 삭제 경로 전환 → 경력 전환
	(평생학습자로서 학습 능력 강화) 학교,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주체적인 학습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어휘와 어법, 정보의 탐색과 확인, 정보의 통합과 해석, 정보의 분석과 평가 등의 문해력을 갖춘다.	수정 사항 없음
	순서 변경	생활인, 문화인, 시민, 평생학습자, 직업인

문해 기능과 관련하여, 모든 요소의 타당도가 높게 나타난 기존 안이 적절하였지만, 전문가들의 추가적인 수정 의견을 반영하여 문해 기능 중의 하나인 ‘어휘와 어법 이해’를 ‘어휘와 어법 활용’으로 변경하였다. 변경 내용은 <표 V-24>와 같다.

<표 V-24> 문해 기능 수정

요소	기존(안)	수정 사항
기능	(어휘와 어법 이해) 맥락에 따라 필요한 다양하고 풍부한 어휘 이해 및 습득, 정확한 어휘와 어법의 활용, (소통을 위한) 적절한 어휘와 어법의 활용을 구성	어휘와 어법 이해→어휘와 어법 활용
	(정보의 탐색과 확인) 핵심어 또는 화제 파악, 중심 내용 및 세부 내용의 구분, 정보의 요약, 논지 및 전개 구조 파악	수정 사항 없음
	(정보의 통합과 해석) 숨겨진 주장, 주제, 생략된 정보의 추론, 함축적 의미의 해석, 필자의 의도, 글 또는 자료의 관점, 글 또는 자료에 전제된 사회문화적 배경 추론	수정 사항 없음
	(자료의 분석과 평가) 내용이나 주장의 타당성 평가, 자료 또는 출처의 신뢰성 평가, 필자 관점의 공정성 평가, 표현 및 어휘 사용의 적절성과 효과 평가	수정 사항 없음
	(자료의 감상과 적용) 글 또는 자료의 감상과 공감, 즐거움과 깨달음의 내면화와 성찰, 지식과 정보를 삶의 문제에 적용	수정 사항 없음
	(지식과 정보의 생산) 쓰기 목적과 과제 맥락을 고려한 정보의 재구성과 창의적 생산	수정 사항 없음

텍스트 양식과 관련하여, 모든 요소의 타당도가 높게 나타난 기존 안이 적절하였지만, 전문가들의 추가적인 수정 의견을 반영하여 문서 텍스트 내용에 도표를 추가하였다. 변경 내용은 <표 V-25>와 같다.

<표 V-25> 텍스트 양식 수정

요소	기존(안)	수정 사항
텍스트 양식	(산문(prose) 텍스트) 서사, 논증, 기술 등으로 목적으로 작성된 일반적인 산문 텍스트.	수정 사항 없음
	(문서(documents) 텍스트) 일상, 직장, 공공기관 등 다양한 생활영역에서 <u>표, 목록, 그래프</u> 등을 활용하여 작성한 문서 텍스트	표, 목록, 그래프 등→표, 도표, 목록, 그래프 등
	(혼합 텍스트) 산문, 인터넷 자료 등 단일 텍스트가 아닌 정보 통합적 구성이 요구되는 다 문서 텍스트	수정 사항 없음
	(복합 양식(multimodal) 텍스트) 문자, 음성, 시각이미지, 동영상 등 다양한 언어와 기호가 통합적으로 결합되어 의미를 구성하는 텍스트	수정 사항 없음

학습자와 관련하여, 모든 요소의 타당도가 높게 나타난 기존 안이 적절하였지만, 개념 구성 요소 중 문해 맥락에서 개인생활을 일상생활로 변경한 내용 등을 반영하여 수정하였다. 변경 내용은 <표 V-26>과 같다.

<표 V-26> 학습자 수정

요소	기존(안)	수정 사항
학습자	(청소년학습자) 16세 이상 24세 미만의 청소년 학습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생활 - 교양인으로서 읽기, 시민적 소통 등 • 학습생활 - 고등학교, 대안학교, 대학 등에서의 학습 역량 • 직업생활 - 기초 직업 역량 등 직업 준비 관련 문해력 	개인생활→일상생활
	(청장년학습자) 25세 이상 44세 미만의 청장년 학습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생활 - 교양인으로서 읽기, 시민적 소통, 금융문해 등 • 학습생활 - 대학, 평생교육에서의 학습역량 • 직업생활 - 직무수행, 직업 전환 관련 문해력 	개인생활→일상생활 직업 전환→경력 전환
	(중년 학습자) 45세 이상 65세 미만의 중년 학습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생활 - 교양인으로서 읽기, 시민적 소통, 미디어 & 디지털문해 등 • 학습생활 - 평생교육에서의 학습역량 • 직업생활 - 직무수행, 직업전환 관련 문해력 	개인생활→일상생활
	(노년 학습자) 65세 이상의 노년 학습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생활 - 시민적 소통, 미디어 & 디지털문해, 건강문해 등 • 학습생활 - 평생교육에서의 학습역량 • 직업생활 - 노인 경제활동과 관련한 신 직업 기초 역량 등 	개인생활→일상생활

문해교육 정의와 관련하여 전문가 타당도가 높게 나타난 기존 안이 적절하였지만, 문해 맥락과 문해 기능의 내용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하였다. 변경 내용은 <표 V-27>과 같다.

<표 V-27> 문해교육 정의 수정

요소	기존(안)	수정 사항
문해교육 정의	16세 이상 청소년과 성인들이 개인생활 , 학습생활, 직업생활 등의 삶의 영역에서 올바르게 적합한 어휘와 어법을 구사하고 , 산문과 문서 등 다양한 양식의 정보 탐색과 확인, 통합과 해석, 분석과 평가, 감상과 적용을 할 수 있는 문해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직화된 프로그램.	개인생활→일상생활 어휘와 어법을 구사하고→어휘와 어법을 활용하고

4. 문해교육 체제 개념 최종안

연구진이 구성한 문해교육 체제 개념안을 전문가 타당화를 거쳐서 최종안을 <표 V-28>과 같이 확정하였다. 최종안은 문해교육 체제의 정의, 방향, 맥락, 목표, 기능, 텍스트 양식, 학습자로 구성하였다.

<표 V-28> 문해교육 체제 개념 구성 최종안

항목	최종안
정의	(문해교육) 16세 이상 청소년과 성인들이 일상생활, 학습생활, 직업생활 등의 삶의 영역에서 올바르게 적합한 어휘와 어법을 활용하고, 산문과 문서 등 다양한 양식의 정보 탐색과 확인, 통합과 해석, 분석과 평가, 감상과 적용을 할 수 있는 문해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직화된 프로그램
방향	(확장성) 다양한 생활 맥락과 텍스트 양식을 고려한 확장적인 문해 영역을 주제로 한다. 생활영역은 일상생활과 학습생활, 그리고 직업생활을 포함하며, 텍스트 양식은 산문 양식, 문서 양식, 혼합 양식, 복합 양식 등을 포괄한다.
	(연계성) 프로그램 운영 주체는 국립국어원과 국어문화원을 중심으로 하되, 주제와 대상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파트너십 구축을 전제로 한다. 예를 들어 직업교육 영역은 한국직업능력연구원과 평생교육 영역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과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전문화) 확장형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교강사 양성 체제까지 포괄하여 설계한다. 이때 교강사는 국어문화원의 박사급 전문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문해교육 관련 전문인력인 문해교원, 한국어 강사 등의 전문성 향상과 활용 계획을 포함한다.
	(맞춤형) 생애 단계별 학습자의 요구를 고려한다. 의무교육 이후의 청소년, 성인들의 문해력 향상 요구에 부합하고, 각 집단의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체계를 설계한다.
	(접근 가능성) 다양한 배경의 집단이 쉽게 접하고 원하는 문해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연하고 접근할 수 있는 문해교육 체제를 고려한다.
	(체계성) 여섯째, 문해력 진단,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가, 그리고 문해력 인증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체계적인 문해교육 체제를 지향한다.

항목	최종안
맥락	(일상생활 맥락) 일상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휘와 어법의 활용, 정보의 탐색과 확인, 정보의 통합과 해석, 정보의 분석과 평가 등의 읽기 활동이 이루어지는 맥락이다. 일상생활은 생활의 장면에 따라 여가생활, 공공생활, 미디어생활, 경제생활 등으로 구성된다. 확장된 문해실천으로서 미디어문해, 디지털문해, 건강문해, 금융문해 등과도 연결된다.
	(학습생활 맥락) 학습생활 맥락은 학교나 평생교육 영역에서 요구되는 학습역량의 바탕이 되는 어휘와 어법의 활용, 정보의 탐색과 확인, 정보의 통합과 해석, 정보의 분석과 평가 등의 읽기 활동이 이루어지는 맥락이다. 학습생활의 핵심 공간은 생애 단계에 따라 고등학교, 대학, 평생교육기관 등 일반적인 교육기관뿐만 아니라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 공간뿐만 아니라 디지털 공간 등 다양하게 포함할 수 있다.
	(직업생활 맥락) 직업생활 맥락은 직업 준비, 직무수행, 경력 전환 등 직업교육 영역에서 요구되는 어휘와 어법의 활용, 정보의 탐색과 확인, 정보의 통합과 해석, 정보의 분석과 평가 등의 읽기 활동이 이루어지는 맥락이다. 직업생활에서 이루어지는 문해교육의 목적에 따라 직업생활 맥락은 일터를 중심으로 형성된다.
목표	(생활인으로서 일상의 문제 해결) 개인의 일상의 문제를 원활히 해결하는데 필요한 실용적인 어휘와 어법, 정보의 탐색과 확인, 정보의 통합과 해석, 정보의 분석과 평가 등의 문해력을 갖춘다.
	(문화인으로서 교양 있는 삶의 영위) 문화인으로서 다양한 미디어의 문화 콘텐츠를 향유하고 교양 있는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어휘와 어법, 정보의 탐색과 확인, 정보의 통합과 해석, 정보의 분석과 평가 등의 문해력을 갖춘다.
	(시민으로서 공동체의 문제 해결) 소통하는 시민으로 공동체 참여와 공동의 문제 해결에 필요한 어휘와 어법, 정보의 탐색과 확인, 정보의 통합과 해석, 정보의 분석과 평가 등의 문해력을 갖춘다.
	(평생학습자로서 학습 능력 강화) 학교,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주체적인 학습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어휘와 어법, 정보의 탐색과 확인, 정보의 통합과 해석, 정보의 분석과 평가 등의 문해력을 갖춘다.
	(직업인으로서 기초역량 강화) 직업인으로서 직업 준비, 직무수행, 경력 전환 등 기본적인 직업 역량을 발휘하는 데 필요한 어휘와 어법, 정보의 탐색과 확인, 정보의 통합과 해석, 정보의 분석과 평가 등의 문해력을 갖춘다.
기능	(어휘와 어법 활용) 맥락에 따라 필요한 다양하고 풍부한 어휘 이해 및 습득, 정확한 어휘와 어법의 활용, (소통을 위한) 적절한 어휘와 어법의 활용을 구성
	(정보의 탐색과 확인) 핵심어 또는 화제 파악, 중심 내용 및 세부 내용의 구분, 정보의 요약, 논지 및 전개 구조 파악
	(정보의 통합과 해석) 숨겨진 주장, 주제, 생략된 정보의 추론, 함축적 의미의 해석, 필자의 의도, 글 또는 자료의 관점, 글 또는 자료에 전제된 사회문화적 배경 추론
	(자료의 분석과 평가) 내용이나 주장의 타당성 평가, 자료 또는 출처의 신뢰성 평가, 필자 관점의 공정성 평가, 표현 및 어휘 사용의 적절성과 효과 평가
	(자료의 감상과 적용) 글 또는 자료의 감상과 공감, 즐거움과 깨달음의 내면화와 성찰, 지식과 정보를 삶의 문제에 적용
	(지식과 정보의 생산) 쓰기 목적과 과제 맥락을 고려한 정보의 재구성과 창의적 생산

항목	최종안
텍스트 양식	(산문(prose) 텍스트) 서사, 논증, 기술 등으로 목적으로 작성된 일반적인 산문 텍스트.
	(문서(documents) 텍스트) 일상, 직장, 공공기관 등 다양한 생활영역에서 표, 도표, 목록, 그래프 등을 활용하여 작성한 문서 텍스트
	(혼합 텍스트) 산문, 인터넷 자료 등 단일 텍스트가 아닌 정보 통합적 구성이 요구되는 다문서 텍스트
	(복합 양식(multimodal) 텍스트) 문자, 음성, 시각이미지, 동영상 등 다양한 언어와 기호가 통합적으로 결합되어 의미를 구성하는 텍스트
학습자	(청소년학습자) 16세 이상 24세 미만의 청소년 학습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상생활 - 교양인으로서 읽기, 시민적 소통 등 학습생활 - 고등학교, 대안학교, 대학 등에서의 학습역량 등 직업생활 - 기초 직업 역량 등 직업 준비 관련 문해력 등
	(청장년학습자) 25세 이상 44세 미만의 청장년 학습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상생활 - 교양인으로서 읽기, 시민적 소통, 금융문해 등 학습생활 - 대학, 평생교육에서의 학습역량 등 직업생활 - 직무수행, 직업전환 관련 문해력 등
	(중년 학습자) 45세 이상 65세 미만의 중년 학습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상생활 - 교양인으로서 읽기, 시민적 소통, 미디어 & 디지털문해 등 학습생활 - 평생교육에서의 학습역량 등 직업생활 - 직무수행, 경력 전환 관련 문해력 등
	(노년 학습자) 65세 이상의 노년 학습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상생활 - 시민적 소통, 미디어 & 디지털문해, 건강문해 등 학습생활 - 평생교육에서의 학습역량 직업생활 - 노인 경제활동과 관련한 신 직업 기초 역량 등

5. 문해교육 프로그램 구성안

본 연구는 16세 이상 청소년과 성인의 문해력 프로그램 개발과 진단 체제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를 목표로 수행되었다. 이에 따라 문해 주요 개념과 프로그램 및 진단 체제 현황을 분석하고 전문가 수요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문해교육 프로그램 체제 개념안을 도출하였다. 향후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본 연구에서 제시한 주요 개념 구성요소를 바탕으로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해교육 체제 개념을 바탕으로 문해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안을 생활 맥락에 따라, 일상생활, 학습생활, 직업생활별로 제시하였다.

어르신을 위한 똑똑한 미디어 읽기

① 프로그램 개요 및 학습 목표

「어르신을 위한 똑똑한 미디어 생활」은 온라인 환경에서 시민사회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비판적 문해력, 책임 있는 미디어 활용 능력을 기르고, 이를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온라인 환경에 적응하고 온라인 의사소통 상황에서 타인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된 수업이다. 이 수업의 내용은 미디어 어터러시 용어와 미디어 플랫폼에 따라 생산·유통되는 정보의 특성에 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미디어 콘텐츠 내의 정보를 비판적으로 선별 및 수용하는 능력과 책임 있는 온라인 의사소통능력을 기르기 위해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비판적 시각을 제고하기 위해 정보 생산자의 의도 파악하기, 신뢰할 수 있고 타당한 정보를 선별하기, 유관 정보 탐색하고 종합하여 재구성하기 등의 활동과 함께 온라인 상황에서 활동하는 책임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윤리에 관한 내용을 학습한다. 이 수업의 학습 목표와 학습 대상은 다음과 같다.

<학습 목표>

첫째, 미디어 플랫폼별 콘텐츠의 특성을 이해하고,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에서 유통·생산되는 정보의 신뢰성, 타당성, 적절성을 평가할 수 있다.

둘째, 비판적 문해력(critical literacy)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정보의 내용과 표현을 비판적으로 분석 및 평가할 수 있다.

셋째, 시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미디어 윤리를 지켜 책임 있고 올바른 미디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학습 대상>

- 비판적 문해력을 키워 넘쳐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똑똑하게 정보를 활용하고 싶은 성인과 노인
- 온라인 상황에서 원활하게 의사소통하고 싶은 성인과 노인

② 내용 체계

가. 프로그램 개요

항목	내용
대상	<input type="checkbox"/> 16세-24세 <input type="checkbox"/> 25세-44세 <input type="checkbox"/> 45세-64세 <input checked="" type="checkbox"/> 65세 이상
맥락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일상생활 <input type="checkbox"/> 학습생활 <input type="checkbox"/> 직업생활
텍스트	<input type="checkbox"/> 글(text) <input type="checkbox"/> 문서(documents)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복합 양식(multimodal)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인터넷
운영	K-MOOC 비대면 온라인 상시 제공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연계협력
강사 요건	유관 분야 박사 이상, 강의 경력 3년 이상
추천 프로그램	선수 프로그램: 미디어 콘텐츠 활용법의 기초 후속: 똑똑하게 활용하는 미디어 콘텐츠

③ 문해 기능 요소

문해 기능 요소		학습 비중				
		10%	20%	30%	40%	50%
어휘	가. 어법 : 표준어, 맞춤법, 문법 오류					
	나. 신조어 : 신어 & 미디어리터러시 용어(세대별 어휘)					
	다. 맥락에 맞는 의사소통 방식 : 상황별 화법 & 인사·대화·협상·협의 어휘 및 말하기 방식					
독해	A. 정보의 탐색과 확인					
	B. 정보의 통합과 해석					
	C. 정보의 분석과 평가					
	D. 자료의 감상과 상황 적용					
	E. 목적에 따른 정보의 생산					

④ 주차별 주요 내용

차시	핵심 문해 기능 요소	주요 내용 (주제)	제재 또는 참고 자료
1	가, 나	미디어리터러시 용어 이해하기 미디어리터러시 용어와 사례 생활 속 자주 틀리는 맞춤법과 표기법	미디어리터러시 용어에 관한 학습 자료
2	나, 다	온라인 상황에서 자주 쓰이는 신조어 미디어 유형별 자주 쓰이는 신조어의 뜻과 사용법 미디어 플랫폼별 유통되는 콘텐츠의 유형과 특징	인터넷 뉴스, 동영상 자료, SNS 게시물 등
3	다	미디어 유형별 의사소통의 방식 이해하기 문어, 구어, 복합양식 텍스트의 특성과 차이 미디어 플랫폼별 유통되는 콘텐츠의 유형과 특징	인터넷 뉴스, 동영상 자료, SNS 게시물 등
4	A	미디어 콘텐츠의 중심 내용을 파악하기 복합양식 텍스트의 중심 내용 파악 복합양식 텍스트의 세부 내용 요약 복합양식 텍스트의 이용 목적 파악	뉴스, 다큐멘터리, 카드 뉴스 등

5	B	정보 생산자의 의도를 파악하며 읽기 I 정보 생산 및 유통의 맥락 텍스트 구조 분석을 통한 생략된 의미 추론	광고, 사회적 쟁점에 대해 다루는 시청각 자료
6	B+C	정보 생산자의 의도를 파악하며 읽기 II 정보 생산 및 유통의 맥락 정보 생산자의 관점, 입장, 의도 추론 : 동일한 주제에 대해 다양한 관점으로 쓰인 글의 비교	광고, 사회적 쟁점에 대해 다루는 시청각 자료
7	C	표현의 효과를 평가하며 읽기 광고 문구 분석을 통한 표현의 효과 평가 : 프레임링 효과(framing effect) 등	광고, 표어, 사회적 쟁점에 대해 다루는 시청각 자료
8	C	정보를 비판적으로 읽기 I 비판의 근거: 신뢰성/타당성/적절성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선별을 위한 가짜 뉴스와 생성형 인공지능이 작성한 글 분석	생활 속 가짜 정보(보이스피싱 등), 가짜 뉴스, 생성형 AI가 작성한 글
9	B+C	정보를 비판적으로 읽기 II 비판의 근거: 신뢰성/타당성/적절성 정보의 타당성 확인을 위한 관련 정보의 수집	생활 속 가짜 정보(보이스피싱 등), 가짜 뉴스, 생성형 AI가 작성한 글, 인터넷 자료
10	A+B+C+D+E	콘텐츠 제작을 위한 정보의 탐색과 종합 유관 정보의 탐색, 분석, 재구성 미디어 콘텐츠의 효과적 활용	뉴스 기사, 관련 콘텐츠 등
11	E	온라인 상황에서 지켜야 하는 미디어 윤리 개인정보 보호 방법의 이해와 적용 저작권의 이해	미디어 윤리에 관한 연구 보고서 등
12	E	온라인 상황에서 지켜야 하는 의사소통의 예절 익명성의 이해와 온라인 에티켓 댓글 달기를 통한 온라인 의사소통 참여	미디어 윤리에 관한 연구 보고서, 화법 예절에 관한 연구 논문

5 추천 대상 및 기대 효과

이 프로그램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인 및 노인들이 비판적 문해력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미디어 콘텐츠의 생산·유통 원리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여, 목적에 맞게 정보를 탐색·종합·평가하여 자신만의 관점을 갖출 수 있게 됨으로써 시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능동적인 의사소통 역량 및 사회 참여 역량을 함양할 수 있다.

둘째, 비판적 문해력의 부족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성인 및 노인들이 정보의 신뢰성과 타당성, 적절성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과 습관을 갖추게 됨으로써 온라인 상황에서 넘쳐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가치 있는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를 선별할 수 있다.

셋째, 미디어 환경에서 갖추어야 하는 윤리 의식과 온라인 의사소통 예절을 갖추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의식을 고취함으로써 책임 있는 시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원활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게 된다.

미래 이해를 위한 과학 읽기

① 프로그램 개요 및 학습 목표

「언제나 즐거운 과학 탐구 생활」은 평생학습이 중요한 현대사회에서 과학 및 기술 분야 텍스트 읽기를 지원함으로써 성인 및 노인들로 하여금 배움의 즐거움을 만끽하고 교양 함양을 통한 자아실현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된 수업이다. 이 수업의 내용은 교양 과학 텍스트 읽기를 통한 과학 및 기술 분야 관련 지식의 습득, 텍스트의 내용을 바탕으로 생활 속 과학 현상을 분석하는 활동의 수행, 심화 과학 지식 및 미래 기술에 관심을 고취하기 위한 다양한 복합양식 텍스트 읽기, 나아가 과학과 인류의 관계에 대해 고찰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삶에 대한 고찰을 끌어내는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읽기를 통한 과학기술 전문 분야에 대한 흥미를 끌어내, 전문 분야 텍스트 읽기 능력의 함양과 더불어 교양 있는 시민들의 평생학습을 위한 동기 유발 및 효능감 제고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이 수업의 학습 목표와 학습 대상은 다음과 같다.

<학습 목표>

첫째, 평생학습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교양의 함양을 위해 전문 분야 텍스트 읽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둘째, 과학·기술 텍스트 읽기를 위한 하위 분야별 기초 용어를 습득하고, 과학·기술 용어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셋째, 과학·기술 분야에 텍스트 읽기에 관한 내재적 동기를 신장시킴으로써 자율적 독자로서 꾸준히 교양 독서에 참여할 수 있다.

<학습 대상>

- 과학 분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여 평생학습의 즐거움을 만끽하고 싶은 성인
- 생활 속 과학, 과학을 통한 미래 기술의 이해를 증진하고 싶은 성인

② 내용 체계

가. 프로그램 개요

항목	내용
대상	<input type="checkbox"/> 16세-24세 <input checked="" type="checkbox"/> 25세-44세 <input checked="" type="checkbox"/> 45세-64세 <input checked="" type="checkbox"/> 65세 이상
맥락	<input type="checkbox"/> 일상생활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학습생활 <input type="checkbox"/> 직업생활
텍스트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글(text) <input checked="" type="checkbox"/> 문서(documents)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복합 양식(multimodal)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인터넷
운영	K-MOOC 비대면 온라인 상시 제공,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연계협력
강사 요건	유관 분야 박사 이상, 강의 경력 3년 이상
추천 프로그램	선수 프로그램: 과학기술 개념어 학습 후속: 과학 신문 비평

③ 문해 기능 요소

문해 기능 요소		학습 비중				
		10%	20%	30%	40%	50%
어휘	가. 어법 : 표준어, 맞춤법, 문법 오류					
	나. 신조어 : 신어 & 미디어리터러시 용어(세대별 어휘)					
	다. 맥락에 맞는 의사소통 방식 : 상황별 화법 & 인사·대화·협상·협의 어휘 및 말하기 방식					
독해	A. 정보의 탐색과 확인					
	B. 정보의 통합과 해석					
	C. 정보의 분석과 평가					
	D. 자료의 감상과 상황 적용					
	E. 목적에 따른 정보의 생산					

④ 주차별 주요 내용

차시	핵심 문해 기능 요소	주요 내용 (주제)	제재 또는 참고 자료
1	가	과학·기술 용어 알아두기 세부 분야별 자주 쓰이는 과학·기술 용어 : 물리/화학/생물/지구과학 등	과학 교양 도서 일반(예: 과학 용어 도서), 과학·기술 기사 등
2	가+다	과학·기술 분야 알아두기 세부 분야별 자주 쓰이는 표현 세부 분야별 주요 화제(topic)	과학 교양 도서 일반, 과학·기술 기사 등
3	나	과학·기술 분야 신조어 알아두기 세부 분야별 신조어 세부 분야별 신기술, 새로운 발견 등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신기술을 다루는 시청각 자료(의학, 공학 분야 등)
4	A+B+D	생활 속 과학·기술 텍스트 읽기 I : 화학 화학 반응의 원리 실생활 속 화학 반응의 사례 실생활에 적용해 보는 화학 반응의 원리	세제, 구강 청결제, 친환경 비누 등의 작용 원리를 다룬 도서, 잡지, 시청각 자료 등

5	A+B+D	생활 속 과학·기술 텍스트 읽기Ⅱ: 생물 생물(동식물)의 분류체계 실생활 속 생물(동식물)의 구조도(예: 수산물) 실생활에 적용해 보는 생물(동식물)의 분류	자연에서 볼 수 있는 식물, 동물들에 대한 도서, 잡지, 시청각 자료 등
6	A+B+D	생활 속 과학·기술 텍스트 읽기Ⅲ: 전자기술 감지 센서의 작동 원리 실생활에 활용되는 감지 센서의 종류	물리학 도서, 잡지, 시청각 자료 등
7	A+B	교양 과학·기술 텍스트 읽기: 우주과학 우주, 은하계, 시공간 차원의 개념과 이해	교양서, 교양잡지, 시청각 자료 등
8	A+B	교양 과학·기술 텍스트 읽기: 물리학 운동 법칙의 개념과 사례 운동 법칙에 관한 연구사	교양서, 교양잡지, 시청각 자료 등
9	A+B+D	과학·기술 텍스트 읽고 적용하기: 생체모방기술 생체모방기술의 개념과 원리 생체모방기술의 사례 탐색(예: 잠수함) 생물의 구조와 공학적 적용	교양서, 교양 잡지, 인터넷 자료, 시청각 자료 등
10	A+B+D	과학·기술 텍스트 읽고 적용하기: 인공지능의 이해 인공지능의 개념과 원리 인공지능의 사례 탐색(예: 자율주행 자동차, 생성형 인공지능) 인공지능의 활용 방안	교양서, 교양 잡지, 인터넷 자료, 시청각 자료 등
11	A+C+E	세계에 대한 이해 확장하기: 영화를 통해 본 과학·기술의 미래 과학·기술과 관련된 영화(예: 설국열차) 영화 속 과학·기술 이해를 위한 인터넷 자료 탐색 영화 속 과학·기술 설명하는 글쓰기	교양서, 교양 잡지, 인터넷 자료, 시청각 자료 등
12	A+C+E	세계에 대한 이해 확장하기: 인류와 과학·기술의 미래 인류의 발전과 과학의 역사에 대한 교양서 인류의 발전을 위해 과학·기술의 활용 방안 에 대한 글쓰기	교양서, 교양 잡지, 인터넷 자료, 시청각 자료 등

⑤ 추천 대상 및 기대 효과

이 프로그램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새로운 내용을 배워가는 즐거움을 경험함으로써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시민사회 구성원들이 평생학습(lifelong learning)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배움을 실천해 나갈 수 있다.

둘째, 자칫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과학과 기술에 대한 문턱을 낮추고, 호기심에 의해 추동되는 능동적인 독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셋째, 인류와 과학의 관계에 대해 고찰하는 시간을 가져 봄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삶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수 있다.

슬기로운 직장인 국어 생활

① 프로그램 개요 및 학습 목표

「슬기로운 직장인 국어 생활」은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화 사회에서 직장인으로서 요구되는 다문서 읽기 능력, 업무 목적의 쓰기 능력 등 문해력을 기르고 이를 통해 타인과의 원활한 의사소통능력을 신장시킬 목적으로 구성된 수업이다. 이 수업의 내용은 다양한 업무에 사용되는 직업 전문 어휘, 직장 내 동료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기본적인 어법을 바탕으로, 다문서 처리능력을 기르기 위해 필요한 인터넷 정보 탐색과 선별하기, 수합된 정보들을 읽고 읽기 목적과 구조에 맞게 통합 및 요약하기 등의 읽기 능력을 기르고, 기획안, 보고서, 발표를 위한 요약문 작성하기 등 업무 목적의 장르별 쓰기는 물론, 이메일, 메신저, 협업을 위한 도구(Co-op tool)까지 타인과의 협업을 위한 쓰기 장르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이 수업의 학습 목표와 학습 대상은 다음과 같다.

<학습 목표>

첫째, 직업 문해력(business literacy)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회사 내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의사소통 상황에서 읽기와 쓰기 활동을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둘째, 업무에서 사용하는 문서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평가하여, 목적에 맞게 정보를 통합하고 재구성할 수 있다.

셋째,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탐색하고 선별하여 목적에 맞게 논리적으로 다양한 장르의 문서를 구성할 수 있다.

<학습 대상>

- 업무 문해력을 키워 직장 안팎에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고 싶은 직장인
- 다양한 업무 관련 문서를 잘 읽고 해석하고, 잘 쓰고 싶은 직장인

② 내용체계

가. 프로그램 개요

항목	내용
대상	<input type="checkbox"/> 16세-24세 <input checked="" type="checkbox"/> 25세-44세 <input checked="" type="checkbox"/> 45세-64세 <input type="checkbox"/> 65세 이상
맥락	<input type="checkbox"/> 일상생활 <input type="checkbox"/> 학습생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직업생활
텍스트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글(text) <input checked="" type="checkbox"/> 문서(documents)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복합 양식(multimodal)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인터넷
운영	K-MOOC 비대면 온라인 상시 제공,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연계협력
강사 요건	유관 분야 박사 이상, 강의 경력 3년 이상
추천 프로그램	선수 프로그램: 즐거운 어휘 소통, 후속: 슬기로운 시민 국어 생활

③ 문해 기능 요소

문해 기능 요소		학습 비중				
		10%	20%	30%	40%	50%
어휘	가. 어법 : 표준어, 맞춤법, 문법 오류					
	나. 신조어 : 신어 & 미디어리터러시 용어(세대별 어휘)					
	다. 맥락에 맞는 의사소통 방식 : 상황별 화법 & 인사·대화·협상·협의 어휘 및 말하기 방식					
독해	A. 정보의 탐색과 확인					
	B. 정보의 통합과 해석					
	C. 정보의 분석과 평가					
	D. 자료의 감상과 상황 적용					
	E. 목적에 따른 정보의 생산					

④ 주차별 주요 내용

차시	핵심 문해 기능 요소	주요 내용 (주제)	제재 또는 참고 자료
1	가	공문서에 자주 쓰이는 어휘 이해하기 ■ 헷갈리는 어휘의 뜻 ■ 자주 틀리는 맞춤법과 표기법 ■ 공직 전문어의 사용 양상과 올바른 사용법	공문서 어휘에 관한 연구 논문
2	나	업무와 관련된 신조어(개념어) 이해하기 ■ 새로운 분야의 신조어의 뜻과 사용법	뉴스 기사
3	다	공문서를 통한 소통 방식 이해하기 ■ 상사 또는 동료와의 대화 또는 협상의 화법 ■ 상황에 따라 자주 사용되는 어구 및 문장 양식	화법 관련 연구물 (구어 상황 포함)
4	A	세상 읽기 I : 정보의 중심 내용 파악하기 ■ 화제(topic), 중심 내용(main idea) ■ 논지 전개(structure) 등 파악 ■ 뉴스와 광고 읽기를 통한 세상 읽기	인터넷 뉴스, 광고 근로기준법, 근로계약서, 수행/연구 보고서
5	A	세상 읽기 II : 정보를 목적에 맞게 요약하기 ■ 핵심 정보의 선택과 부가적 정보의 삭제 ■ 정보의 일반화 및 재구성 등 ■ 뉴스와 광고 읽기를 통한 세상 읽기	인터넷 뉴스, 광고 업무 관련 기사, 과업 지시서, 정책 제언서 등

6	B	의도 읽기 : 생략된 정보 추론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필자의 의도, 글의 관점, 함축적 의미 추론 뉴스와 광고 읽기를 통한 세상 읽기 	인터넷 뉴스, 광고 업무 관련 기사, 과업 지시서, 정책 제언서 등
7	C	가치 읽기 : 정보의 판단 및 평가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의 분석과 목적에 따른 중요도 평가 정보의 가치 평가 : 타당성/신뢰성/공정성 준거 뉴스와 광고 읽기를 통한 세상 읽기 	인터넷 뉴스, 광고 업무 관련 기사, 과업 지시서, 정책 제언서 등
8	A+B+C	다문서(multi-documents) 종합적으로 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터넷 자료의 탐색과 평가를 통한 정보 재구성 	다문서
9	E	공문서 세계 이해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문서라는 장르적 특성 이해 공문서 쓰기의 절차 이해 협력적 글쓰기의 요구 맥락 : 아이디어 제안을 위한 이메일/메신저/협업툴 활용 협력적 쓰기의 예의 연습 	공문서 인터넷 자료
10	E	장르별 문서 작성하기 I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획안, 정책 제언서 등 목적 설정, 정보 탐색, 내용 조직, 기대 효과 복합양식 텍스트의 효과적 활용 : 도식(graphic, mapping, info-graphic) 	기획안 정책 제언서
11	E	장르별 문서 작성하기 II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업 지시서, 업무/결과 보고서 등 업무 요약, 요지 작성, 독자 중심 전달 기법 복합양식 텍스트의 효과적 활용 : 도식(graphic, mapping, info-graphic) 	과업 지시서 업무/결과 보고서
12	A+B+C+E	목적 설정에서 자료 읽고 공문서 작성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터넷 자료의 탐색을 통한 아이디어 생성과 평가 내용 조직 및 효과적 표현 방식 활용 장르 규범에 따른 문서 작성 	다문서 인터넷 자료

㉔ 추천 대상 및 기대 효과

첫째, 직장에 입사하기 전 시기(입직기)의 청년들이 직업 문해력(business literacy)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회사 내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의사소통 상황에서 읽기와 쓰기 활동을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둘째, 기존 직장인 중에서도 문해력의 부족으로 업무 진행이나 직장 내 의사소통 상황에서 어려움을 느낀 사람들이 업무 문해력 신장에 도움을 받아 문서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평가하여, 목적에 맞게 정보를 통합하고 재구성할 수 있게 됨으로써 업무능력과 대인 의사소통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

셋째, 뉴스와 광고 읽기로부터 세계와 사회의 맥락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업무 상황에서 사회와 기업에 필요한 과업을 스스로 설정하여 기획하고 설계하여 타인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고차적인 업무능력을 지니게 됨으로써 미래지향적이고 주도적인 직장인으로서 사회에 도움이 되는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다.



제6 장

문해교육 프로그램 및 진단 체제 정책 방안



1. 개요

문해교육 개념과 현황 분석, 국립국어원 문해교육 체제 개념 구성 결과 등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국립국어원이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3대 영역 10대 우선 과제를 제안하였다. 과제는 <표 VI-1>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문해교육 프로그램 개발’,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지원’, ‘문해력 진단 체제 구축과 운영’ 등 세 개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각 영역은 세부 핵심 과제로 구성하였다. ‘문해교육 프로그램 개발’ 영역은 주제형, 패키지형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문해교육 도서 개발, 문해교육 온라인 콘텐츠 개발, 문해교육 전문가 양성 과정 개발 등 4개의 세부 과제로 구성하였다.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지원’ 영역은 국민 문해교육 플랫폼 구축과 운영, 국어문화원 연계 국민 문해교육 활성화 사업, 대외 연계형 프로그램 운영 지원, 문해교육 전문성 강화 사업 등 4개 사업으로 구성하였다. ‘문해력 진단 체제 구축과 운영’ 영역은 문해력 진단 도구의 개발, 문해력 진단 체제의 구축과 운영 등 2개 사업으로 구성하였다.

<표 VI-1> 국민의 문해력 향상을 위한 문해교육 프로그램 10대 정책 실행 과제

주요 영역	우선 실행 과제
영역 1 : 문해교육 프로그램 개발	주제형, 패키지형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문해교육 도서 개발
	문해교육 온라인 콘텐츠 개발
	문해교육 전문가 양성 과정 개발
영역 2 :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지원	국민 문해교육 플랫폼 구축과 운영
	국어문화원 연계 국민 문해교육 활성화 사업
	대외 연계형 프로그램 운영 지원
	문해교육 전문성 강화 사업
영역 3 : 문해력 진단 체제 구축과 운영	문해력 진단 도구의 개발
	문해력 진단 체제의 구축과 운영

2. 영역별 추진 과제

2.1. 영역 1: 문해교육 프로그램 개발

문해교육 체제 구축을 위한 우선 과제로서 영역 1은 문해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목

표로 한다. 세부적으로, 주제형, 패키지형 문해교육 프로그램 개발, 문해교육 도서 개발, 문해교육 온라인 콘텐츠 개발, 문해교육 전문가 양성 과정 개발 등 네 가지 방안을 제안하였다.

2.1.1. 주제형, 패키지형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본 연구에서 제안한 문해교육 체제 구성안에 따라서 주제형, 패키지형 문해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이 영역의 과제는 다음의 정책 목표를 갖는다. 첫째, 활용성 높은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국립국어원, 국어문화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관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둘째, 다양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조합할 수 있는 주제형 문해교육 프로그램과 특정 기관과 대상을 위한 패키지형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국립국어원에서 개발하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은 다음의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첫 번째는 주제형 문해교육 프로그램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문해교육의 맥락, 기능, 텍스트 양식, 학습자를 조합하여 다양한 주제형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생성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세대로 구분된 학습자별 요인과 문해 맥락별 요인을 교차하여 청소년 직업생활, 노인 일상생활, 중장년 학습생활 주제를 생성할 수 있다. ‘은행 입직을 준비하는 청년을 위한 금융 문서 이해’처럼 각 주제는 다시 세분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패키지형 문해교육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학교, 공공기관, 도서관, 기업 등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원하는 기관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이다. 주제형 프로그램을 조합하여 해당 기관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개발하여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은 첫째 세대별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세대 구분에 따라 청소년, 청장년, 중년, 노년 층의 생애 특성과 수요를 분석하여 주제별, 패키지형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본 연구에서는 노인을 위한 디지털문해나 청소년을 위한 사회적 어교육 등의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주제별로 세대 수요가 높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노인 기관, 청소년 기관과 연계하여 맞춤형 패키지형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문해 맥락과 목적별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해 맥락을 일상생활, 학습생활, 직업생활로 구분하였고, 문해 목적을 문화인으로서 문해, 생활인으로서 문해, 시민으로서 문해, 직업인으로서 문해, 그리고 평생 학습인으로서의 문해로 구분하였다. 이런 범주들은 우리의 생활의 문제와 연결되는 문해교육의 주제를 생성하는 데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문해 기능별로 주제형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해 기능을 기존의 읽기 이론을 토대로 하여, 어

취와 어법의 활용, 정보의 탐색과 확인, 정보의 통합과 해석, 자료의 분석과 평가, 자료의 감상과 적용, 지식과 정보의 생산으로 설정하였다. 국립국어원의 정체성을 담아 낼 수 있는 요소로서 핵심적인 문해교육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문해교육 프로그램 개발 방법으로는 먼저 국립국어원이 주도하여 연구 개발하는 방법이 있다. 핵심 주제 영역(예: 문해 기능 관련 주제)은 국립국어원이 주도하여 개발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국어문화원의 수요를 바탕으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도 있다. 외부 기관 맞춤형 프로그램인 패키지형 프로그램 중 핵심 주제 영역의 프로그램은 국립국어원이 주도하여 개발할 수 있다. 다음으로 외부 전문 기관과 공동 개발하거나 외주 형태로 개발을 위탁할 수 있다. 미디어문해, 금융문해, 디지털문해 등 확장형 프로그램과 특정 기관 맞춤형 패키지형 프로그램의 일부는 이런 방법으로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평생교육 분야와 연계될 수 있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시도평생교육진흥원, 평생학습도시와 협업할 수 있을 것이다. 직업교육 분야와 연계될 수 있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인력공단 등과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교육 관련 분야는 고등학교, 대학 등과 협력할 수 있을 것이다.

<표 VI-2> 주제형, 패키지형 문해교육 프로그램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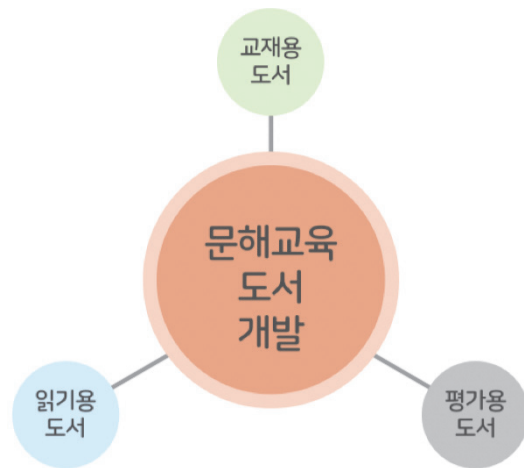
유형	내용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제형 : 문해교육의 맥락, 기능, 텍스트 양식, 학습자를 조합하여 다양한 주제형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생성 패키지형 : 학교, 공공기관, 도서관, 기업 등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원하는 기관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대별 프로그램 : 학교, 공공기관, 도서관, 기업 등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원하는 기관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문해 맥락과 목적별 프로그램 : 우리의 생활의 맥락 및 문제와 연결되는 문해교육 프로그램 개발 문해 기능별 프로그램 : 어휘와 어법의 활용, 정보의 탐색과 확인, 정보의 통합과 해석, 자료의 분석과 평가, 자료의 감상과 적용, 지식과 정보의 생산 등 문해 기능 고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접 개발 : 핵심 주제 영역과 패키지형 프로그램 직접 개발 공동 또는 외주 개발 : 확장형 프로그램과 특정 기관 맞춤형 패키지형 프로그램의 일부

2.1.2. 문해교육 활용도서 개발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문해교육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각종 도서의 개발도 필요하다. 문해교육 활용도서 개발은 다음과 같은 목표를 갖는다. 첫째, 교재용, 읽기용, 평가용 등 활용 목적에 따라 도서를 개발한다. 둘째, 문해교육 활용을 위한 도서들은 앞에서 살펴보았던 문해교육 프로그램 유형(주제형, 패키지형)과 연계한 도서를

개발한다. 셋째, 문해교육에 참여하는 학습자뿐만 아니라 문해 전문가를 위한 연구 교재나 지도서를 개발한다.

문해교육 도서는 활용 목적에 따라 교재용 도서, 읽기용 도서, 평가로 개발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먼저 교재용 도서는 학습자용 도서와 교강사용 도서로 개발할 수 있다. 학습자용 도서는 문해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개발할 수 있는데, 앞서 살펴보았던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유형에 따라 주제형 도서와 패키지형 도



[그림 VI-1] 문해교육용 도서

서로 개발할 수 있다. 주제형 도서는 핵심 문해 주제별로 개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직장인을 위한 현대 어법’을 주제형 문해교육 도서로 개발할 수 있다. 이 외에 직장인을 위한 전문 어휘, 직무 어휘, 현대 어법 관련 도서, 대학생을 위한 학문 문해(academic literacy) 관련 도서, 노인을 위한 디지털문해 교재로서 ‘노인을 위한 유튜브 바로 읽기’와 같은 교재용 도서를 개발할 수 있다. 패키지형 도서는 외부 기관 맞춤형 문해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한 교재용 도서로서, 해당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내용 구성에 따라 개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자체 문해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일반 행정과 공공언어’ 교재를 개발할 수 있다. 직업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폴리텍대학과는 ‘대학생을 위한 기초 직업 문해’ 교재를 개발할 수 있다. 다음으로 교강사용 도서는 전문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프로그램용 교재와 지도서 및 매뉴얼로 개발할 수 있다. 전문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프로그램용 교재는 국어문화원 문해교육 프로그램 교강사 연수 과정, 기초 성인 문해 교강사를 위한 어문법 과정, 문해교사 전문가 과정 교재 등으로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지도서와 매뉴얼은 핵심 교재 지도서와 활용 매뉴얼 형태로 개발할 수 있다.

<표 VI-3> 문해교육 활용도서 (교재용)

구분		내용(예시)
학습자용	주제형	핵심 문해 기능별(예: 직장인을 위한 현대 어법 등), 직장-어휘, 대학생-학문 문해, 노인-유튜브 읽기 등.
	패키지형	지자체-공공언어, 전문계고, 폴리텍대학-기초 직업 문해 등
교강사용	전문 역량 강화 연수 교재	국어문화원 문해교육 프로그램 교강사 연수 과정, 기초 성인 문해 교강사를 위한 어문법 과정, 문해교사 전문가 과정 교재
	지도서와 매뉴얼	핵심 교재 지도서와 활용 매뉴얼

읽기용 도서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에서 부교재로 활용하거나 문해력 향상에 관심이 있는 일반 학습자들을 위해 개발할 수 있다. 즉, 읽기용 도서는 성인 문해 학습자의 읽기 능력 향상을 위한 도서로서 문해교육의 목적, 문해 기능, 문해 학습자, 텍스트 양식별로 다양한 형태로 개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노인을 위한 전래 동화 시리즈, 비판적 읽기와 사설(사설 모음집), 필수 금융 텍스트 100선처럼 문해교육 현장 수요 분석을 바탕으로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형 문해교육 프로그램과 패키지형 문해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부교재 형태로 개발할 수 있을 것이며 온라인 문해교육 콘텐츠와 연계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평가용 도서는 문해력 자가 진단과 측정 또는 문해력 인증 체제 준비를 목적으로 하는 도서이다. 평가용 도서는 향후 구축할 문해력 진단 체제와 연계하여, 문해교육 기관이나 개인의 문해력 진단 도구 활용 상황을 고려하여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문해의 맥락과 문해교육 목표를 고려하여 ‘직장인을 위한 문해력 진단 북’, ‘문제로 풀어보는 나의 문해력’ 등의 형태로 개발할 수 있다.

2.1.3. 문해교육 온라인 콘텐츠 개발

문해교육 온라인 콘텐츠 개발은 다음과 같은 목표를 갖는다. 첫째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문해 콘텐츠를 개발한다. 특히 국립국어원과 국어문화원의 온라인 플랫폼에 탑재하여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한다. 그뿐만 아니라 유튜브 등 SNS 서비스에서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을 고려한다. 둘째, 문해교육 프로그램 중 수요도를 판단하되, 핵심 문해 기능에 집중한 학습자와 전문가를 위한 온라인 콘텐츠로 개발한다. 온라인 콘텐츠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핵심 문해 기능(어휘와 어법의 활용, 정보의 탐색과 확인, 정보의 통합과 해석, 자료의 분석과 평가, 자료의 감상과 적용, 지식과 정보의 생산)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국민의 문해 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어휘사전 등,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콘텐츠를 개발한다. 문해교육에서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문해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비스로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문해교육 온라인 콘텐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먼저 국립국어원과 국어문화원을 중심으로 학습자용 콘텐츠와 전문가용 개발할 수 있다. 학습자용 콘텐츠의 예로는 국립국어원과 국어문화원이 운영하는 문해교육 프로그램과 연계된 강좌형 콘텐츠, 유튜브 쇼츠나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릴스 등 SNS용 콘텐츠, K-MOOC, KOCW 등 강의 플랫폼용 콘텐츠, 자기주도 학습용 학습 도구 등이 있을 것이다. 전문가용 콘텐츠는 전문가 교육과정과 연계한 온라인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다. 이런

전문가용 콘텐츠로는 문해 전문가를 위한 핵심 문해교육과정 관련 콘텐츠, 문해 교수법 학습콘텐츠 등이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타 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평생교육기관, 직업교육기관, 대학 등과 연계한 학습자용 온라인 콘텐츠를 공동 개발하거나, 타 기관과 연계하여 운영할 패키지형 문해교육 프로그램 중 일부를 온라인 콘텐츠로 개발하여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나 시도평생교육진흥원과 연계하여 ‘우리글, 온라인 시민대학’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나 전문대학 등과는 ‘청년 취업자를 위한 문서 읽기’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학습콘텐츠뿐만 아니라 수요도가 높은 어휘사전을 개발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나 국가직무능력표준원 등과 직군별 용어사전이나 핵심 직무 용어 사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음에 문해교육을 법정 교육화하게 된다면, 공공기관이나 기업과 연계하여 핵심 교육과정을 온라인 콘텐츠로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학습콘텐츠뿐만 아니라 평생교육, 직업교육 분야의 문해교육 전문가들을 위한 교육 콘텐츠를 관련 기관과 공동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표 VI-4> 문해교육 온라인 콘텐츠 내용

구분		내용
국립국어원 국어문화원	학습자용	국어문화학교 및 국어문화원용 핵심 콘텐츠 개발(강좌형 콘텐츠, 쇼츠나 릴스 등 SNS용 콘텐츠 개발, K-MOOC, KOCW 등 플랫폼용 강의 콘텐츠 개발, 자기주도 학습용 학습 도구 개발 등).
	전문가용	전문가 교육과정과 연계한 온라인 연수 콘텐츠 개발(문해 전문가를 위한 핵심 문해교육과정 등, 문해 교수법 학습콘텐츠 개발 등)
타 기관 연계	학습자용	평생교육기관 연계, 직업교육기관 연계 온라인 콘텐츠 공동 개발, 타 기관 연계 패키지 프로그램 중 일부 온라인 콘텐츠로 개발 및 제공, 문해교육 법정 교육화 > 핵심 교육과정 온라인 콘텐츠로 개발 예: 우리글, 온라인 시민대학(국평원, 서평원 등 연계), 청년 취업자를 위한 문서 읽기(한국산업인력공단, 전문대학 등 연계), KRIVET, NCS 등과 연계한 직군별 용어사전 DB 구축
	전문가용	평생교육, 직업교육 분야의 문해교육 전문가들을 위한 교육 콘텐츠 공동 개발



[그림 VI-2] 온라인 문해교육 콘텐츠 사례

2.1.4. 문해교육 전문가 양성과정 개발

국립국어원이 개발할 문해교육 전문가 양성과정은 다음과 같은 목표를 갖는다. 첫째, 국립국어원 문해교육과정 운영 전문가 양성과정을 개발한다. 추후 국립국어원이 국어문화원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국민 문해력 향상을 위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운영할 경우, 전문 문해교육 교강사가 필요할 것이다. 이때 기존의 문해교육 전문가의 직무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과 함께 새로운 문해교육 교강사를 양성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평생교육, 학교교육, 직업교육 분야의 문해교육 전문가를 위한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국립국어원은 독자적인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한편, 평생교육, 학교교육, 직업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문해교육 교강사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문해교육 전문가 자격화 및 관련 자격증 과정을 개발한다. 중장기적으로 국어능력, 특히 읽기 능력에 기반한 전문가 자격 제도를 운영할 경우 관련한 자격증 과정을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문해교육 전문가 양성과정의 내용은 지금까지 제시했던 목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 있다. 첫째 국민 문해교육 교강사 양성과정은 국어문화원 연구원, 국립국어원 문해교육과정 교강사 등을 대상으로 한다. 양성과정 내용은 향후 개발하게 될 문해교육 과정의 학습자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핵심 문해 기능과 미디어문해, 디지털문해, 금융문해 등 확장 영역을 중심으로 개발한다. 또한 국민을 위한 문해력 프로그램이 청소년, 청장년, 중년, 노인 등 다양한 성인층을 대상으로 하므로 세대별 학습자 특성의 이해와 교수법, 학생 상담 방법 등도 핵심 내용으로 다룬다. 문해교육 프로그램과 관련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과정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일반적인 문해교육 전문가를 위한 문해교육 역량 강화 과정을 개발할 필요

가 있다.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초문해 중심의 성인 문해교육 교강사, 학교 교사, 직업교육 전문가 등이 교육 대상이 될 것이다. 읽기 능력과 관련한 문해 기능 영역을 주된 내용으로 한 양성과정을 개발하되 평생교육기관, 학교, 직업교육기관 등의 요구를 조합하여 공동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문해교육 전문가(읽기교육 중심) 자격 과정을 개발할 수 있다. 이는 추후 문해교육 전문가 자격이 제도화될 경우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다. 문해 관련 이론, 특히 읽기 관련 이론, 문해교육 정책, 교수법, 상담법 등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되, 문해 교수 역량을 높이기 위한 실습 과정도 포함해야 할 것이다. 유사 국가 자격인 문해교원, 한국어교원 자격 제도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표 VI-5> 문해교육 양성과정 개발

구분		대상	내용 및 방법
전문가 양성과정 개발	국민 문해교육 교강사 양성과정	국어문화원 연구원, 국립국어원 문해교육과정 교강사 등	문해 기능 & 확장 영역 중심(학습자 프로그램 연계) 학습자 전문성 강화 (성인 학습자 교수법 등) 등
	전문가를 위한 문해교육 역량 강화 과정	성인 문해 교강사, 학교 교사, 직업교육(훈련) 전문가 등	문해 기능 영역 + 외부 기관 요구 조합형 과정 개발 외부 기관과 공동 기획과 개발 (국평원, 직능연, NCS 등 연계)
	문해교육 전문가(읽기교육 중심) 자격 과정	문해교육 전문가	이론 + 실습 구성 개념, 정책, 교수법, 상담법, 학습자 이해 등 (유사 자격) 문해교원, 문해교사, 독서지도사 등

2.2. 영역 2: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지원

문해교육 체제 구축을 위한 우선 과제로서 영역 2는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지원으로 한다. 세부적으로, 국민 문해교육 플랫폼 구축과 운영, 국어문화원 연계 국민 문해교육 활성화 사업, 대외 연계형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문해교육 전문성 강화 지원 사업 등 네 가지 방안을 제안하였다.

2.2.1. 국민 문해교육 플랫폼 구축과 운영

국립국어원은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문해교육 홍보, 문해교육 전문가 양성과정 운영, 문해교육 진단 체제 운영 등, 국민 문해력 향상을 위한 서비스 통로로서 통합

적인 문해교육 플랫폼을 온라인에 구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플랫폼 구축과 운영 사업은 다음과 같은 정책 목표를 갖는다. 첫째, 국민의 문해교육 지원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여 대국민 문해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둘째, 학습 이력 관리, 문해 학습, 정보 습득, 문해력 진단 등 문해교육 종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한다. 셋째, 정보 제공자와 사용자가 문해교육 정보를 지속해서 생산하고 확장하는 생성형 플랫폼을 구축한다.

국민 문해교육 플랫폼은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는 학습 이력 서비스이다. 이는 개인 학습자용 서비스로 이를 통해 개인 이용자는 문해 학습 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온라인 학습 이력, 문해력 진단 결과, 문해 학습 추천 서비스, 개인 맞춤형 학습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국립국어원이나 국어문화원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했을 경우 관련 이수증이나 학습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을 것이다. 문해력 진단 체제가 문해력 인증 제도와 연계가 될 수 있다면 문해력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온라인 강좌 서비스이다. 온라인 강좌 서비스는 국립국어원이 운영하거나 연계한 강좌를 중심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학습자용과 전문가(교강사)용 서비스로 구분될 것이다. 핵심 문해 기능 영역은 국립국어원이 독자적으로 온라인 과정을 탑재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미디어문해, 디지털문해, 금융문해 등 확장 영역은 유관 기관과 공동 기획하여 운영하거나, 타 기관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과정을 연계하면 될 것이다. 세 번째는 학습콘텐츠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에서는 학습자용, 교강사용 학습콘텐츠를 제공한다. 어휘, 어문 규정, 문해 기능별 주제, 학습법, 교수법 등 핵심 주제의 콘텐츠를 탑재할 수 있을 것이다. 유튜브 등 SNS 채널을 운영하여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를 탑재하여 연동할 수도 있을 것이다. 네 번째는 교수학습 자료 서비스이다. 여기에서는 교재, 워크북, 지도서, 매뉴얼, 연습 문항 등을 교수와 학습에 필요한 디지털 자료를 전자책 형태로 탑재하여 제공할 수 있다. 다섯 번째는 문해력 진단 서비스이다. 향후 국립국어원이 자체 개발하여 운영할 문해력 진단 서비스를 탑재하여 제공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나 서울시교육청 등의 관련 서비스를 연동할 수도 있다. 여섯 번째는 AI 기반 서비스이다. 최근 비약적인 발전을 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여 AI 기반 쓰기 감수 서비스, AI 기반 요약 분석 평가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의 다양한 인공지능 기업과 협업을 통해 활용도 높은 문해교육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이다. 일곱 번째는 어휘사전 서비스이다. 현재 국립국어원에서는 표준국어, 한국어, 수어, 전문 용어, 공공용어 등의 어휘사전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를 확장하여 신조어, 직무 용어 등 수요도가 높은 분야의 어휘사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육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서비스할 수 있다. 국어문화원, 국가평생교

육진흥원 등 관련 기관의 데이터와 네이버, 다음 검색 사이트 등과 연계하여 전국 문해교육 프로그램, 문해교육 기관 정보 검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표 VI-6> 문해교육 양성과정 개발

주요 서비스		내용
문해교육 플랫폼 개발과 운영	학습 이력	개인 학습자용 서비스. 개인 온라인 학습 이력(이수증 등 증명서 발급), 문해 진단 결과, 문해 학습 추천 서비스 등 개인 맞춤형 학습 정보 제공
	온라인 강좌	학습자용-교강사용 교육과정 제공, 핵심 문해 영역 - 국립국어원 온라인 과정 탑재 운영, 확장 영역 - 공동 기획 및 운영 과정 연동 등
	학습콘텐츠	학습자용-교강사용 학습콘텐츠 제공. 핵심 주제 (어휘, 어문 규정, 문해 기능별 주제, 학습법, 교수법 등)별 콘텐츠 탑재, 유튜브 등 SNS 콘텐츠 연동 등
	교수학습 자료	교재, 워크북, 지도서, 매뉴얼, 연습 문항 등 교수와 학습에 필요한 디지털 자료를 탑재하여 제공
	문해력 진단	온라인 문해력 진단 서비스 (자체 문해 진단 체제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기초문해능력 진단 체제 연동)
	AI 기반 서비스	AI 기반 쓰기 감수 서비스, AI 기반 요약 분석 평가 서비스 등 (네이버 클로바 서비스 등과 연계)
	어휘사전	기존 어휘사전 서비스(표준국어, 한국어, 수어, 전문 용어, 공공 용어 등) + 신규 서비스 확장(신조어, 직무 용어 등)
	교육정보 DB	전국 문해교육 프로그램, 문해교육 기관 정보 검색 서비스 (국어문화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네이버, 다음 검색 사이트 등 연계)



[그림 VI-3] 국립국어원 문해교육 플랫폼 개념도

2.2.2. 국어문화원 연계 국민 문해교육 활성화 사업

국어문화원을 기반으로 하는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한 방법으로 ‘국어문화원 연계 국민 문해교육 활성화 사업’을 제안한다. 이 사업은 다음의 정책적 목표를 갖는다. 첫째, 국어문화원을 통해서 국립국어원 문해교육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보급한다. 이를 통하여 국어문화원은 국립국어원 문해교육 정책의 핵심 실행 주체로 성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우수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관과 프로그램을 발굴한다. 국립국어원의 문해교육 사업을 촉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목표이다.

국어문화원 연계 국민 문해교육 활성화 사업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실시될 수 있다. 첫째, 사업의 대상은 국어문화원을 중심으로 한, 국립국어원이 인정하는 전문 문해교육 기관으로 한다. 문해교육 프로그램 활성화에 기여할 선도 기관으로서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어문화원 이외의 기관이 본 사업에 참여할 경우 기관 인증을 선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국어문화원 지정을 확장하여 국어문화원 연계 문해교육 활성화 사업의 인프라 기반을 넓힐 필요가 있다. 둘째, 문해교육 활성화 사업은 예산 지원의 방식으로 한다. 사업 지원은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지원으로 강사비, 프로그램 운영비, 프로그램 개발비, 교강사 역량 개발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문해교육 활성화 사업은 기본형, 특성화형, 네트워크형으로 진행할 수 있다. 기본형은 기본적인 문해 기능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한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 유형이다. 특성화형은 기본형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기본으로 하되, 대상, 맥락, 목적,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 유형이다. 네트워크형은 타 국어문화원, 공공기관, 기업체 등과 공동 기획, 운영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 유형이다. 넷째 사업은 공모 방식으로 진행한다. 제안서 평가, 예산 지원, 교육 프로그램 운영 자문, 성과 평가 등 일반적인 교육 공모 사업을 취한다. 특히 문해교육 프로그램 자문을 활용하여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질 관리가 과정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단년도 사업보다는 3년 이상의 다년도 사업을 지원하는 등, 문해교육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 우수 기관, 우수 문해교육 프로그램, 우수 교강사와 학습자를 발굴하여 포상하거나 우수 사례집 제작 등을 통해서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성과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표 VI-7> 국어문화원 연계 문해교육 활성화 사업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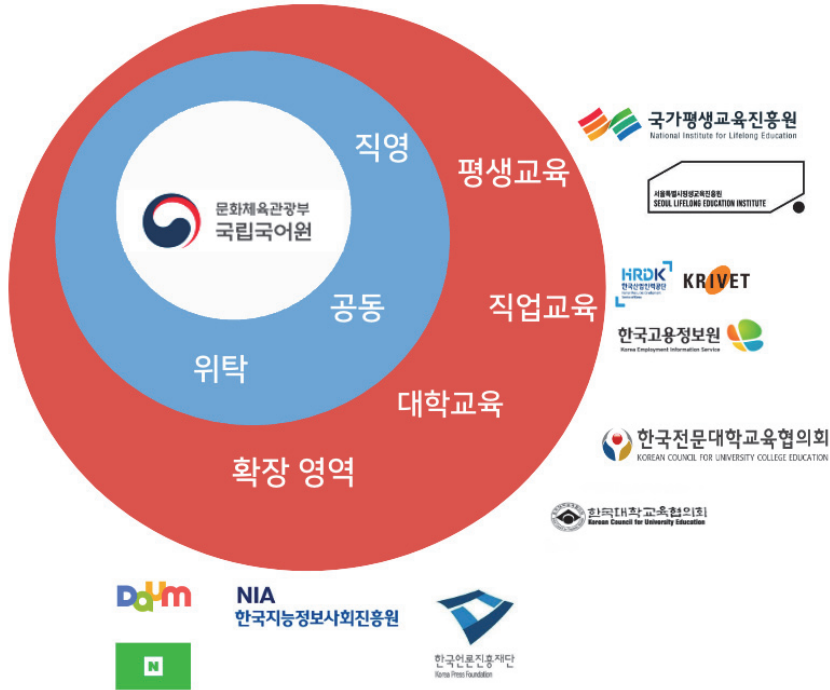
구분	내용
대상	국어문화원을 중심으로 한 국립국어원이 인정하는 전문기관(국어문화원 지정 확대와 연계)
지원비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강사비, 프로그램 개발비, 운영비, 강사 역량 개발비 등)
유형	기본형(어휘, 어문 규범 등 기본 문해 기능 영역), 특성화형(대상, 목표, 맥락,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한 프로그램), 네트워크형(2개 이상의 기관 공동 기획과 운영)
방법	문해교육 프로그램 공모형 : 제안서 평가 → 예산 지원 →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자문 → 평가. 다년도 사업 고려
기타	우수 기관, 학습자, 교수자 포상, 우수 프로그램 사례 발굴과 배포

2.2.3. 대외 연계형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평생교육, 직업교육, 대학교육, 문해 확장 영역)

국어문화원 중심의 문해교육 활성화 사업을 중장기적으로 평생교육, 직업교육, 대학교육 등으로 확장하여 ‘대외 연계형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 사업은 다음과 같은 목표를 갖는다. 첫째, 평생교육, 직업교육, 대학교육 영역과 연계한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한다. 둘째, 미디어문해, 디지털문해, 금융문해 등 문해 확장 영역의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한다. 셋째, 기관 맞춤형, 패키지형 프로그램을 직접, 위탁 또는 공동 운영한다.

확대 영역별로 연계 방안을 보면 우선 평생교육 영역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평생학습도시 등과 연계하여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성인 문해교육 연계 프로그램 운영 지원(중졸 이후), 시민교육 연계 문해교육, 공무원 직무 연수 패키지 프로그램 제공 등이 가능할 것이다. 직업교육 영역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고용정보원, 국가직무능력표준원, 직능 단체, 기업 등과 연계하여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다. 직업교육 영역에서는 전문계고 고교학점제 교과목 지원, 직업기초능력 프로그램 공동 운영, 중소기업 직업 문해교육 패키지 제공 등이 가능할 것이다. 대학교육에서도 대학교육협의회, 전문대학교육협의회, 국립대학평생교육원협의회, 사립대학평생교육원협의회, 대학 등과 연계하여 대학 교양과정(문해 특화) 공모 사업, K-MOOC 문해교육 프로그램 연계 지원, 문해 역량 강화(프로그램, 교수법, 학습법 등) 대학생 공모전 등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미디어문해, 디지털문해, 금융문해 분야의 연계 지원도 가능하다. 한국언론재단, 한국지능정보사회

진흥원, 한국금융감독원, 은행 등과 연계하여 '읽기' 중심의 미디어문해, 디지털문해, 금융문해 프로그램 공동 운영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VI-4] 대외 연계형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표 VI-8> 대외 연계형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 내용

영역	연계 기관 및 단체	지원 내용
평생교육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시도평생교육진흥원, 평생학습도시, 지자체 등	성인 문해교육 연계 프로그램 운영 지원(중졸 이후), 시민교육 연계 문해교육, 공무원 직무연수 패키지 프로그램 제공 등
직업교육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고용정보원, 국가직무능력표준원, 직능 단체, 기업 등	전문계고 고교학점제 교과목 지원, 직업기초능력 프로그램 공동 운영, 중소기업 직업 문해교육 패키지 제공
대학교육	대학교육협의회, 전문대학교육협의회, 국립대학평생교육원협의회, 사립대학평생교육원협의회, 대학 등	대학 교양과정(문해 특화) 공모 사업, K-MOOC 문해교육 프로그램 연계 지원, 문해 역량 강화(프로그램, 교수법, 학습법 등) 대학생 공모전 등
확장 영역	한국언론재단,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금융감독원, 은행 등	'읽기' 중심의 미디어문해, 디지털문해, 금융문해 프로그램 공동 운영 등

2.2.4. 문해교육 전문성 강화 지원 사업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성공적 운영 조건 중의 하나는 교강사의 전문성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립국어원은 문해력 향상을 위한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노력과 함께 문해교육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문해교육 전문성 강화 지원 사업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문해 교강사의 전문성 향상과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둘째, 문해교육 전문성 향상을 위한 문해 교수활동을 지원한다. 셋째, 문해교육 전문가 자격증 과정을 운영, 지원한다.



[그림 VI-5] 문해교육 전문성 강화 사업 영역

이와 같은 목표에 따라 국립국어원의 문해교육 전문성 강화 지원 사업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사업으로 운영될 수 있다. 첫째, 문해교육 전문가의 풀을 구축하는 일이다. 국어문화원을 포함해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들이 우수하고 전문적인 문해교육 교강사를 확보하는 일은 중요할 것이다. 따라서 국립국어원은 문해교육 수준, 영역, 대상별 문해교육 전문가 풀을 구축하여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관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어문화원뿐만 아니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시도교육청, 대학 등 문해교육 전문가가 활동하고 있는 기관과의 정보 연계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문해 교강사 양성과 직무 연수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문해교육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하여 국어문화원 중심의 지원 사업과 대외 연계형 지원 사업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전문 문해 교강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따라서 국립국어원은 문해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

사업과 함께 문해 교강사 양성과 기존의 문해 교강사 직무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문해 교강사 직무 연수는 국어문화원 중심의 문해교육 프로그램 참여 교강사뿐만 아니라 현재 평생교육 차원에서 각 기관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문해 교강사를 대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문해 교강사 양성과 직무 연수의 내용은 앞서 연수 과정 개발에 대한 방안에서 제시한 것처럼 핵심 문해 기능 영역을 중심으로 하되 학습자 이해, 교수법, 상담법 등 일반적인 문해 교강사 직무 관련 내용과 문해교육 이론이나 정책 등 문해 교강사 직무 소양 관련 내용을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문해 교강사 양성과 직무 연수는 강의실 수업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향후 개발할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하여 면대면-비대면 수업의 혼합형 수업으로도 가능할 것이다. 또한 패키지 프로그램 형태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연수 과정을 운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 문해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문해 교수활동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 이 사업은 문해 교강사의 교수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수업 상담과 컨설팅, 현장 수업 연구 지원, 수업 활동 워크숍, 교강사 연구회 지원 등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문해교육 활성화 사업과 연계하여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관에 문해 교수활동 지원단(자문단)을 파견하는 방식을 도입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문해교육 전문가 자격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이는 문해교육 전문가 자격화가 이루어질 경우 필요한 방안이다. 문해교육 전문가(문해 코치, 문해교육사 등) 관련 법적 근거 마련이 된다면, 법령에 근거한 문해교육 전문가 과정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평생교육법」에서는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담당할 수 있는 문해교원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는데 문해교원의 양성과 연수를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시도평생교육진흥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읽기 역량을 기반으로 한 문해교육 전문가 자격이 제도화될 경우 국립국어원은 문해교육 전문가 양성의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국립국어원은 국어문화원과 연계한 문해교육 전문가 자격증 과정 체제를 구축하고 관련 과정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추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문해교원 자격과 시도교육청의 기초 학습 보장 정책과 연계한, 파견-전문교사 공동 육성 및 연수 자격 인증 호환 등의 방안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표 VI-9> 문해교육 전문성 강화 지원 사업

구분	내용
문해교육 전문가 풀 구축	문해교육 수준, 영역, 대상별 전문가 풀 구축.
문해 교강사 양성과 직무 연수	국어문화원 전문 교강사 양성과 직무 연수 지원, 성인 문해교원 양성과 직무 연수 지원, 기타 타 부처와 타 기관 문해교육 담당 교강사 직무 연수 제공 (온라인 콘텐츠나 패키지 프로그램 연계)
문해 교수활동 지원	수업 상담과 컨설팅, 현장 수업 연구 지원, 수업 활동 워크숍, 교강사 연구회 지원 등 문해 교강사들의 문해 교수활동 지원. 문해 교수활동 지원단(자문단) 운영. 문해교육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시행.
문해교육 전문가 자격 과정 운영	문해교육 전문가(문해 코치, 문해교육사 등) 관련 법적 근거 마련 법령에 근거한 문해교육 전문가 과정 운영 (예: 2, 3급 대학이나 국어문화원 중심 운영, 1급 국립국어원 운영) 교육청의 기초 학습 보장 정책과 연계하여, 파견-전문교사 공동 육성 및 연수 자격 인증 호환

2.3. 영역 3 : 문해력 진단 체제 구축과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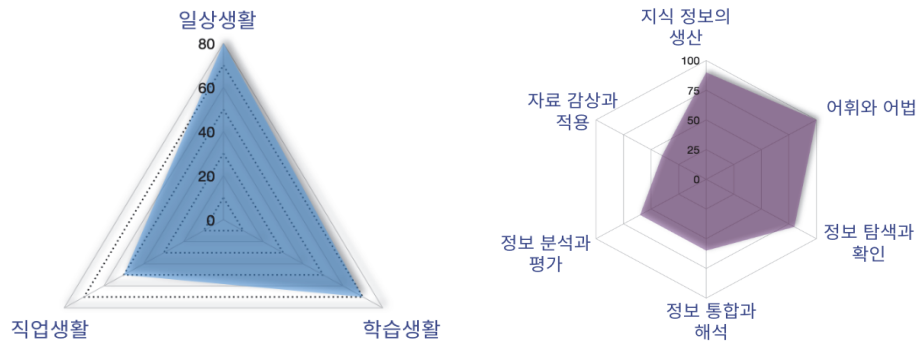
문해교육 체제 구축을 위한 우선 과제로서 영역 3은 문해력 진단 체제 구축과 운영으로 한다. 세부적으로, 문해력 진단 도구 개발, 문해력 진단 체제의 구축과 운영 등 두 가지 방안을 제안하였다.

2.3.1. 문해력 진단 도구 개발

문해력 진단 도구는 국민의 문해력 수준을 진단하여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목적에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문해력 진단 도구 개발은 다음과 같은 정책 목표를 갖는다. 첫째, 문해력 진단 도구 개발을 위해서 읽기 중심의 문해력 진단 도구의 기본 틀(문해 영역, 수준, 판정 논리 등)을 설계한다. 둘째, 읽기 중심의 문해력 진단 도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문항을 개발한다. 셋째, 읽기 중심의 문해력 진단 결과 보고 양식 틀을 설계한다.

문해력 진단 도구 틀의 설계는 첫째, 별도의 연구 개발을 통하여 문해 영역, 진단 수준, 진단의 판정 논리 설계로 이루어질 수 있다.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 각각의 요소들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먼저 문해 영역은 본 연구에서 제안한 문해 맥락, 문해 기능, 텍스트 양식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즉, 일상생활, 학습생활, 직업생활 등의 문해 맥락, 어휘와 어법의 활용, 정보의 탐색과 확인, 정보의 통합과 해석, 자료의 분석과 평가, 자료의 감상과 적용, 지식과 정보의 생산 등의 문해 기능, 산문, 문서, 혼합, 복

합 등 텍스트 양식의 문해 영역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문해력 진단 수준을 설정하는 일도 중요하다. 기초 수준의 문해력 진단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성인 문해능력 조사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국립국어원의 문해력 진단 도구는 중급과 고급 이상의 수준 판정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단일 기준의 선형적인 진단보다는 문해 영역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다면적이고 입체적으로 진단 수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림 VI-6] 다면적 문해 진단 결과 예시

문해 수준이 정해진다면, 문해 수준을 판정할 수 있는 논리의 개발도 필요하다. 문해력 진단을 위한 판정 논리는 응답자의 배경 변인, 진단 목적, 문해력 수준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다. 진단의 경제성과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SQC모델, 즉 더 간단하고(simpler), 더 빠르고(Quicker), 더 경제적인(cheaper) 판정 기법(Wanger, 2008)의 도입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문해력 진단을 위한 문항 개발이 필요하다. 문해력 진단 도구의 틀에 따라 문항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진단 문해 영역별 진단 타당도 등을 검토하여 개발 문항 수를 정할 수 있다. 또한 국민 문해력 진단 도구의 문항은 주기적으로 갱신하여 새로운 생활상을 반영한 문항의 지속적인 신규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문해력 진단 결과 보고 양식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문해력 진단 도구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문해력 진단 결과 보고를 체계적으로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문해 맥락별, 기능별, 텍스트 양식별 판정 결과와 함께 결과의 의미 설명문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 또한 수강이 필요한 국립국어원의 문해교육 프로그램이나 권장 콘텐츠를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표 VI-10> 문해력 진단 도구의 설계

구분	내용
진단 도구 틀 설계	<p>문해 영역, 진단 수준, 진단의 판정 논리 설계 (별도의 연구 필요)</p> <p>문해 영역 : 문해 맥락, 문해 기능, 텍스트 양식을 고려한 문해 영역 설계</p> <p>진단 수준 : 기초 이하(PIAAC 1, 2 수준)보다는 중고급 이상 수준 판정 (PIAAC 3, 4, 5 수준). 다만 판정 방식 도입 (예: 맥락별, 기능별, 텍스트 양식별 판정).</p> <p>판정 논리 : 응답자의 배경 변인, 진단 목적, 문해력 수준에 따라 판정 논리 다양화</p> <p>SQC모델 적용 : 진단의 경제성과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빠르고(Quick), 간단하고(Simple), 경제적인(Cheap) 진단 도구 설계</p>
진단 문항 개발	<p>진단 도구 틀에 따라 문항 개발</p> <p>진단 문해 영역별 진단 타당도 등을 검토하여 개발 문항 수 설정</p> <p>주기적인 기존 문항을 갱신. 새로운 생활상을 반영한 문항의 지속적인 신규 개발 필요</p>
진단 결과 보고 양식 설계	<p>문해 진단 결과 보고 양식 설계</p> <p>맥락별, 기능별, 텍스트 양식별 판정 결과와 결과의 의미 제시</p> <p>수강이 필요한 국립국어원의 문해교육 프로그램이나 권장 콘텐츠 제시</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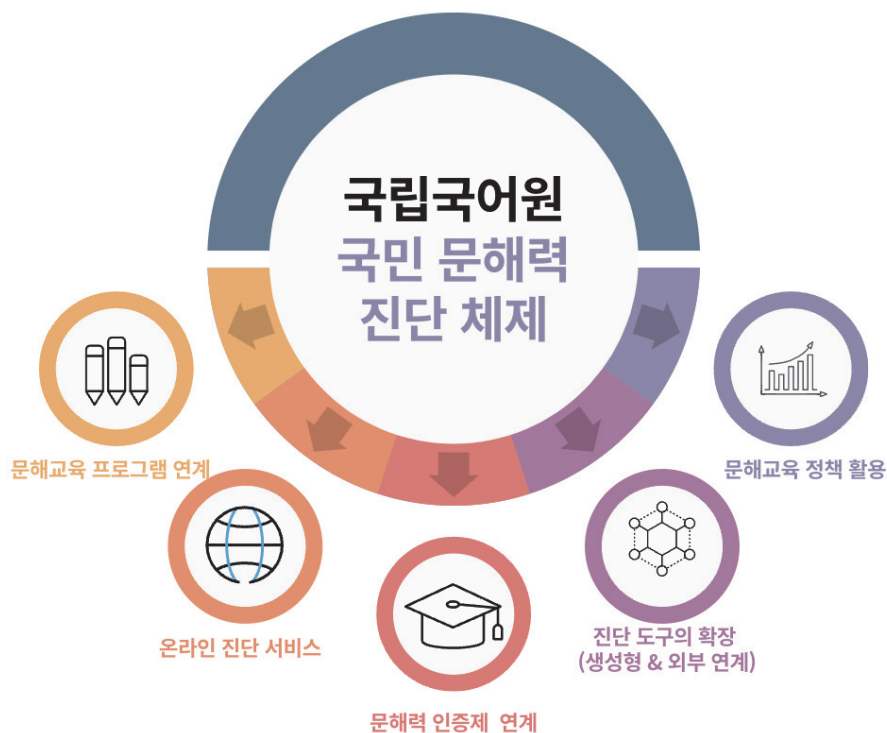
2.3.2. 문해력 진단 체제의 구축과 운영 방향

문해력 진단 도구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방적이고 유연한 문해력 진단 체제를 구축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 문해력 진단 체제 구축과 운영은 다음과 같은 정책 목표를 갖는다. 첫째, 국립국어원 문해교육 체제와 연계한 대국민 문해력 진단 체제를 구축한다. 국립국어원의 문해교육 프로그램과 온라인 콘텐츠, 교재와 관련 서비스 등과 연계한 진단 체제 구축을 통해 활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둘째, 문해력 진단 도구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국민이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쉽게 접근하고 다양한 목적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이다.

먼저 문해력 진단 체제 구축에 관하여 살펴보면, 문해력 진단 도구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온-오프라인 문해교육 진단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문해력 진단 도구는 집필 조사 도구와 온라인 조사로 구분할 수 있다. 집필 조사 도구는 검사지 형태의 도구로서 국립국어원이 직접 개발하고 보급하여 조사의 실시, 결과의 분석, 결과의 보고 등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온라인 조사 도구는 개방형 조사로 학습자나 교수자 누구나 접근하여 진단 검사를 할 수 있는 온라인 진단 체제 구축하여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온라인 조사 도구는 국립국어원에서 구축할 온라인 플랫폼에 직접 접속하

여 활용할 수 있는 웹 기반 도구 또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컴퓨터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앱 형태의 도구로 개발하여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문해력 진단 체제는 다양한 방면에서 활용할 수 있다. 첫째, 국립국어원이 제공하고 지원하는 문해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학습자는 자신에게 맞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선택할 때 진단 도구로써 활용할 수 있다. 문해교사는 자신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습자들의 수준을 평가하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 둘째, 앞서 살펴보았듯이 문해력 진단 도구는 웹 기반 온라인 진단 프로그램이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용 앱을 활용한 온라인 진단 서비스로 활용할 수 있다. 국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문해력 진단 도구를 개발하여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문해력 인증제를 도입할 경우, 국민의 문해력 수준을 진단하고 인증해 주는 시스템으로서 문해력 진단 체제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문해력 진단 체제를 통하여 국민의 문해력 데이터를 지속해서 축적하여 인공지능 기반 진단 도구 개발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문해력 진단 체제 통해 국민의 문해력 수준과 문해력 추이 등의 데이터를 축적하여 문해교육 정책 성과 검증과 관련 정책 기획을 위한 실증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VI-7] 국민 문해력 진단 체제의 활용

<표 VI-11> 문해력 진단 체제 구축과 활용

구분	내용
문해력 진단 체제의 구축	문해력 진단 도구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온-오프라인 문해교육 진단 체제를 구축 집필 조사 도구 : 검사지 형태의 조사 도구 개발. 조사 실시, 결과 분석, 결과 보고의 문해력 진단 체제 운영 온라인 조사 도구 : 개방형 조사로 학습자나 교수자 누구나 접근하여 진단 검사를 할 수 있는 온라인 진단 체제 구축하여 운영 (국립국어원 문해교육 플랫폼에 탑재, 별도의 앱 개발 운영 등)
문해력 진단 도구의 활용	국립국어원이 제공하고 지원하는 문해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진단 도구로 활용 웹 기반 온라인 진단 프로그램 &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용 앱을 활용한 온라인 진단 서비스로 활용 문해력 인증제를 도입하여 문해력 진단 체제와 연계 운영 진단 데이터를 활용한 AI 기반 진단 도구 개발 문해교육 정책 성과 검증과 관련 정책 기획을 위한 실증 자료로 활용

3. 단계별 추진 과제

국민 문해력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진단 체제 구축을 골자로 하는 국립국어원의 문해교육 사업은 순차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업 추진 단계를 기반 구축 단계(2024년~2025년), 확산 단계(2026년~2028년), 고도화 단계(2029년~2030년)로 정하고, 앞서 제시한 우선 추진 과제의 단계별 추진 일정을 제시하였다.

단계별로 보면 기반 구축 단계(2024년~2025년)에서는 국립국어원 중심의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단계로 주요 문해교육 프로그램 및 진단 도구의 개발과 국어문화원을 중심으로 한 문해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그리고 전문가 양성과정 운영에 집중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영역 1인 ‘문해교육 프로그램 개발’ 영역에서는 문해교육 프로그램 및 문해교육 전문가 과정의 개발에 집중한다. 이 두 가지 프로그램은 향후 국립국어원의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기반이 될 것이다. 영역 2인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지원’에서는 2024년 개발한 주제형, 패키지형 문해교육 프로그램과 문해교육 전문가 양성과정을 기반으로 하여 2025년부터 국어문화원 연계 국민 문해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과 문해교육 전문성 강화 사업을 실시한다. 영역 3인 ‘문해교육 진단 체제 구축과 운영’ 영역에서는 문해력 진단 도구를 개발한다.

확산 단계(2026년~2028년)에서는 국립국어원의 문해교육 지원을 활성화하고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첫 번째 영역인 ‘문해교육 프로그램 개발’ 영역에서는 기반 구축 단계에서 개발한 문해교육 프로그램과 문해교육 양성과정을 토대로 한 교재 및 온라인 콘텐츠 개발을 한다. 두 번째 영역인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지원’ 영역에서는 국어문화원 연계 국민 문해교육 활성화 사업과 문해교육 전문성 강화 사업을 지속하여 운영하는 한편 국민 문해교육 플랫폼을 구축하여 운영을 시작한다. 세 번째 영역인 ‘문해력 진단 체제 구축과 운영’ 영역에서는 기반 구축 단계에서 개발한 문해력 진단 도구의 활용을 위해 국민 문해교육 플랫폼에 탑재 운영하는 등 문해력 진단 체제 구축을 시작한다.

고도화 단계(2029년~2030년)에서는 국립국어원의 문해교육 지원 체제 고도화를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첫 번째 영역인 ‘문해교육 프로그램 개발’ 영역에서는 주제형, 패키지형 문해교육 프로그램, 문해교육 도서, 문해교육 온라인 콘텐츠 개발, 문해교육 전문가 양성과정, 문해력 진단 도구 등 기존에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진단 도구 등을 점검하고 시대적 상황과 국민 요구도를 반영하여 고도화한다. 또한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범위를 확대하여 평생교육, 직업교육, 대학교육 연계형 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한다.

<표 VI-12> 단계별 추진 과제

주요 영역	우선 실행 과제	기반 구축 단계		확산 단계			고도화 단계	
		‘24	‘25	‘26	‘27	‘28	‘29	‘30
영역 1 : 문해교육 프로그램 개발	주제형, 패키지형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	○				○	○
	문해교육 도서 개발			○	○			○
	문해교육 온라인 콘텐츠 개발			○	○			○
	문해교육 전문가 양성과정 개발	○	○				○	○
영역 2 :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지원	국민 문해교육 플랫폼 구축과 운영			○			○	
	국어문화원 연계 국민 문해교육 활성화 사업		○	○	○	○	○	○
	대외 연계형 프로그램 운영 지원						○	○
	문해교육 전문성 강화 사업		○	○	○	○	○	○
영역 3 : 문해력 진단 체제 구축과 운영	문해력 진단 도구의 개발		○				○	
	문해력 진단 체제의 구축과 운영			○	○	○	○	○



참고 문헌



참고 문헌

- 교육부(2022).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 교육부(2023). 2023년 성인 문해교육 지원 사업 공고, 교육부 공고 제2023-28호.
- 교육부(2023. 6. 8.).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로 1:1 맞춤 교육시대 연다, 교육부 보도자료.
-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4). 2014 성인 문해능력조사,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국립국어원(2008). 국민의 기초문해력 조사, 국립국어원.
- 국립국어원·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민병곤)(2018). 2018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조사, 국립국어원.
- 국어문화원연합회(2023). 2022 국어문화원 지원 사업 자료집, 국어문화원연합회.
- 길혜지, 허준, 노일경, 변호승(2019). 성인 문해교육 학습자 정보문해능력 측정 도구 개발 및 조사 연구,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김명숙, 어재영, 이성엽(2017). 국내 성인 문해 연구동향 분석 -학술지 게재 논문을 중심으로-, **평생교육학연구**, 23(2), 89-114.
- 김상환(1999). 디지털 혁명은 존재론적 혁명이다, **철학과현실**, 40, 181-206.
- 김아미(2021). 미디어 시대의 리터러시. 여주 세종 문화재단(편)(2021). **한글, 문해력, 민주주의**, 가가날, 115-124.
- 김창원 외(2015). 2015 개정 교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 연구 I·II -국어과교육과정,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연구보고 CRC 2015-14 /2015-25-3).
- 김혜정(2015). 문식성 발달 이론과 국어교육 내용 관련 문식성 유형 검토, **국어교육연구**, 36, 463-493.
- 김혜정(2021). 읽기 교육내용의 비판과 실천적 재구성, **국어교육**, 17, 1-33.
- 박철우, 정동렬, 오춘식(2019). NCS직업기초능력 최신화 방안, 한국산업인력공단.
- 변종임, 이경아, 허준(2012). *Development process and outcomes of adult literacy education in Korea*. KEDI, 기획재정부.
- 서현숙 (2021). 독서 동아리, 따뜻하고 느린 리터러시 학습의 장. 여주 세종 문화재단 (편)(2021). **한글, 문해력, 민주주의**, 가가날, 268-286.
- 손준종(2000). 정보사회의 문해 이해: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평생교육학연구**, 6(1), 213-23.
- 오혁진, 허준(2011). 1950년대 '전국문맹퇴치교육'의 사회교육사적 의미, **평생교육학연구**, 17(4), 265-291.
- 이지혜, 채재은(2023). 성인문학습자, 학이시습.

- 이희수(2023). **문해교육과 평생교육**, 학이시습.
- 이희수, 박현정, 이세정(2001). **한국 성인의 문해 실태에 관한 OECD 국제 비교 조사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이희수, 이지혜, 안도희, 변종임, 박상옥, 이현석(2002). **한국 성인의 문해 실태조사**, 한국교육개발원.
- 임언, 서유정, 권희경, 류기락, 최동선, 최수정, 김안국(2013). **한국인의 역량, 학습과 일: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 보고서**(연구서 2013-8-1),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천경록, 김혜정, 류보라(2022). **독서교육론 개정판**, 역락.
- 최운실, 백은순(1989). **한국인의 문해 실태조사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최운실, 백은순(1990). **한국의 문해 실태와 문해교육**, 한국교육개발원.
- 최제만(1959). 문맹퇴치 교육에 관하여, **문교월보**, 49, 52-58.
- 한국산업인력공단(n.d.). **직업기초능력 가이드북: 학습 내용 확인하기**, 한국산업인력공단.
- 한국일보(2022.8.27.). **심심한 사과가 부른 문해력 논란: 문해력이 문제일까?**
- 허준(2008). 학습사회론에 비추어 본 문해교육 법제화의 의미, **평생교육연구**, 14(3), 57-81.
- 허준(2021). 제3차 성인 문해능력조사 결과 및 향후 과제, 성인의 문해능력 증진을 위한 활성화 정책 포럼(2021. 12. 15), 조해진, 강득구, 도종환 의원실.
- 허준(2023). **성인 문해와 문해능력조사**, 학이시습.
- 허준, 김지현, 이정은(2022). **2022 대구광역시 문해교육기관 실태조사 연구**, 대구평생교육진흥원,
- 허준, 노일경(2011). 학습자 수준에서의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의 성과, **평생교육학연구**, 17(3), 25-46.
- 허준, 양은아(2015). 성인 문해교육 시스템화기 문해학습과정의 특성: 울산광역시 사례를 중심으로, **평생학습사회**, 11(3), 111-143.
- 허준, 이경민, 이진희(2016). 성인 문해교육 연구의 담론 지형, **평생교육학연구**, 22(4), 1-26.
- 허준, 이지혜, 길혜지, 김지현(2023). **성인 문해능력 조사 측정 도구 개선 및 제4차 성인 문해능력 조사 예비조사**,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Acil Allen Consulting (2015). *AMEP & SEE programme alignment report*, Department of Education and Training.
- Barton, D., & Hamilton, M.(1998). *Local literacies: reading and writing in one community*, Routledge.

- Beder, H., Lipnevich, A., & Robinson-Geller, P.(2007), A typology of adult literacy instructional approaches, *Adult Basic Education and Literacy Journal*, 1(2), 63-72.
- Council of Europe (2020). *Common european framework of reference for languages: learning, teaching, assessment - companion volume*, Council of Europe Publishing.
- Department of Employment and Workplace Relations (2023). *SEE eligibility criteria*, Author.
- Department of Home Affairs (2023). *Adult Migrant English Program (AMEP)*, Author.
- Edwards R., Ranson, S., & Strain, M.(2002). Reflexivity: towards a theory of lifelong learning, *International Journal of Lifelong Education*, 21(6), 525-536.
- Freire, P. & Horton, M.(1990). *We make the road by walking: conversations on education and social change*, Temple University Press
- Freire, P. & Macedo, D. (2006). 파울로 프레이리의 문해교육[*Literacy: Reading the word and the world*](허준 역), 학이시습(원전은 1987년에 출판).
- Freire, P.(2005). *Pedagogy of the oppressed: 30th anniversary edition*. Continuum.
- Freire, P.(2022). 자유를 위한 문화행동[*Cultural action for freedom*](허준 역), 영남대학교출판부(원전은 1970년에 출판).
- Frisch, A., Camerini, L., Diviani, N. and Schulz, P. 2011. Defining and measuring health literacy: how can we profit from other literacy domains? *Health Promotion International*, 27(1), 117-25.
- Handsfield, R.(2020). 문해, 믿음과 편견 그리고 실천[*Literacy theory as practice: connection theory and instruction in K-12 classroom*](정옥년, 허준 역), 학이시습(원전은 2016년에 출판).
- ISLPR (2019). *Summary of the ISLPR scale*, Author.
<https://islpr.org/why-use-islpr/summary-of-islpr>
- Jarvis, P.(2005). *International dictionary of adult and continuing education*, Taylor & Francis e-Library.
- Jarvis, P.(2009). *The international handbook of lifelong learning*, Routledge.
- Lawshe, C. H.(1975). A quantitative approach to content validity, *Personnel*

Psychology, 28, 563-575.

Lesgold, A. M. & Welch-Ross, M. (eds.)(2018). **효과적인 성인 문해교육을 위한 교수방법: 현장 사례와 적용**[*Improving adult literacy instruction: option for practice and research*](정옥년, 허준, 이지혜 역), 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원전은 2012년에 출판).

McLean, P., Perkins, K., Tout, D., Brewer, K., & Wyse, L. (2012). *Australian core skills framework*, Department of Industry and Science.

Masny, D. & Cole, D.R.(2012). *Mapping multiple literacies : an introduction to Deleuzian literacy studies*, Bloomsbury.

Mills, K. A.(2015). *Literacy theories for the digital age: social, critical, multimodal, spatial, material and sensory lenses*, Multilingual Matters.

National Assessment Governing Board in U.S. Department of Education(2004). *2026 NAEP Reading Framework for the 2026 NATIONAL ASSESSMENT OF EDUCATIONAL PROGRESS-The final version after Board approval*, Author.

National Assessment Governing Board in U.S. Department of Education(2016).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2019 NAEP reading assessment & proposed 2026 NAEP reading framework*, Author.

National Assessment Governing Board in U.S. Department of Education(2021),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2019 NAEP Reading Assessment & Proposed 2026 NAEP Reading Framework*, Press Release(보도자료), Author.

Nutbeam, D. (2000) Health literacy as a public healthgoal: a challenge for contemporary health education andcommunication strategies into the 21st century, *HealthPromotion International*, 15, 259-267.

OECD(2013). *Draft reading literacy framework*, OECD Publishing.

OECD(2016). *The survey of adult skills: reader's companion, second edition*, OECD Publishing.

OECD(2019). *Adults' proficiency in key information-processing skills*, OECD Publishing.

OECD(2019). *PISA 2018 Assessment and Analytical Framework*, PISA, OECD Publishing.

- Perin, D.(2020). Conceptual framework and overview of the handbook. In Perin, D.(ed.), *The Wiley handbook of adult literacy*, Wiley-Blackwell, 1-14.
- QCA(1998). *Education for Citizenship and the Teaching of Democracy in Schools: Final Report of the Advisory Group on Citizenship*, Qualifications and Curriculum Authority(QCA).
- Reder, S.(2010). *Adult literacy development and economic growth*, National Institute for Literacy.
- Ruddell, R. B.(2001). *Teaching children to read and write: Becoming an effective literacy teacher*(3rd ed.), Allyn & Bacon.
- Standing Council on Tertiary Education, Skills and Employment [SCOTese] (2012). *National foundation skills strategy for adults*, Author.
- Street, B.(2003). What's "new" in New Literacy Studies?: critical approaches to literacy in theory and practice. *Current Issues in Comparative Education*, 5(2), 77-91.
- The Department of Further and Higher Education, Research, Innovation and Science(2021). *Adult literacy for life - A new 10 year strategy for adult literacy, numeracy and digital literacy*, National Adult Literacy Agency.
- UNESCO(2013). *Global report on adult learning and education: rethinking literacy*, Author.
- UNESCO(2023). *CHATGPT and artificial intelligence in higher education*, Author.
- U.S. Department of Education, Office of Career, Technical and Adult Education (2016). *Adult English Language Proficiency Standards for Adult Education*, American Institute for Research.
- World Economic Forum(2015). *New vision for education: Unlocking the potential of technology*, World Economic Forum.

<참고 누리집>

교육학용어사전 <https://terms.naver.com/list.naver?cid=42126&categoryId=42126>

국가문해교육센터 <https://www.le.or.kr/index.do>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국가직무능력표준 <https://www.ncs.go.kr>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늘배움 <https://www.lifelongedu.go.kr>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niletv>
 국립국어원 <https://www.korean.go.kr/>
 국립국어원 국어문화학교 <https://edu.korean.go.kr/kires/index.html>
 미국 공통핵심성취(CCSS) 기준
https://corestandards.org/wp-content/uploads/2023/09/ELA_Standards
 런 위드 날라(Learn with NALA) <https://www.learnwithnala.ie>
 성인 문해교육 e-학습터 <https://www.le.or.kr/edu/main.do>
 영국 정부 유학 정책 <https://www.gov.uk/student-visa/knowledge-of-english>
 유럽평의회 CEFR <https://www.coe.int/en>
 전문대학기초학습지원센터 <https://www.cblc.kr/web/main/layout.do>
 캠브리지 영어평가 척도
<https://www.cambridgeenglish.org/exams-and-tests/cambridge-english-scale>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main/main.do>
 한국고용정보원 HRD-Net <https://www.hrd.go.kr>
 한국고용정보원 사이버진로교육센터 <https://www.work.go.kr/cyberedu>
 한국직업능력연구원 <https://www.krivet.re.kr>
 한국표준협회 KSAEDU <https://www.oksa.or.kr>
 AEFLA <https://aefla.ed.gov/laws-guidance>
 EBS 당신의 문해력 <https://literacy.ebs.co.kr/yourliteracy/index>
 EBS 성인 문해력 테스트 <https://literacy.ebs.co.kr>
 K-MOOC <http://www.kmooc.kr>
 KOCW <http://http://www.kocw.net>
 LINCS <https://lincs.ed.gov>
 OECD PIAAC <https://www.oecd.org/skills/piaac>
 WIOA <https://www.dol.gov/agencies/eta/wioa>



부록



국민 문해교육 체제 개념도 구성을 위한 전문가 의견 조사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는 국립국어원의 수탁과제로 『국민의 문해력 진단 및 프로그램 개발 기초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국민의 문해력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진단 체제의 개념 구성 방안을 모색하고자 전문가 의견을 조사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조사에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사 결과는 연구의 목적으로만 활용됩니다. 감사합니다.

2023.10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

과제 책임자 허준 (영남대학교 교수)

연구조원 이예지

국민 문해교육 체제 개념도 구성을 위한 전문가 의견 조사

1. 조사 배경

- 국립국어원의 국어문화학교와 EBS의 문해교육 콘텐츠에서 높은 수준의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지만,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문해교육 관련 사업들은 중학 미만의 저학력 인구를 중심으로 하고 있음.
- 현대사회에서 요구하는 문해 수준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어 기초문해뿐만 아니라 고급문해(advanced literacy)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또한 고등교육이 보편화되면서 고등교육 수준의 문해력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Lesgold & Welch-Ross, 2012).
- 문해교육의 생애 요구를 고려하면, 문해교육은 기초문해에서 고급문해까지 포괄할 필요가 있으며 수준별, 세대별로 확대될 필요가 있음.
- 국립국어원의 국어문화학교를 중심으로 시행할 수 있는 세대별, 직군별, 수준별 교육 프로그램과 문해력 평가와 진단 도구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를 수행하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기초문해, 생활문해 영역 등과 연계한 전생애적, 생애주기 맞춤형 문해학습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안 탐색을 목표로 함.
-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의 성인 문해교육 정책의 포괄하지 못한 중등 학력 이상의 높은 수준의 문해력 향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로 진행되고 있음.

2. 국민 문해교육 체제의 개념적 구성요소

- 본 연구에서는 ‘국민의 문해력 향상을 위한 문해력 진단 및 문해교육 프로그램’ 체제를 국민 문해교육 체제로 보고 이의 개념적 구성요소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아래 <표>에서 제시하는 요소들이 국립국어원이 구축하는 국민 문해교육 체제를 설명하는 데 얼마나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5점 기준으로 평가해 주십시오.

* 타당도 점수: (1점) 전혀 타당하지 않다 ~ (5점) 매우 타당하다

항목	구성요소 및 설명		타당도 점수	
			점수 (1~5점 사이)	3점 이하로 평가하셨다면 그 이유를 간단히 작성해 주십시오.
1. 방향	1-1. 확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통적인 읽기 영역을 포함하여, 문해 활동이 이루어지는 생활 영역과 문서 양식에 있어서 확장된 읽기 영역을 주제로 한다. 생활 영역은 개인의 일상생활과 학습생활, 그리고 직업생활을 포함하며, 문해 양식은 산문 양식, 문서 양식, 혼합 양식, 복합 양식 등을 포괄한다. 		
	1-2. 연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을 위한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주체는 국립국어원과 국어문화원을 중심으로 하되, 주제와 대상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파트너십 구축을 전제로 한다. 예를 들어 직업교육 영역은 산업인력관리공단과 평생교육 영역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과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1-3. 전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확장형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교원양성체제까지 포괄하여 설계한다. 이때 국어문화원의 박사급 전문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성인 문해교원, 한국어강사 등의 전문성 향상과 활용 계획을 포함한다. 		
	1-4. 맞춤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애 단계별 학습자의 요구를 고려한다. 의무교육 이후의 청소년, 성인들의 문해력 향상 요구에 부합하고, 각 집단의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체계를 설계한다. 		
	※ 위에서 문해교육 방향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요소와 내용이 있다고 생각되시면 자유롭게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맥락	2-1. 개인생활 맥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생활 영역은 개인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영역으로, 일상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휘와 어법의 활용, 정보의 탐색과 확인, 정보의 통합과 해석, 정보의 분석과 평가 등의 읽기 활동이 이루어지는 영역이다. 개인생활은 생활의 장면에 따라 여가생활, 공공생활, 미디어생활, 경제생활 등으로 구성된다. 확장된 문해실천으로서 미디어문해, 디지털문해, 건강문해, 금융문해 등과도 연결된다. 		
	2-2. ‘학습생활’ 맥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습생활 영역은 학교나 평생교육 영역에서 요구되는 학습역량의 바탕이 되는 어휘와 어법의 활용, 정보의 탐색과 확인, 정보의 통합과 해석, 정보의 분석과 평가 등의 읽기 활동이 이루어지는 영역이다. 학습생활이 이루어지는 맥락으로서 핵심공간은 생애 단계에 따라 전문계고, 전문대, 대학, 평생교육기관 등 다양하게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전문가의 문해교육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학습생활’의 맥락에 포함한다. 		
	2-3. ‘직업생활’ 맥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업생활 영역은 직업준비, 직무수행, 경로 전환 등 직업교육 영역에서 요구되는 어휘와 어법의 활용, 정보의 탐색과 확인, 정보의 통합과 해석, 정보의 분석과 평가 등의 읽기 활동이 이루어지는 영역이다. 직업생활에서 이루어지는 문해교육의 목적에 따라 직업생활 맥락은 일터를 중심으로 형성된다. 		
	※위에서 제시한 문해교육 맥락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요소와 내용이 있다고 생각되시면 자유롭게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목표	3-1. 문화인으로서 교양 있는 삶의 영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인으로서 교양 있는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어휘와 어법, 정보의 탐색과 확인, 정보의 통합과 해석, 정보의 분석과 평가 등의 문해력을 갖춘다. 		
	3-2. 생활인으로서 일상의 문제 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의 일상의 문제를 원활히 해결하고 소통하는 시민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실용적인 어휘와 어법, 정보의 탐색과 확인, 정보의 통합과 해석, 정보의 분석과 평가 등의 문해력을 갖춘다. 		
	3-3. 직업인으로서 기초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능한 직업인으로서 직업준비, 직무수행, 경로 전환 등 기본적인 직업역량을 발휘하는 데 필요한 어휘와 어법, 정보의 탐색과 확인, 정보의 통합과 해석, 정보의 분석과 평가 등의 문해력을 갖춘다. 		
	3-4. 평생학습자로서 학습 능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주체적인 학습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어휘와 어법, 정보의 탐색과 확인, 정보의 통합과 해석, 정보의 분석과 평가 등의 문해력을 갖춘다. 		
	※위에서 제시한 문해교육 목표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요소와 내용이 있다고 생각되시면 자유롭게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문해 기능	4-1. 어휘와 어 법 이해	맥락에 따라 필요한 다양하고 풍부한 어휘 이해 및 습득, 정확한 어휘와 어법의 활용, (소통을 위한) 적절한 어휘와 어법의 활용을 구성		
	4-2. 정보의 탐 색과 확인	핵심어 또는 화제 파악, 중심 내용 및 세부 내용의 구분, 정보의 요약, 논지 및 전개 구조 파악		
	4-3. 정보의 통 합과 해석	숨겨진 주장, 주제, 생략된 정보의 추론, 함축적 의미의 해석, 필자의 의도, 글 또는 자료의 관점, 글 또는 자료에 전제된 사회문화적 배경 추론		
	4-4. 자료의 분 석과 평가	내용이나 주장의 타당성 평가, 자료 또는 출처의 신뢰성 평가, 필자 관점의 공정성 평가, 표현 및 어휘 사용의 적절성과 효과 평가		
	4-5. 자료의 감 상과 적용	글 또는 자료의 감상과 공감, 즐거움과 깨달음의 내면화와 성찰, 지식과 정보를 삶의 문제에 적용		
	4-6. 지식과 정 보의 생산	쓰기 목적과 과제 맥락을 고려한 정보의 재구성과 창의적 생산		
	※위에서 제시한 문해 기능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요소와 내용이 있다고 생각되시면 자유롭게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문해 텍스트 양식	5-1. 산문 (prose) 텍스트	서사, 논증, 기술 등으로 목적으로 작성된 일반적인 산문 텍스트.		
	5-2. 문서 (documents) 텍스트	일상, 직장, 공공기관 등 다양한 생활 영역에서 표, 목록, 그래프 등을 활용하여 작성한 문서 텍스트		
	5-3. 혼합 텍 스트	산문, 인터넷 자료 등 단일 텍스트가 아닌 정보 통합적 구성이 요구되는 다문서 텍스트		
	5-4. 복합양식 (multimodal) 텍스트	문자, 음성, 시각이미지, 동영상 등 다양한 언어와 기호가 통합적으로 결합되어 의미를 구성하는 텍스트		
	※위에서 제시한 문해 텍스트 양식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요소와 내용이 있다고 생각되시면 자유롭게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6. 문해학습자 유형	6-1. 청소년 학습자	16세 이상 24세 미만의 청소년 학습자. • 개인생활 - 교양인으로서 읽기, 시민적 소통 등 • 학습생활 - 고등학교, 대안학교, 대학 등에서의 학습 역량 • 직업생활 - 기초직업역량 등 직업 준비 관련 문해력		
	6-2. 청장년 학습자	25세 이상 44세 미만의 청장년 학습자. • 개인생활 - 교양인으로서 읽기, 시민적 소통, 금융문해 등 • 학습생활 - 대학, 평생교육에서의 학습 역량 • 직업생활 - 직무수행, 직업전환 관련 문해력		
	6-3. 중년학습자	45세 이상 65세 미만의 중년 학습자 • 개인생활 - 교양인으로서 읽기, 시민적 소통, 미디어 & 디지털문해 등 • 학습생활 - 평생교육에서의 학습 역량 • 직업생활 - 직무수행, 직업전환 관련 문해력		
	6-4. 노년학습자	65세 이상의 노년 학습자 • 개인생활 - 시민적 소통, 미디어 & 디지털문해, 건강문해 등 • 학습생활 - 평생교육에서의 학습 역량 • 직업생활 - 노인 경제활동과 관련한 신 직업기초역량 등		
	※위에서 제시한 문해 학습자 구분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요소와 내용이 있다고 생각된다면 자유롭게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의 <표>에서 제시한 구성요소 외에 더 추가하거나 수정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생각된다면 자유롭게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국민 문해교육 체제 개념 정의(안)

○ 이장에서 제시한 개념적 구성요소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국립국어원이 구축할 ‘국민의 문해교육 체제’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습니다.

16세 이상 청소년과 성인들이 개인생활, 학습생활, 직업생활 등 삶의 영역에서 맥락에 맞는 적절한 어휘와 어법을 구사하고, 글과 자료, 다양한 복합양식의 텍스트를 통해 정보의 탐색과 확인, 통합과 해석, 분석과 평가, 감상과 적용, 그리고 재구성
과 생산을 할 수 있는 문해력을 향상시키 위해 체계화된 교육 프로그램과 진단 체
제

1) 해당 정의가 어느 정도 적절하다고 판단하시는지 5점 기준(1점:매우 부적절~5점:매우 적절)으로 평가해 주십시오. (점)

1)-1. (3점 이하로 평가하신 경우) 해당 정의가 어떤 부분에서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세요.

1)-2. (4점 이상으로 평가하신 경우) 위의 정의에 수정, 보완(추가, 삭제 등)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생각되시면, 그 의견을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4. 국립국어원의 ‘국민 문해교육 프로그램’ 주제 아이디어

- 이 상에서 제시한 개념적 구성요소에 근거하여 국민의 문해교육 프로그램 주제 아이디어를 제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청소년, 청장년, 중년, 노인 학습자 등 학습자를 고려하여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세요.

맥락	목표	주제
개인생활	문화인으로서 교양 있는 삶의 영위	예) 고전으로 배우는 추론과 비판, 은유로된 글의 이해와 비평
	생활인으로서 일상의 문제 해결	예) 청년을 위한 공공문서 활용하기, 노인을 위한 유튜브 분석과 비평
직업생활	직업인으로서 기초역량 강화	예) 직장인을 위한 슬기로운 국어생활, 근로계약서로 읽는 법조문 읽기
학습생활	평생학습자로서 학습 능력 강화	예) 특성화고 학생을 위한 사회적 언어와 의사소통, 성인 학습자를 위한 고등학교 국어

○ 이외에 문해교육 프로그램 아이디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에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기획·연구>

국립국어원 박미영 학예연구사

<연구 참여자>

연구책임자 허 준(영남대학교)

공동연구원 이지혜(한림대학교)

김혜정(경북대학교)

길혜지(충북대학교)

김지현(서울시50플러스재단)

연구보조원 이예지(영남대학교)

발행인: 국립국어원장

발행처: 국립국어원

서울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

전화 02-2669-9775, 전송 02-2669-9727

인쇄일: 2023 년 12 월 1일

발행일: 2023 년 12 월 1일

인 쇄: 대구프린팅

※ 이 보고서는 국립국어원의 용역비로 수행한 ‘국민의 문해력 진단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기초 연구’ 사업의 결과물을 발간한 것입니다.